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를 고취시키고,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아동권리 보장을 기조로 하는 중장기 아동정책 수립 및 시행과 지역별 아동정책 영향평가 실시, 아동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뿐 아니라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아동권리를 위한 정책과 활동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굿네이버스는 대한민국 아동권리 수준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2016년부터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권리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환경 및 권리경험, 발달결과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는 동시에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여 전반적인 아동권리보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1차, 2018년 제2차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실시하였고, 제3차 연구는 팬데믹으로 연구 시점 및 기간이 조정, 연장되면서 2021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3차 아동권리지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수준을 학년별, 지역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1~3차년도 연구결과도 함께 비교하여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동권리지수로 통해 본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수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다가 3차 실태조사에서는 미세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는데, 아동의 삶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제약을 받았던 팬데믹 시기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감소하지 않은 점 자체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의 격차는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권리 영역별로 봤을 때 참여권 보장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보호권은 증가하였지만 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권리지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역사회 위생 및 공동체 의식 수준, 학교 풍토 및 분위기 수준 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3차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해 주신 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님, 우리단체 아동권리연구소의 임선영 연구원을 비롯한 아동권리연구소 직원들, 그리고 전문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김동일 교수님과 한윤선 교수님, 한국교통대학교 김선숙 교수님, 연세대학교 송인한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전종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전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 주신 아동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및 여건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뿐 아니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책무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차원의 아동친화적 정책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Contents



I. 서론



II. 조사설계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부록

1. 아동권리지표 개요	22	1. 조사대상자 현황	48	1. 조사대상자 특성	224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248	참고문헌	260
2. 조사항목 출처 및 문항수	30	2. 아동권리 지표 분석 결과	50	2. 아동권리지표 변화 추이	225	2. 정책 제언	253	부록	263
3. 조사과정	38	3.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	194	3.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232				
4. 가중치 적용	44	4. 아동권리지수와 관련 요인	203						
		5. 아동권리 Focus Issue 분석	206						

표 목차

[표 II-1]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가정)	24	[표 III-3] 아동권리지표 세부분석 항목	50
[표 II-2]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학교)	24	[표 III-4]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196
[표 II-3]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지역사회 및 국가)	25	[표 III-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201
[표 II-4]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생존권)	26	[표 III-6]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03
[표 II-5]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발달권)	27	[표 III-7]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04
[표 II-6]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보호권)	28	[표 III-8]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204
[표 II-7]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참여권)	29	[표 III-9] 아동권리지수와 발달결과 간 상관관계	205
[표 II-8] 발달결과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29	[표 III-10]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07
[표 II-9]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보장환경)	31	[표 III-1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평가 (아동, 부모)	209
[표 II-10]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경험)	32	[표 III-1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	211
[표 II-11]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발달결과)	35	[표 III-13] 아동의 결식경험과 다중주택문제	219
[표 II-12] 부모(보호자)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36	[표 III-14]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22
[표 II-13] 조사개요	38	[표 IV-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224
[표 II-14]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39	[표 IV-2]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233
[표 II-15] 지역별 학교표본 수	40	[표 IV-3]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2018, 2021)	234
[표 II-16] 자료 수집 결과	41	[표 IV-4]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1
[표 II-17] 초등 4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2	[표 IV-5]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2
[표 II-18] 초등 6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3	[표 IV-6]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3
[표 II-19] 중등 2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44	[표 IV-7]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244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8	[표 IV-8]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245
[표 III-2] 부모(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9		

그림 목차

[그림 II-1]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	23	[그림 III-20] 동네의 안전	71
[그림 II-2] 표본추출과정	39	[그림 III-21] 우리나라의 안전	72
[그림 III-1] 주거 쾌적성	52	[그림 III-22] 물리적 무질서	73
[그림 III-2] 다중주택문제	53	[그림 III-23] 사회적 무질서	75
[그림 III-3] 교육지원 부족	54	[그림 III-24] 이웃과의 교류	77
[그림 III-4] 여가지원 부족	55	[그림 III-25] 병원 이용 편의성	78
[그림 III-5] 사회관계지원 부족	56	[그림 III-26] 도서관 이용 편의성	79
[그림 III-6] 의생활 결핍	57	[그림 III-27] 놀이터 이용 편의성	80
[그림 III-7] 정보접근성 부족	58	[그림 III-28] 공원 이용 편의성	81
[그림 III-8] 휴대폰 미보유	59	[그림 III-29]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82
[그림 III-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60	[그림 III-30] 아동학대 목격 경험	83
[그림 III-10] 경제적 만족도	61	[그림 III-31] 아동학대 신고 인식_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84
[그림 III-1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62	[그림 III-32] 아동학대 신고 인식_학대감소 효과 기대	85
[그림 III-12] 부모의 양육 효능감	63	[그림 III-33]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86
[그림 III-13] 등·하교 편의성	64	[그림 III-34]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87
[그림 III-14] 학교시설 쾌적성	65	[그림 III-35]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88
[그림 III-15]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66	[그림 III-36] 정서학대 인식	89
[그림 III-16]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67	[그림 III-37] 방임 인식	90
[그림 III-17]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68	[그림 III-38]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91
[그림 III-18] 가정의 안전	69	[그림 III-39] 체벌인식_체벌의 필요성	92
[그림 III-19] 학교의 안전	70	[그림 III-40] 체벌인식_체벌경험	93

그림 목차

[그림 III-4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95	[그림 III-62] 격렬한 신체활동	118	[그림 III-83]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39	[그림 III-104] 정책 활동 참여	160
[그림 III-42] 아동권리 인식	97	[그림 III-63] 수면시간 부족	119	[그림 III-84]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	140	[그림 III-105] 교류 활동 참여	161
[그림 III-43]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98	[그림 III-64] 건강검진	120	[그림 III-85] 나홀로 아동	141	[그림 III-106] 아동권리교육 참여	162
[그림 III-44]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99	[그림 III-65] 치과검진	121	[그림 III-86]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142	[그림 III-107]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63
[그림 III-45]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100	[그림 III-66] 예방접종	122	[그림 III-87] 가정 내 체벌 경험	143	[그림 III-108] 입원 경험	164
[그림 III-46]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101	[그림 III-67] 병원 및 약국 이용	123	[그림 III-88] 학교 내 체벌 경험	144	[그림 III-109] 만성질환	165
[그림 III-47]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102	[그림 III-68] 학교생활 만족도	124	[그림 III-89] 지역사회(학원, 동네) 내 체벌 경험	145	[그림 III-110] 전반적인 학업성취	166
[그림 III-48]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104	[그림 III-69]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125	[그림 III-90] 학교폭력 피해 경험	146	[그림 III-111] 자아존중감	167
[그림 III-49] 식품 미보장	105	[그림 III-70] 방과 후 수업 만족도	126	[그림 III-91]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47	[그림 III-112] 우울 정서	168
[그림 III-50] 규칙적인 식사	106	[그림 III-71]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127	[그림 III-92]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148	[그림 III-113] 불안 정서	169
[그림 III-51] 신선한 채소 섭취	107	[그림 III-72]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128	[그림 III-93]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149	[그림 III-114] 슬픔 및 좌절 지속	170
[그림 III-52] 육류 섭취	108	[그림 III-73]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129	[그림 III-94]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150	[그림 III-115] 공격적 행동	171
[그림 III-53] 우유 섭취	109	[그림 III-74] 가족간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아동)	130	[그림 III-95]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151	[그림 III-116] 지위비행 경험	172
[그림 III-54]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110	[그림 III-75] 취미생활	131	[그림 III-96]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152	[그림 III-117] 폭력비행 경험	173
[그림 III-55] 아침식사 결식	111	[그림 III-76]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132	[그림 III-97]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153	[그림 III-118] 사이버비행 경험	174
[그림 III-56] 결식 경험	112	[그림 III-77]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133	[그림 III-98]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154	[그림 III-119] 스마트폰 과의존	175
[그림 III-57] 깨끗한 물 이용	113	[그림 III-78]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134	[그림 III-99] 의사결정 민주성	155	[그림 III-120] 자살 생각	176
[그림 III-58] 깨끗한 화장실 이용	114	[그림 III-79]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135	[그림 III-100] 동아리 활동 참여	156	[그림 III-121] 자살 시도 계획	177
[그림 III-59] 미세먼지 노출 정도	115	[그림 III-80]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36	[그림 III-101] 캠페인 활동 참여	157	[그림 III-122] 자살 시도	178
[그림 III-60] 간접흡연 노출 정도	116	[그림 III-81]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37	[그림 III-102] 자원봉사 활동 참여	158	[그림 III-123] 학업 스트레스	179
[그림 III-61] 가벼운 신체활동	117	[그림 III-82]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38	[그림 III-103]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159	[그림 III-124] 친구 스트레스	180

그림 목차

[그림 III-125]		[그림 III-146]		[그림 IV-1]		[그림 IV-22]	
가족 스트레스	181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08	생존권_영양 부문 지표	226	충청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9
[그림 III-126]		[그림 III-147]		[그림 IV-2]		[그림 IV-23]	
외모 스트레스	182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평가 (아동, 부모)	209	생존권_건강활동 부문 지표	226	충청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9
[그림 III-127]		[그림 III-148]		[그림 IV-3]		[그림 IV-24]	
경제적 스트레스	183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09	발달권_교육 부문 지표	227	전라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9
[그림 III-128]		[그림 III-149]		[그림 IV-4]		[그림 IV-25]	
진로성숙도	184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212	발달권_여가 부문 지표	228	전라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9
[그림 III-129]		[그림 III-150]		[그림 IV-5]		[그림 IV-26]	
현재 행복감 (아동, 부모)	186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212	발달권_관계 부문 지표	228	경상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40
[그림 III-130]		[그림 III-151]		[그림 IV-6]		[그림 IV-27]	
시민의식	187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213	보호권_학대 부문 지표	229	경상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40
[그림 III-131]		[그림 III-152]		[그림 IV-7]		[그림 IV-28]	
공동체 의식	188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213	보호권_학교폭력 부문 지표	230	제주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40
[그림 III-132]		[그림 III-153]		[그림 IV-8]		[그림 IV-29]	
계층간 불평등	189	가정 인프라 실태	214	보호권_사이버폭력 부문 지표	230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1
[그림 III-133]		[그림 III-154]		[그림 IV-9]		[그림 IV-30]	
계층간 이동가능성	190	학년별 가정 인프라 실태	214	참여권_존중 부문 지표	231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2
[그림 III-134]		[그림 III-155]		[그림 IV-10]		[그림 IV-31]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191	불평등 인식	215	참여권_참여활동 부문 지표	231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243
[그림 III-135]		[그림 III-156]		[그림 IV-11]		[그림 IV-32]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192	불평등 대우 인식 및 도움필요 정도	216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233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244
[그림 III-136]		[그림 III-157]		[그림 IV-12]		[그림 IV-33]	
도움이 필요한 정도	193	결식경험과 발달결과 (사회정서)	216	서울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5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245
[그림 III-137]		[그림 III-158]		[그림 IV-13]			
아동권리지수 변화 흐름	195	결식경험과 발달결과 (인지, 행복, 가치관)	217	부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5		
[그림 III-138]		[그림 III-159]		[그림 IV-14]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수준	197	결식경험과 불평등 인식	217	대구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6		
[그림 III-139]		[그림 III-160]		[그림 IV-15]			
지역별 생존권 지수 수준	198	다중주택문제와 발달결과 (사회정서)	218	인천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6		
[그림 III-140]		[그림 III-161]		[그림 IV-16]			
지역별 발달권 지수 수준	198	다중주택문제와 발달결과 (인지, 행복, 가치관)	218	광주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7		
[그림 III-141]		[그림 III-162]		[그림 IV-17]			
지역별 보호권 지수 수준	200	다중주택문제와 불평등 인식	218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7		
[그림 III-142]		[그림 III-163]		[그림 IV-18]			
지역별 참여권 지수 수준	200	결식과 다중주택문제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사회정서)	220	울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7		
[그림 III-143]		[그림 III-164]		[그림 IV-19]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현황 (상대지수)	201	결식과 다중주택문제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사회정서, 행복)	220	세종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237		
[그림 III-144]		[그림 III-165]		[그림 IV-20]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202	아동학대 경험 보고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22	경기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8		
[그림 III-145]				[그림 IV-21]			
학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07			강원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238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 서론

1. 서론

인권(Human Rights)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로서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권 자체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가지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흑인, 노예, 노동자 등은 긴 시간 소외되고 차별받았다. 근대에 들어 독립혁명이나 시민혁명을 통해 비로소 기본권으로서 인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으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대상과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광범위한 인권, 권리에 대한 논의 가운데 아동의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1922년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올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았다. 당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젊은이라는 용어와 구별되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방정환재단 홈페이지).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줄 것과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문으로 불리며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근간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아동관련 인권법으로 1989년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전까지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미성숙한 존재, 또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보편적이었다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입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법 제정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세부조항과 원칙에 부합해야 하는 등 가입국은 해당 협약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2021년 1월 기준 196개의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약 30년 전인 1991년에 본 협약에 가입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학교폭력이나 입양 등과 관련된 법률도 마련되었다. 2015년에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아동 분야를 포괄한 중장기 정책이 마련되었고, 2019년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의 기본권을 한층 구체화하고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문을 연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옹호 역사와 함께 하는데, 1996년 민간단체 최초로 아동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하였다. 당시, 아동학대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홍보, 학대아동의 발견, 치료 등 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아동보호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개정에도 기여하였다. 2000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신고가 의무화되는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때 정부는 굿네이버스의 아동학대상담센터를 운영 모델로 하여 광역 시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이봉주 외, 2015).

100년 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할 것과 아동이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공표하고, 이후 국제 조약 가입과 수많은 아동 관련 법률 및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이것만으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권리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반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들 가운데, 어떤 요소는 감소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거나 다양해지기도 한다.

최근,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이 큰 이슈는 팬데믹일 것이다. 조기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기간 이어졌으며,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경우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홍관표, 2021), 팬데믹 기간 내내 학습권 제한과

아동간 교육 격차, 돌봄 공백, 결식이나 영양 부족,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나 놀 권리 등이 제한되어 아동의 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얼마 전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가 강화된 반면, 사회적으로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폭력과 차별, 불평등 이슈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4차 혁명으로 인해 메타버스 등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 온라인 그루밍 등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이슈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 또한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동의 권리 실태와 양상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실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굿네이버스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18년, 2021년에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차에 걸쳐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여 실제 아동권리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지표들에서 아동의 권리경험 각각을 가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4대 영역으로 범주화된 아동권리 영역을 좀 더 통합적,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지표를 단일 지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개별 지표들은 조사 시점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기도 하고,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들간에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봉주·신원영, 2017).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 영역(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수를 산출하고, 다시 4대 권리 지수를 종합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해서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인 권리보장 수준을 제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수준을 지표를 넘어 지수를 통해 살펴본 최초의 연구인 동시에, 일회로 끝나지 않고 아동권리 수준을 일정한 간격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아동권리 전반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제시하고 있다.

셋째, 아동의 권리 경험을 환경적, 발달적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의 권리 경험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과학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개선/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여지는 실태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체계나 환경 등)들과 그러한 어려움과 현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또 다른 결과들까지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경험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체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아동의 권리 경험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상황이나 현상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상황과 현상을 개선하고 결과를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경험 뿐만 아니라 권리보장 환경과 그 결과로서 아동의 발달까지 포함하여 지표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경험을 전반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측면에서 아동권리수준의 격차를 확인하고 실증 데이터를 통해 격차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한민국 아동권리 수준 전반이 향상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이 연령, 성, 가족형태,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아동이 보장받는 권리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권리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실태조사는 아동권리 수준이 낮은 지역을 개선하여 전체적인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17개 시도의 아동권리 수준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의 3차 시점에 걸친 아동권리 수준의 변화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지역별 아동권리 수준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다섯째, 아동권리 옹호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 지표뿐만 아니라, 4대 권리 영역 실태와 변화 추이, 그리고 지역별, 학년별 격차 등 아동권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권리 수준이 확연히 낮아지며, 아침을 굶는 아동은 여전히 많고, 민법상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가정 내 체벌은 여전히 높으며, 이중/중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이 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야기해 준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서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아동권리지수 연구는 현재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차수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와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시기별로 주목받는 아동권리 이슈를 새롭게 반영해나가고 있다. 또한, 동년배 집단 간 비교, 부모(보호자)-아동 간 매칭 문항을 통한 세대간 인식 비교를 확대해나가고, 아동권리 수준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지표체계를 보완해나가고 있다.

이번 3차 아동권리 실태조사는 팬데믹 기간 한 가운데서 진행되었다. 아동의 권리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제한되었으며, 광범위한 영향을 받았다. 물론, 3차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표들의 수치 가운데 팬데믹의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렵지만, 팬데믹 시기의 아동의 권리 경험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I.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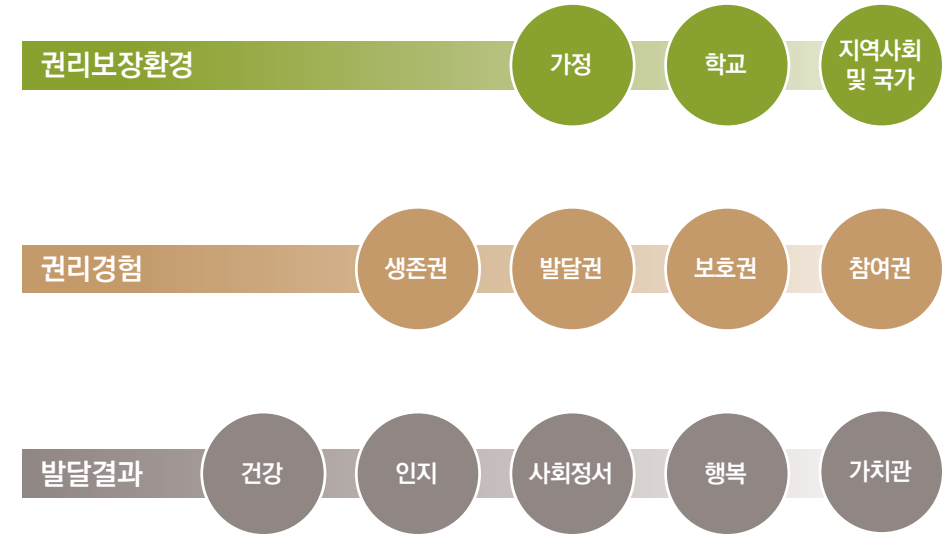


II. 조사설계

1. 아동권리지표 개요

본 아동권리지표는 2016년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 영역이나 권리 수준을 측정하는데 타당하고 신뢰로우며, 이해하기 쉬운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더불어, 아동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4대 권리 영역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단순히 아동의 권리 경험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의 결과로서 아동의 발달 영역까지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경험을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발달맥락주의에 기반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이봉주·신원영, 2017). 따라서, 아동권리지표는 권리보장환경과 권리경험, 그리고 발달결과 이렇게 세 가지 체계로 구성하였다.

지표체계 가운데 권리보장환경은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으로 정의되는데,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라고 할 수 있다(이봉주·신원영, 2017). 권리경험은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활동 또는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영역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지표체계에서도 아동의 권리경험을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이봉주·신원영, 2017). 마지막으로, 발달결과는 ‘환경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발달적 산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의 발달 영역을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건강, 인지, 사회정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이봉주·신원영, 2017).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같이 아동기에 달성해야 하는 과업은 well-becoming의 관점에 기반하는 면이 있는데, well-becoming과 함께 well-being의 관점이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 가치관 등의 영역도 아동권리지표에 포함하였다(이봉주·신원영, 2017; 이봉주 외, 2018).



[그림 II-1]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

1) 권리보장 환경 영역

권리보장 환경 영역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및 국가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가정 관련 요소와 요소별 세부 지표는 [표 II-1]과 같다.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을 보다 세 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차 조사에서 일부 지표는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먼저, 가정 환경 영역은 주거시설, 가정 인프라, 부모의 심리정서 요소로 세분화되는데, 주거시설 관련해서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따라 주거 쾌적성 외에 다중주택문제, 위생, 과밀집 관련 문항이 3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가정 인프라는 교육, 여가, 사회관계, 의생활, 정보접근성 등 아동이 기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요소의 부족과 결핍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모두 3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부모(보호자)의 심리정서 관련 문항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만족도, 양육스트레스 문항은 2차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관계적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지표는 기존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에 자녀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식사 빈도 문항은 3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표 II-1]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가정)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주거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안전성 주거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안전성 주거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쾌적성 다중주택문제 위생 과밀집
가정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지원부족 여가 지원부족 사회관계 지원부족 의생활 결핍 정보접근성 부족 휴대폰 미보유
부모 (보호자)의 심리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자녀와의 대화시간 가족과의 식사 횟수

(*)표시된 문항은 수정된 지표임.

권리보장 환경 영역 가운데 학교 영역은 학교시설과 학교풍토 요소로 구성되는데, 지표 대부분이 3차 조사에서도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유일하게 학교풍토 요소에 성적비차별 지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표 II-2]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학교)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학교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편의성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편의성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하교 편의성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학교 풍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의견 존중 분위기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 내 비차별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의견 존중 분위기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내 의견 존중 분위기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성적비차별

권리보장 환경 영역 중 지역사회 및 국가 영역에서도 일부 지표가 수정, 삭제 및 추가되었다. 3차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은 안전 요소 중 범죄 안전, 교통사고 안전, 식품 안전 지표와 집합적 효능감 지표이며, 무질서(물리적, 사회적) 지표는 새로운 문항으로 수정되

었다. 3차 조사에서 추가된 문항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접근성 및 양성평등, 신뢰 및 유대 요소가 추가되었다.

[표 II-3] 권리보장 환경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및 변경 내용 (지역사회 및 국가)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편의시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접근성 공공시설 접근성 놀이시설 접근성
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성평등정도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안전 교통사고 안전 식품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 안전 교통사고 안전 식품 안전 가정의 안전 학교의 안전 동네의 안전 우리나라의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의 안전 학교의 안전 동네의 안전 우리나라의 안전
무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
신뢰/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 및 유대
집합적 효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적 효능감 	
이웃유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과의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웃과의 교류
시설 및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이용 편의성 도서관 이용 편의성 놀이터 이용 편의성 공원 이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이용 편의성 도서관 이용 편의성 놀이터 이용 편의성 공원 이용 편의성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이용 편의성 도서관 이용 편의성 놀이터 이용 편의성 공원 이용 편의성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아동학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 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 신고후 조치에 대한 신뢰 - 학대감소 효과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방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 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 신고후 조치에 대한 신뢰 - 학대감소 효과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방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 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 신고후 조치에 대한 신뢰 - 학대감소 효과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정서학대 인식 방임 인식 아동학대 목격 경험 아동학대 신고 여부 체벌인식_체벌 효과 체벌인식_체벌 필요성 체벌경험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아동권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아동권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존중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 학교 - 동네 - 우리나라 - 사이버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존중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 학교 - 동네 - 우리나라 - 사이버 공간
	아동권리 보장수준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

(*)표시된 문항은 수정된 지표임.

2) 권리경험 영역

권리경험 영역은 4대 권리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생존권 영역에는 영양, 위생 및 공기, 건강활동, 의료 요소가 포함되며, 요소별 세부지표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양 요소에서는 2차 조사에서 활용한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영양 지원, 배달음식 섭취, 경제적 사유로 인한 결식 경험 지표를 추가하였다. 위생 및 공기, 건강활동, 의료 요소에 해당하는 지표는 2차에서 조사된 문항을 3차에서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표 II-4]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생존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미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미보장 아침식사 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미보장 아침식사 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 식품 섭취 신선한 채소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신선한 채소 섭취 육류 섭취 우유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신선한 채소 섭취 육류 섭취 우유 섭취 영양 지원 배달음식 섭취 결식 경험(경제적 사유)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위생 및 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미세먼지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미세먼지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
건강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진 격렬한 신체활동 가벼운 신체활동 수면 시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렬한 신체활동 가벼운 신체활동 수면 시간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렬한 신체활동 가벼운 신체활동 수면 시간의 부족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과검진 건강검진 병원 및 약국이용 예방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과검진 건강검진 병원 및 약국이용 예방접종

발달권에는 교육, 놀이 및 여가, 관계 요소가 해당하며, 2차 조사에 포함된 모든 지표가 삭제나 수정, 추가 없이 3차 조사에서도 그대로 조사되었다.

[표 II-5]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발달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방과 후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방과 후 수업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부모교육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및 휴식 시간의 부족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및 휴식 시간의 부족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정도 취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 및 휴식 시간의 부족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정도 취미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보호권은 학대, 폭력, 차별 요소가 포함되며, 2차에서 조사된 지표의 수정, 보완이나 삭제없이 모든 문항이 3차에서도 그대로 조사되었다.

[표 II-6]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보호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학대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정서학대 경험	• 정서학대 경험	• 정서학대 경험
	• 방임 경험	• 방임 경험	• 방임 경험
	• 나홀로 아동	• 나홀로 아동	• 나홀로 아동
	• 성학대 경험	• 성학대 경험	• 성학대 경험
		• 가정 내 체벌 경험	• 가정 내 체벌 경험
	• 학교내 체벌 경험	• 학교 내 체벌 경험	• 학교 내 체벌 경험
		•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폭력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차별		•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 차별을 받은 경험_성적	• 차별을 받은 경험_성적
		•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참여권의 경우, 일부 지표가 추가되었다. 의사존중 요소에서는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외에 의사결정민주성 지표가 추가되었다. 참여활동 요소에서는 동아리, 자원봉사, 캠페인 활동 외에 정치관련 집회, 서명 및 청원활동이 추가되었다. 교육 참여 관련하여서도 2차에서 단순히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만 확인한데 반해, 3차 조사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세계시민/공동체 및 인권 교육, 양성평등 교육, 학교폭력 및 성추행/성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해당 교육에 대해 교육 경험뿐만 아니라 교육 필요정도도 별도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표 II-7] 권리경험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참여권)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의사존중	•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 의사결정민주성
참여활동	• 동아리 활동 참여	• 동아리 활동 참여	• 동아리 활동 참여
	• 캠페인 활동 참여	• 캠페인 활동 참여	• 캠페인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 정치관련 집회 참여
			• 서명 및 청원활동 참여
	• 아동권리교육 참여	• 아동권리교육 참여	• 교육받은 경험 (아동권리교육 등)
			• 교육 필요정도 (아동권리교육 등)

3) 발달결과 영역

발달결과 영역은 건강, 인지, 사회정서, 행복, 가치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요소별 세부지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 인지, 사회정서, 행복 요소에 포함되는 모든 지표는 3차에서도 2차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다만, 진로성숙도 지표의 경우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치관 요소에 해당하는 시민의식(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지표와 불평등 관련 지표는 3차에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표 II-8] 발달결과 영역의 요소, 세부지표 변경 내용

영역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건강	주관적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 입원 경험	• 만성질환 • 입원 경험	• 만성질환 • 입원 경험
인지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 국어 학업성취	• 국어 학업성취	• 국어 학업성취
		• 수학 학업성취	• 수학 학업성취	• 수학 학업성취
		• 영어 학업성취	• 영어 학업성취	• 영어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우울	• 우울 정서	• 우울 정서	• 우울 정서
	불안	• 불안 정서	• 불안 정서	• 불안 정서
	슬픔/좌절		• 슬픔 및 좌절	• 슬픔 및 좌절
	공격성	• 공격적 행동	• 공격적 행동	• 공격적 행동

영역	요소	2016년 (1차)	2018년 (2차)	2021년 (3차)
사회 정서	비행	• 지위비행 경험	• 지위비행 경험	• 지위비행 경험
		• 폭력비행 경험	• 폭력비행 경험	• 폭력비행 경험
		• 재산비행 경험	• 재산비행 경험	• 재산비행 경험
		• 성비행 경험	• 성비행 경험	• 성비행 경험
	인터넷 중독	• 인터넷 중독	• 스마트폰 과의존*	• 스마트폰 과의존*
자살	• 자살 생각	• 자살 생각	• 자살 생각	
	• 자살 시도 계획	• 자살 시도 계획	• 자살 시도 계획	
	• 자살 시도	• 자살 시도	• 자살 시도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 외모 스트레스	• 외모 스트레스	• 외모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 진로성숙도	• 진로성숙도*	
행복	행복감	• 현재 행복감	• 현재 행복감	
가치관	시민의식		• 시민의식(시민의식) • 시민의식(공동체의의식)	
	불평등 대우 정도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 계층간 불평등 - 계층간 이동가능성 -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	

(*)표시된 문항은 수정된 지표임.

2. 조사항목 출처 및 문항수

아동용 지표의 출처 및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다. 권리보장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 가운데 학교 영역의 의견존중분위기와 정보공개민주성, 그리고 생태체계 영역의 아동권리 인식 문항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의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학교시설 관련하여 등하교 편의성, 시설 쾌적성, 그리고 운동장 이용 편의성 문항은 이재연과 홍승애(2014)가 개발한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3차 조사에 새롭게 추가된 가정인프라 지표 가운데 휴대폰 보유 유무 문항과 지역사회 영역의 편의시설(대중교통, 공공시설) 접근성과 양성 평등 문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참고하였다. 가정 인프라 문항 가운데 의생활과 정보접근 문항은 EU-MODA (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s Analysis) 지표를 활용하여 필요시 다른 나라와 국제 비교가 가능하게 구성하였다. 기존 지표이나 3차 조사에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지역사회 무질서 지표는 Ross와 Mirowsky(1999), 홍승애와 이재연(2014)이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 학교영역 가운데 차별 지표와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지표 등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표 II-9]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보장환경)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가정 인프라	휴대폰 보유	SDG	1	1	
	의생활	EU-MODA	2	2	
	정보접근	EU-MODA	2	2	
학교	학교 시설	등하교 편의성	1	1	
		시설쾌적성	1	1	
		운동장이용편의성	1	1	
	학교 풍토	의견존중분위기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1	1
정보공개민주성 차별		연구자	3	3	
지역 사회	편의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공공시설)	SDG	3	3	
	양성평등	SDG	1	1	
	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Ross & Mirowsky(1999), 홍승애·이재연(2014)	10	10	
국가/사회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연구자	12	10	
생태체계	아동권리 존중	아동권리 존중 수준평가	연구자	5	5
	아동권리 인식	UNCRC 인지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1	1
		아동의 권리인식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2	2
	안전	안전 (가정, 학교, 동네, 우리나라)	연구자	4	4
총 문항수			53	51	

□ 3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권리경험 영역 중 생존권 영역에서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아동종합실태조사, 그리고 GSHS(2013)의 문항을 활용하였다. 의생활 관련하여 규칙적인 식사와 양질의 식품 섭취, 아침결식 이유 그리고 건강활동 전반에 대한 문항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와 GSHS(2013), 그리고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결식과 의료 관련 지표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섭취 이유, 위생 및

공기 관련 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발달권 영역 지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 지표와 놀이 및 여가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는 PBI, Parker와 동료들(1979),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를 참고하였다. 교사 그리고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문항을 활용하였다. 그 외 방과 후 공부시간이나 수업 만족도, 부모의 교육적 관심이나 교육적 참여 정도에 대한 문항은 연구진이 별도로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보호권 영역에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와 폭력, 체벌, 차별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었는데, 아동학대 관련 문항은 Straus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문항과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나홀로아동과 성학대 관련 지표는 아동종합실태 조사와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체벌 관련 지표는 본 연구의 연구진이 구성하였고, 차별 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문항과 연구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 외에,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경험 문항은 서미정(2006, 2008)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고, 사이버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에 대한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참여권 영역에서는 SDG 문항을 참고하여 의사결정민주성과 교육 가운데 일부 교육의 참여경험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의견존중, 참여활동,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교육 참여 문항은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였다.

[표 II-10]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권리경험)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생존권	식 생활	규칙적인 식사와 양질의 식품 섭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연구진	5	5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섭취 이유	연구진	1	1
		결식 (경제적 어려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2018)	1	1
		아침결식		1	1
		아침결식 이유	GSHS(2013)	1	1
	위생 및 공기	깨끗한 물 이용	연구진	5	5
깨끗한 화장실 이용					
미세먼지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발달권	건강 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GSHS(2013), 연구자	2	2
		가벼운 신체활동		0	2
		수면시간 (학기중)			
		수면시간 (방학중)			
	의료	수면시간부족	1	1	
		건강검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3	3
		치과검진			
		예방접종			
	병원 및 약국 이용				
	발달권	교육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자	3
방과 후 공부시간			연구진	1	1
방과 후 공부시간 부담정도				1	1
방과 후 수업경험				1	1
방과 후 수업수				1	1
방과 후 수업이유				1	1
방과 후 수업 만족도				1	1
부모의 교육적 관심				4	4
부모의 교육적 참여				4	4
놀이 및 여가		놀이 및 휴식시간 (학기중)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자	0
		놀이 및 휴식시간 (방학중)			
		놀이 및 휴식시간 충분정도	1		1
		놀이 및 휴식시간 활동	2		2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3		3
관계	취미생활	1	1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PBI, Parker et al.(1979), 송지영(1992), 연구진	5	5	
		연구진	5	5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3	3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3	3
보호권	학대	학대(신체, 정서, 방임)	Straus et al.(1998),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16	16
		나홀로 아동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2	2
	체벌	학교내 체벌 경험	연구진	1	1
		가정내 체벌 경험		1	1
		지역사회(학원/동네) 체벌 경험		1	1
	차별	차별받은 경험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진	6	6
		차별해본 경험		6	6
	폭력	학교폭력가해경험	서미정(2006, 2008)	7	7
		학교폭력피해경험		7	7
사이버폭력가해경험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사이버폭력피해경험			1	1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참여권	의견존중(가정, 학교)	연구진	7	7
	의사결정민주성	SDG	2	2
	참여활동 (동아리, 캠페인,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정책, 교류, 정치집회, 청원 및 서명운동)	연구진	8	8
	아동학대교육 참여	연구자	1	1
	아동권리교육 참여	연구자	1	1
	세계시민, 양성평등 및 인권교육 참여	SDG	2	2
	성평등교육 참여	SDG	1	1
	총 문항수		133	137

□ 3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발달결과 영역은 건강, 인지, 사회정서, 행복, 가치관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건강 영역에서는 아동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해당 문항은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인지 영역에서는 학업성취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해당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사회정서 영역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자아존중감 지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우울 지표는 Radloff(1977), 전경구와 동료들(2001)이 개발한 지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불안과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이어서, 공격성과 비행 관련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자살 관련 문항은 GSHS, 스트레스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진로성숙도 지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 아동의 현재 행복감 지표는 OECD(2013)에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관 영역에서는 시민의식,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와 대우 정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시민의식(공동체 의식 포함) 지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문항을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문항은 구정화(2011)와 김지혜(2019)의 저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표 II-11] 아동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발달결과)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건강	건강 인식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	1	1	
인지	학업성취 (전체, 국어, 영어, 수학)	연구자	1	4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8	8	
	우울	Radloff(1977), 전경구 외(2001)	7	7	
	불안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6	6	
	공격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6	6	
	비행	지위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6)	4	4
		폭력비행		0	7
		성비행		0	1
		재산비행		0	1
		사이버비행		0	4
	스마트폰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10	10	
	자살	슬픔 및 좌절 지속 (국제GSHS)	GSHS	0	1
		자살 생각 (국제GSHS)		0	1
		자살시도 계획 (국제GSHS)		0	1
		자살 시도 (국제GSHS)		0	1
스트레스(학업, 친구, 가족, 외모, 경제)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5		
진로성숙도(계획성, 의사결정성)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10	10		
행복	현재 행복감	OECD(2013)	1	1	
가치관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8)	8	8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구정화(2011)	0	6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대우(인식)	김지혜(2019)	8	8	
총 문항수		75	101		

□ 3차에서 새롭게 추가한 지표

부모(보호자)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권리 경험이나 발달 결과는 부모(보호자)보다는 아동이 본인의 경험과 발달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형태이나, 권리보장환경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 가운데 많은 수가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나 가정 인프라, 지역사회 환경과 같이 아동 입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거나, 성인이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보호자) 자신의 심리정서 상태나 학대/체벌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이 당사자가 보고해야 하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권리보장환경 영역 가운데 가정 영역에서는 주거시설, 가정인프라, 부모의 심리정서, 양육이슈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거시설과 가정 인프라 관련해서는 EU-MODA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패작성 문항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심리정서 영역 가운데 부모의 현재 행복감 지표는 OECD(2013), 양육스트레스 지표

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양육효능감 지표는 최형성과 정옥분(2001)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녀와의 대화시간이나 부모교육 참여여부/시간과 같은 지표는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양육 이슈 관련 문항 또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안전, 무질서, 신뢰와 유대, 시설 및 기관, 아동학대 인식, 학대, 체벌 인식, 공동체 관련 지표를 포함하는데, 안전 관련 문항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무질서와 신뢰/유대, 시설 및 기관 관련 문항은 Ross와 Mirowsky(1999), 홍승애와 이재연(2014)이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아동학대 인식 문항은 아동학대실태조사와 홍순옥과 이옥경(2010)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나 신고 여부 등 학대 관련 문항과 체벌 인식 문항, 그리고 공동체 관련 문항은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생태체계 영역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식과 아동권리인식 문항은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권리경험 영역에서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식품미보장 정도와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식품미보장 정도는 김기량과 김미경(2009)이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고, 여가활동 영위정도는 연구자가 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발달결과 영역에서는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만성질환 유무와 입원경험을 질문하였는데, 해당 문항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표 II-12] 부모(보호자)용 지표 출처 및 문항 구성

구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권리 보장 환경	가정	주거 시설	EU-MODA	주거패적성	3	
				다중주택문제	3	
				위생	3	
				과밀집	1	
				영양	2	
		가정 인프라		교육지원	3	
				사회관계	2	
				현재 행복감	1	
		부모 심리 정서		연구자	자녀와의 대화시간	1
					자녀와의 대화주제	2
	가족과의 식사 횟수		1			
	관계 만족도		1			
	경제적 만족도		1			

구분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
지역 사회	양육 이슈	양육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양육효능감	최형성·정옥분(2001)	9
		부모교육 참여여부 및 시간, 도움정도	연구자	6
	안전	연구자	양육 관련 이슈 중요도	10
			자녀 양육 도움제공자 및 도움정도	15
			범죄안전	1
	무질서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교통사고안전	1
			식품안전	1
			물리적 무질서	6
	신뢰/유대	Ross & Mirowsky (1999), 홍승애·이재연(2014)	사회적 무질서	6
			신뢰 및 유대	5
	시설 및 기관	홍승애·이재연(2014), 연구자	병원 이용 편의성	1
			도서관 이용 편의성	1
			놀이터 이용 편의성	1
			공원 이용 편의성	1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1
	아동 학대 인식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홍순옥·이옥경(2010)	아동의 장래 도움	1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1
			학대 감소 효과 기대	1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2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3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2
			정서학대 인식	5
	방임 인식	4		
	학대 관련	연구자	아동학대목격경험	1
			아동학대신고여부	1
			아동학대신고기관	1
			학대 미신고이유	1
	체벌 인식	연구자	체벌 효과	1
			체벌 필요성	1
			체벌 경험	1
	공동체	연구자	이웃과의 교류	6
			국가/사회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생태체계	연구자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식	1
			아동권리 인식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권리 경험	생존권	식품미보장	김기량·김미경(2009)	3
	놀이 및 여가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연구자	3
발달 결과	건강	만성질환유병률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2014)	1
		입원경험률		2
문항수				149

3차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한 지표

3. 조사과정

1) 조사개요

3차 아동권리지수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은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동과 그 부모(보호자)이다. 조사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하여 총 17개 광역시와 도이며, 조사 형태는 우편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 표본 크기는 아동과 부모(보호자) 각 9,000명(9,000쌍)이며, 학년별로 각 3,000명(아동-부모 3,000쌍)을 목표로 하였고, 표본추출은 지역별, 학급별 비례층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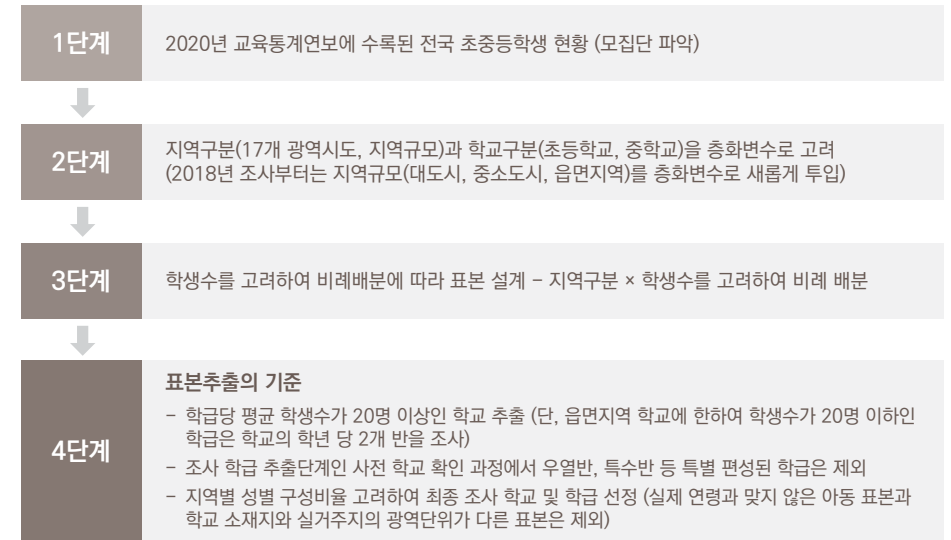
아동권리실태조사는 2016년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진행되었으며, 3차 조사는 2020년 중 실시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형태로 수업에 참여함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당초 계획 대비 1년여 지난 2021년 5월부터 본격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당해 9월까지 총 5개월에 걸쳐 자료가 수집되었다.

[표 II-13]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부모(보호자)
조사지역	17개 시도
조사방법	우편조사
목표 표본크기	학생: 9,000명 (초4, 초6, 중2 각 3,000명) 부모(보호자): 9,000명 (초4, 초6, 중2 각 3,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학급별에 따른 비례층화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2021년 5월 ~ 9월

2) 표본추출

3차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위해 먼저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현황을 참고하여 모집단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17개 광역시도와 시도별 지역규모, 그리고 학교(초등학교, 중학교)를 층화변수로 고려하고, 다시 지역의 학생수를 고려하여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원칙적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II-2] 표본추출과정

모집단에 근거하여 산출한 학교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교육통계연보(2020) 기준, 전국 초등 4학년 학생수는 456,416명, 학급은 20,647개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2.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수는 135개였으나,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조사 대상 학교수는 150개교로 설정하였다. 초등 6학년의 경우 전국 학생수는 451,955명이었으며, 학급수는 22,001개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0.5명이었다.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 수는 143개교였으나, 초등 4학년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학교를 감안하여 150개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전국에 429,212명이었으며, 학급수는 17,035개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25.2명이었다.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고려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수는 120개로 확인되었으나, 학교 규모를 감안하여 130개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II-14]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구분	전국 학생 수(명)	학급수(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명)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 수(개)	[소규모 학교 감안] 실제 조사 대상 학교 수
초 4학년	456,419	20,647	22.1	135	150
초 6학년	451,955	22,001	20.5	143	150
중 2학년	429,212	17,035	25.2	120	130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학교 수를 산출한 후 광역시도별 학생수를 고려하여 조사학교수를 비례 배분하였다. 경기도 초등학교 55개교, 중학교 4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21개교로 뒤를 이었다. 세종과 제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각 2개교가 포함되었다. 17개 전체 광역시도의 조사대상 학교수를 합산한 결과, 초등학교는 총 165개교, 중학교는 총 146개교로 확인되었다.

[표 II-15] 지역별 학교표본 수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개)	중학교 조사학교 수(개)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개)	중학교 조사학교 수(개)
서울	24	21	강원	4	4
부산	10	10	충북	4	4
대구	7	6	충남	6	5
인천	9	8	전북	6	4
광주	6	5	전남	5	3
대전	4	4	경북	6	6
울산	4	3	경남	11	12
세종	2	2	제주	2	2
경기	55	47	합계	165	146

3) 자료 수집 결과

본 조사 과정에서는 지역별로 학교 리스트를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여 명단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과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20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일반 학급 외에 우열반, 특수반 형태의 학급이 편성된 학교도 제외하였다. 단, 읍면지역의 경우 지역 내 학교가 많지 않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급 내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하일 경우 무조건 제외하기보다는 학년 당 2개 학급을 조사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학교 명단이 구성되면 명단 순서대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배정된 학교수가 채워질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별 학교에 연락을 취하여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조사는 우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동과 부모(보호자)용 설문지와 함께 답임교사를 위한 안내문,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안내문을 각각 포함하여 답임교사에게 우편발송하였다. 교사는 우편으로 받은 아동용, 부모(보호자)용 설문지 한 세트를 아동에게 배부하

고, 이후 동일 가구에서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설문지가 함께 수거되면 조사기관에 다시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보호자)를 함께 매칭하여 조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가구의 설문지와 섞이지 않도록 사전에 설문지 첫 장에 가구용 아이디를 부여하고, 가구용 봉투를 사용하여 아동용-부모(보호자)용 설문지를 함께 넣어 배포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3,101명, 6학년 3,114명, 중학교 2학년 3,468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아동 또는 부모(보호자)만 설문지를 제출하여 매칭되지 않는 설문지는 모두 제외하고 아동과 부모가 매칭되는 설문지만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 각 2,872명,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 각 2,918명, 중학교 2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 각 3,074명의 설문지가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6] 자료 수집 결과

구분	수집결과	비고
학교	초등 - 165개교 중등 - 146개교	아동-부모 매칭 샘플 확보를 위해 오버 샘플링
학생	초 4 - 3,101명 초 6 - 3,114명 중 2 - 3,468명	순수 설문지 회수 기준
자료 처리	초 4 - 2,872명 초 6 - 2,918명 중 2 - 3,074명	학생-학부모 매칭 표본

초/중학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인원내 비해 적은 수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초등 4학년의 경우, 당초 3,375명의 설문지를 회수할 계획이었으나, 3,101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아동-부모(보호자)간 매칭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72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17개 시도별로 회수된 설문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예상 학생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 지역은 당초 계획보다 적은 810명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시도 대비 비율은 27.6%보다 조금 많은 2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도 15.2%로 나타나 당초 계획했던 15.1%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전체 학생수 대비 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전체의 5.8%로 나타나 목표 대비 0.8%p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초등 4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11	15.1	437	15.2
부산	200	5.9	164	5.7
대구	155	4.6	131	4.6
인천	222	6.6	166	5.8
광주	111	3.3	93	3.2
대전	89	2.6	85	2.9
울산	89	2.6	72	2.5
세종	44	1.3	31	1.1
경기	932	27.6	810	28.2
강원	89	2.6	79	2.8
충북	111	3.3	92	3.2
충남	156	4.6	128	4.5
전북	111	3.3	103	3.6
전남	111	3.3	100	3.5
경북	156	4.6	136	4.7
경남	222	6.6	204	7.1
제주	66	2.0	43	1.5
합계	3,375	100	2,872	100

[표 II-18] 초등 6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483	15.1	454	15.6
부산	189	5.9	163	5.6
대구	147	4.6	134	4.6
인천	210	6.6	169	5.8
광주	105	3.3	94	3.2
대전	84	2.6	88	3
울산	84	2.6	72	2.5
세종	42	1.3	31	1.1
경기	882	27.6	820	28.1
강원	84	2.6	81	2.8
충북	105	3.3	92	3.1
충남	147	4.6	130	4.4
전북	105	3.3	105	3.6
전남	105	3.3	100	3.4
경북	147	4.6	138	4.7
경남	210	6.6	206	7.1
제주	63	2.0	43	1.5
합계	3,192	100	2,918	100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당초 계획은 3,19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3,114명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아동-부모(보호자)간 매칭이 되지 않거나, 내용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918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기지역의 경우 당초 88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820명의 아동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기지역 학생수 비율은 전체 학생수 대비 27.6% 수준이었으나, 타 지역 역시 참여한 학생수가 계획 대비 감소함에 따라 경기 지역의 최종 비율은 28.1%를 차지하여 오히려 권역별 비율은 계획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도 학생수는 감소하였으나 경기지역과 마찬가지로 최종 샘플의 권역 비율이 15.6%를 차지하여 계획 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수 대비 6.6%를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5.8%로 계획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 데이터 수집 결과, 당초 예상한 학생수는 3,335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3,074명의 설문지가 수집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기지역의 경우 전체 학생수 대비 27.1%의 비율을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전체의 2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또한 15.1%보다 0.7%p 많은 15.8%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제주 지역은 당초 2.2% 비율을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전체 학생수의 1.5% 수준으로 계획 대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II-19] 중등 2학년 데이터 처리 결과

(단위: 명, %)

구분	예상 학생수	예상학생 수 권역별 비율	데이터 처리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02	15.1	487	15.8
부산	201	6.0	171	5.6
대구	151	4.5	144	4.7
인천	201	6.0	177	5.8
광주	100	3.0	102	3.3
대전	100	3.0	95	3.1
울산	100	3.0	74	2.4
세종	50	1.5	30	1.0
경기	904	27.1	854	27.8
강원	75	2.2	87	2.8
충북	100	3.0	96	3.1
충남	150	4.5	135	4.4
전북	125	3.7	113	3.7
전남	100	3.0	108	3.5
경북	150	4.5	145	4.7
경남	251	7.5	212	6.9
제주	75	2.2	46	1.5
합계	3,335	100	3,074	100

4. 가중치 적용

특정 집단과 관련된 실태나 이슈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단의 구성원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집단과 가장 특성이 비슷한 대상자 즉,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조사된 집단과 모집단 간의 간극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보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였는데, 우선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서 랜덤하게 학급을 선정 후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지역별, 성별 모집단 비율에 기반하여 산출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모집단에 가깝게 보정되었으며, 가중치 작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

되었다.

우선, 표본학교에서 랜덤하게 학급을 선정 후 학생을 조사하기 때문에 표본추출률을 산출하고, 이후에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세부 층의 성별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기본가중치와 사후층화가중치를 곱하여 최종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만, 2차 조사 때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지역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읍면지역과 같이 규모가 작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수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가 설문조사를 거절하여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3차 조사에서는 특정 지역의 전체 학교(모집단)가 모두 거절한 경우에는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여 표본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다.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Ⅲ.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1. 조사대상자 현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21년 아동권리 실태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8,864명이며,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4학년 2,872명, 6학년 2,918명, 중학교 2학년 3,074명이었다. 중학교 2학년은 당초 계획했던 3,000명을 상회하였으나, 초등학교 4, 6학년은 당초 계획했던 인원을 다소 하회하였다. 참여자 중 남자는 4,290명(48.4%), 여자는 4,574명(51.6%)이었다. 지역별 참여인원은 경기 28.0%, 서울 15.5%, 경남 7.0%, 인천 5.8% 순이었다. 부모(보호자)용 설문조사의 주요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가 84.5%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가 14.7%로 뒤를 이었다. 아동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91.1%, 아버지가 6.1%였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전체		8,864	100.0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872	32.4
	초등학교 6학년	2,918	32.9
	중학교 2학년	3,074	34.7
성별	남자	4,290	48.4
	여자	4,574	51.6
지역	서울	1,377	15.5
	부산	498	5.6
	대구	409	4.6
	인천	513	5.8
	광주	289	3.3
	대전	268	3.0
	울산	217	2.4
	세종	92	1.0
	경기	2,483	28.0
	강원	246	2.8
	충북	280	3.2
	충남	393	4.4
	전북	320	3.6

구분		응답자(명)	비율(%)
	전남	307	3.5
	경북	419	4.7
	경남	622	7.0
	제주	131	1.5
	응답자 (결측치 제외)		
	어머니	7,340	84.5
	아버지	1,273	14.7
	할머니	49	0.6
	할아버지	7	0.1
	기타	17	0.2
주양육자 (결측치 제외)	어머니	7,891	91.1
	아버지	530	6.1
	할머니	208	2.4
	할아버지	13	0.1
	기타	17	0.2

2) 부모(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보호자의 연령대는 40대가 77.6%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정형태는 양부모 가정이 91.2%, 한부모 가정이 7.8%로 나타났다. 응답 가구 중 다문화 가정은 총 314명으로 전체 가구의 4.1%를 차지하였다.

[표 III-2] 부모(보호자) 및 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명)	비율(%)
보호자 연령대 (결측치 제외)	20대	14	0.2
	30대	877	10.1
	40대	6,736	77.6
	50대	1,002	11.5
	60대 이상	56	0.6
최종학력 (결측치 제외)	무학	3	0.0
	초등학교졸업	29	0.4
	중학교졸업	58	0.7
	고등학교졸업	2,059	26.2
	전문대학졸업	1,813	23.1
	대학교졸업	3,228	41.1
가정형태 (결측치 제외)	대학원 이상	674	8.6
	양부모 가정	6,778	91.2
	한부모 가정	580	7.8
	조손가정	35	0.5
다문화 가정	기타	36	0.5
	다문화 가정	314	4.1

2. 아동권리 지표 분석 결과

아동의 권리보장환경과 권리경험 그리고 발달 결과와 관련하여,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세부 분석을 실시한 주요 지표는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지표별 세부 분석은 먼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으며, 학년별 그리고 17개 시도별 권리 현황은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1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3] 아동권리지표 세부분석 항목

요소		2021년 (3차)			
권리 보장 환경	가정	주거 시설	• 주거 쾌적성	• 다중주택문제	
		가정 인프라	• 교육지원 부족	• 여가지원 부족	• 사회관계지원 부족
		부모의 심리 정서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경제적 만족도	•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학교	학교 시설	• 등학교 편의성	• 학교시설 쾌적성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학교 풍토	•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지역 사회 및 국가	안전	• 가정의 안전	• 학교의 안전	• 동네의 안전
		무질서	• 물리적 무질서	• 사회적 무질서	
		이웃유대	• 이웃과의 교류		
		시설 및 기관	• 병원 이용 편의성	• 도서관 이용 편의성	• 놀이터 이용 편의성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신고인식	•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 정서학대 인식	• 방임 인식	
아동권리 인식	• 아동학대 목격 경험	• 체벌의 효과	• 체벌의 필요성		
	• 아동학대 목격 경험	• 체벌경험			
생존권	영양	• 식품미보장	• 아침식사 결식	• 규칙적인 식사	
	위생 및 공기	•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 신선한 채소 섭취	• 육류섭취	
권리 경험	건강활동	• 깨끗한 물 이용	• 깨끗한 화장실 이용	• 미세먼지 노출	
		• 간접흡연 노출			
	의료	• 격렬한 신체활동	• 가벼운 신체활동	• 수면시간 부족	
생존권	의료	• 치과검진	• 건강검진	• 병원 및 약국이용	
		•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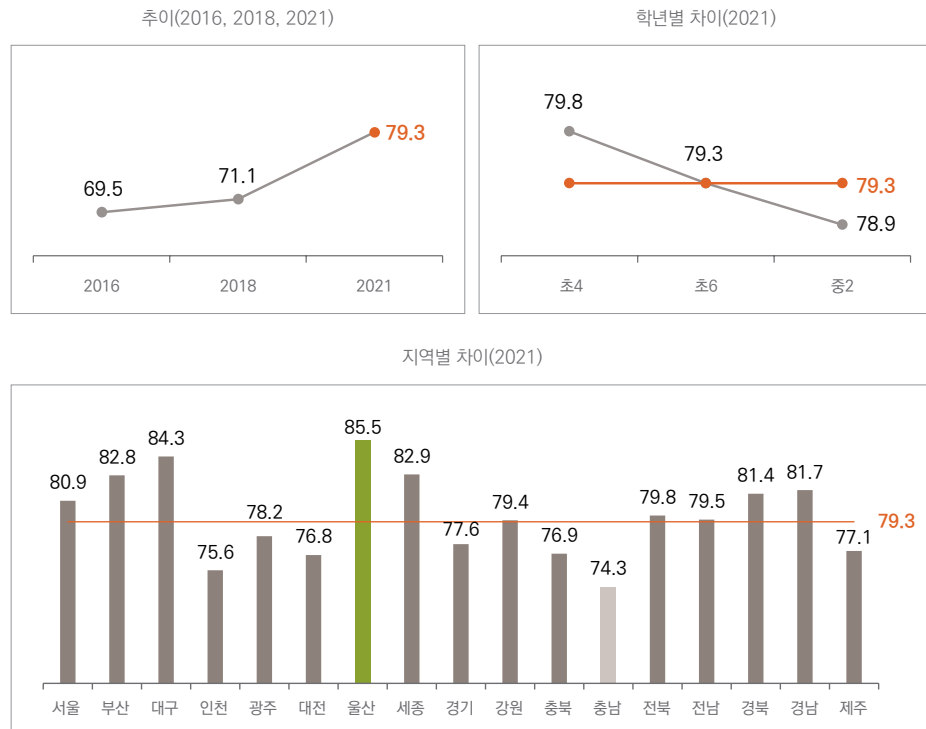
요소		2021년 (3차)			
발달권	교육	• 학교생활 만족도	•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 방과 후 수업 만족도	
	놀이/여가	• 부모의 교육적 관심	• 부모의 교육적 참여		
	관계	• 놀이/휴식시간의 부족	• 가족과 여가활동 영위	• 취미 생활	
보호권	학대	•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 부모의 과보호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폭력	•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	•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경험	• 심각한 신체학대 경험	
		• 정서학대 경험	• 나홀로 아동	• 성학대 경험	
차별	• 방임 경험	• 학교내 체벌 경험	• 지역사회내 체벌 경험		
	• 가정내 체벌 경험				
참여권	의사존중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참여활동	• 차별받은 경험_연령	• 차별받은 경험_성별	• 차별 받은 경험_지역	
		• 차별받은 경험_성적	• 차별받은 경험_가정형편	• 차별받은 경험_외모	
의사존중	• 의견존중 받아본 경험	• 의사결정민주성			
참여활동	• 동아리 활동 참여	• 캠페인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기부/후원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발달 결과	건강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 만성질환	• 입원 경험
	인지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사회 정서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우울	• 우울 정서		
		불안	• 불안 정서		
		슬픔/좌절	• 슬픔 및 좌절 지속		
		공격성	• 공격적 행동		
		비행	• 지위비행 경험	• 폭력비행 경험	• 사이버비행 경험
		인터넷 중독	• 스마트폰 과의존		
		자살	• 자살 생각	• 자살 시도 계획	• 자살 시도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 외모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진로발달	• 진로성숙도				
행복	행복감	• 현재 행복감			
가치관	시민의식	• 시민의식(시민의식)	• 시민의식(공동체의식)		
	불평등 정도	• 계층간 불평등	• 계층간 이동가능성	•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인식)			

1) 권리보장환경

(1) 가정 환경

주거 쾌적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집의 방습, 방음, 환기, 채광 등 거주하는 집의 쾌적성 (3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문항별로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쾌적성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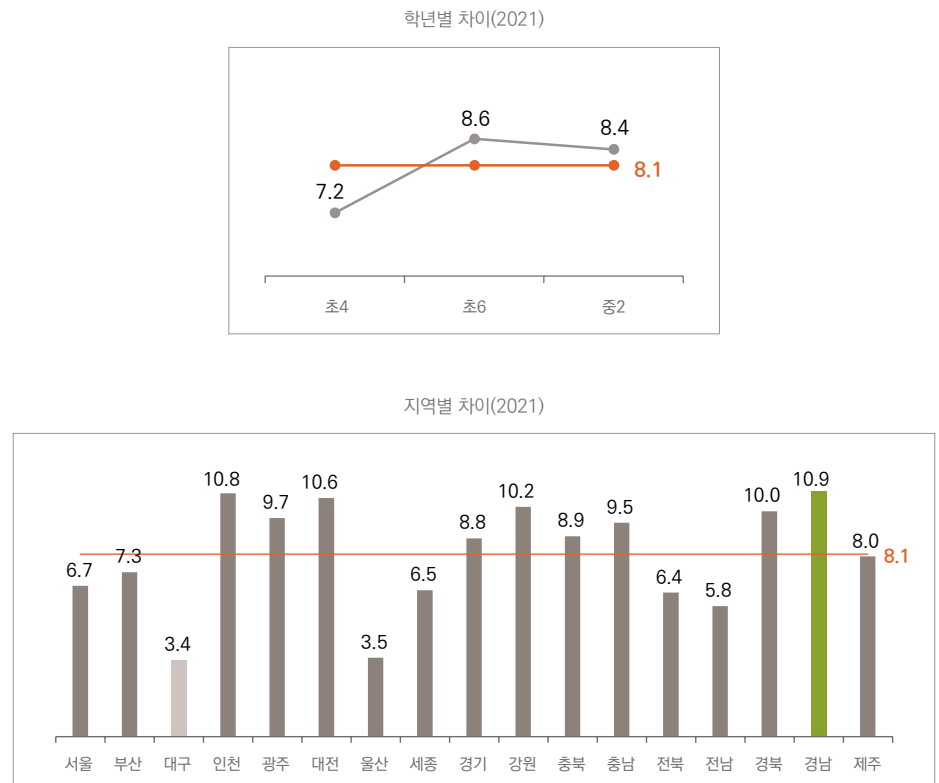


[그림 III-1] 주거 쾌적성

주거 쾌적성 지표의 전체 평균은 79.3%로 나타났다. '16년 69.5%, '18년 71.1%, '21년 79.3%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주거쾌적성 정도(초등 4학년 79.8%, 6학년 79.3%, 중등 2학년 78.9%)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85.5%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74.3%로 가장 낮았다.

다중주택문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붕이 새거나 집이 부식되는 등 주택 문제 여부 (3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문항별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다중주택문제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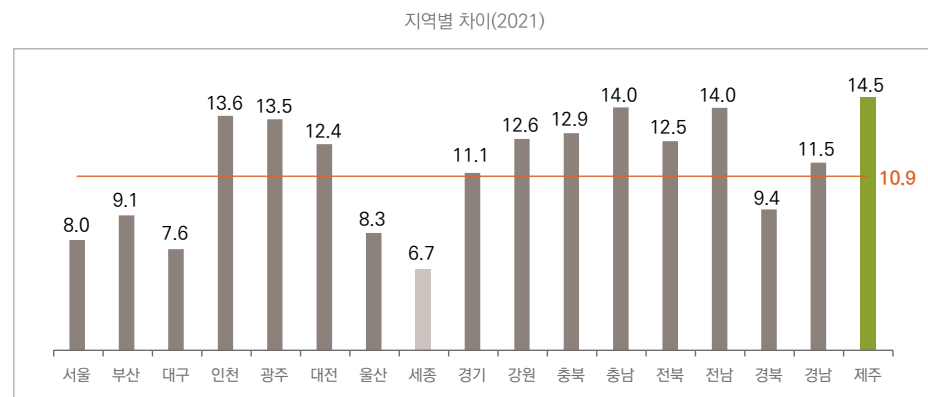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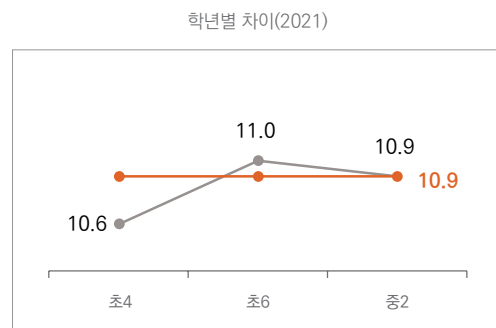


[그림 III-2] 다중주택문제

조사에 참여한 부모(보호자) 중 8.1%가 다중주택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7.2%,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8.4%,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10.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가 3.4%로 가장 낮았다.

☉ 교육지원 부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자녀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3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3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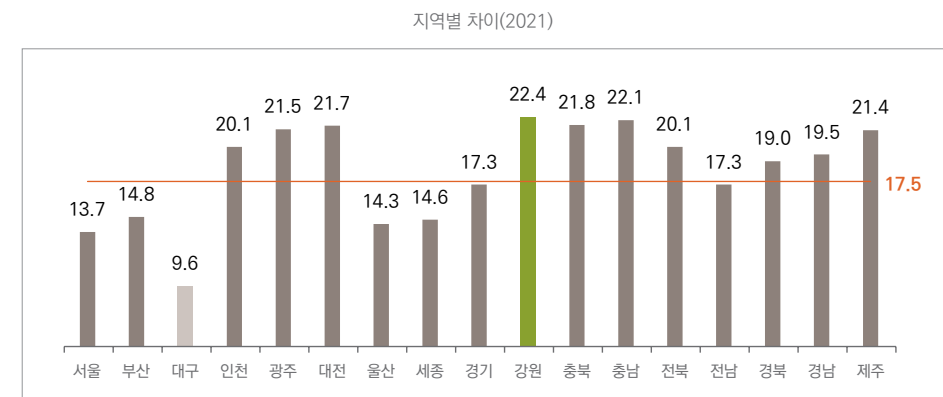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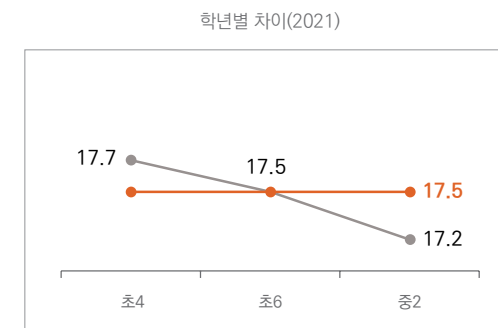


[그림 III-3] 교육지원 부족

부모(보호자) 중 10.9%는 지난 1년 동안 자녀 교육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가 11.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중등 2학년 10.9%, 초등 4학년 10.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4.5%로 교육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여가지원 부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2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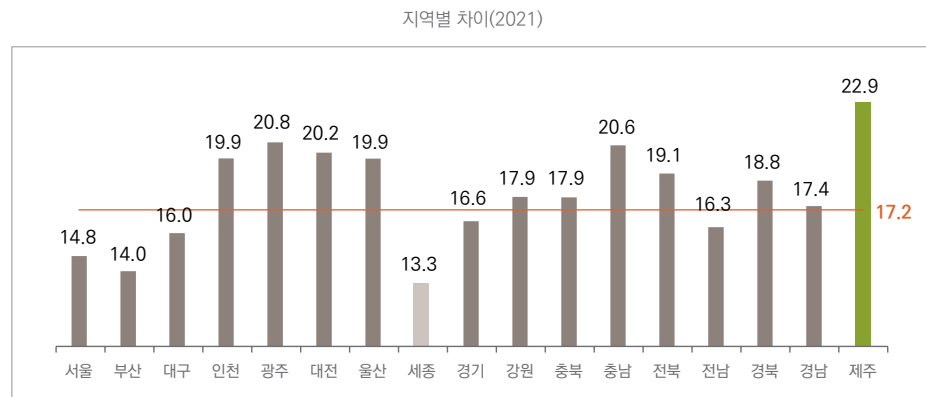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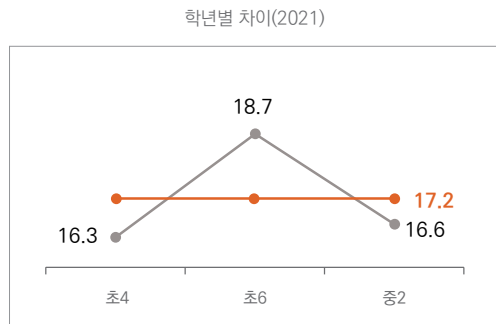


[그림 III-4] 여가지원 부족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여가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부모(보호자) 비율은 17.5%였다. 해당 비율은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초등 4학년 부모(보호자)는 17.7%, 초등 6학년 부모(보호자)는 17.5%, 중등 2학년 부모(보호자)는 17.2%가 여가활동을 지원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2.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가 9.6%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사회관계지원 부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사회관계를 지원하지 못한 경험 여부 (2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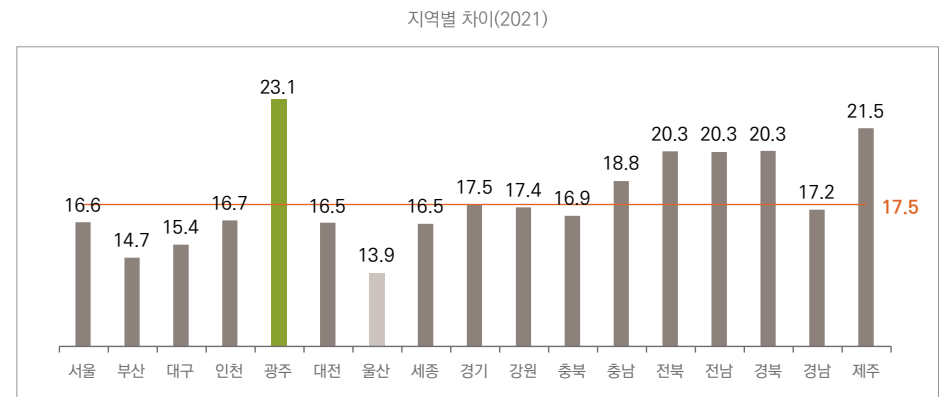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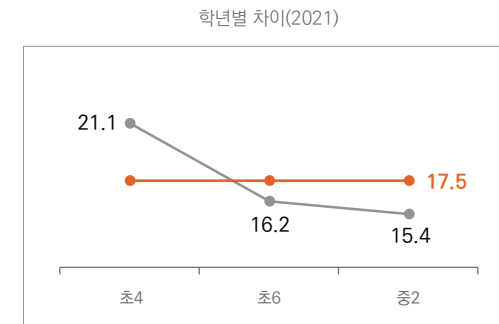


[그림 III-5] 사회관계지원 부족

부모(보호자) 중 17.2%는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사회관계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사회관계를 지원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 6학년이 18.7%로 가장 높았으며, 중등 16.6%, 초등 4학년 16.3%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2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세종이 13.3%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의생활 결핍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새 옷과 일정 양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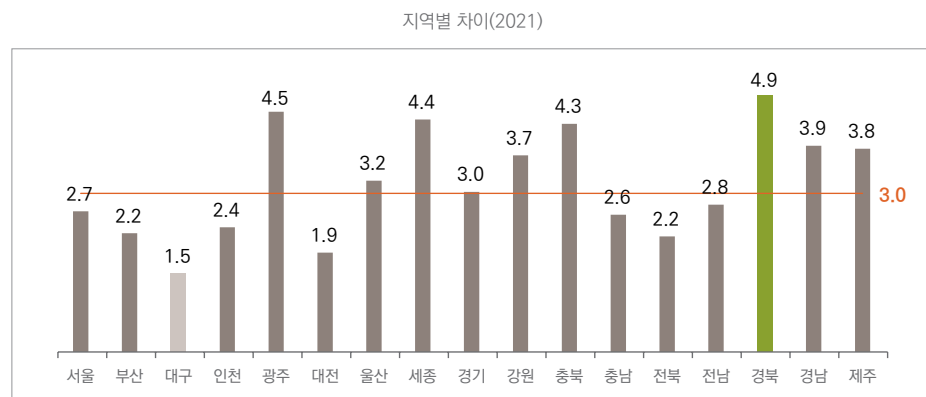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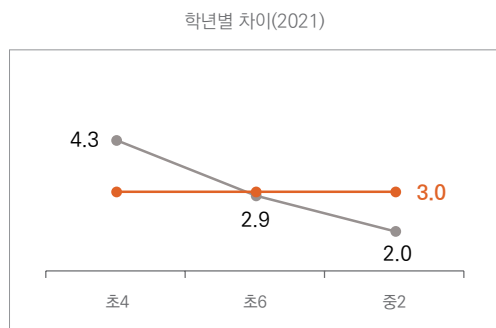


[그림 III-6] 의생활 결핍

조사대상 아동의 17.5%가 옷이나 신발과 관련하여 결핍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이 21.1%로 결핍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학년은 16.2%, 중등 2학년은 15.4%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의생활 결핍 경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23.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울산이 13.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정보접근성 부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노트북, 컴퓨터 미보유 또는 인터넷 연결 여부 (2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2개 문항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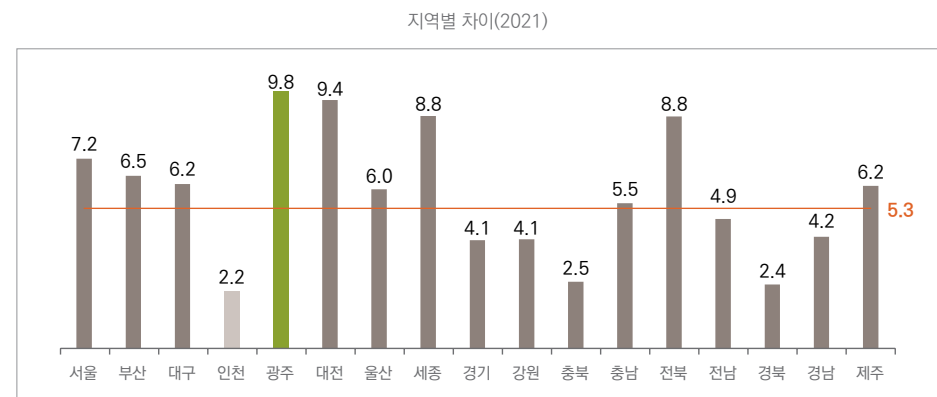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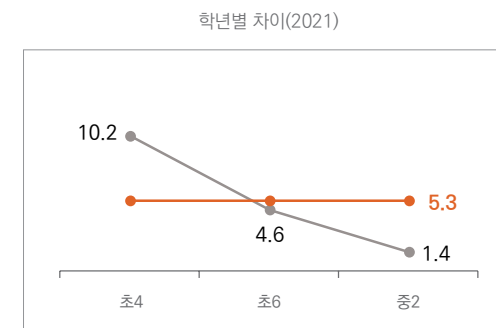


[그림 III-7] 정보접근성 부족

아동의 3.0%가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접근성 부족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 4학년은 4.3%, 6학년은 2.9%, 중등 2학년은 2.0%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9%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구가 1.5%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휴대폰 미보유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휴대폰 보유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휴대폰을 미보유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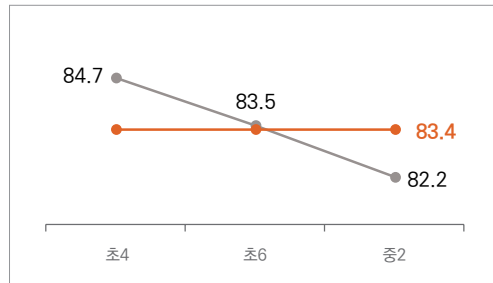
[그림 III-8] 휴대폰 미보유

조사대상 아동중 5.3%는 휴대폰을 미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보유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 4학년은 10.2%, 6학년은 4.6%, 중등 2학년은 1.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9.8%로 휴대폰 미보유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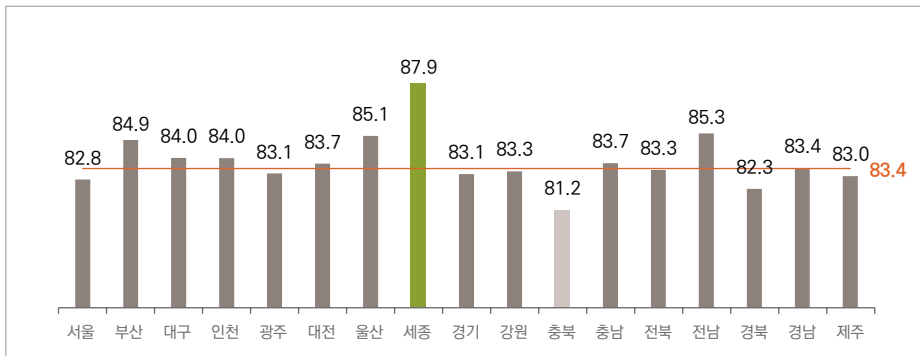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문항)
- 척도 : 0점-10점 (㉔ 전혀 만족하지 않다, ㉕ 보통, ㉖ 매우 만족한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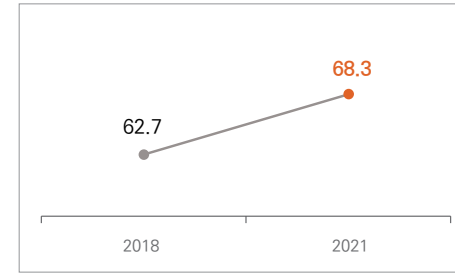
[그림 III-9]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부모(보호자)들의 현재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83.4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 4학년은 84.7점, 초등 6학년은 83.5점, 중등 2학년은 82.2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8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81.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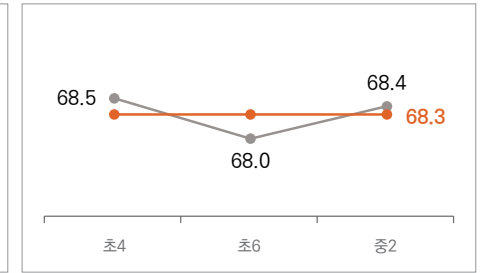
☑ 경제적 만족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 (1문항)
- 척도 : 0점-10점 (㉔ 전혀 만족하지 않다, ㉕ 보통, ㉖ 매우 만족한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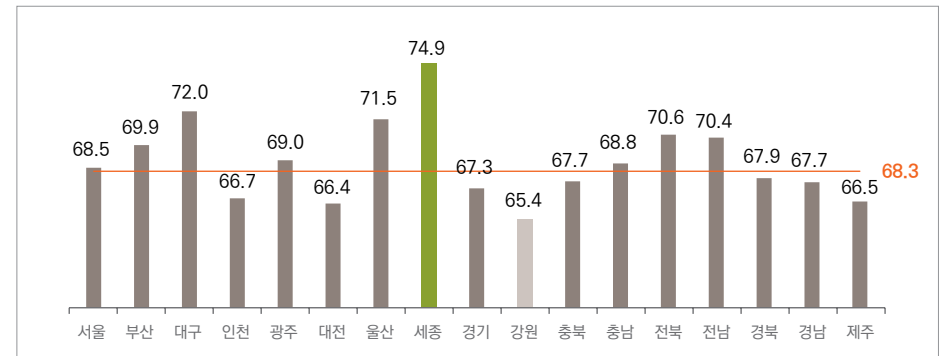
추이(2018, 2021)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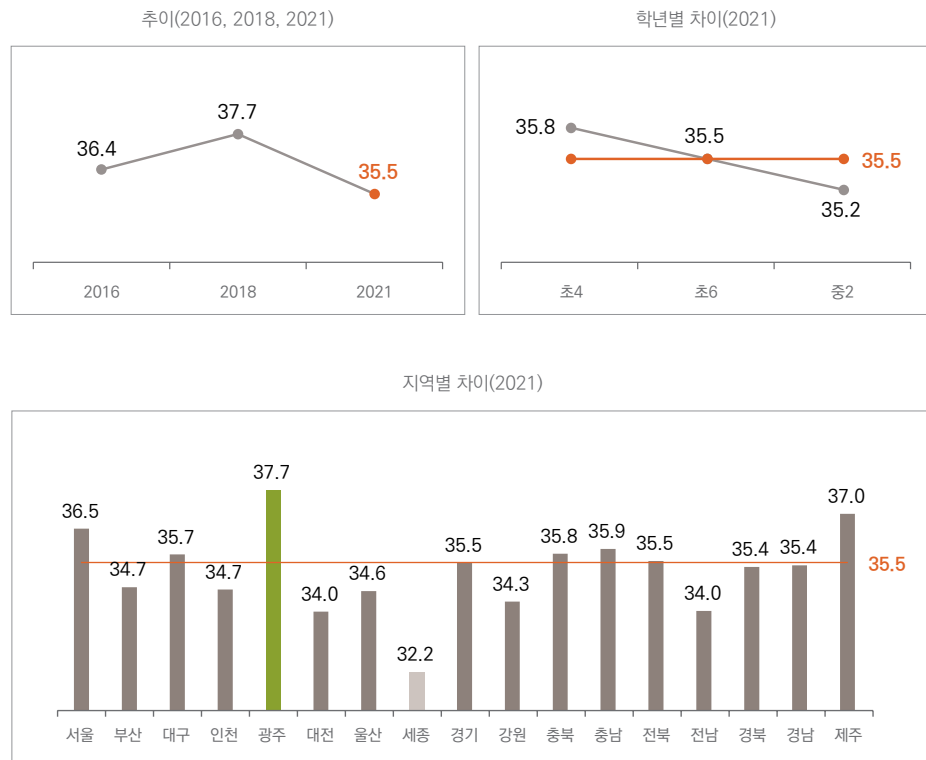


[그림 III-10] 경제적 만족도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만족도는 2018년 62.7점에서 2021년 68.3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는 68.5점, 초등 6학년은 68점, 중등 2학년은 68.4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4.9점으로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65.4점으로 가장 낮았다.

☉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 (5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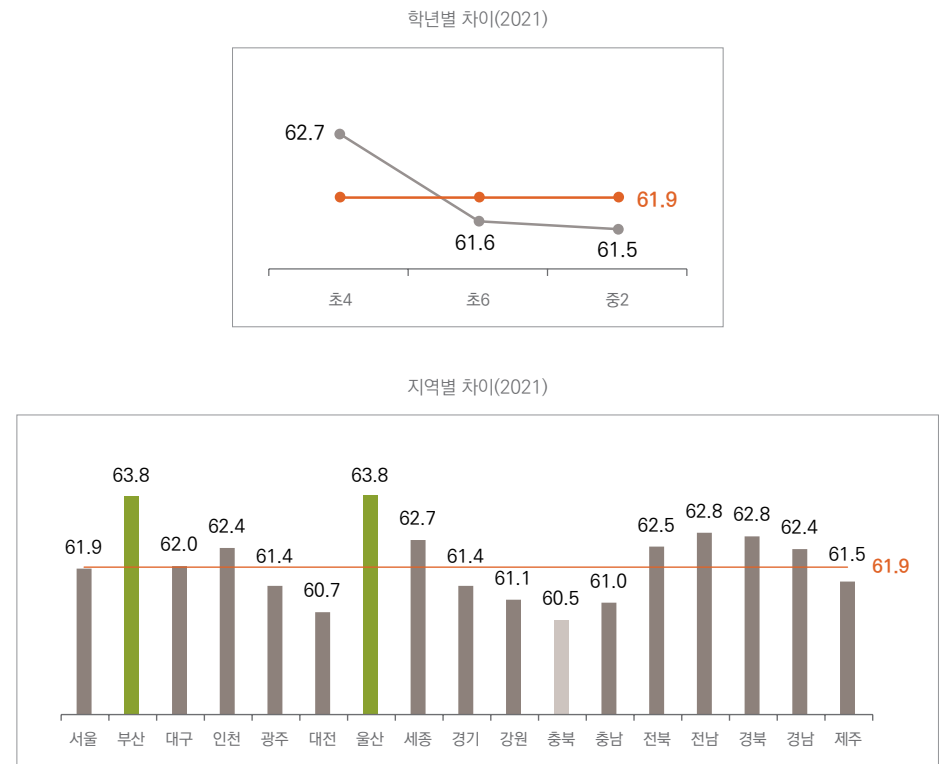


[그림 III-11]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6년 36.4점, '18년 37.7점, '21년 35.5점으로 2018년에 소폭 상승하다 2021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35.8점, 초등 6학년은 35.5점, 중등 2학년은 35.2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양육 스트레스는 다소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3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부모의 양육 효능감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문항 수정)
- 내용 :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 (9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효능감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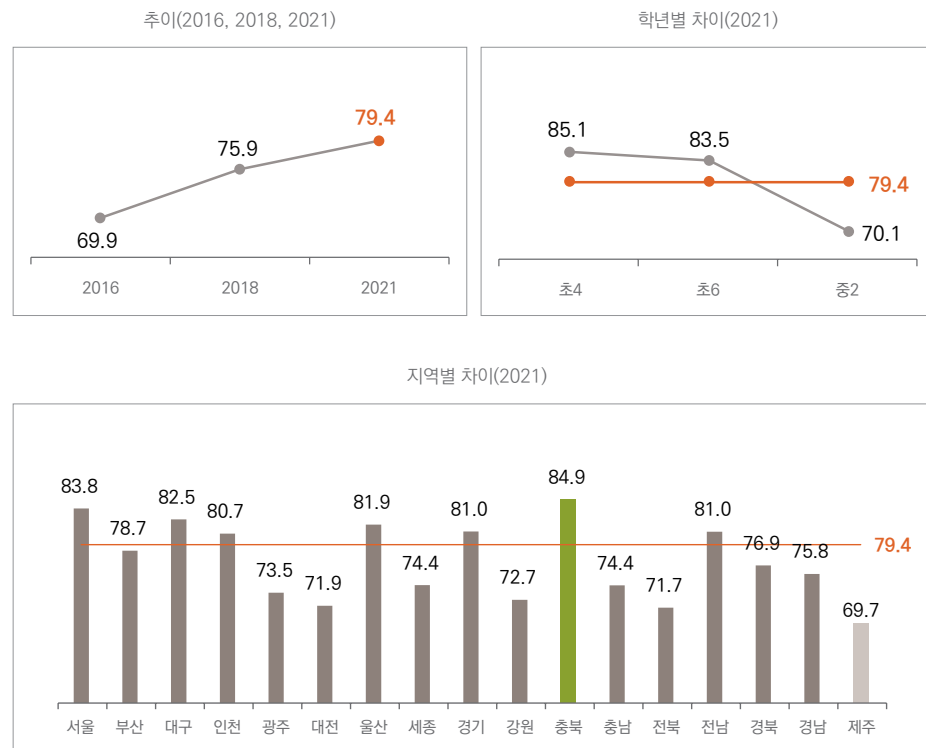
[그림 III-12] 부모의 양육 효능감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평균은 61.9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62.7점, 초등 6학년은 61.6점, 중등 2학년은 61.5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과 울산이 63.8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충북이 60.5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 학교 환경

☑ 등·하교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등·하교가 편한지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비율이 높을수록 등·하교 편의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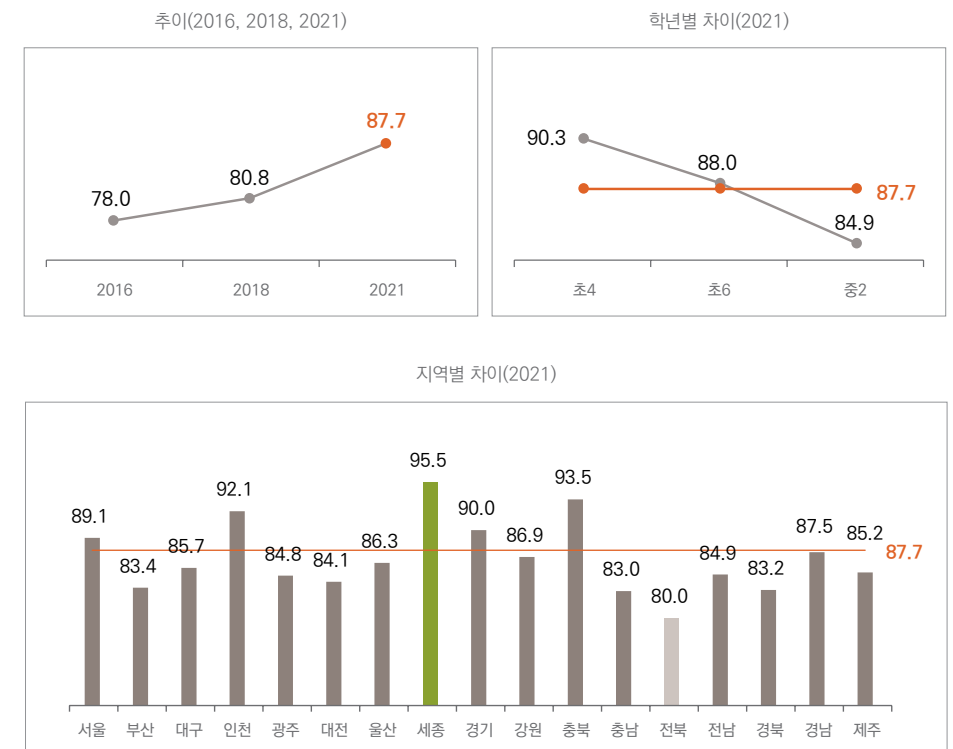


[그림 III-13] 등·하교 편의성

등·하교 편의성은 '16년 69.9%, '18년 75.9%, '21년 79.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은 85.1%, 6학년은 83.5%, 중등 2학년은 70.1%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등·하교 편의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84.9%로 가장 높고, 제주가 69.7%로 가장 낮았다.

☑ 학교시설 쾌적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이 깨끗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시설 쾌적성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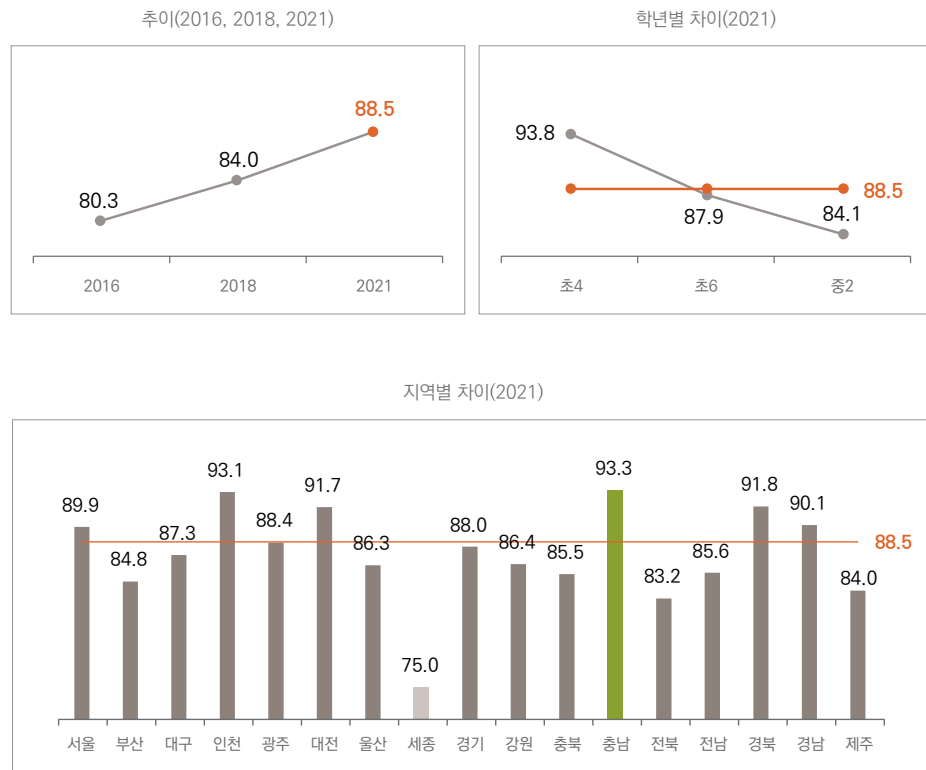


[그림 III-14]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시설 쾌적성은 '16년 78.0%, '18년 80.8%, '21년 87.7%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0.3%, 초등 6학년은 88.0%, 중등 2학년은 84.9%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시설 쾌적성은 낮게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95.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전북이 80.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의 운동장이 활동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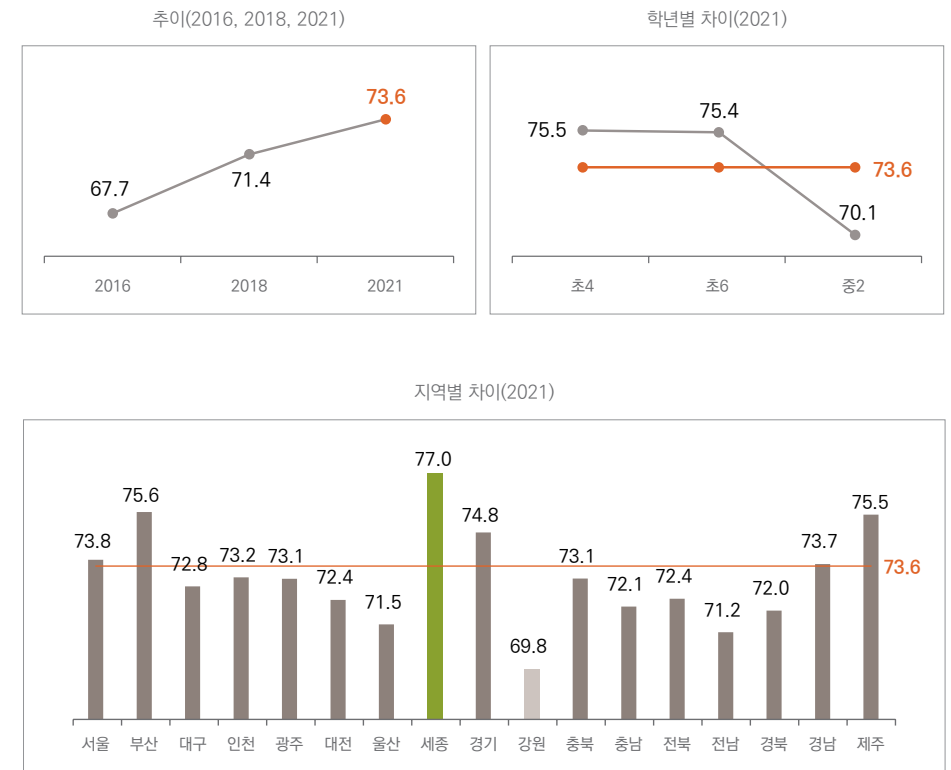


[그림 III-15]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은 '16년 80.3%, '18년 84.0%, '21년 88.5%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93.8%, 6학년 87.9%, 중등 2학년 84.1%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93.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학교시설 쾌적성 정도가 가장 높았던 세종은 운동장 이용 편의성은 7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분위기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의견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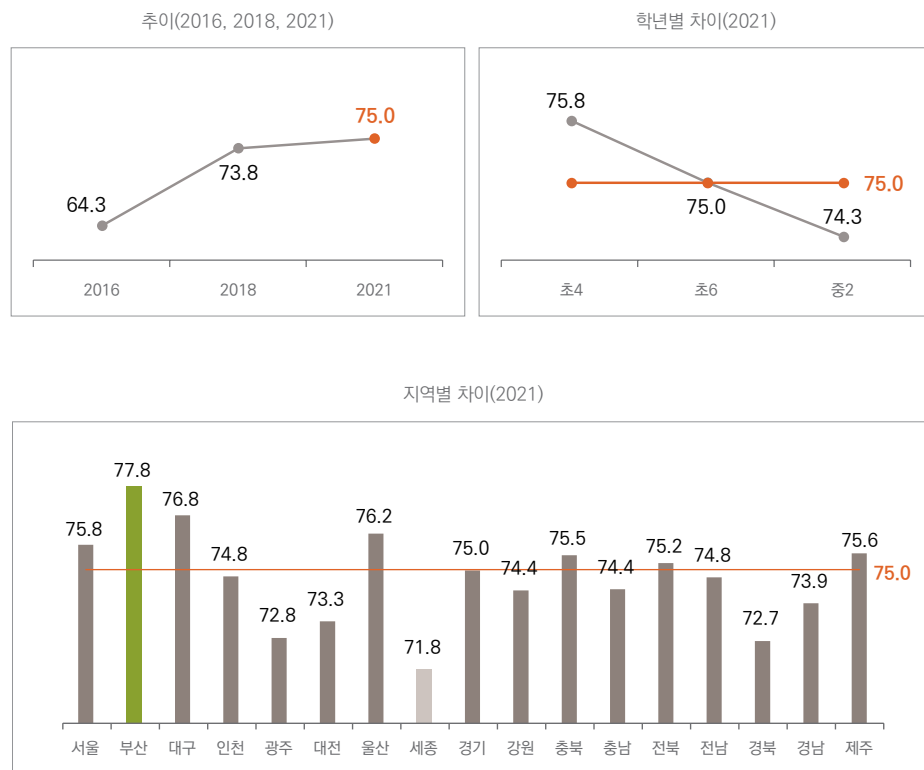


[그림 III-16]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는 '16년 67.7점, '18년 71.4점, '21년 73.6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75.5점, 6학년은 75.4점, 중등 2학년은 70.1점으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경우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7.0점으로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가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69.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에서 비밀보장 및 규칙 변경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정보공개 민주성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17]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또한 '16년 64.3점, '18년 73.8점, '21년 75.0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5.8점, 6학년은 75.0점, 중등 2학년은 74.3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보공개 민주성 또한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71.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 지역사회 및 국가 환경

☑ 가정의 안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집에 있을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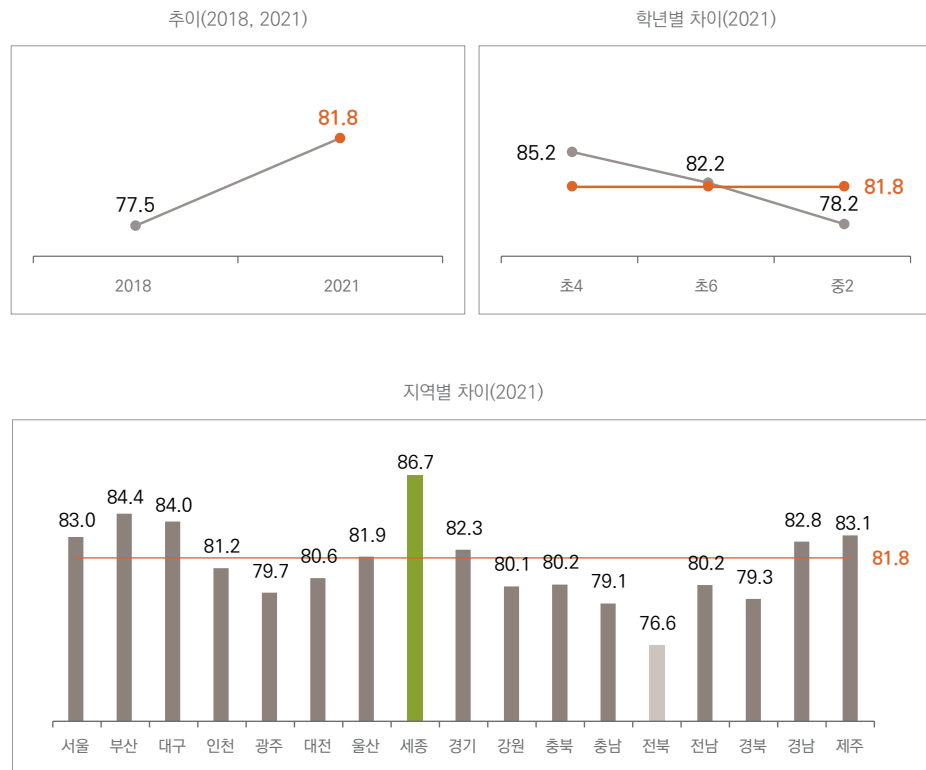


[그림 III-18] 가정의 안전

아동이 인식하는 가정의 안전 정도는 '18년 86.4점, '21년 88.5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90.5점, 초등 6학년은 88.5점, 중등 2학년은 86.6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가정의 안전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84.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학교의 안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에 있을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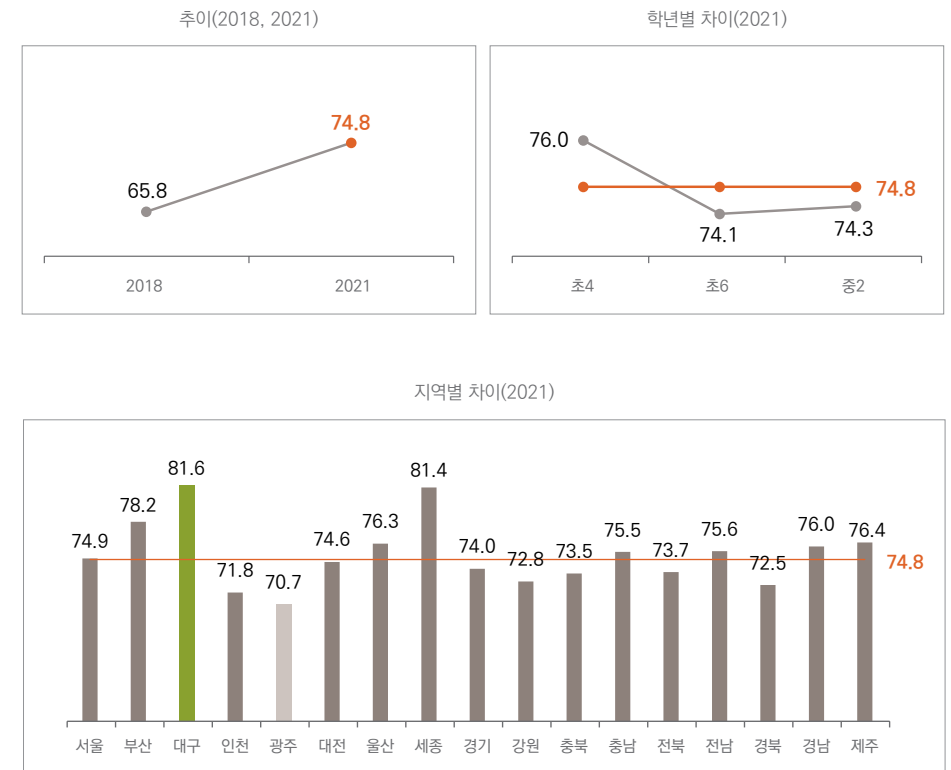


[그림 III-19] 학교의 안전

가정에 이어 학교의 안전 정도는 '18년 77.5점, '21년 81.8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5.2점, 초등 6학년은 82.2점, 중등 2학년은 78.2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의 안전 수치가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76.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동네의 안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네를 돌아다닐 때 안전하게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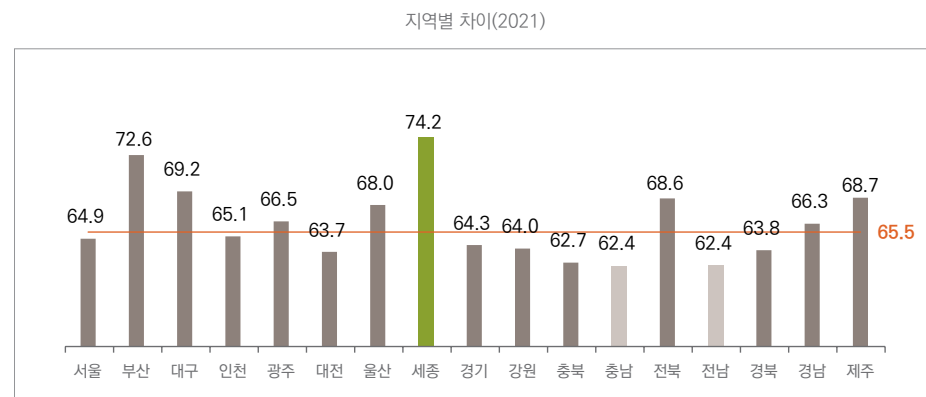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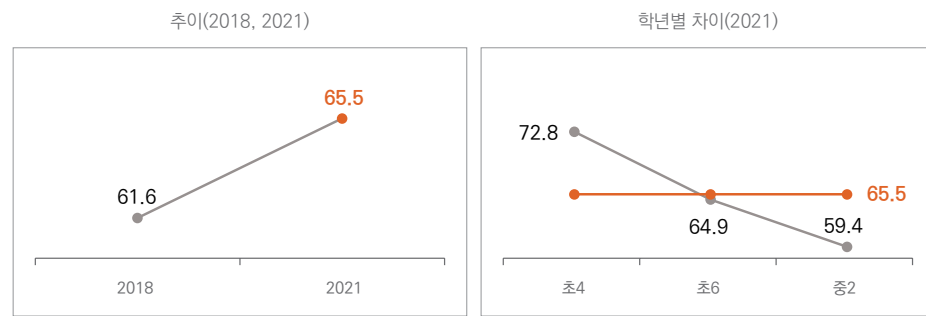


[그림 III-20] 동네의 안전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안전 정도는 '18년 65.8점, '21년 74.8점으로 전차 대비 9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6.0점, 초등 6학년은 74.1점, 중등 2학년은 74.3점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8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0.7점으로 가장 낮았다.

☑ 우리나라의 안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 2차 ■ 3차
- 내용 :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느끼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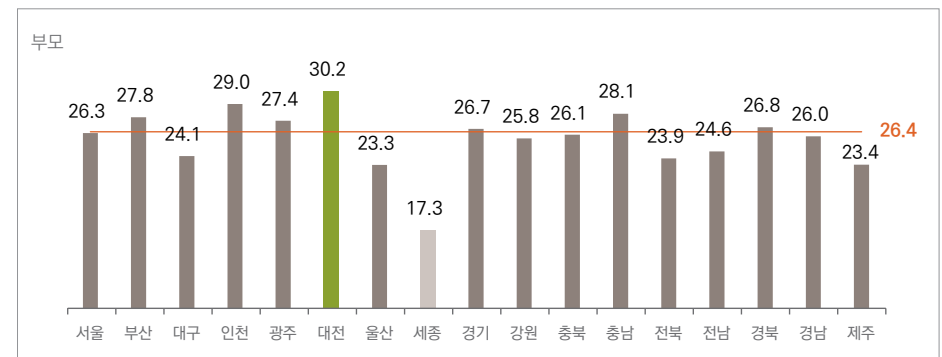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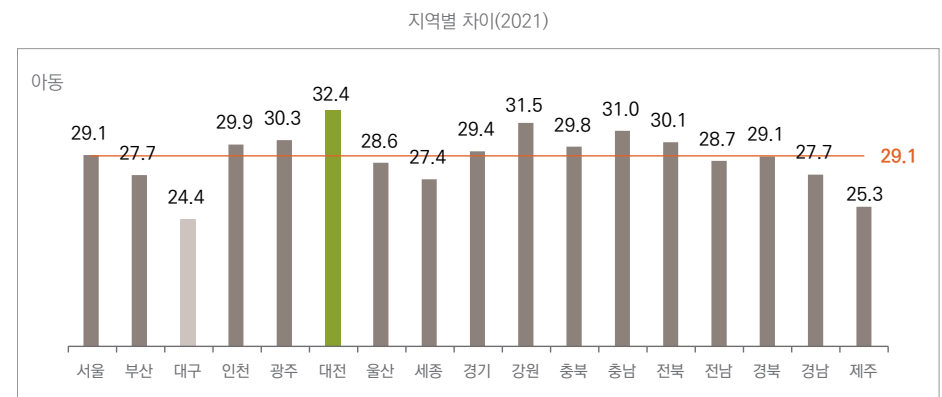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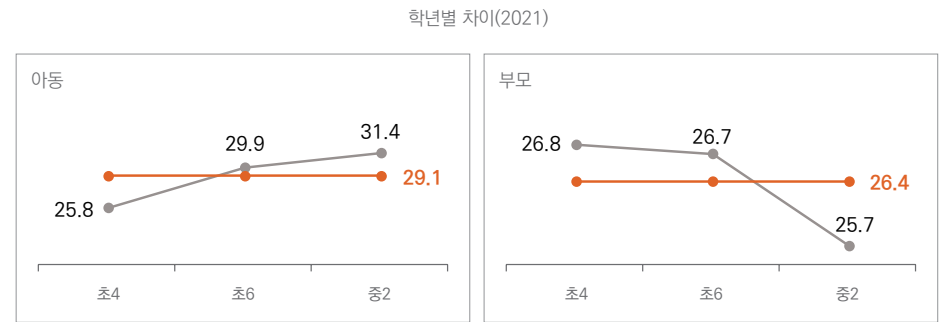


[그림 III-21] 우리나라의 안전

아동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안전 정도는 '18년 61.6점, '21년 65.5점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학교, 동네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장 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2.8점, 6학년은 64.9점, 중등 2학년은 59.4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를 안전한 나라로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과 전남이 62.4점으로 가장 낮았다.

☑ 물리적 무질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1차 (부모만 조사) ■ 2차 ■ 3차 (문항 수정)
- 내용 : 거주하는 지역의 청결이나 정돈상태, 소음 등 물리적인 무질서 정도 (6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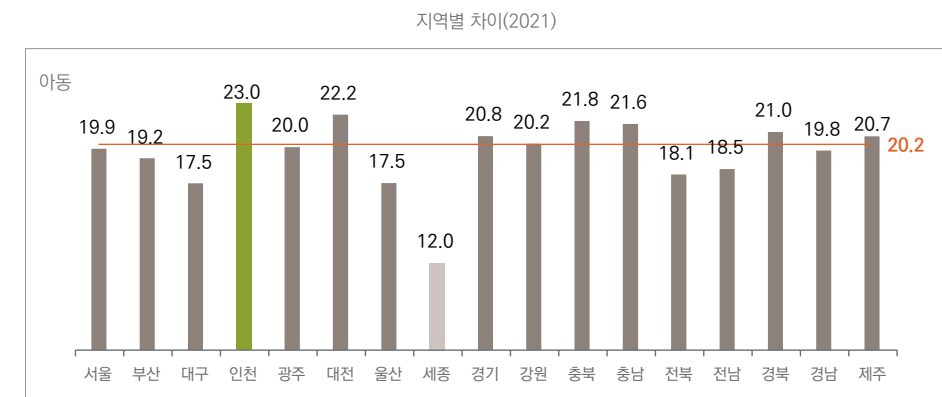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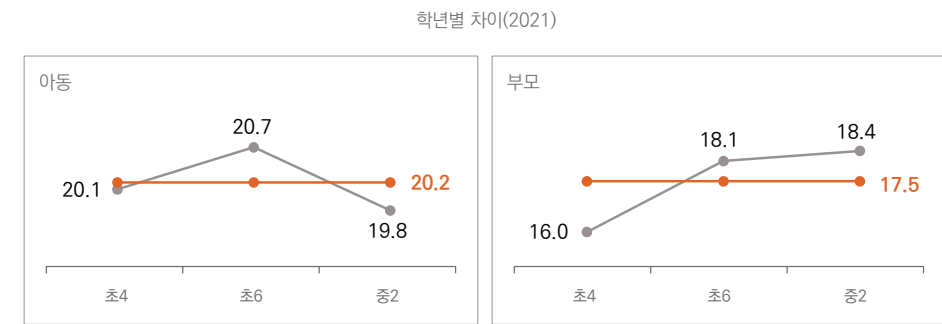
[그림 III-22] 물리적 무질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평균은 아동이 29.1점, 부모(보호자)는 26.4점으로 아동이 부모(보호자)에 비해 지역사회를 좀 더 무질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5.8점, 초등 6학년은 29.9점, 중등 2학년은 31.4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도 높아졌으며, 부모(보호자)의 경우는 반대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대전이 32.4점으로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24.4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 응답자도 마찬가지로 대전이 30.2점으로 물리적 무질서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은 17.3점으로 가장 낮았다.

☞ 사회적 무질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부모만 조사) ■ 2차 ■ 3차 (문항 수정)
- 내용 :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 범죄 등 사회적인 무질서 정도 (6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질서 정도가 높음 (단위: 점)



[그림 III-23] 사회적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에 이어 사회적 무질서는 아동이 20.2점, 부모가 17.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무질서 또한 아동이 부모(보호자)에 비해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20.1점, 초등 6학년은 20.7점, 중등 2학년은 19.8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6학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사회적 무질서 인식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이 인식하는 사회적 무질서 정도는 인천이 2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세종이 12.0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강원이 21.1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과 마찬가지로 세종이 11.4점으로 가장 낮았다.

☉ 이웃과의 교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네 이웃과의 교류 정도 (6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 정도가 빈번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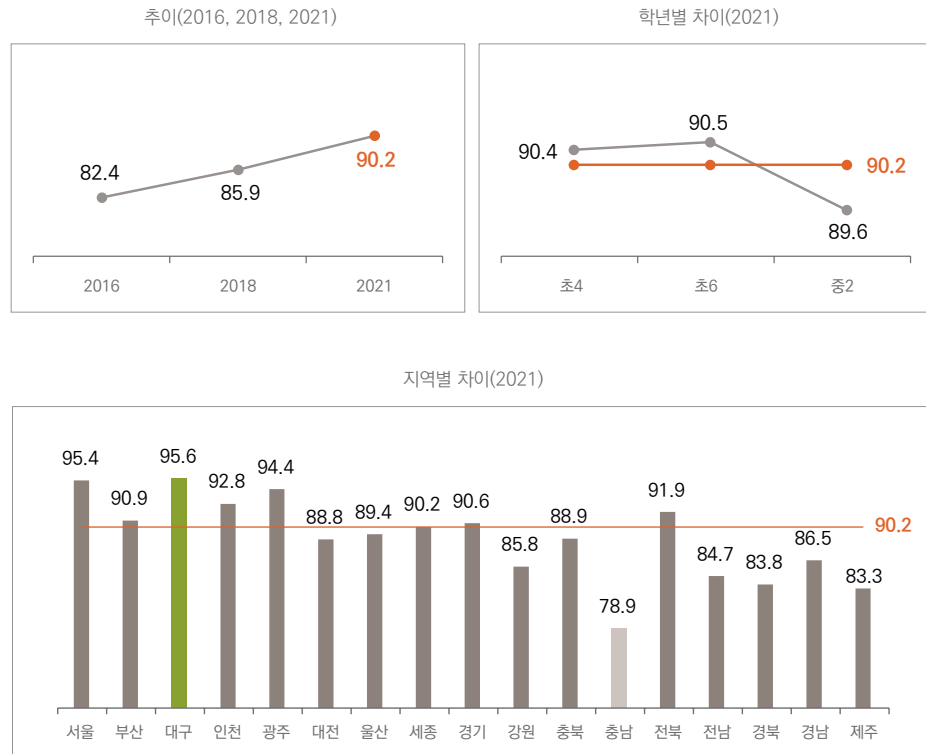


[그림 Ⅲ-24] 이웃과의 교류

이웃과의 교류 정도는 '18년 49.0점, '21년 46.9점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48.0점, 6학년은 46.5점, 중등 2학년은 46.3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보호자)의 이웃과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51.9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9.9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병원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네에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받기가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병원 이용 편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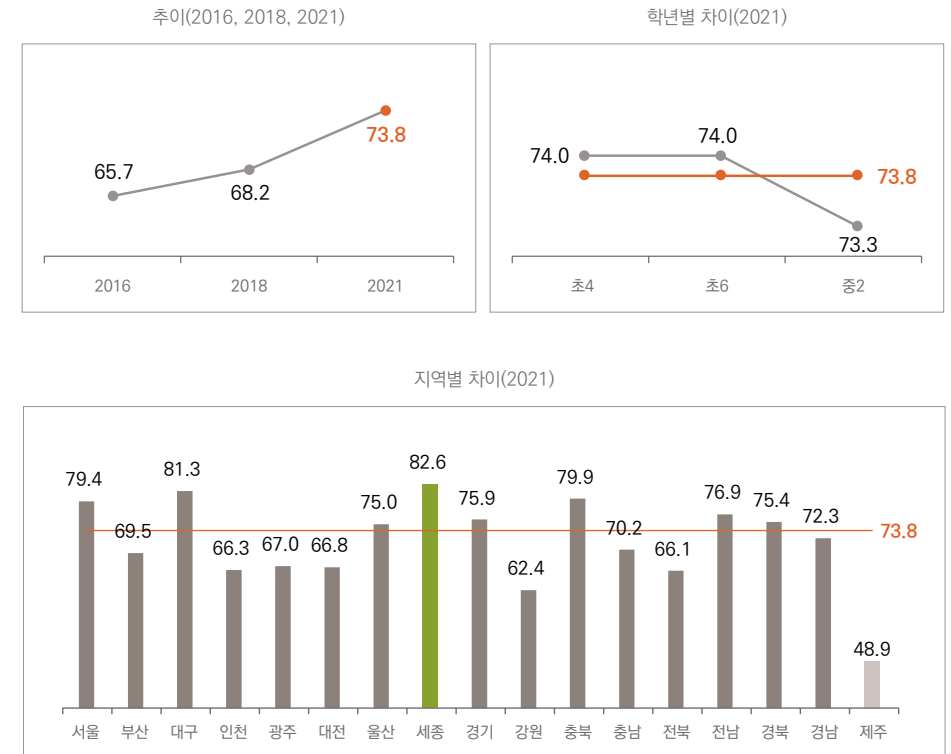


[그림 III-25] 병원 이용 편의성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82.4%, '18년 85.9%, '21년 90.2%로 병원 이용 편의성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0.4%, 초등 6학년은 90.5%, 중등 2학년은 89.6%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95.6%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7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도서관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네에 도서관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 편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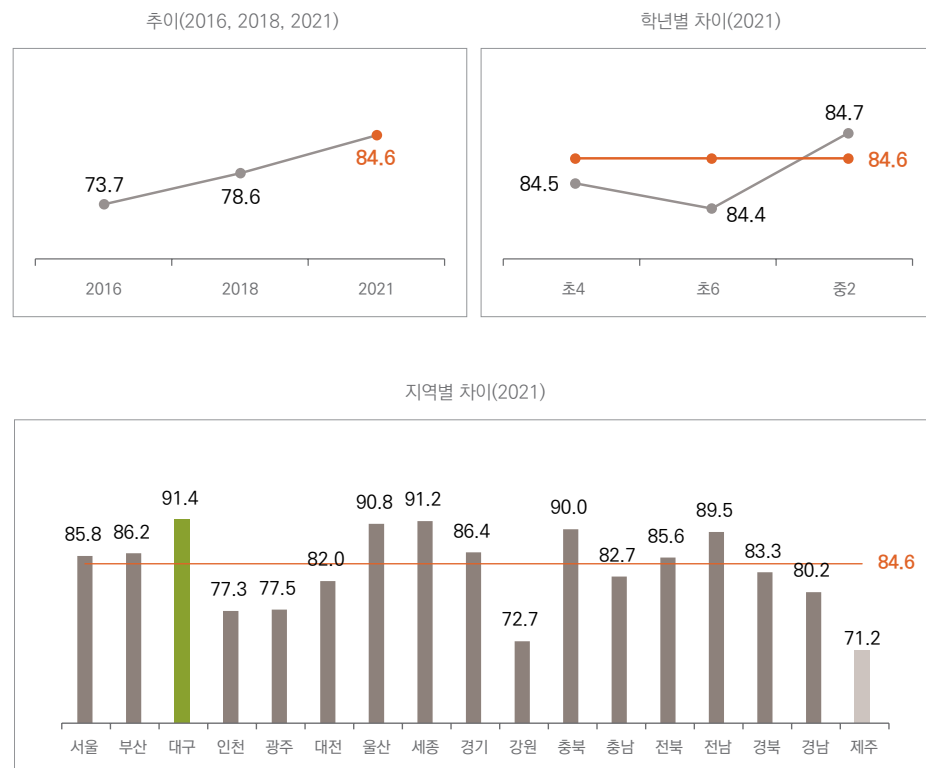


[그림 III-26] 도서관 이용 편의성

거주 지역 내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65.7%, '18년 68.2%, '21년 73.8%로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74.0%, 초등 6학년은 74.0%, 중등 2학년은 73.3%로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부모(보호자)의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82.6%로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4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두 시도간 차이는 33.7%p로 다른 시설에 비해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④ 놀이터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놀이터 이용 편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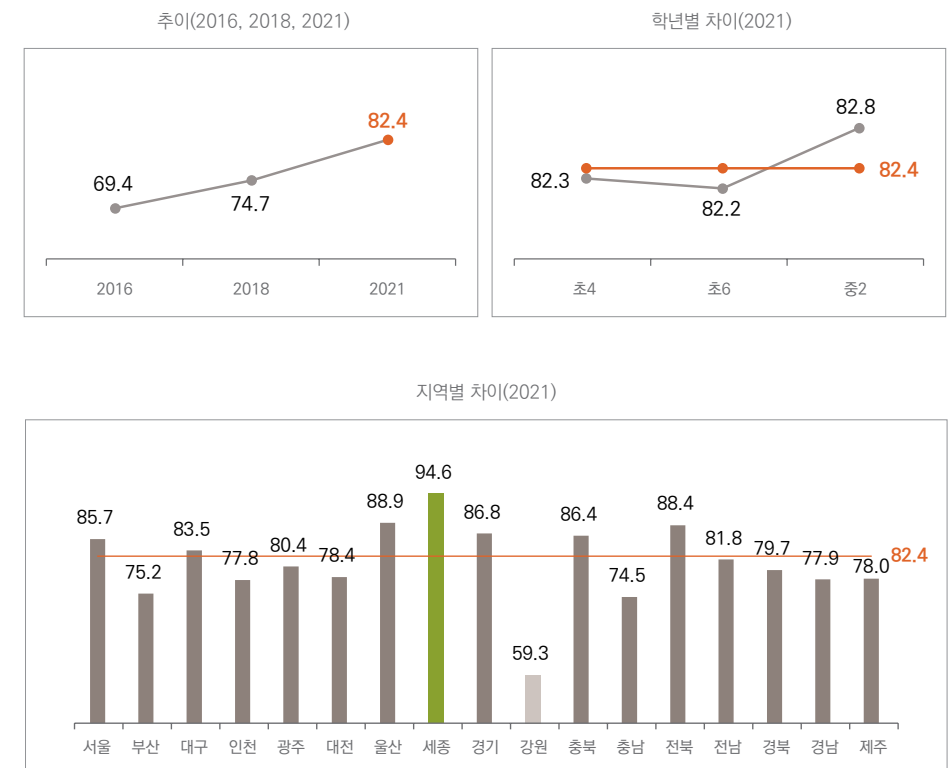


[그림 III-27] 놀이터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중 거주 지역 내 놀이터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73.7%, '18년 78.6%, '21년 84.6%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84.5%, 6학년은 84.4%, 중등 2학년은 84.7%로 비슷한 수치였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91.4%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④ 공원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네에 공원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공원 이용 편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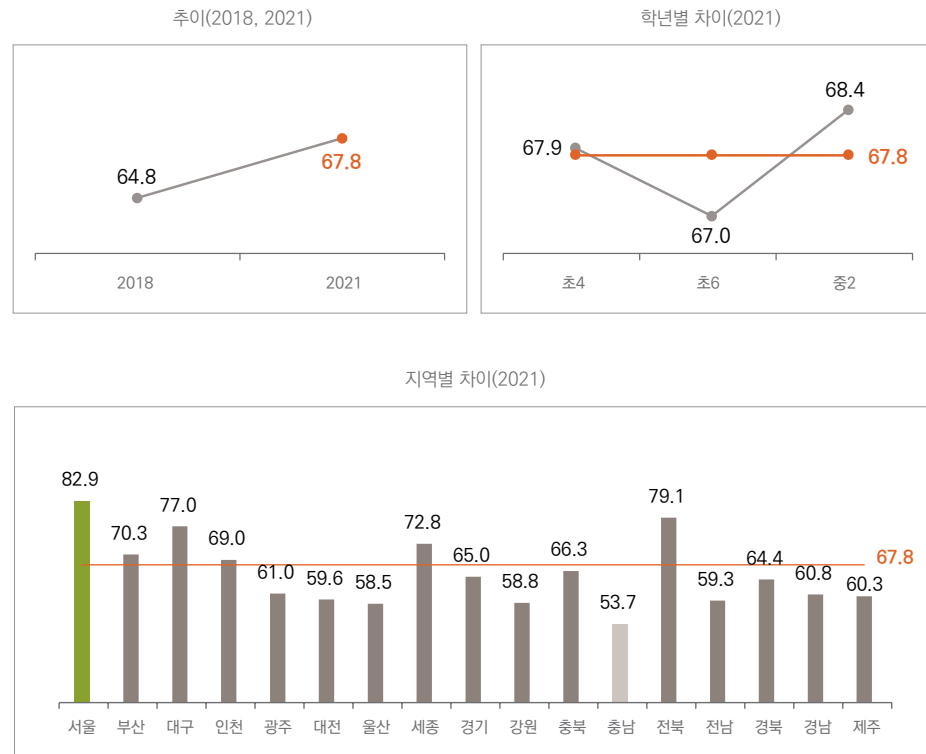


[그림 III-28] 공원 이용 편의성

거주 지역 내 공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년 69.4%, '18년 74.7%, '21년 82.4%로 공원 이용 편의성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2.3%, 6학년은 82.2%, 중등 2학년은 82.8%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94.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59.3%로 가장 낮았는데, 두 지역간 격차가 35.3%p로 나타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공원 이용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문화공간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문화공간 이용 편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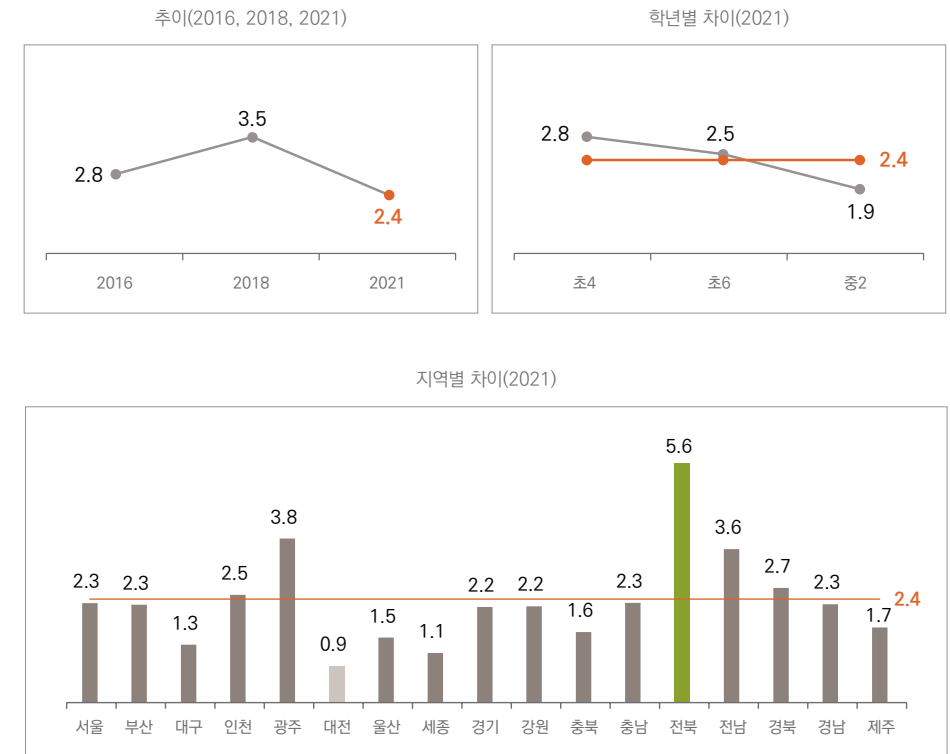


[그림 III-29] 문화공간 이용 편의성

지역 내 문화공간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년 64.8%, '21년 67.8%로 다소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67.9%, 초등 6학년은 67.0%, 중등 2학년은 6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2.9%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53.7%로 가장 낮았는데 두 지역 간 차이는 29.2%p로 나타나 문화공간 이용에 있어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목격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목격 경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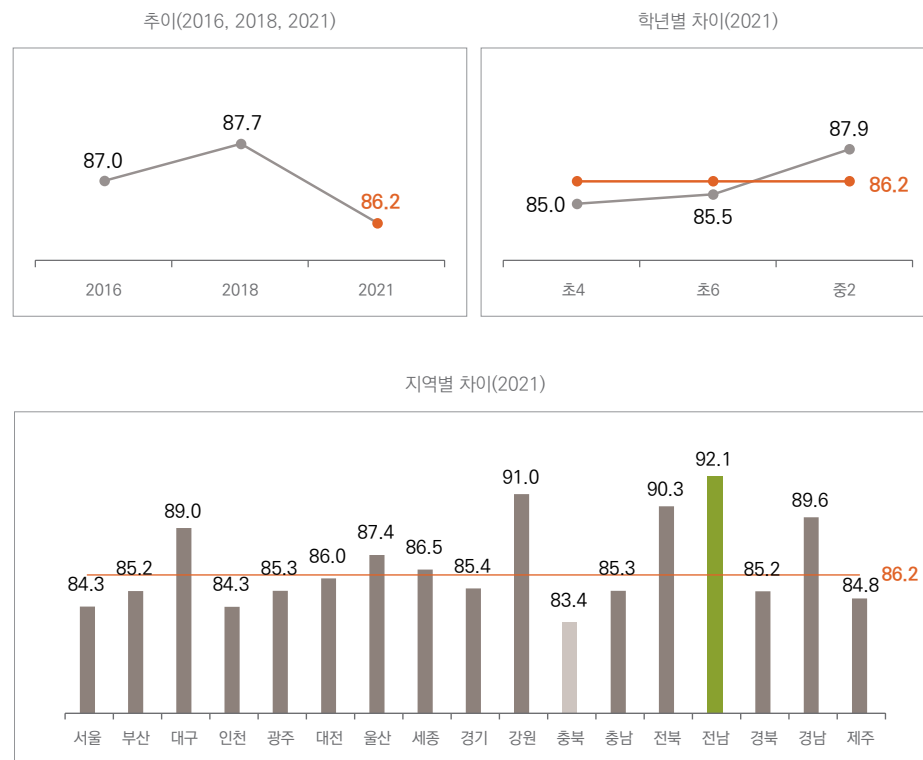


[그림 III-30] 아동학대 목격 경험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중 2.4%가 지난 1년 간 아동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 2.8%, '18년 3.5%, '21년 2.4%로 '18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8%, 초등 6학년은 2.5%, 중등 2학년은 1.9%로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목격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0.9%로 가장 낮았다.

☉ 아동학대 신고 인식_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 예상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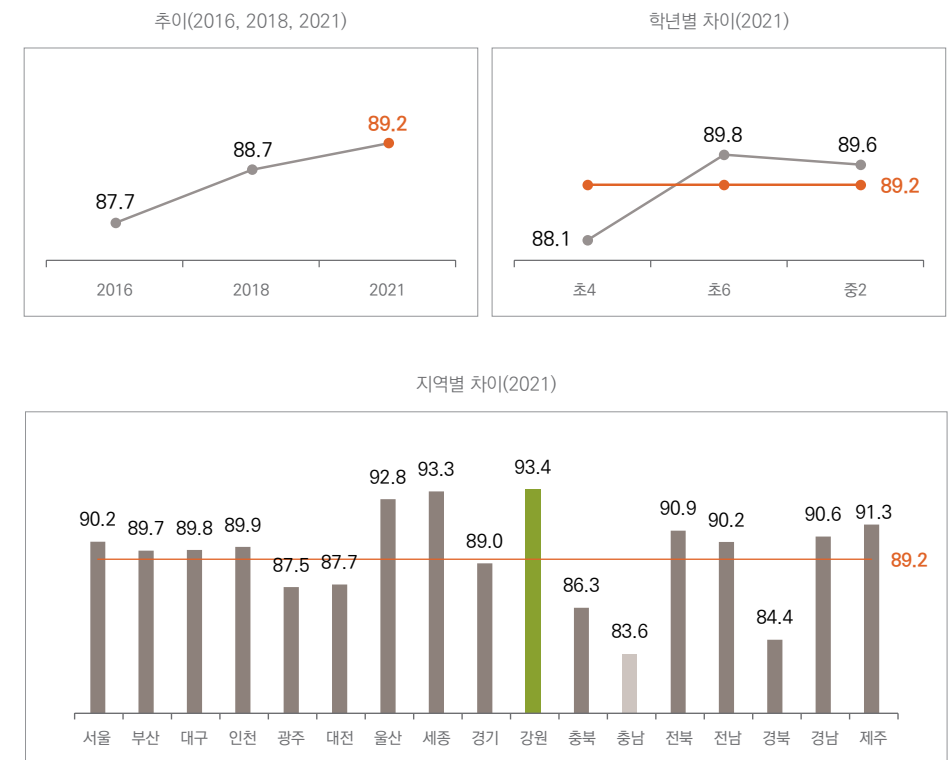


[그림 III-31] 아동학대 신고 인식_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87.0%, '18년 87.7%, '21년 86.2%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5.0%, 초등 6학년은 85.5%, 중등 2학년은 87.9%로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92.1%로 신뢰가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83.4%로 가장 낮았다.

☉ 아동학대 신고 인식_학대감소 효과 기대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감소 효과 기대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학대감소 효과 기대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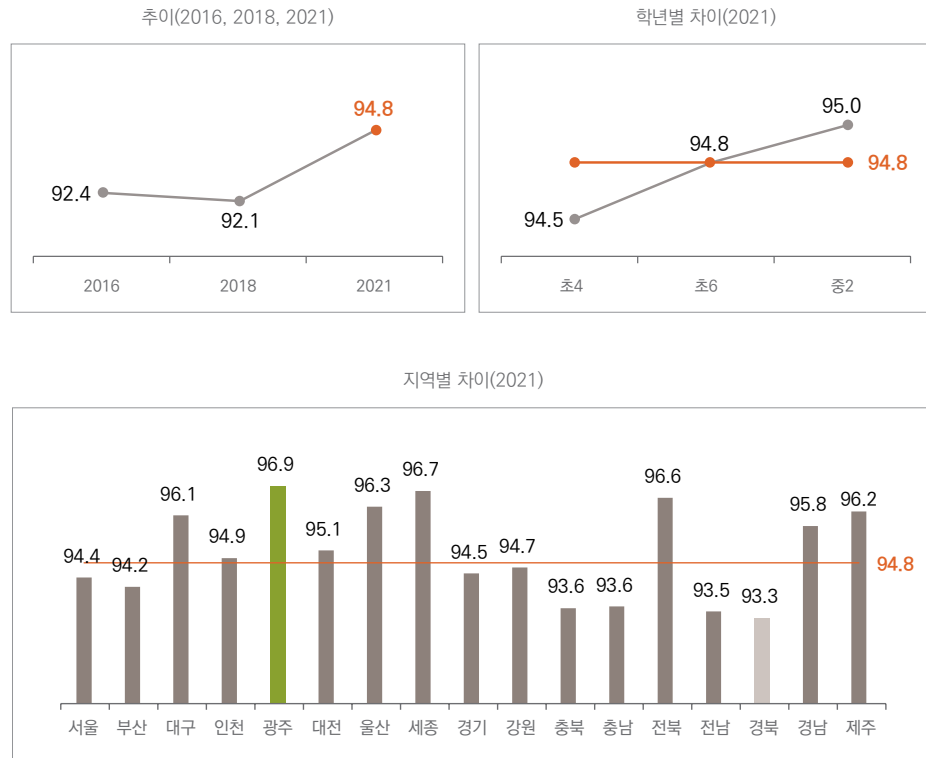


[그림 III-32] 아동학대 신고 인식_학대감소 효과 기대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응답은 '16년 87.7%, '18년 88.7%, '21년 89.2%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8.1%, 6학년은 89.8%, 중등 2학년은 89.6%이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93.4%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83.6%로 가장 낮았다.

☞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꼬집기',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것' 등을 가벼운 학대로 인식하는지의 여부 (2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 ③으로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비율이 높을수록 학대 인식 정도가 큼 (단위: %)



[그림 III-33]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꼬집기',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가벼운 신체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16년 92.4%', '18년 92.1%', '21년 94.8%'로 '21년에 가벼운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16년과 '18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4.5%, 6학년은 94.8%, 중등 2학년은 95.0%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96.9%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이 93.3%로 가장 낮았다.

☞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벼운 신체학대 보다 강도가 심한 중간정도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3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 ③으로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비율이 높을수록 학대 인식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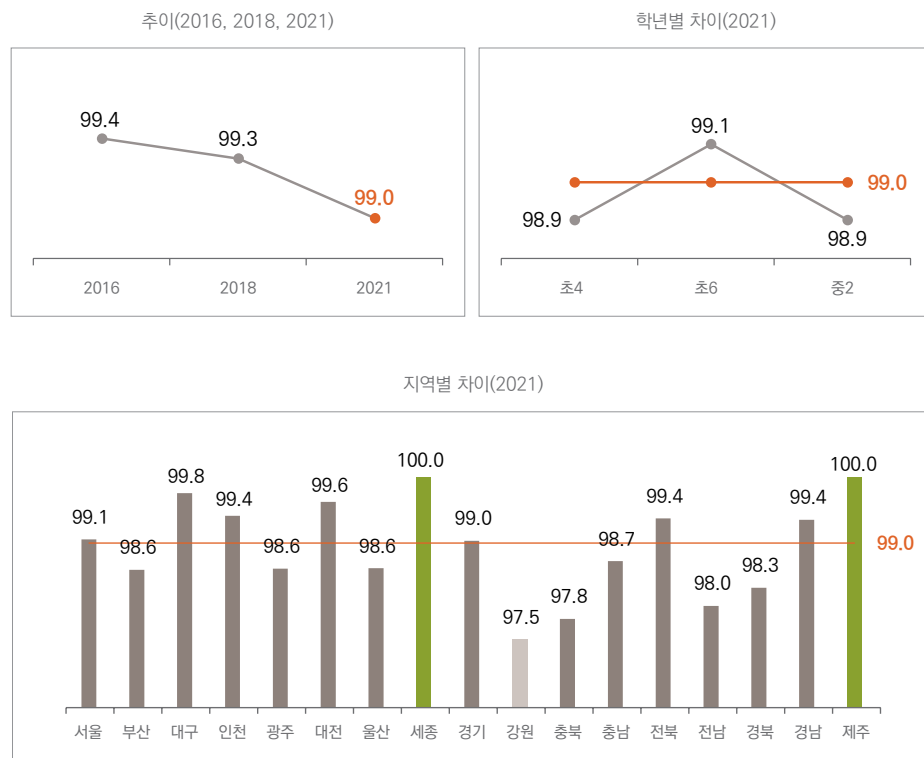


[그림 III-34]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등에 대하여 신체학대로 인식하는 정도는 '16년 98.9%', '18년 98.9%', '21년 98.7%'로 '21년의 인식 수준이 '16년과 '18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98.8%, 6학년 98.8%, 중등 2학년 98.5%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과 전남이 9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두들겨 패는 것' 등을 심각한 신체학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 (2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 ③으로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 비율이 높을수록 학대 인식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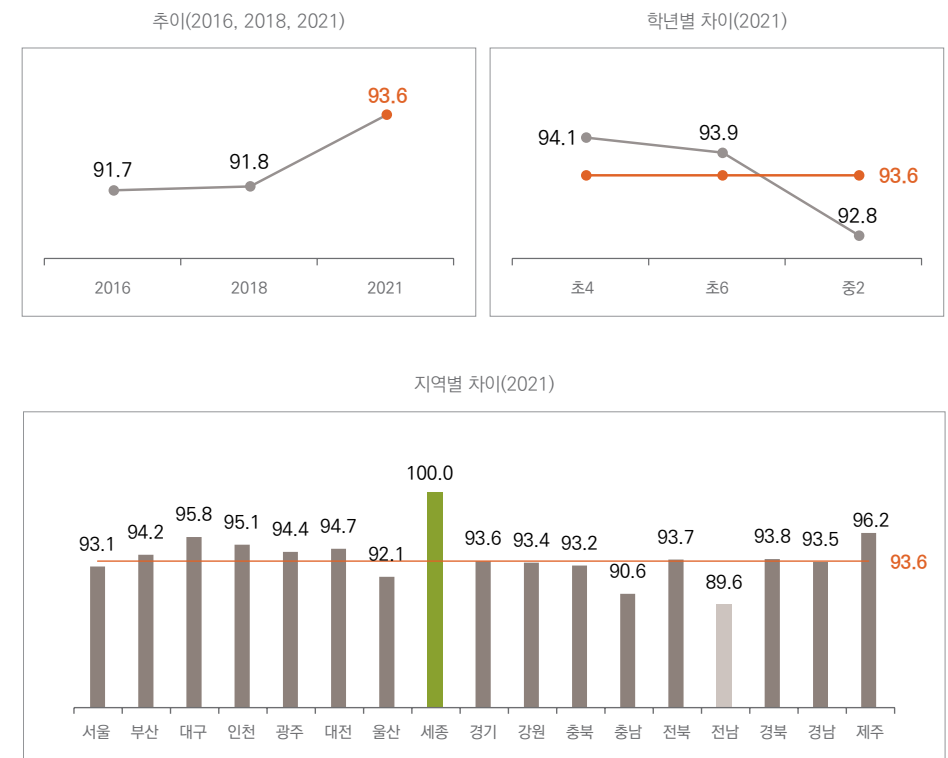


[그림 III-35]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것’, ‘두들겨 패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신체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16년 99.4%, ‘18년 99.3%, ‘21년 99.0%로 심각한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8.9%, 초등 6학년은 99.1%, 중등 2학년은 98.9%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과 제주가 100.0%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97.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정서학대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치는 것' 등을 정서학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 (5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 ③으로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정서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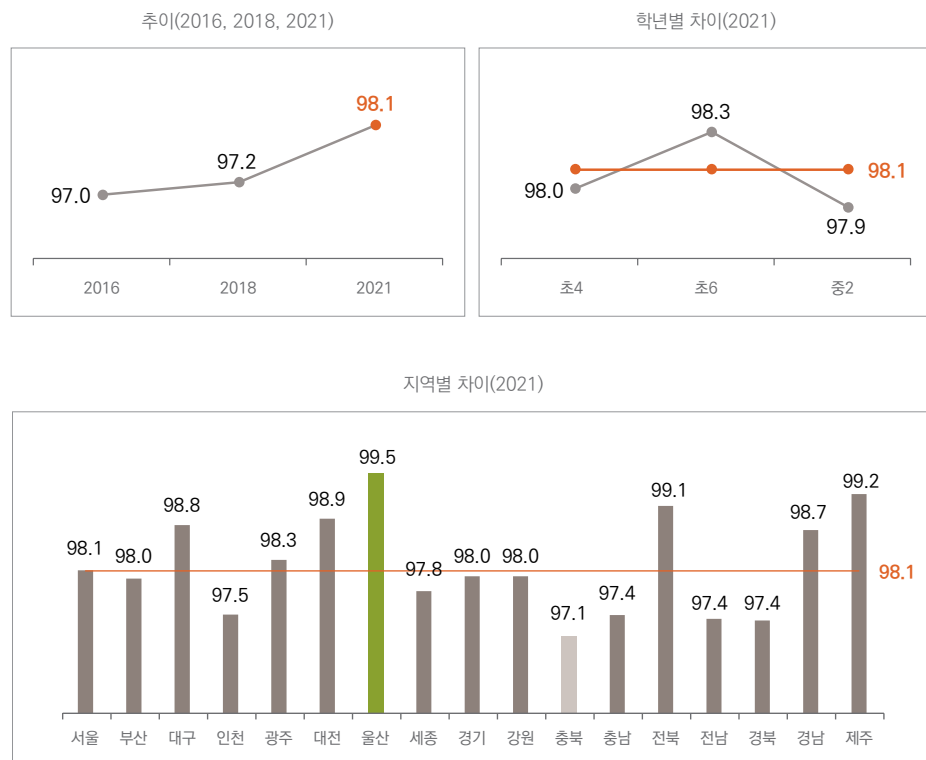


[그림 III-36] 정서학대 인식

‘아이를 말로 위협하거나 바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등을 정서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91.7%, ‘18년 91.8%, ‘21년 93.6%로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16년과 ‘18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다 ‘21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94.1%, 6학년은 93.9%, 중등 2학년은 92.8%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100.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이 8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방임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등을 방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여부 (4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학대적인 행동이 아니다, ② 상황에 따라 다르다, ③ 학대적인 행동이다)
- 측정 : ③으로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방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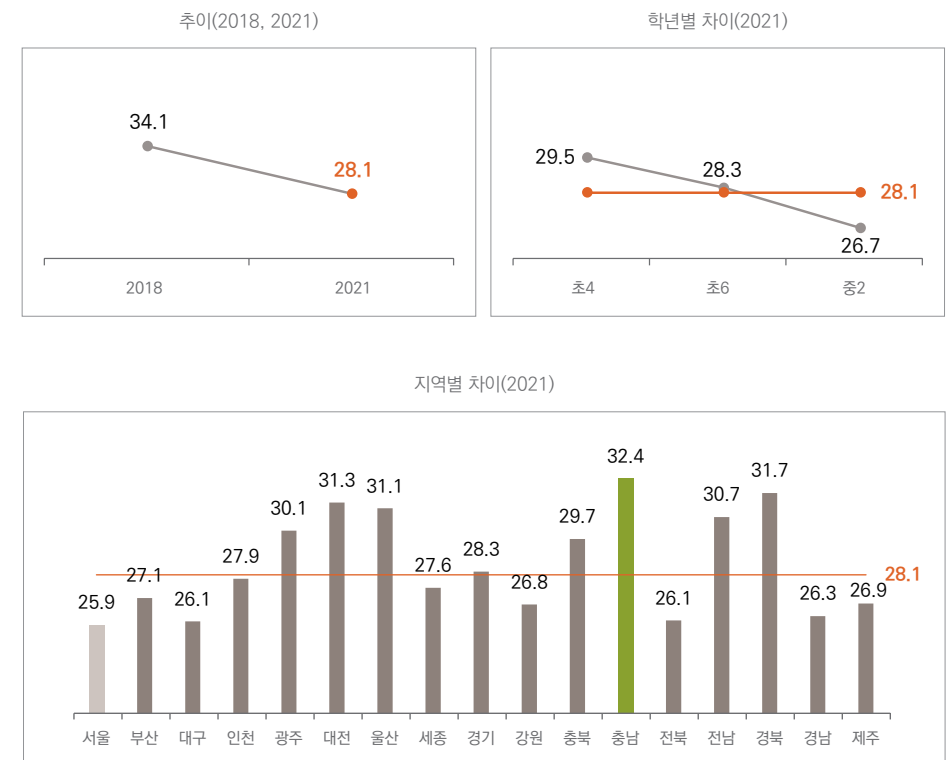


[그림 III-37] 방임 인식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상황' 등을 방임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6년 97.0%', '18년 97.2%', '21년 98.1%'로 방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98.0%, 6학년은 98.3%, 중등 2학년은 97.9%이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99.5%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97.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체벌의 효과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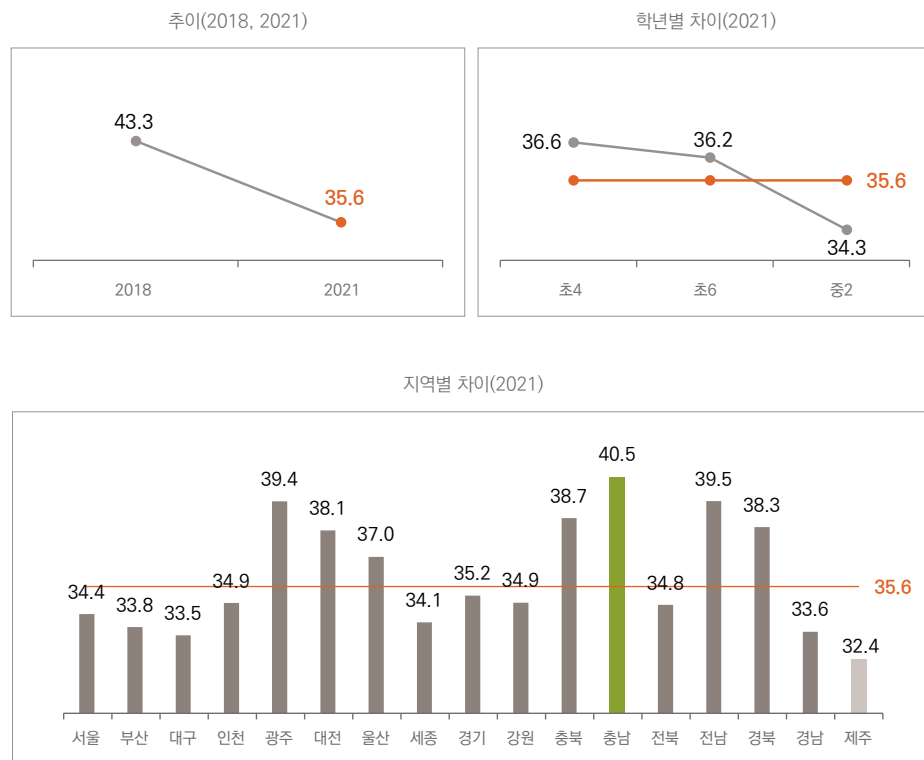


[그림 III-38] 체벌인식_체벌의 효과

체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18년 34.1점', '21년 28.1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4학년은 29.5점, 6학년은 28.3점, 중등 2학년은 26.7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체벌의 효과성 정도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25.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체벌인식_체벌의 필요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체벌에 대한 필요성 인지 정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 필요성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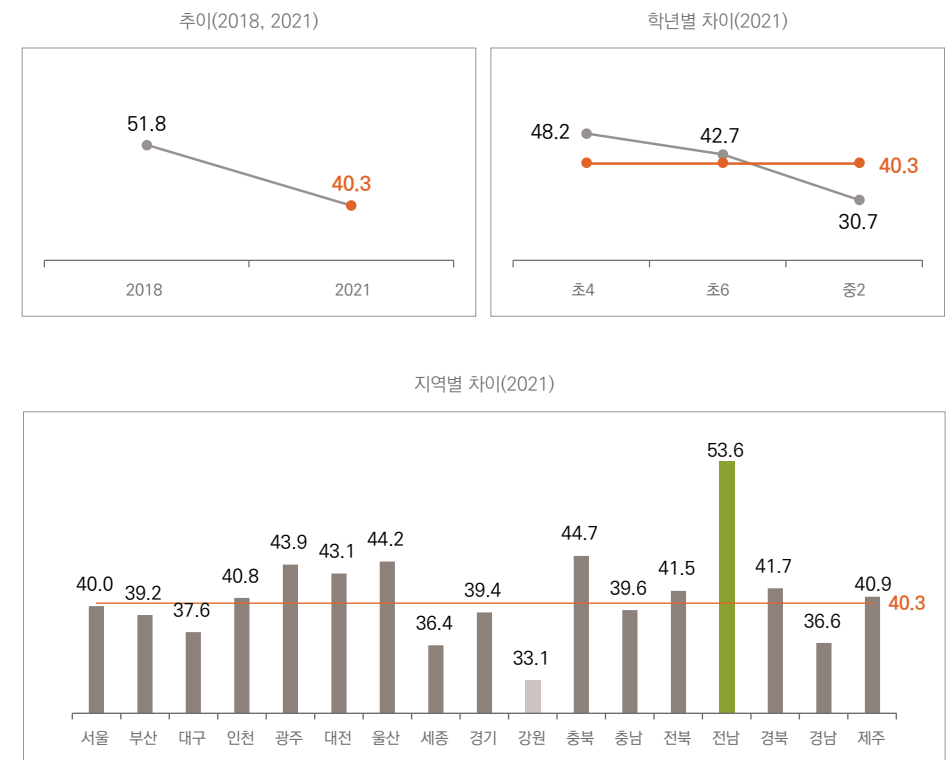


[그림 III-39] 체벌인식_체벌의 필요성

부모(보호자)가 인식하는 체벌의 필요성 정도는 '18년 43.3점, '21년 35.6점으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6.6점, 6학년은 36.2점, 중등 2학년은 34.3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체벌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32.4점으로 가장 낮았다.

☑ 체벌인식_체벌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간 체벌을 1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경우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전혀 없었다, ② 일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2~3개월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 측정 : 지난 1년간 자녀에게 체벌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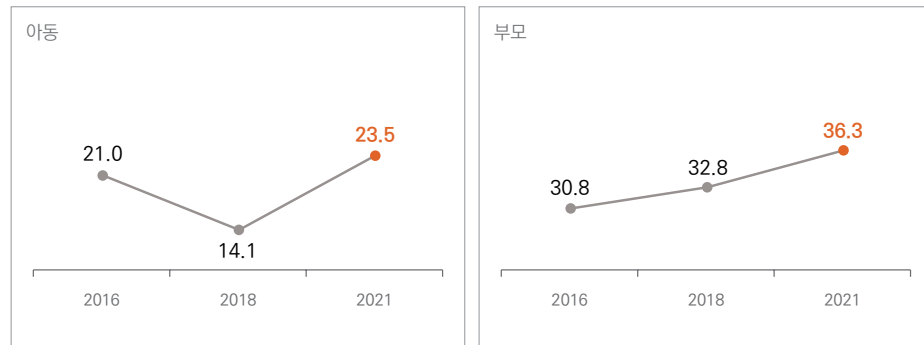
[그림 III-40] 체벌인식_체벌경험

부모(보호자)의 체벌 경험은 '18년 51.8%였으나, '21년 40.3%로 감소하였다. 11.5%p 감소한 수치이나, 민법 상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8.2%, 6학년은 42.7%, 중등 2학년은 30.7%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체벌경험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되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33.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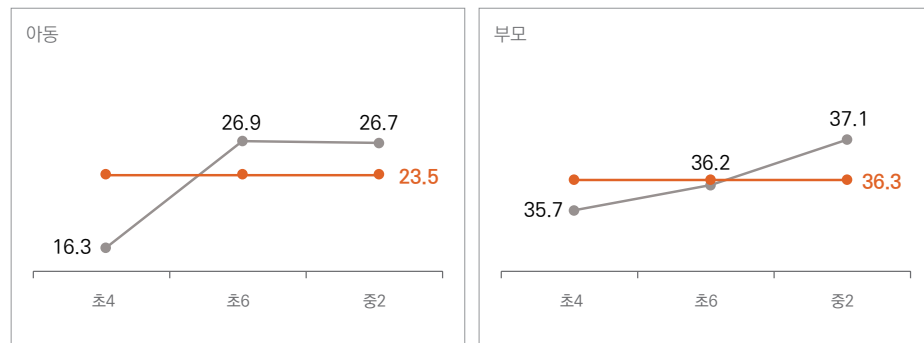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부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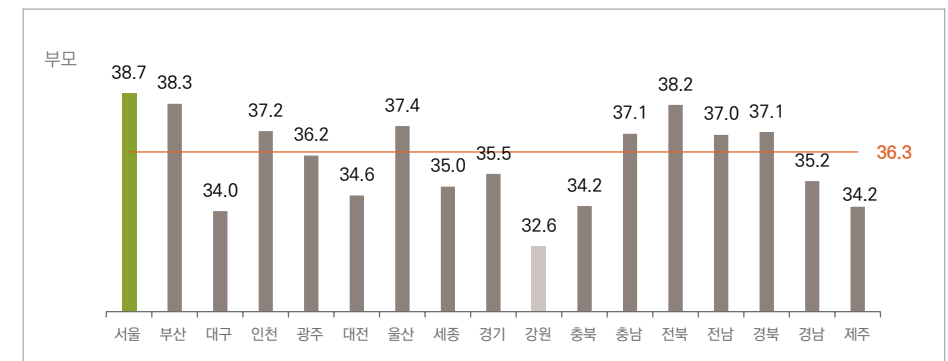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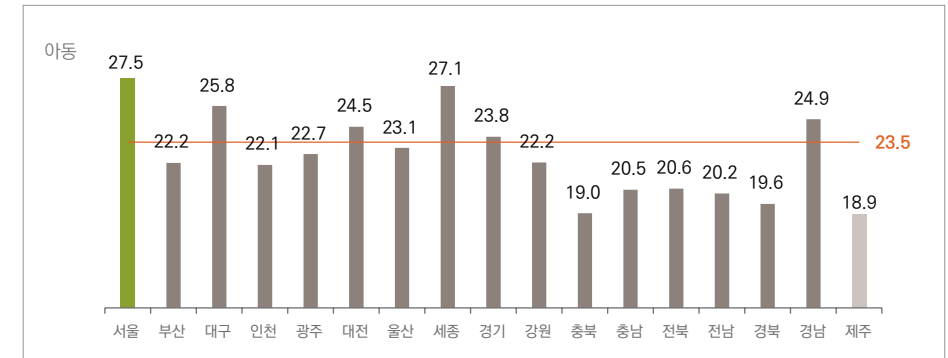
추이(2016, 2018, 2021)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그림 III-4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결과 아동의 협약 인지 정도는 '16년 21.0 점, '18년 14.1점, '21년 23.5점으로 나타났다. '18년에 감소하였다가 '21년에 전차 대비 9.4점 증가하였다. 부모(보호자)의 협약 인지 정도는 '16년 30.8점, '18년 32.8점, '21년 36.3점으로 아동에 비해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초등 4학년은 16.3점, 초등 6학년은 26.9점, 중등 2학년은 26.7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보호자)는 초등 4학년은 35.7점, 초등 6학년은 36.2점, 중등 2학년은 37.1점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협약 인지 정도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아동은 서울이 2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8.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보호자) 응답자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서울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32.6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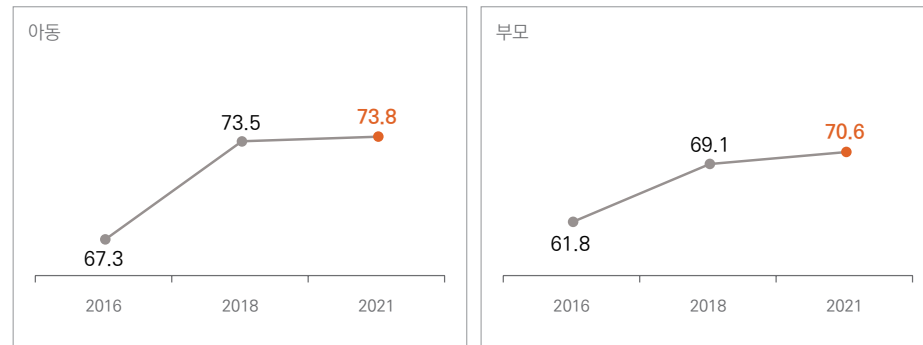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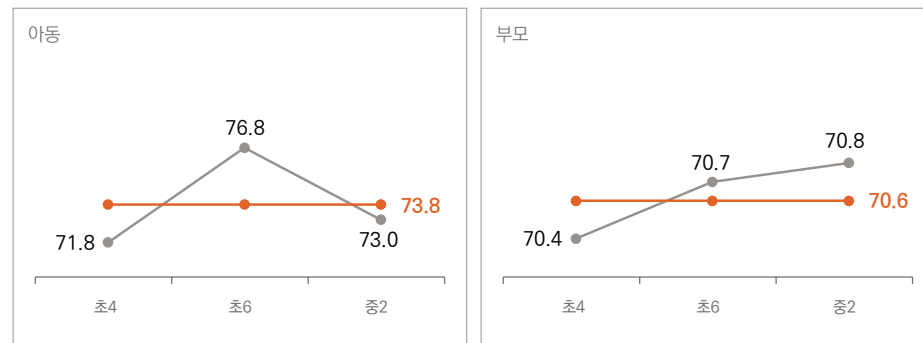
☑ 아동권리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부모가 아동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권리 인식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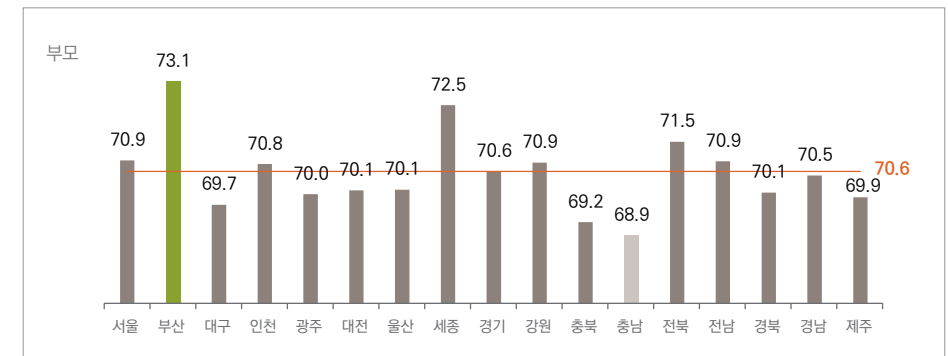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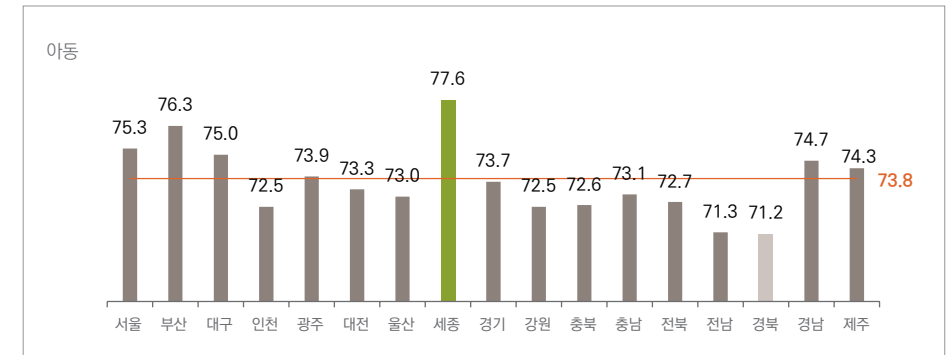
추이(2016, 2018, 2021)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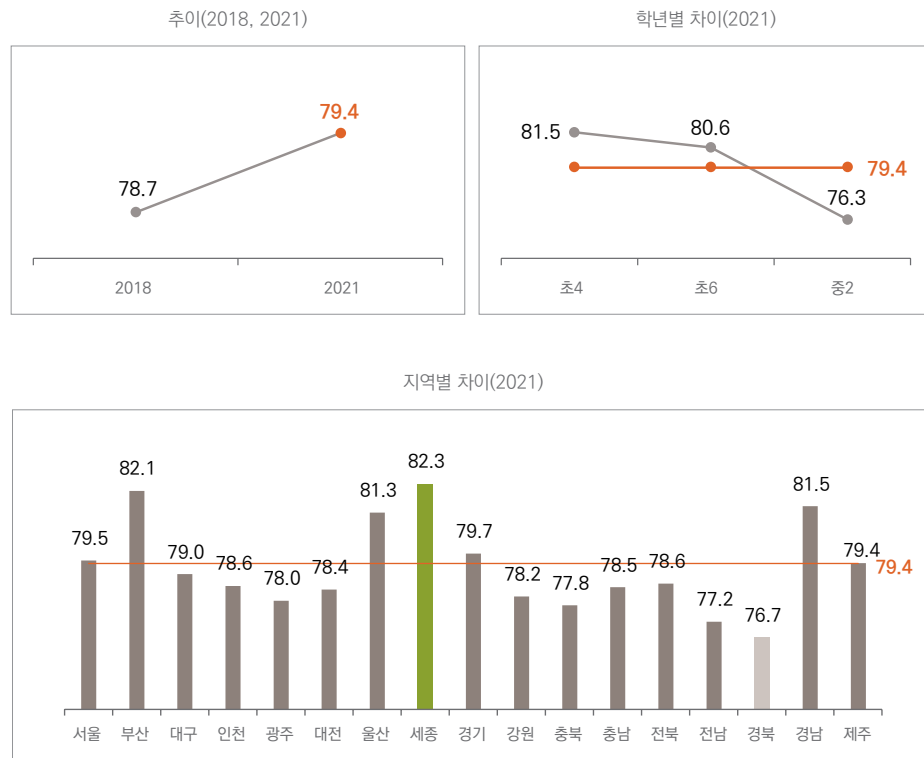
[그림 III-42] 아동권리 인식

아동권리 인식 정도는 아동은 '16년 67.3점, '18년 73.5점, '21년 73.8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보호자) 또한 '16년 61.8점, '18년 69.1점, '21년 70.6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아동권리 인식 정도는 부모(보호자)에 비해 아동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초등 4학년은 71.8점, 초등 6학년은 76.8점, 중등 2학년은 73.0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보호자)는 초등 4학년은 70.4점, 초등 6학년은 70.7점, 중등 2학년은 70.8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아동은 세종이 7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1.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부모(보호자)의 경우 부산이 7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68.9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권리가 가정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43] 아동권리 존중 정도_가정

가정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는 '18년 78.7점, '21년 79.4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1.5점, 6학년은 80.6점, 중등 2학년은 76.3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정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6.7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권리가 학교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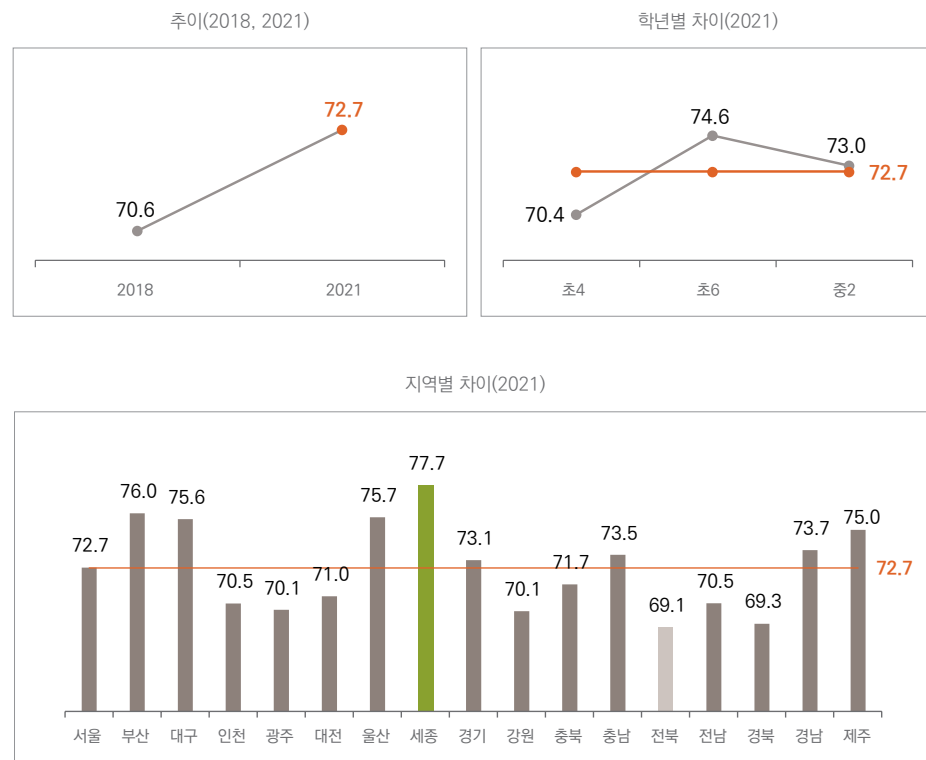


[그림 III-44] 아동권리 존중 정도_학교

학교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정도는 '18년 75.4점, '21년 78.9점으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0.2점, 6학년은 80.9점, 중학교 2학년은 75.8점으로 중등 2학년의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2.0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5.7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권리가 동네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 안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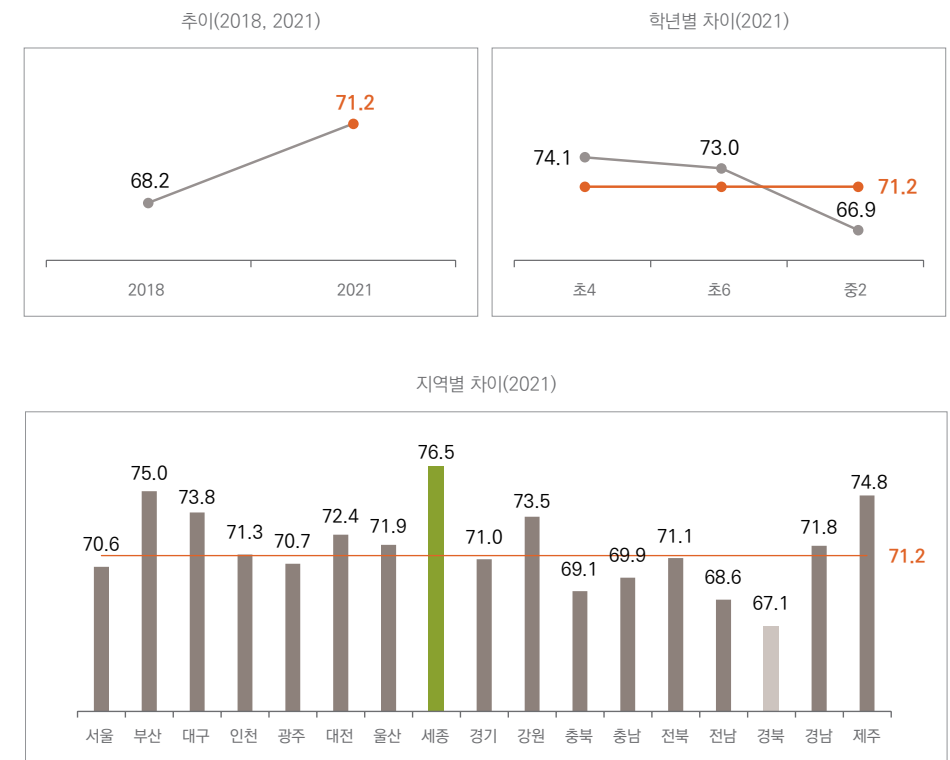


[그림 III-45] 아동권리 존중 정도_동네

동네 즉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 '18년 70.6 점, '21년 72.7점으로 동네의 아동권리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0.4점, 6학년은 74.6점, 중등 2학년은 73.0점이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9.1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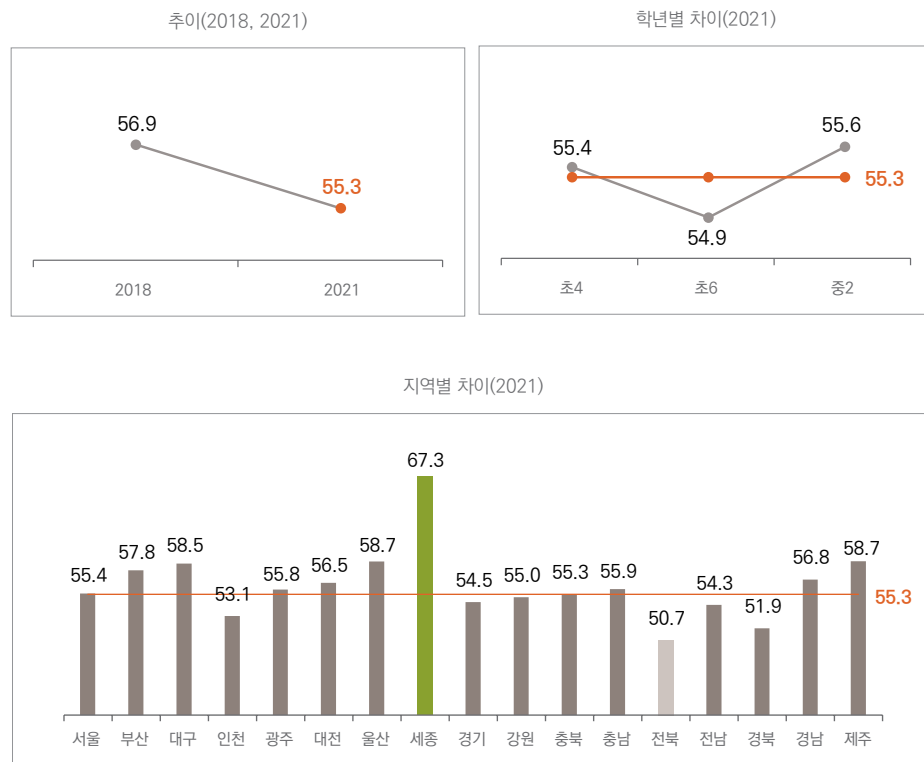


[그림 III-46] 아동권리 존중 정도_우리나라

아동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는 '18년 68.2점, '21년 71.2점으로 전차 대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4.1점, 6학년은 73.0점, 중등 2학년은 66.9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67.1점으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권리가 사이버공간 안에서 존중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공간 속 아동권리 존중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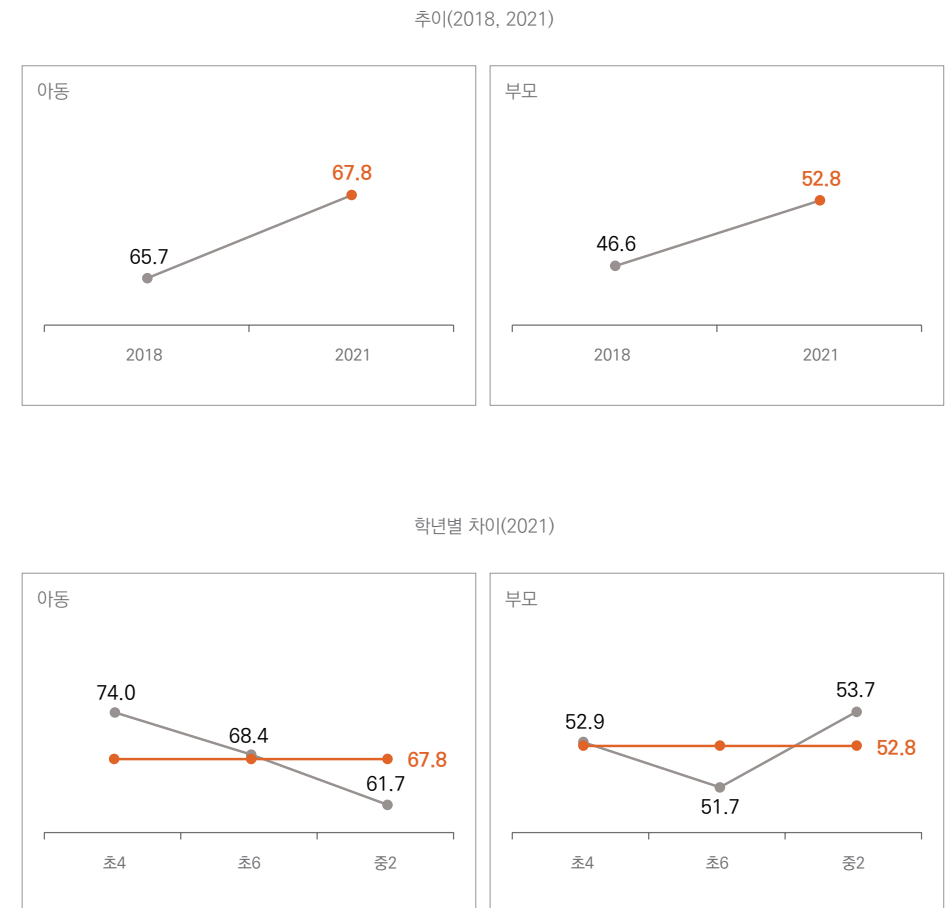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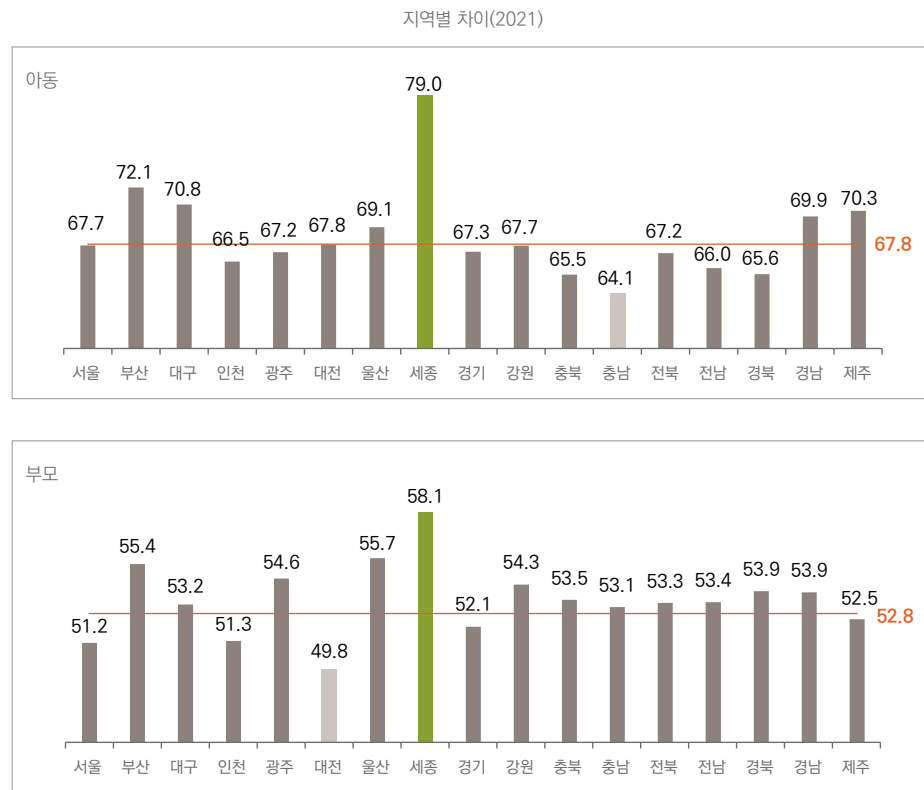
[그림 III-47] 아동권리 존중 정도_사이버공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 '18년 56.9점, '21년 55.3점으로 사이버공간의 아동권리 수준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5.4점, 6학년은 54.9점, 중등 2학년은 55.6점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67.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50.7점으로 가장 낮았다.

☉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정도 (10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가 큼(단위: 점)





[그림 III-48]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동은 '18년 65.7점, '21년 67.8점으로 다소 높아졌으며, 부모(보호자)는 '18년 46.4점, '21년 52.8점으로 아동과 마찬가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부모(보호자)에 비해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은 74.0점, 6학년은 68.4점, 중등 2학년은 61.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졌으며,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는 초등 4학년은 52.9점, 6학년은 51.7점, 중등 2학년 53.7점으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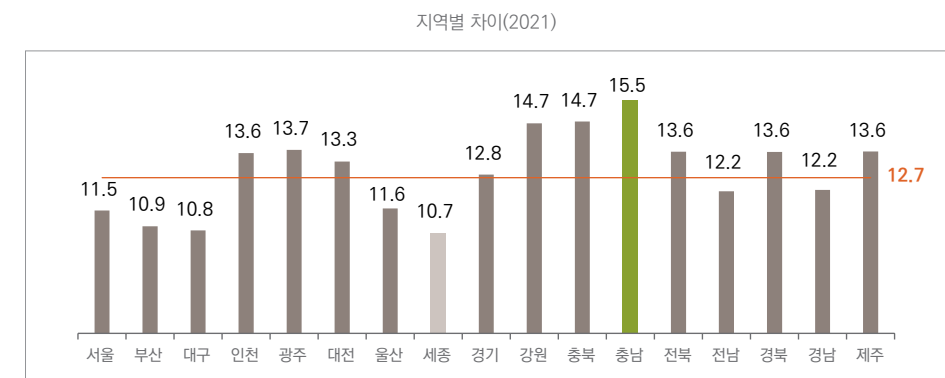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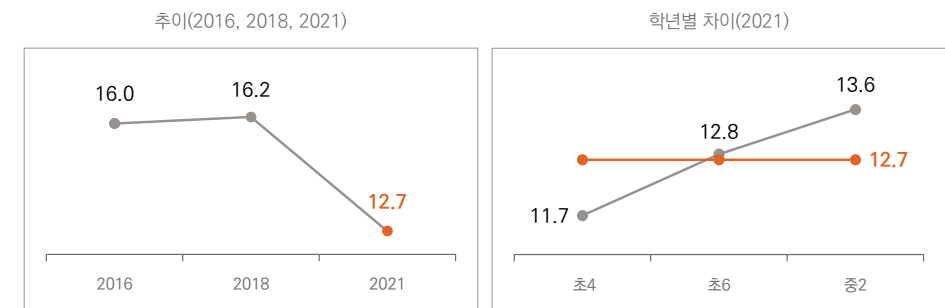
시·도별로 살펴보면 아동은 세종이 7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64.1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도 세종이 58.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49.8점으로 가장 낮았다.

2) 권리 경험

(1) 생존권 경험

☑ 식품 미보장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녀에게 양질의 식단을 충분히 제공한 정도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미보장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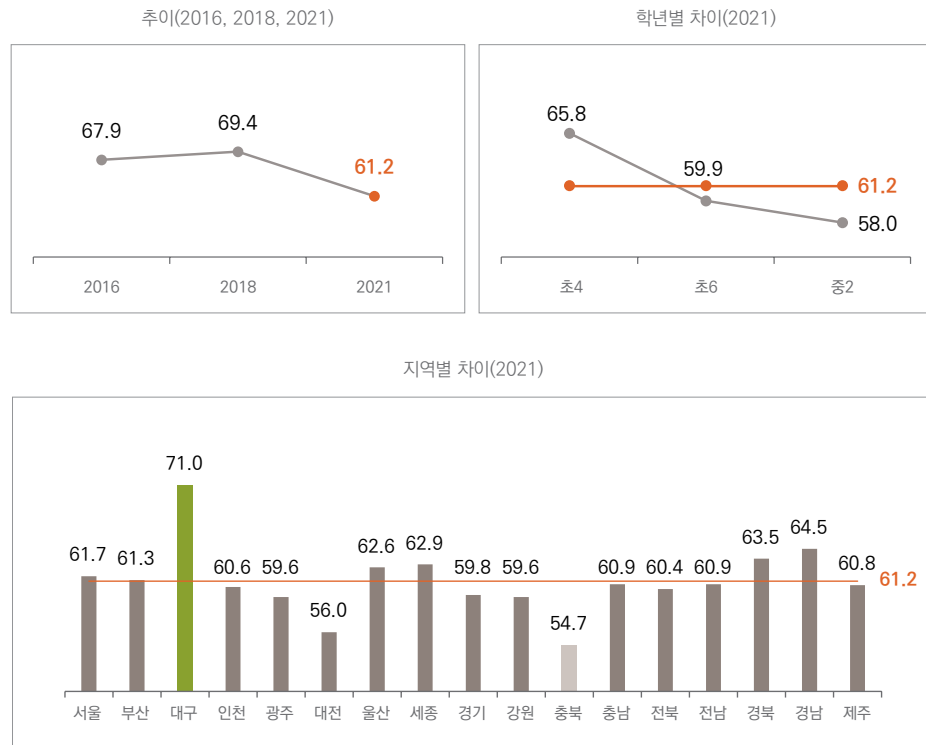


[그림 III-49] 식품 미보장

부모(보호자)의 식품 미보장 정도는 '16년 16.0점, '18년 16.2점, '21년 12.7점으로 '16년, '18년에 비해 '21년에는 식품 미보장 정도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 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1.7점, 6학년은 12.8점, 중등 2학년은 13.6점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식품 미보장 정도도 높았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15.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0.7점으로 식품 미보장 정도가 가장 낮았다.

☑️ 규칙적인 식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 비율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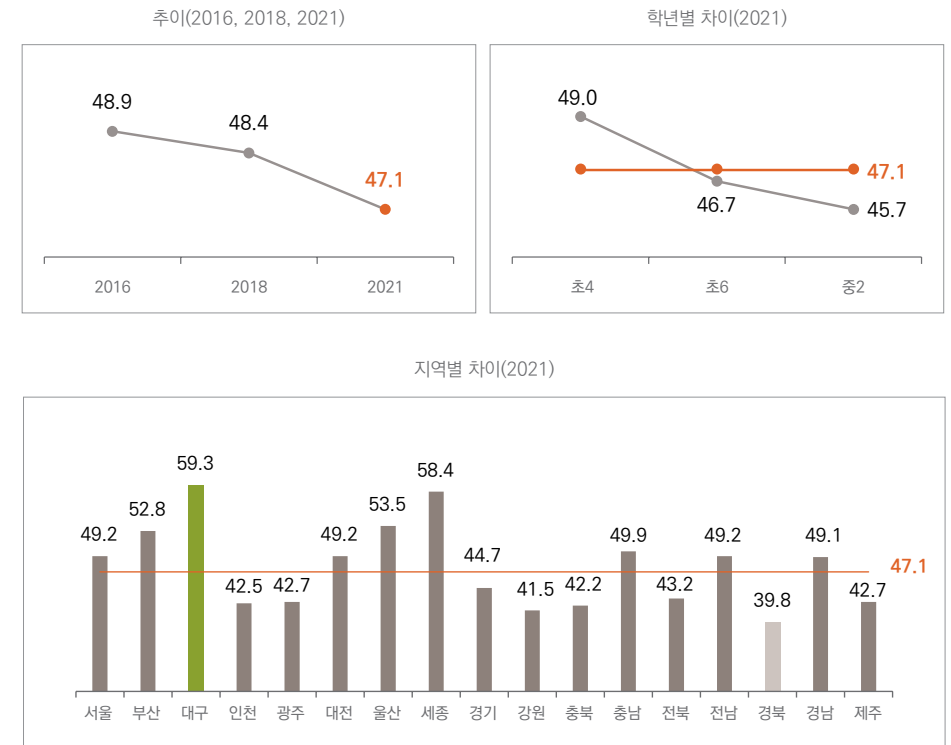


[그림 III-50] 규칙적인 식사

아동의 규칙적인 식사 비율은 '16년 67.9%, '18년 69.4%, '21년 61.2%로 2018년 이후 그 비율이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의 65.8%, 6학년의 59.9%, 중등 2학년의 58.0%가 1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대구가 7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남(64.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충북과 대전은 각각 54.7%, 56.0%의 비율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 신선한 채소 섭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1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 비율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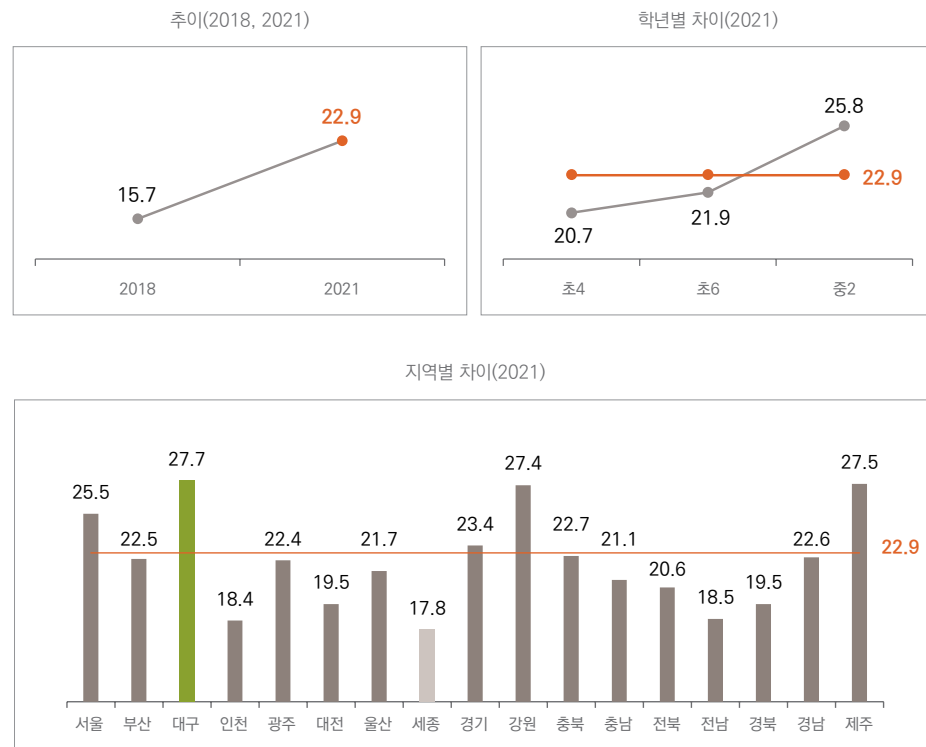


[그림 III-51] 신선한 채소 섭취

신선한 채소 섭취 비율을 살펴보면 '16년 48.9%, '18년 48.4%, '21년 47.1%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의 49.0%, 6학년의 46.7%, 중등 2학년의 45.7%가 1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경북이 39.8%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 육류섭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1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한 비율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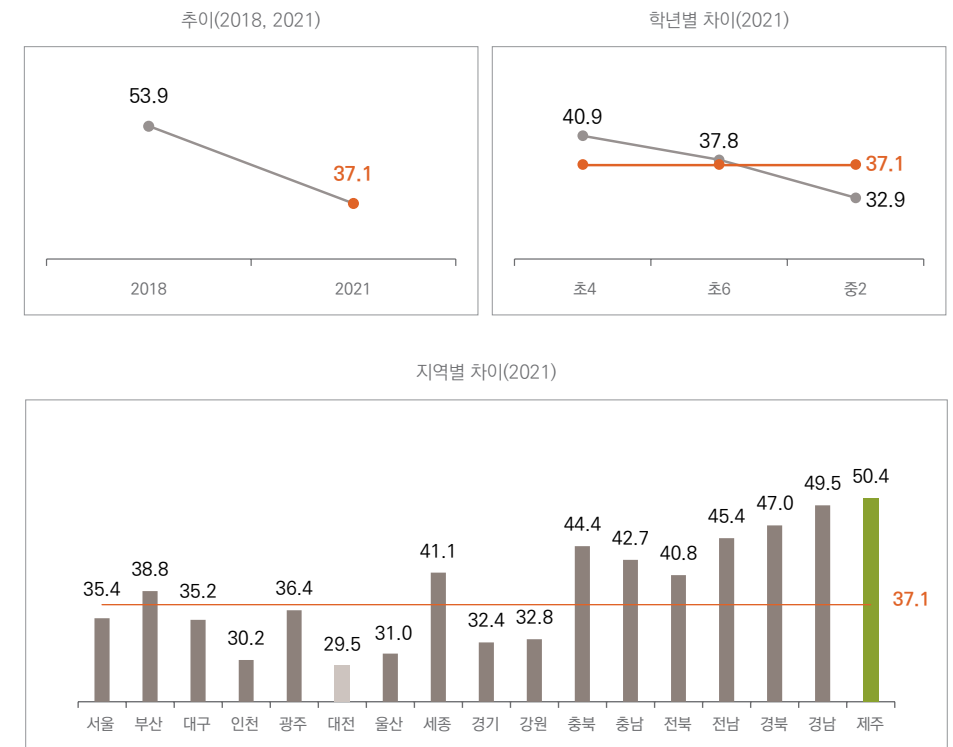


[그림 III-52] 육류 섭취

아동의 연도별 육류섭취 비율은 '18년 15.7%에서 '21년 22.9%로 7.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0.7%, 6학년의 21.9%, 중등 2학년의 25.8%가 1주일에 5일 이상 육류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여,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섭취 비율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2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세종이 1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우유섭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1주일에 5일 이상 우유를 섭취한 비율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5일 이상 우유를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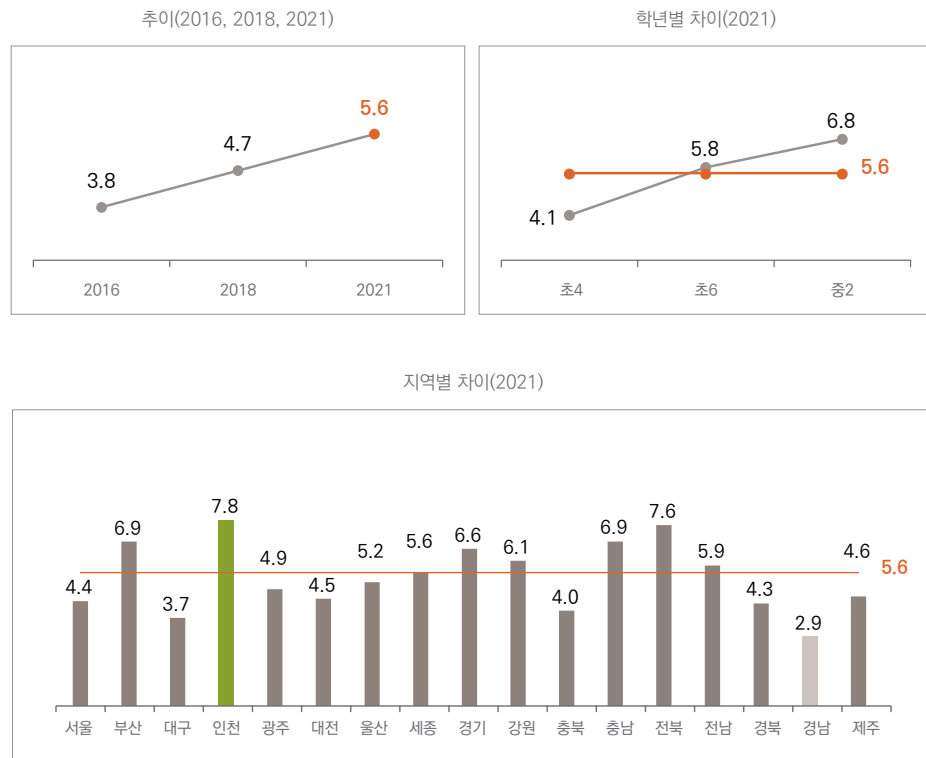


[그림 III-53] 우유 섭취

우유섭취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53.9%에서 '21년 37.1%로 전차 대비 16.8%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40.9%, 6학년은 37.8%, 중등 2학년은 32.9%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유섭취 비율도 낮아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50.4%로 가장 높았고, 대전이 2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두 지역간 아동의 우유섭취 비율이 20.9%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1주일에 5일 이상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을 섭취한 비율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먹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5일 이상 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을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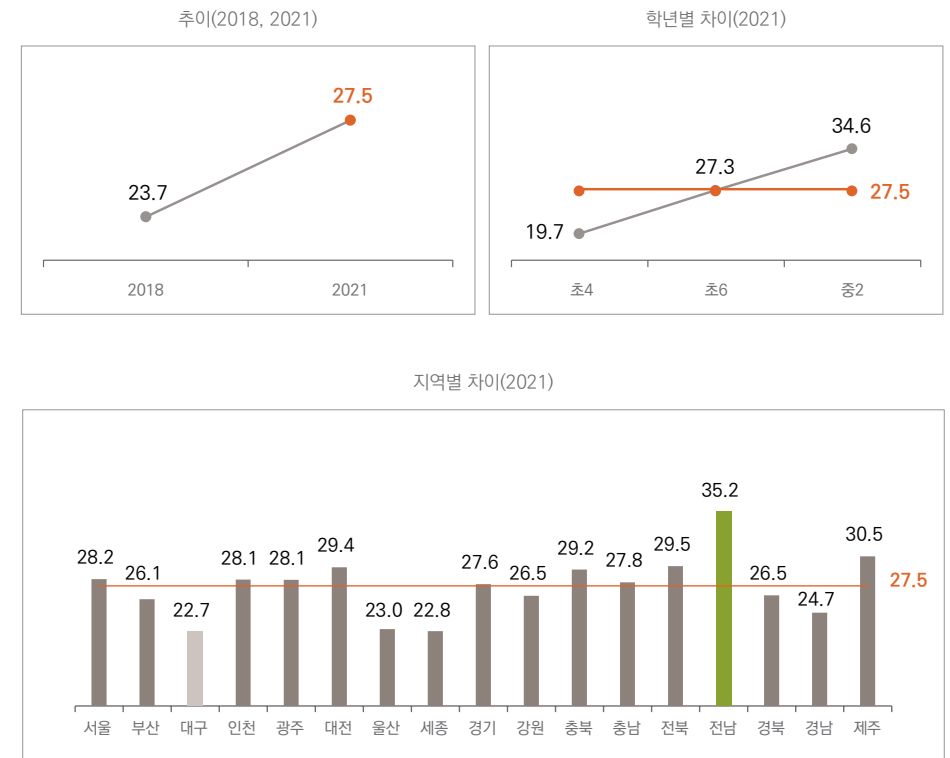


[그림 III-54]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아동의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은 '16년 3.8%, '18년 4.7%, '21년 5.6%로 점 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1%, 6학년은 5.8%, 중등 2학년은 6.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7.8%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9%로 가장 낮았다.

☉ 아침식사 결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달 동안의 아침식사 결식정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항상 먹지 못했음, ② 거의 대부분 먹지 못했음, ③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었음, ④ 거의 대부분 먹었음, ⑤ 매일 먹었음)
- 측정 :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침식사 결식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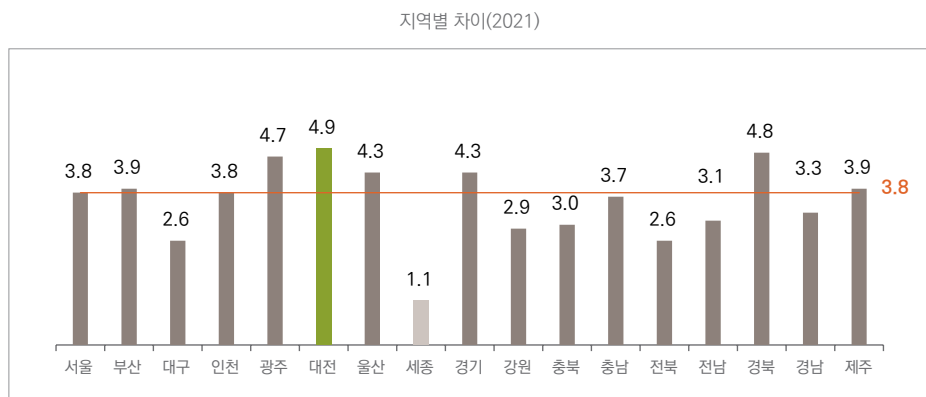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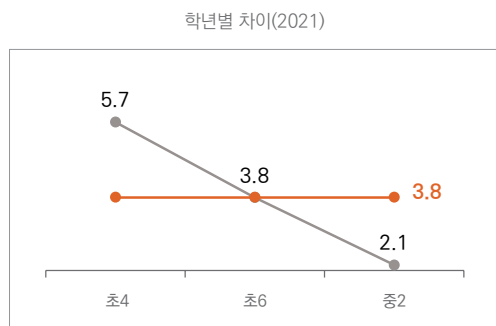


[그림 III-55] 아침식사 결식

지난 1달 동안 아침식사를 먹지 못한 정도는 '18년 23.7점, '21년 27.5점으로 전차 대비 아침식사 결식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9.7점, 6학년은 27.3점, 중등 2학년은 34.6점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침식사 결식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2.7점으로 가장 낮았다.

☑ 결식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달 동안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사유로 결식한 경험 정도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전혀 없었음, ② 1~2번 정도 있었음, ③ 3번 이상 있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가정형편이나 경제적 사유로 결식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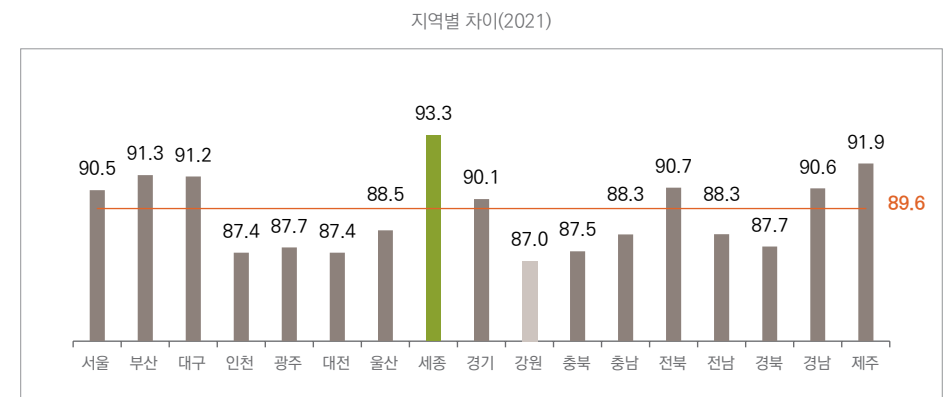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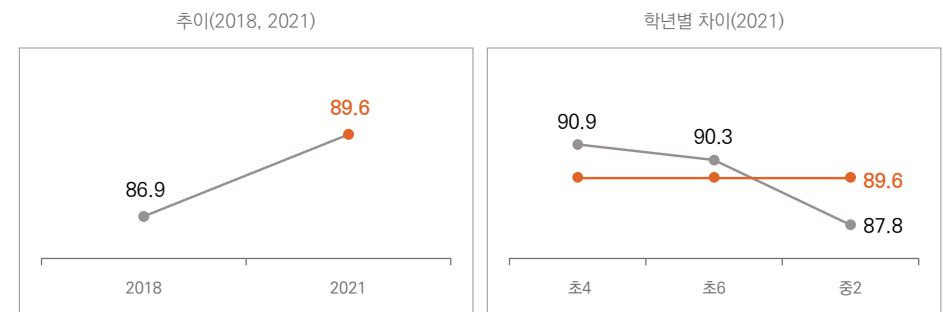


[그림 III-56] 결식 경험

지난 1달 동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평균 3.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7%, 6학년은 3.8%, 중등 2학년은 2.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경제적 사유로 결식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4.9%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로 가장 낮았다.

☑ 깨끗한 물 이용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평소에 마시는 물의 깨끗한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물 이용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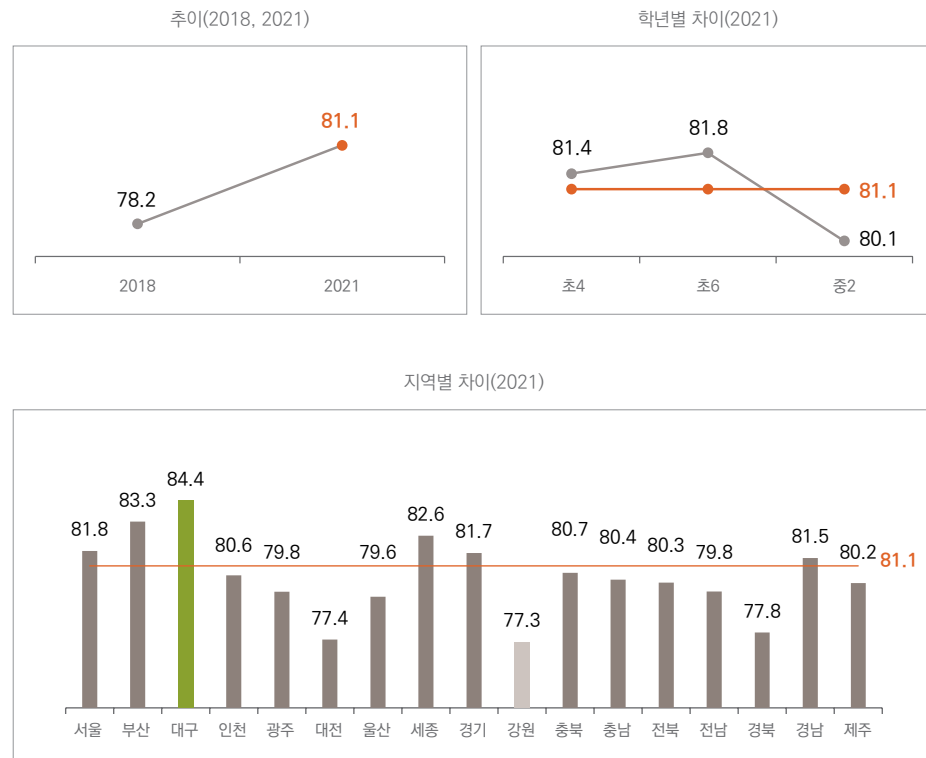


[그림 III-57]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물 이용 정도는 '18년 86.9점에서 '21년 89.6점으로 깨끗한 물 이용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90.9점, 6학년이 90.3점, 중등 2학년이 87.8점을 나타냈으며, 시도별로는 세종이 9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87.0점으로 가장 낮았다.

☑ 깨끗한 화장실 이용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평소에 다니는 화장실의 깨끗한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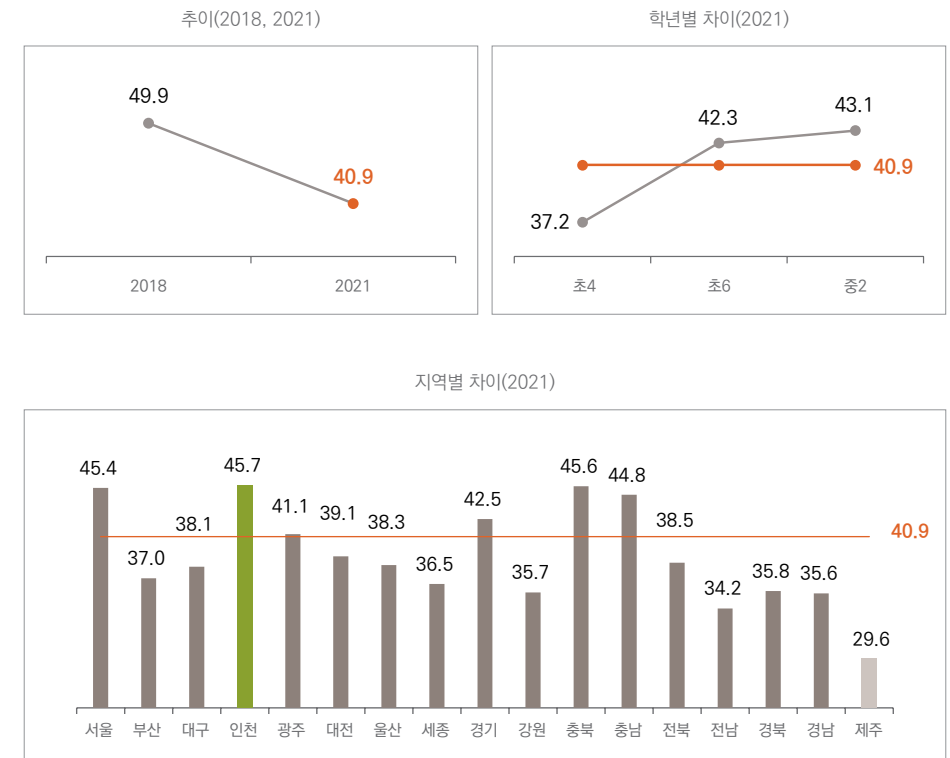


[그림 III-58] 깨끗한 화장실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는 '18년 78.2점에서 '21년 81.1점으로 깨끗한 화장실 이용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1.4점, 초등 6학년 81.8 점, 중등 2학년 80.1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대구가 84.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7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미세먼지 노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의 미세먼지 노출 정도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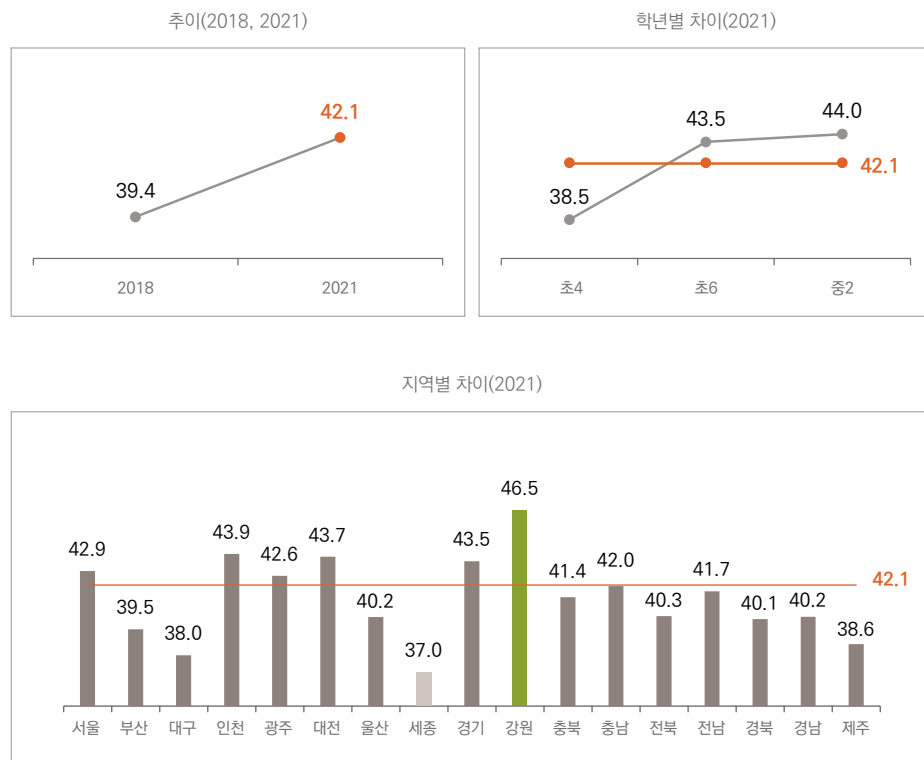


[그림 III-59] 미세먼지 노출 정도

미세먼지 노출 정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8년 49.9점에서 '21년 40.9점으로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9.0점이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이 37.2점, 6학년이 42.3점, 중등 2학년이 43.1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인천이 45.7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9.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간접흡연 노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맡게 되는 경우가 흔한(많은)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간접흡연노출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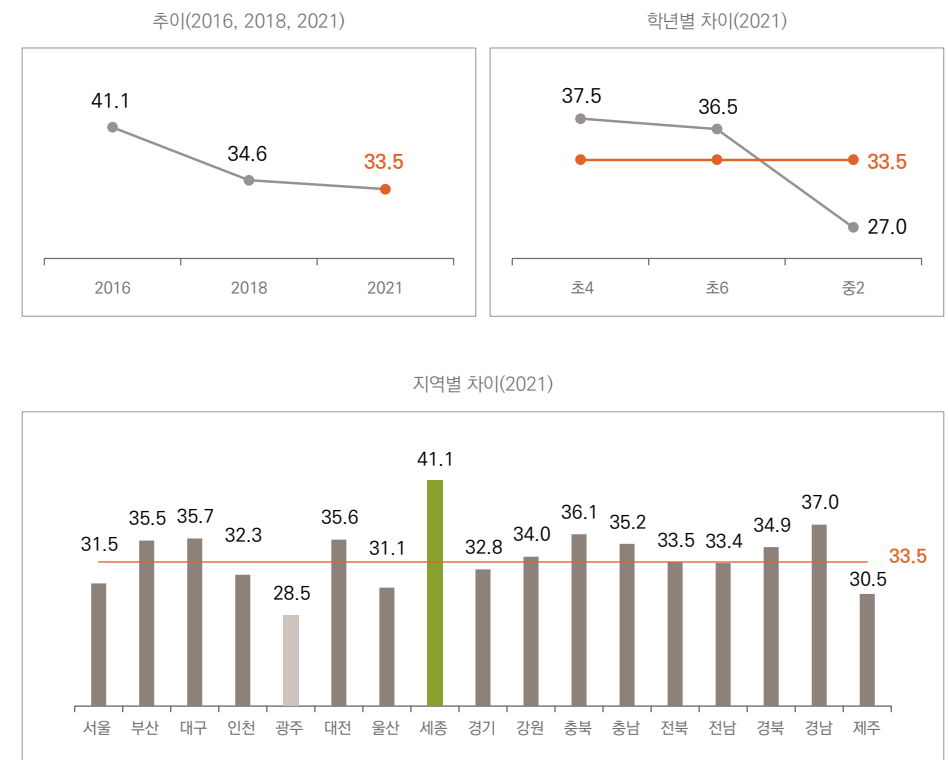


[그림 III-60] 간접흡연 노출 정도

간접흡연 노출 정도는 '18년 39.4점에서 '21년 42.1점으로 간접흡연 노출 정도가 다소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38.5점, 6학년이 43.5점, 중등 2학년이 44.0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간접흡연 노출 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7개 시도별 평균 점수는 강원이 46.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세종이 37.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가벼운 신체활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주일 동안 숨이 약간 가쁜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3~4일 이상 활동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가벼운 신체활동을 많이 한 것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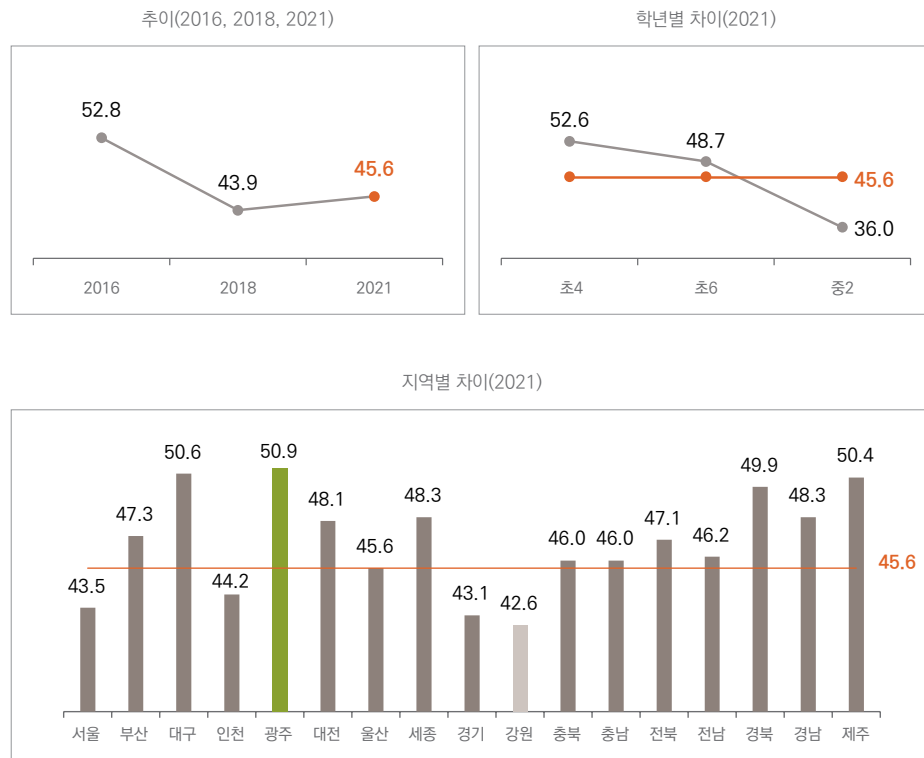


[그림 III-61] 가벼운 신체활동

가벼운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 비율은 '16년 41.1%, '18년 34.6%, '21년 33.5%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7.5%, 초등 6학년은 36.5%, 중등 2학년은 27.0%로 중등 2학년의 경우 초등 4, 5학년에 비해 가벼운 신체활동 정도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28.5%로 가장 낮았다.

㉠ 격렬한 신체활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주일 동안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④ 1주일에 5일 이상)
- 측정 : 1주일에 3~4일 이상 활동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격렬한 신체활동을 많이 한 것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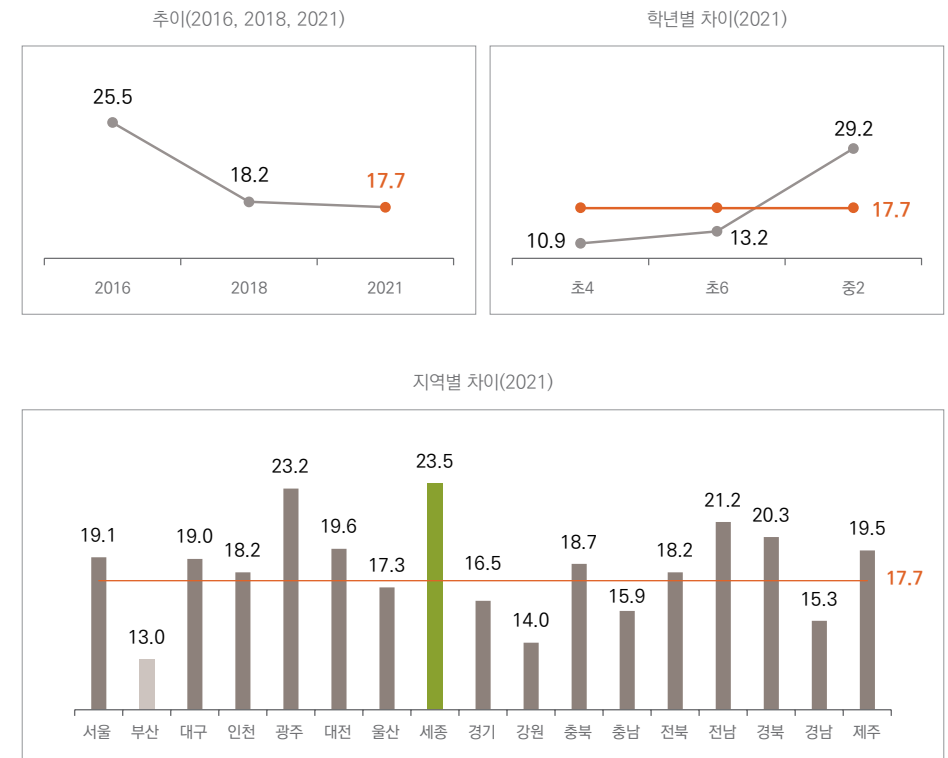


[그림 III-62] 격렬한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 정도를 살펴보면 '16년 52.8%, '18년 43.9%, '21년 45.6%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52.6%, 초등 6학년은 48.7%, 중등 2학년은 36.0%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격렬한 신체활동 정도는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0.9%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4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수면시간 부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의 수면시간 부족 정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측정 :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의 수면시간이 부족한 것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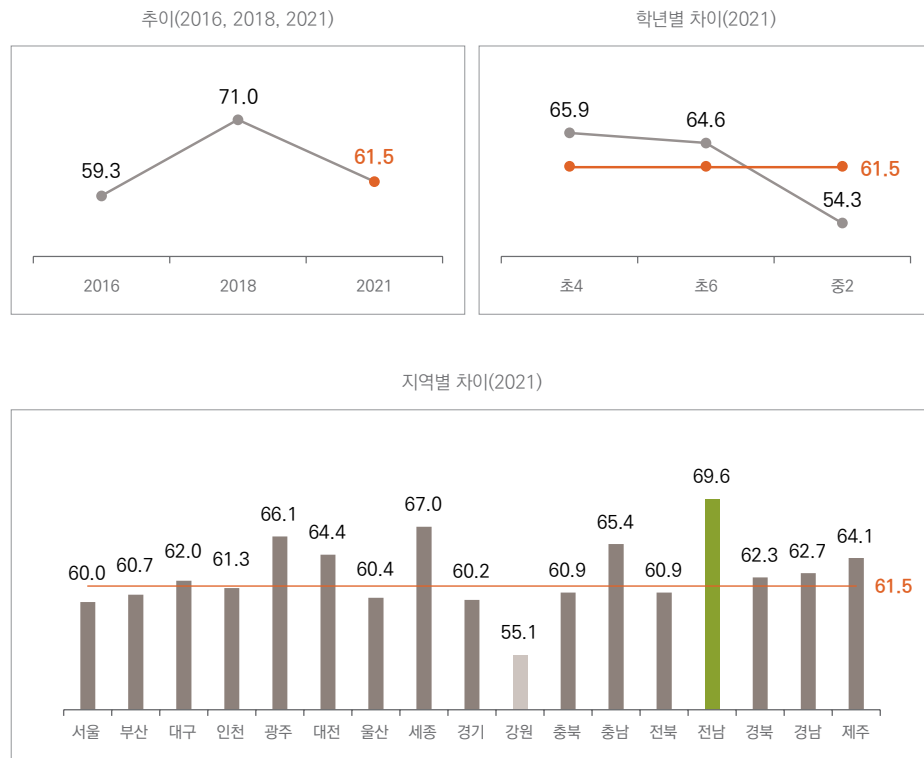


[그림 III-63] 수면시간 부족

수면시간의 부족 정도는 '16년 25.5%, '18년 18.2%, '21년 17.7%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0.9%, 6학년 13.2%, 중등 2학년은 29.2%로 초등 6학년에 비해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수면시간 부족 비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3.0%로 가장 낮았다.

☑ 건강검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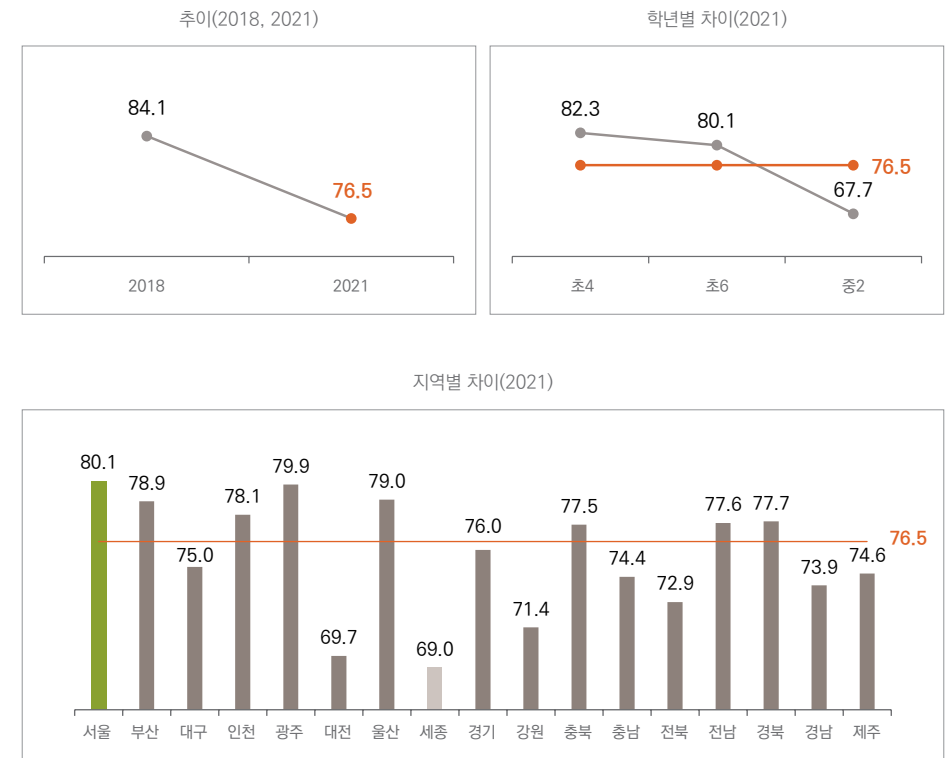


[그림 III-64] 건강검진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 비율은 '16년 59.3%, '18년 71.0%, '21년 61.5%로 '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5.9%, 6학년 64.6%, 중등 2학년은 54.3%로 초등 4학년의 건강검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전남이 69.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원이 55.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치과검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받아본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치과검진 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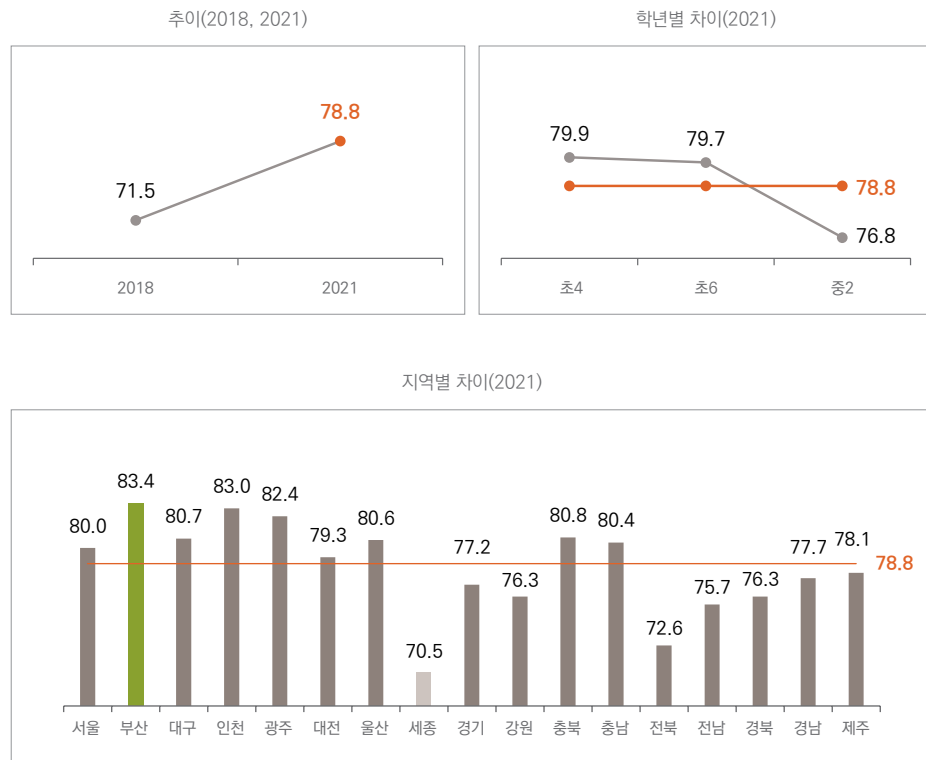


[그림 III-65] 치과검진

아동의 치과검진 비율은 '18년 84.1%, '21년 76.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증가할수록 치과검진을 받아 본 아동 비율은 낮아졌다. 17개 시·도별로는 서울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69.0%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예방접종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예방 접종 1회 이상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예방접종 경험 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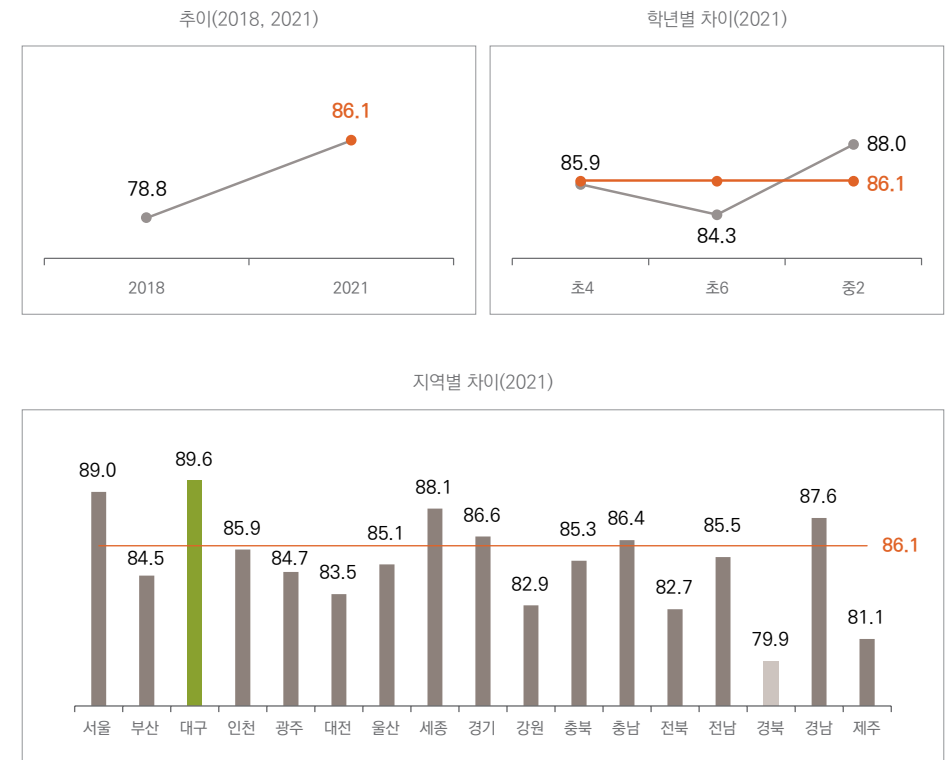


[그림 III-66] 예방접종

지난 1년 간 예방접종을 1회 이상 경험한 아동 비율은 '18년 71.5%, '21년 78.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9.9%, 6학년 79.7%, 중등 2학년은 76.8%로 중등 2학년의 예방접종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부산이 83.4%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70.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병원 및 약국 이용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빈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언제든지 이용, ② 가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음, ③ 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음, ④ 전혀 갈 수 없음)
- 측정 :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병원 및 약국 이용 빈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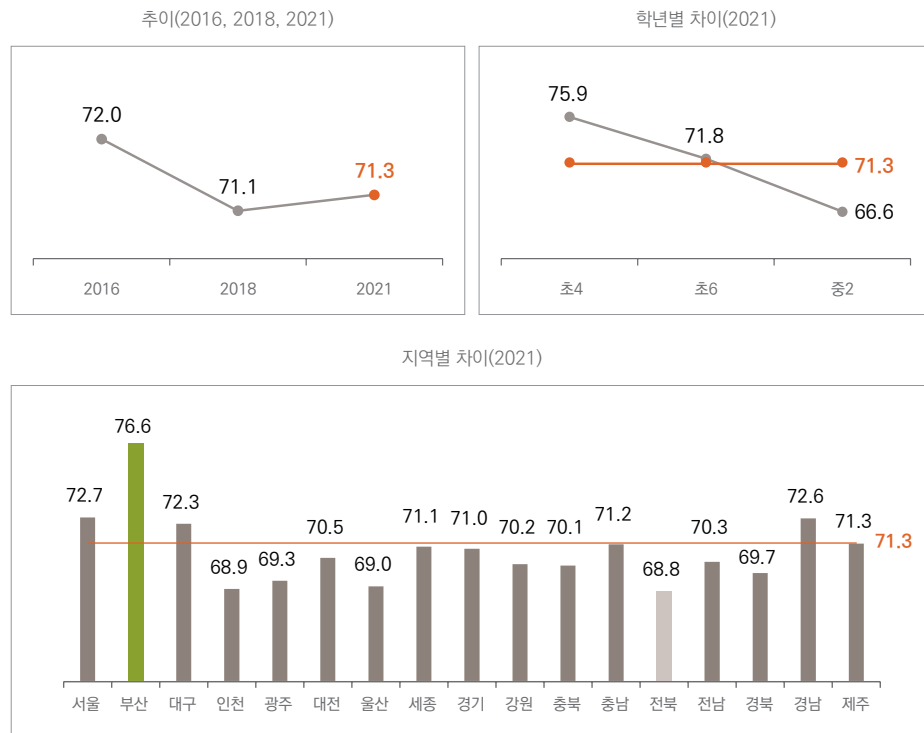
[그림 III-67] 병원 및 약국 이용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아동 비율은 '18년 78.8%, '21년 86.1%로 전 차 대비 7.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4.3%, 6학년 84.3%, 중등 2학년은 88.0%로 중등 2학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89.6%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79.9%로 가장 낮았다.

(2) 발달권 경험

☑ 학교생활 만족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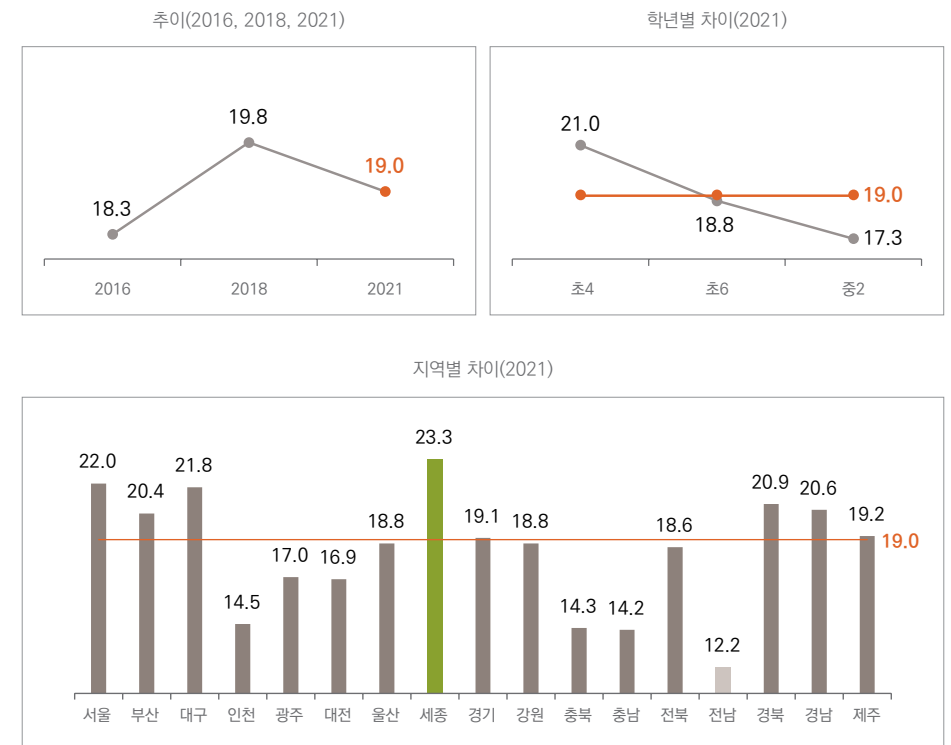


[그림 III-68]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16년 72.0점, '18년 71.1점, '21년 71.3점으로 나타났다. '18년과 '21년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에 제약이 많았으나 학교생활만족도는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5.9점, 6학년 71.8점, 중등 2학년은 66.6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산이 76.6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68.8점으로 가장 낮았다.

☑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방과 후 공부시간에 대한 아동의 인식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 측정 : '많다', '매우 많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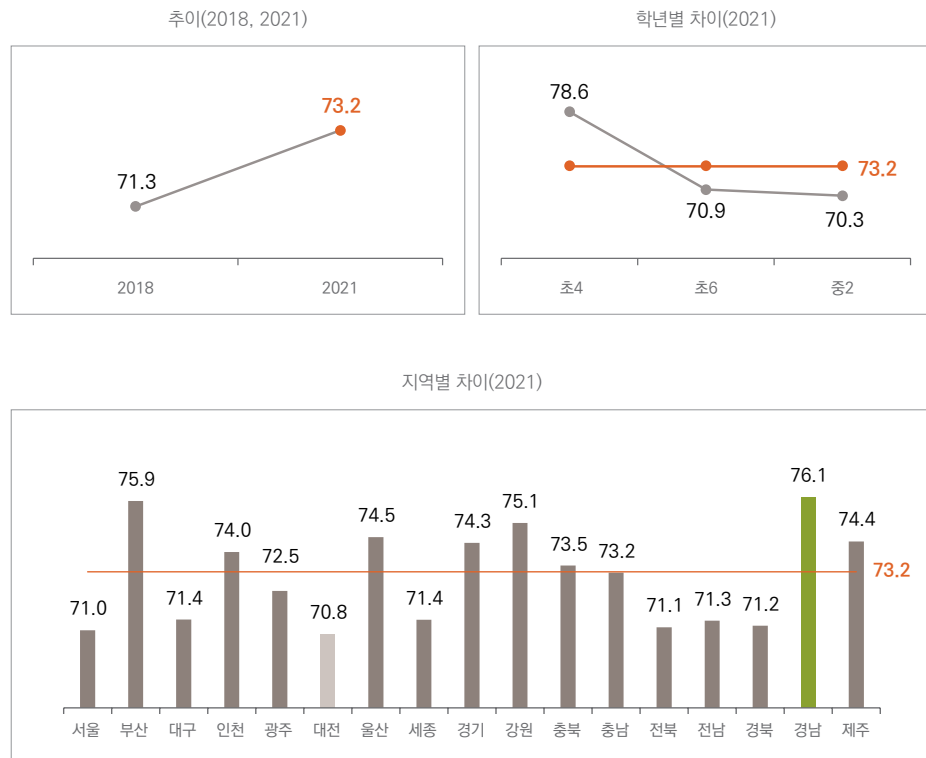


[그림 III-69]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8.3%, '18년 19.8%, '21년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21.0%, 6학년 18.8%, 중등 2학년 17.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과 후 공부시간을 많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이 12.2%로 가장 낮았다.

☑ 방과 후 수업 만족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방과 후 수업만족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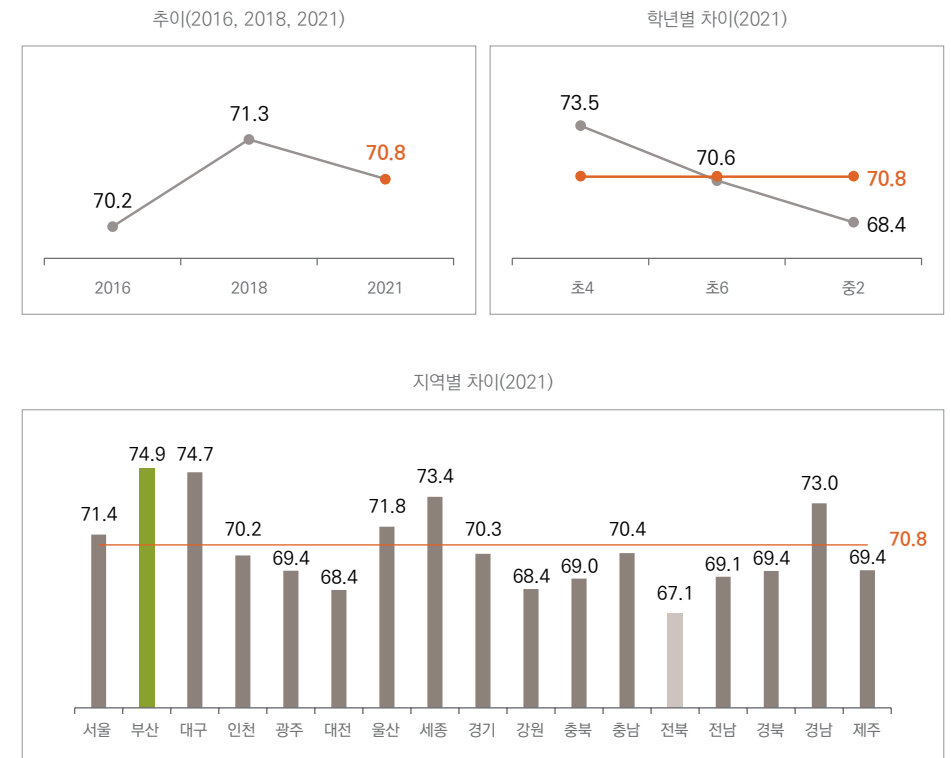


[그림 III-70] 방과 후 수업 만족도

방과 후 학원이나 과외수업 만족 정도는 '18년 71.3점, '21년 73.2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8.6점, 6학년 70.9점, 중등 2학년 70.3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이 70.8점으로 가장 낮았다.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 정도 (4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관심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71]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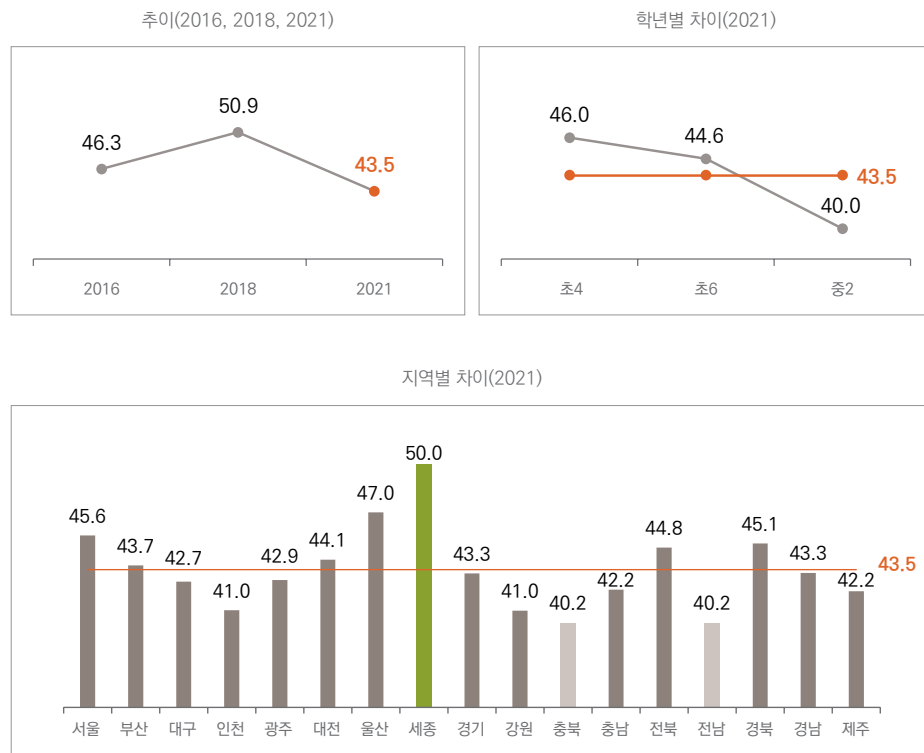
부모(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정도는 '16년 70.2점, '18년 71.3점, '21년 7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3.5점, 6학년 70.6점, 중등 2학년 68.4점으로 초등 4학년 자녀를 둔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이 가장 높고,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심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 67.1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참여 정도 (4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적 참여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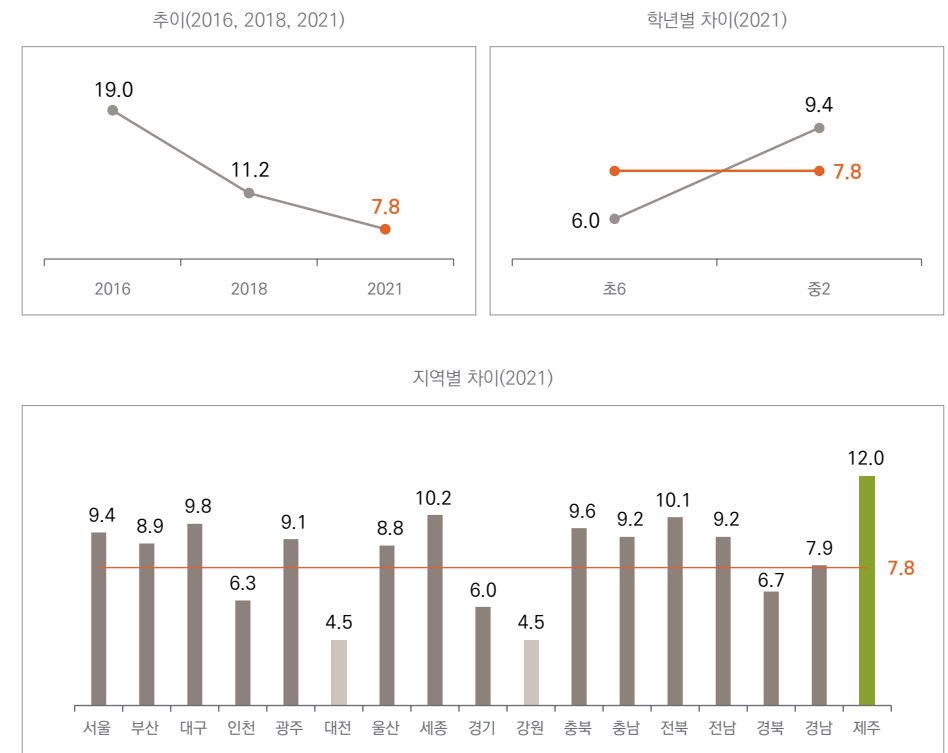


[그림 III-72]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정도는 '16년 46.3점, '18년 50.9점, '21년 43.5점으로 '18년도에 증가하다가 '21년에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6.0점, 6학년 44.6점, 중등 2학년 40.0점으로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과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5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과 전남이 40.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놀이 및 휴식시간의 부족 정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측정 :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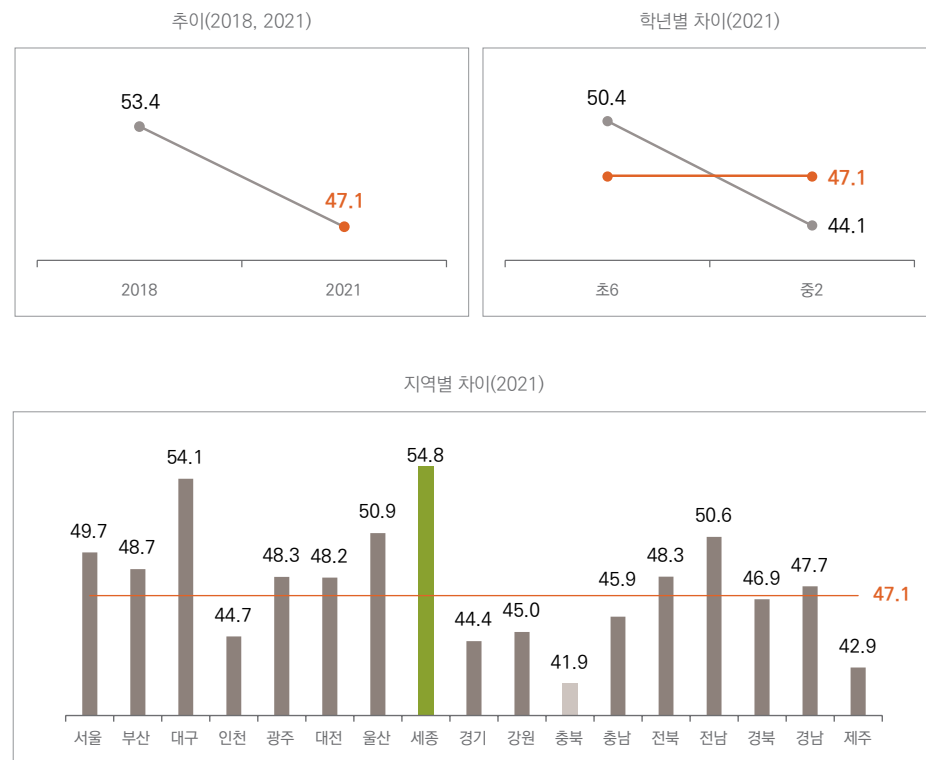


[그림 III-73]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아동의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 정도는 '16년 19.0%, '18년 11.2%, '21년 7.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6학년이 6.0%, 중등 2학년이 9.4%로 중등 2학년 아동이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2.0%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과 강원은 동일하게 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가족간의 여가활동 영위 (아동)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족과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정도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하지 않음, ② 1년에 1~2회, ③ 1년에 5~6회, ④ 한 달에 1~2회)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간의 여가활동 수준이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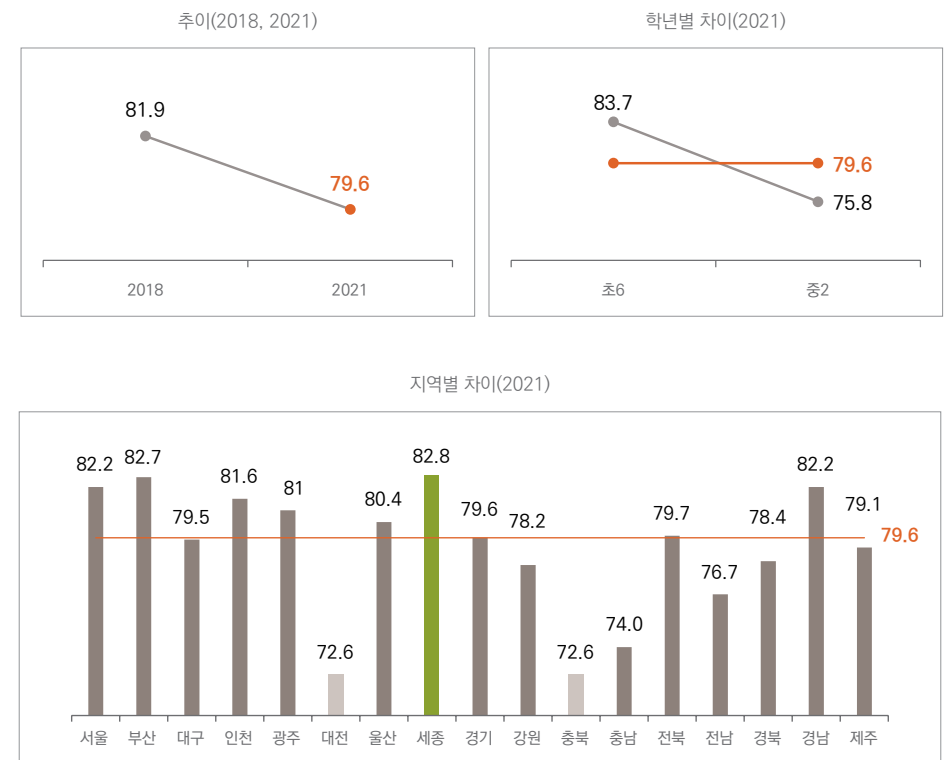


[그림 III-74] 가족간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아동)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는 '18년 53.4점, '21년 47.1점으로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50.4점, 중등 2학년 44.1점으로 중학교 2학년 아동이 6.3점 낮았으며, 17개 시·도별로는 세종이 54.8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41.9점으로 가장 낮았다.

㉡ 취미생활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취미활동 보유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취미생활을 보유했던 아동이 많은 것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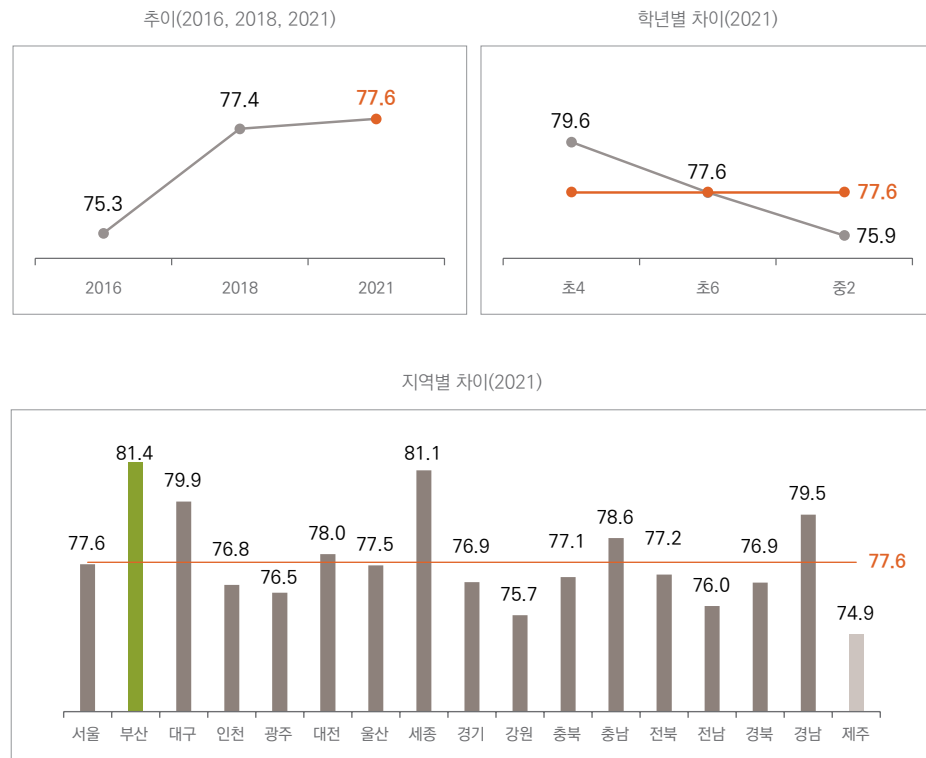


[그림 III-75]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하는 아동의 비율은 '18년 81.9%, '21년 79.6%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 83.7%, 중등 2학년 75.8%으로 초등 6학년의 취미생활 비율이 7.9%p 더 높았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82.8%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대전과 충북이 모두 72.6%로 가장 낮았다.

☉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 (5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보호자)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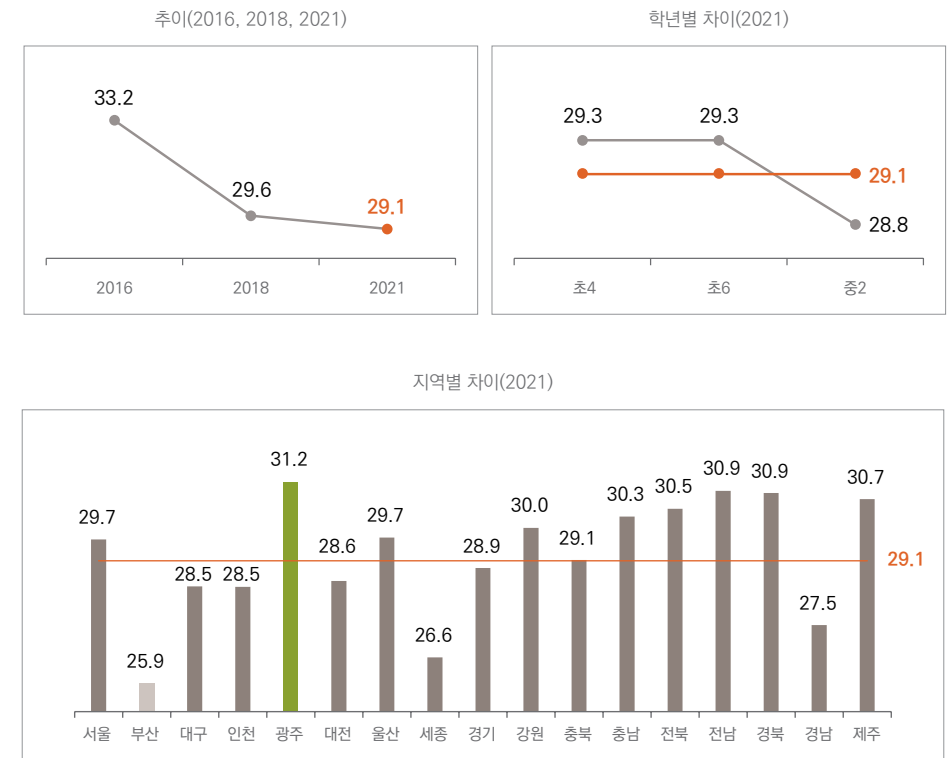


[그림 III-76]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는 '16년 75.3점, '18년 77.4점, '21년 77.6점으로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9.6점, 6학년 77.6점, 중등 2학년 75.9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부산이 81.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4.9점으로 가장 낮았다.

☉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부모의 과보호에 대한 아동의 인식 (5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일부 문항을 역처리하여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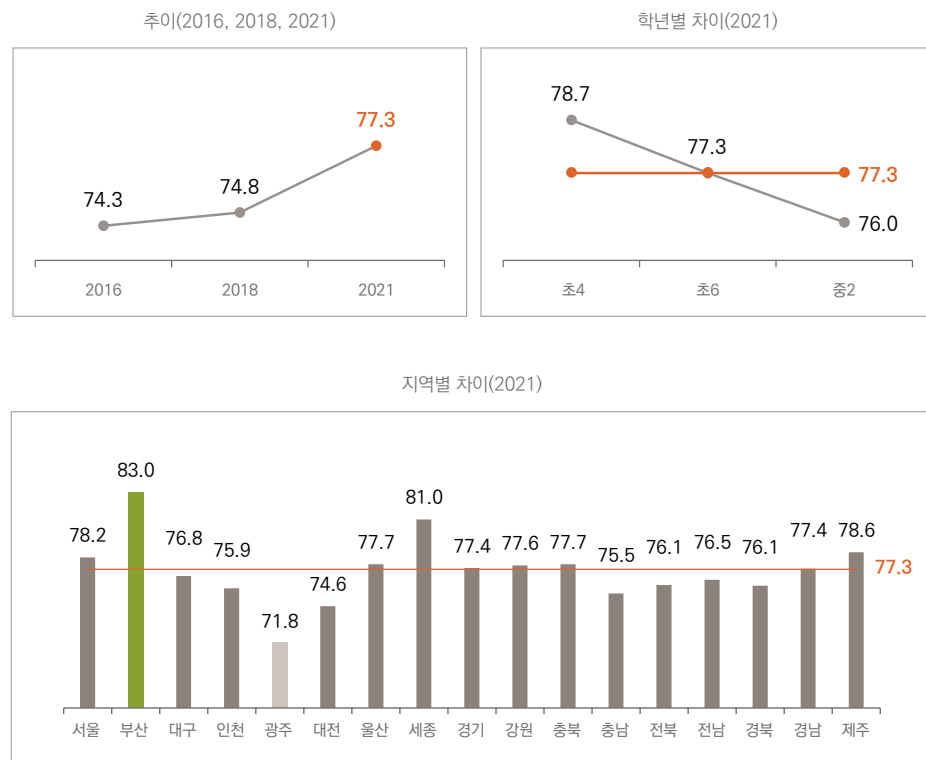


[그림 III-77]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정도는 '16년 33.2점, '18년 29.6점, '21년 29.1점으로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6학년 29.3점, 중등 2학년 28.8점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선생님과 긍정적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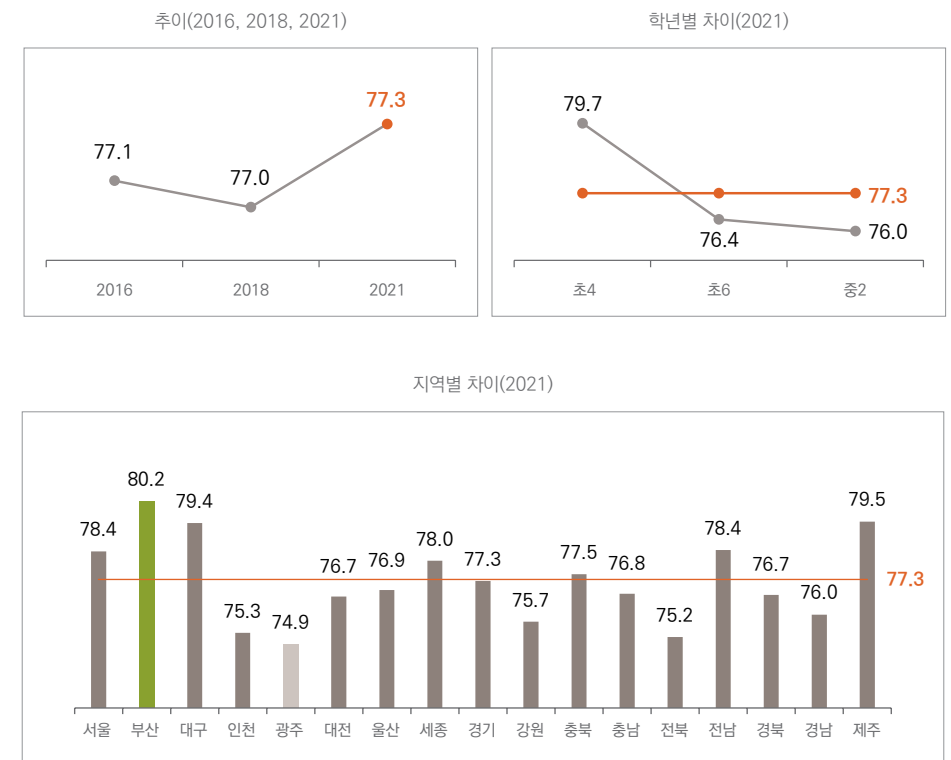


[그림 III-78]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16년 74.3점, '18년 74.8점, '21년 77.3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8.7점, 6학년 77.3점, 중등 2학년 76.0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부산이 83.0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71.8점으로 가장 낮았다.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에 대한 아동의 인식 (3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일부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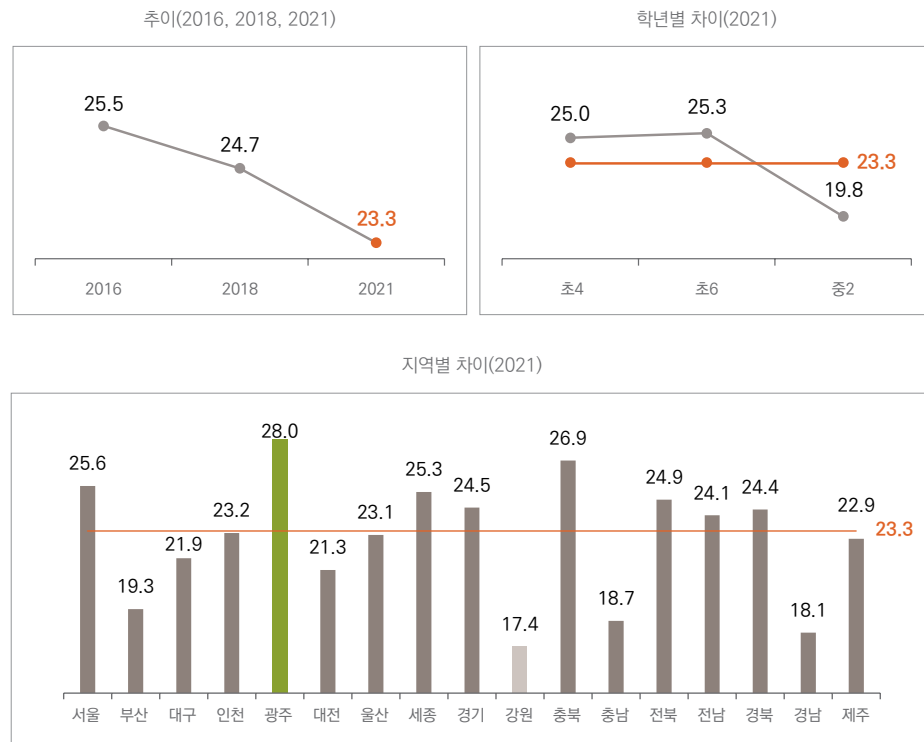
[그림 III-79]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16년 77.1점, '18년 77.0점, '21년 77.3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9.7점, 6학년 76.4점, 중등 2학년 76.0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는 부산이 8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74.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보호권 경험

☑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꼬집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학대 경험 (2문항)
- 척도 :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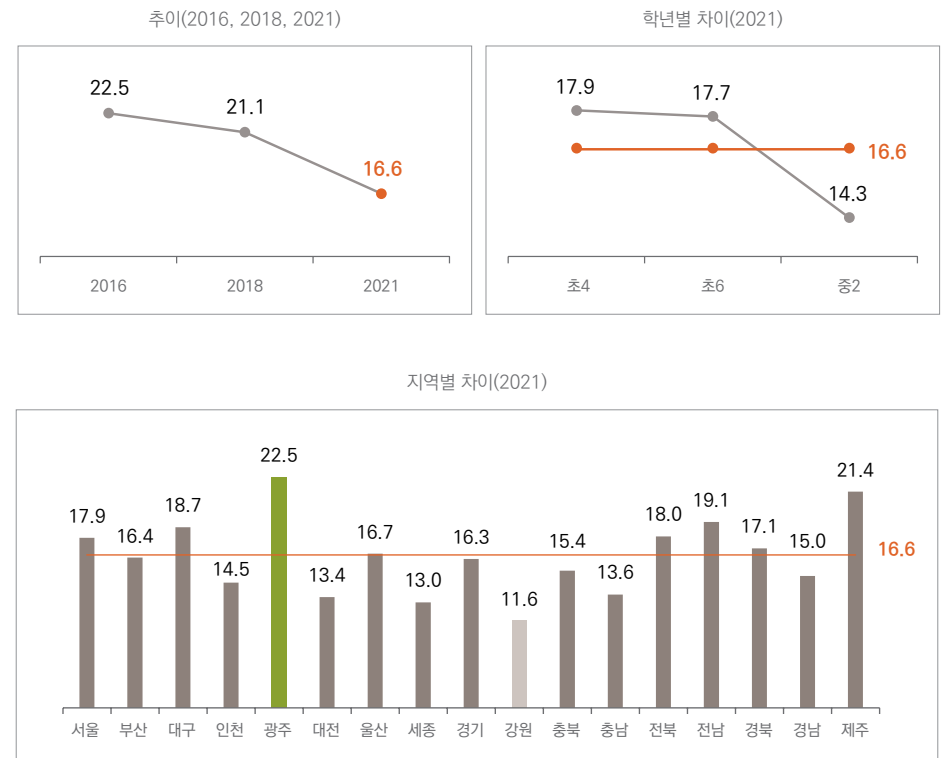


[그림 III-80]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5.5%, '18년 24.7%, '21년 23.3%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25.0%, 6학년 25.3%, 중등 2학년 19.8%로, 중학생의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7개 시도별로는 광주가 28.0%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17.4%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중간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도구를 사용하거나 주먹, 손바닥으로 얼굴/머리/귀 등 신체를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 경험 (3문항)
- 척도 : 5점 척도 (0 전혀 없다, 1 1년에 1~2번, 2 2~3개월에 1~2번, 3 한 달에 1~2번, 4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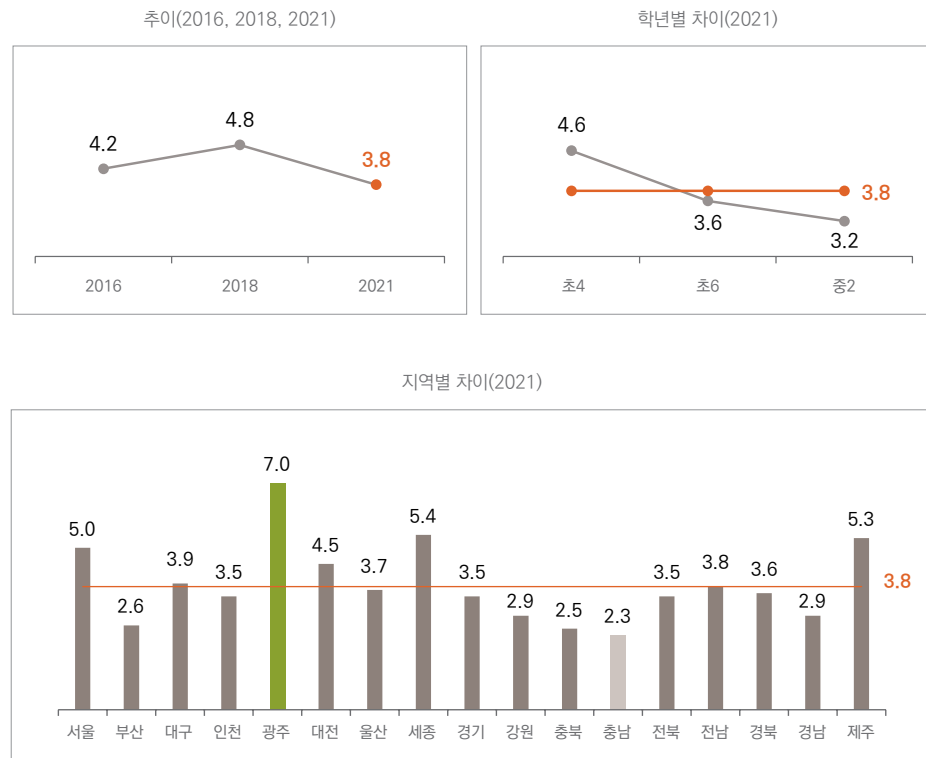


[그림 III-81]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2.5%, '18년 21.1%, '21년 16.6%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17.9%, 초등 6학년 17.7%, 중등 2학년 14.3%가 중간 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2.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강원이 11.6%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뜨거운 물,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심하게 때리는 등의 신체학대 경험 (2문항)
- 척도 : 5점 척도 (㉔ 전혀 없다, ① 1년에 1~2번, ② 2~3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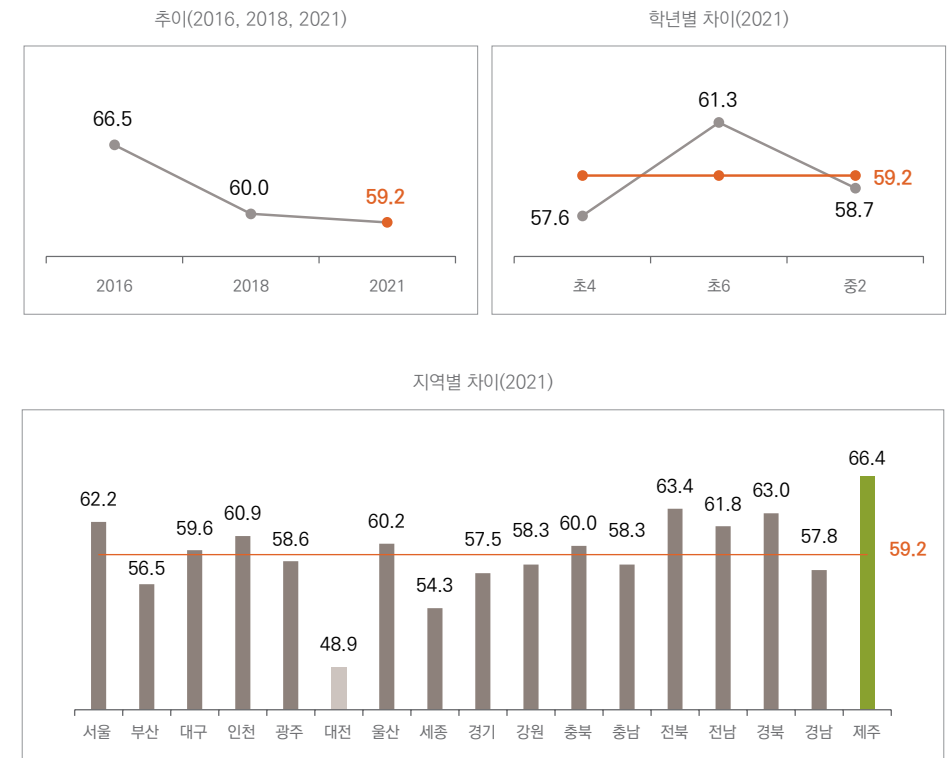


[그림 III-82]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4.2%, '18년 4.8%, '21년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6%, 초등 6학년 3.6%, 중등 2학년 3.2%로 학년이 낮을수록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7.0%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2.3%로 가장 낮았다.

☞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정서학대 경험 (5문항)
- 척도 : 5점 척도 (㉔ 전혀 없다, ① 1년에 1~2번, ② 2~3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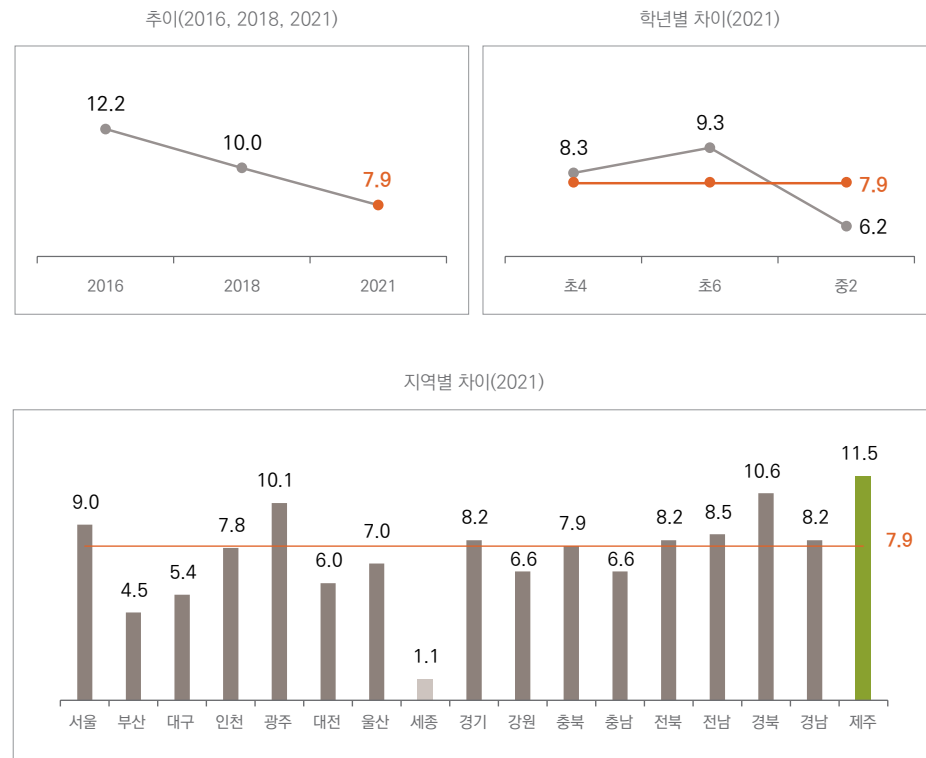


[그림 III-83]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16년 66.5%, '18년 60.0%, '21년 59.2%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57.6%, 6학년 61.3%, 중등 2학년 58.7%가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66.4%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전이 48.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혼자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혼자 두거나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의 방임 경험 (4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전혀 없다, ② 1년에 1~2번, ③ 2~3개월에 1~2번, ④ 한 달에 1~2번, ⑤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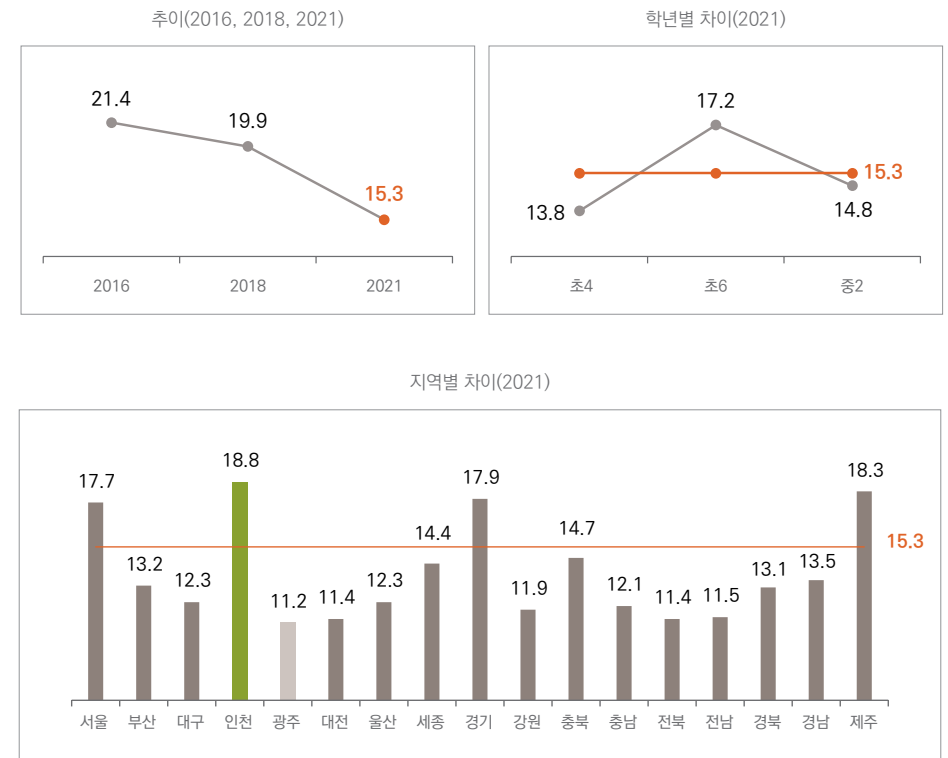


[그림 III-84]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12.2%, '18년 10.0%, '21년 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3%, 6학년 9.3%, 중등 2학년 6.2%가 방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1.5%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로 가장 낮았다.

☑ 나홀로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집에 홀로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정도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5~7일 정도))
- 측정 : '일주일에 3일 이상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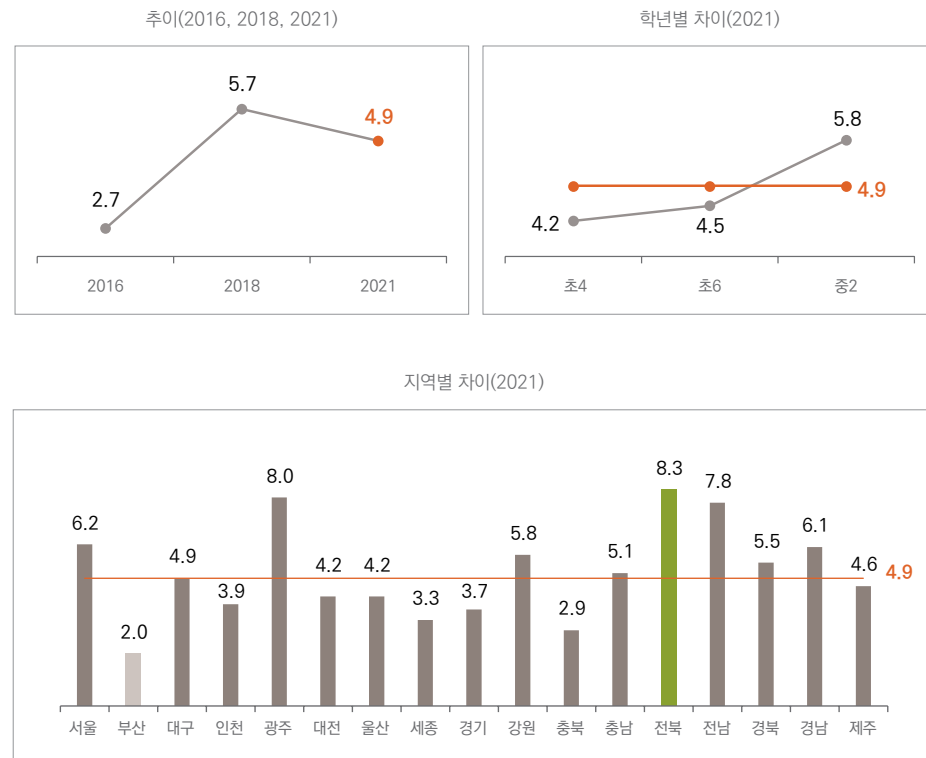


[그림 III-85] 나홀로 아동

나홀로 아동 비율은 '16년 21.4%, '18년 19.9%, '21년 15.3%로 점차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3.8%, 6학년 17.2%, 중등 2학년 14.8%로 초등학교 6학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18.8%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11.2%로 가장 낮았다.

☑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의 성적 학대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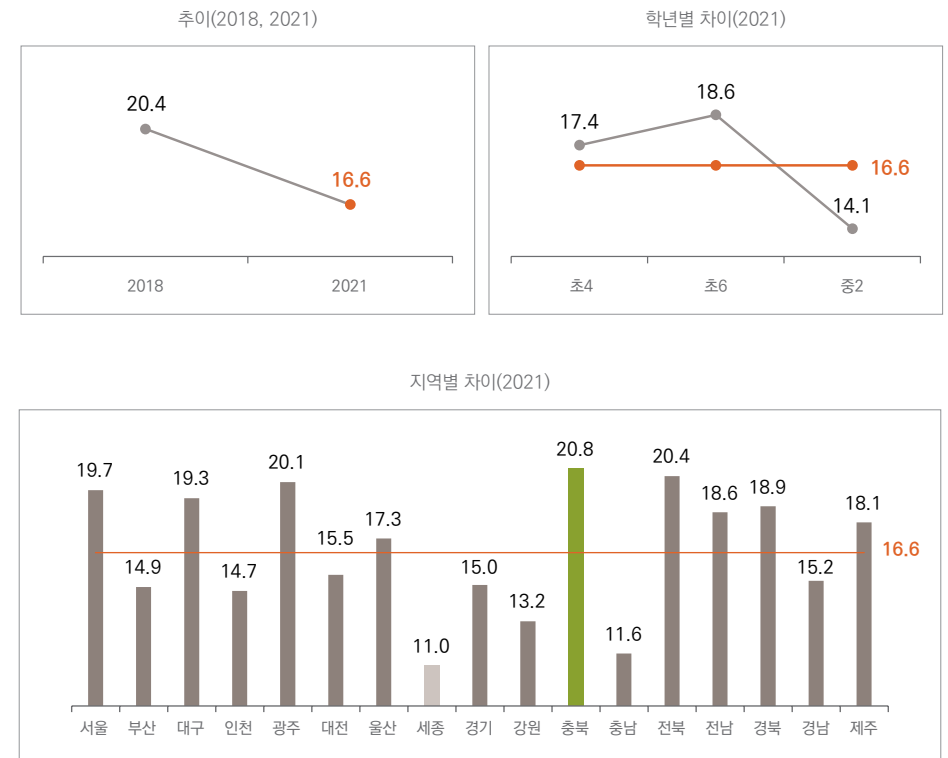


[그림 III-86]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은 '16년 2.7%, '18년 5.7%, '21년 4.9%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2%, 초등 6학년 4.5%, 중등 2학년 5.8%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학대 경험이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8.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2.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가정 내 체벌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집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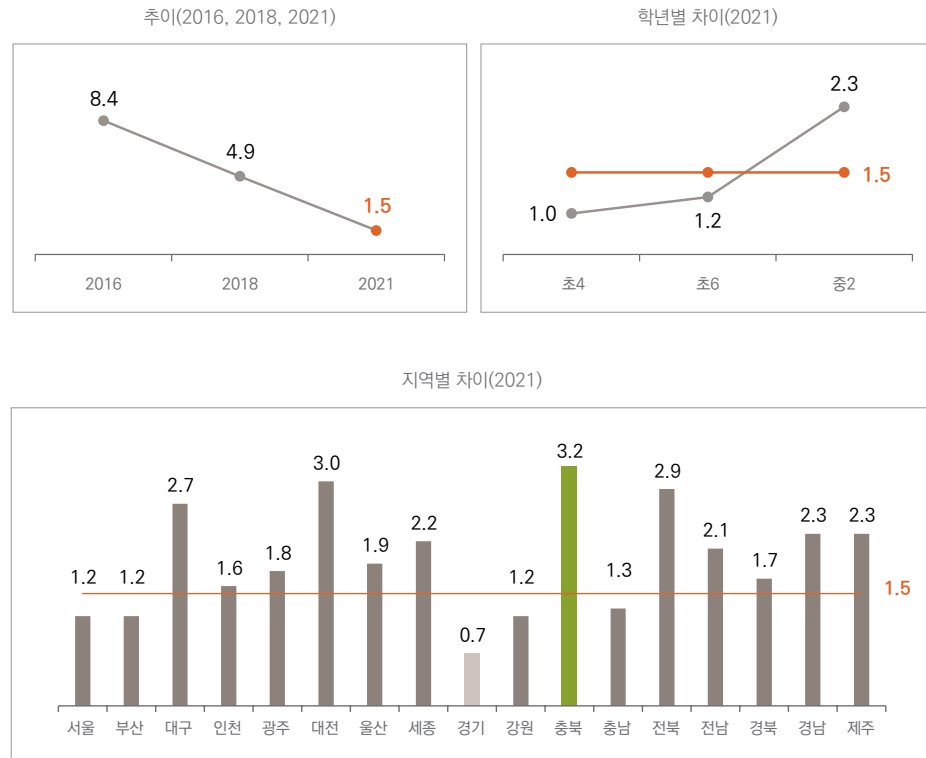


[그림 III-87] 가정 내 체벌 경험

아동의 가정 내 체벌 경험은 '18년 20.4%, '21년 16.6%로 3.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7.4%, 초등 6학년 18.6%, 중등 2학년 14.1%로 중학교 2학년 아동의 경험율이 가장 낮았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20.8%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1.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학교 내 체벌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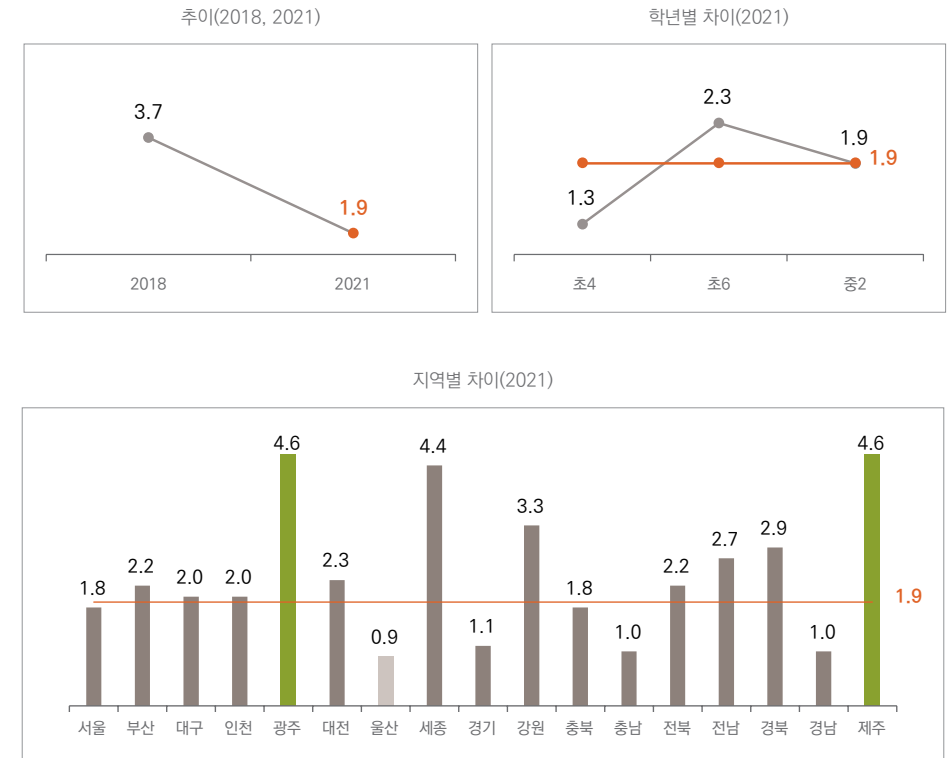


[그림 III-88] 학교 내 체벌 경험

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은 '16년 8.4%, '18년 4.9%, '21년 1.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0%, 초등 6학년 1.2%, 중등 2학년 2.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벌 경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경기가 0.7%로 가장 낮았다.

☑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학교나 집이 아닌 장소(학원, 동네 등)에서 성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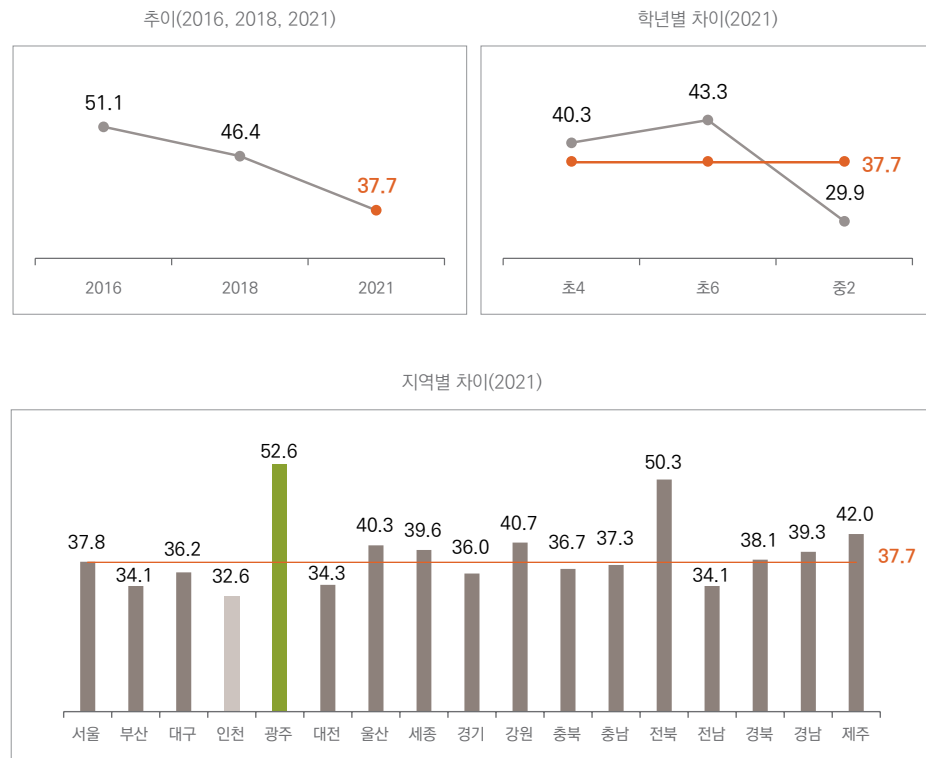


[그림 III-89] 지역사회(학원, 동네) 내 체벌 경험

지역사회 내 체벌 경험은 '18년 3.7%, '21년 1.9%로 비율이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3%, 초등 6학년 2.3%, 중등 2학년 1.9%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광주와 제주가 4.6%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0.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때리거나 별명을 부르는 등 또래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8문항)
- 척도 : 5점 척도 (㉠ 전혀 없음, ① 1년에 1~2번, ② 2~3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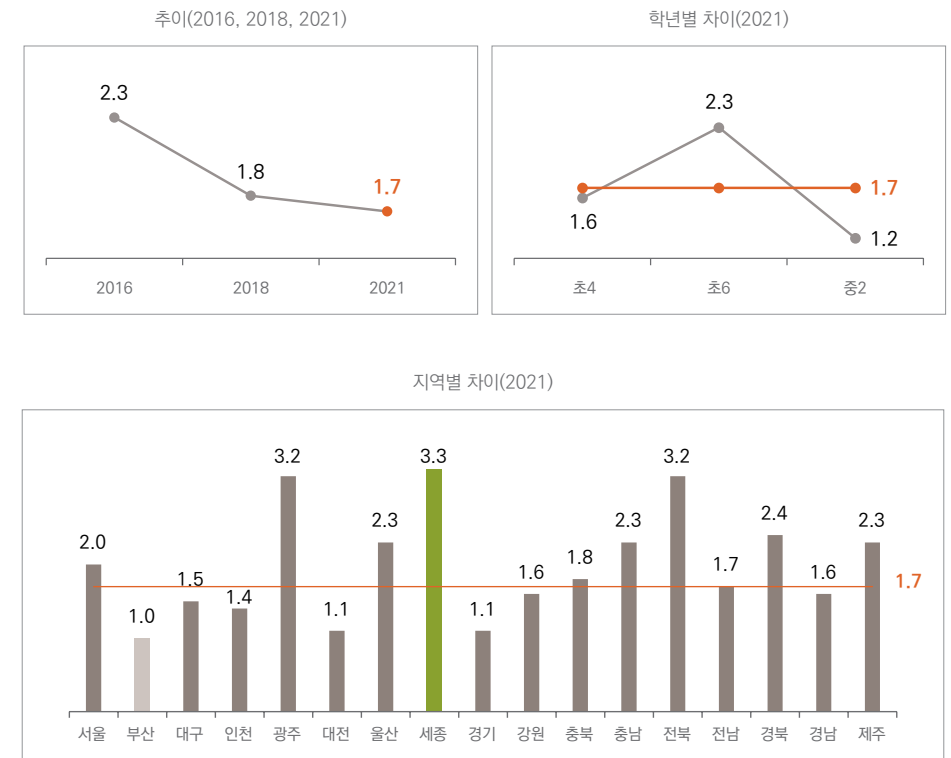


[그림 III-90] 학교폭력 피해 경험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16년 51.1%, '18년 46.4%, '21년 37.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0.3%, 초등 6학년 43.3%, 중등 2학년 29.9%로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이 두드러졌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52.6%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32.6%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인터넷에서 또래친구 및 선후배를 통한 괴롭힘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 경험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 전혀 없음, ① 1년에 1~2번, ② 2~3개월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1주일에 1~2번)
- 측정 : 한 번이라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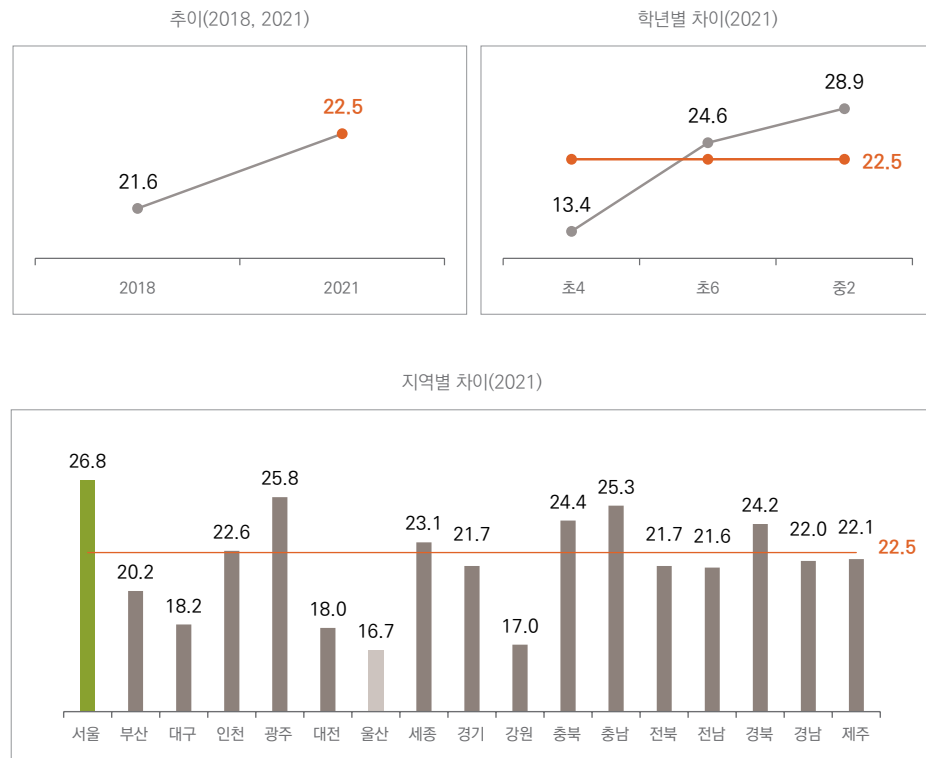


[그림 III-91]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은 '16년 2.3%, '18년 1.8%, '21년 1.7%로 미미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6%, 초등 6학년 2.3%, 중등 2학년 1.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3.3% 수준이었고, 부산이 1.0%로 가장 낮았다.

☑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나이(어려서 혹은 많아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연령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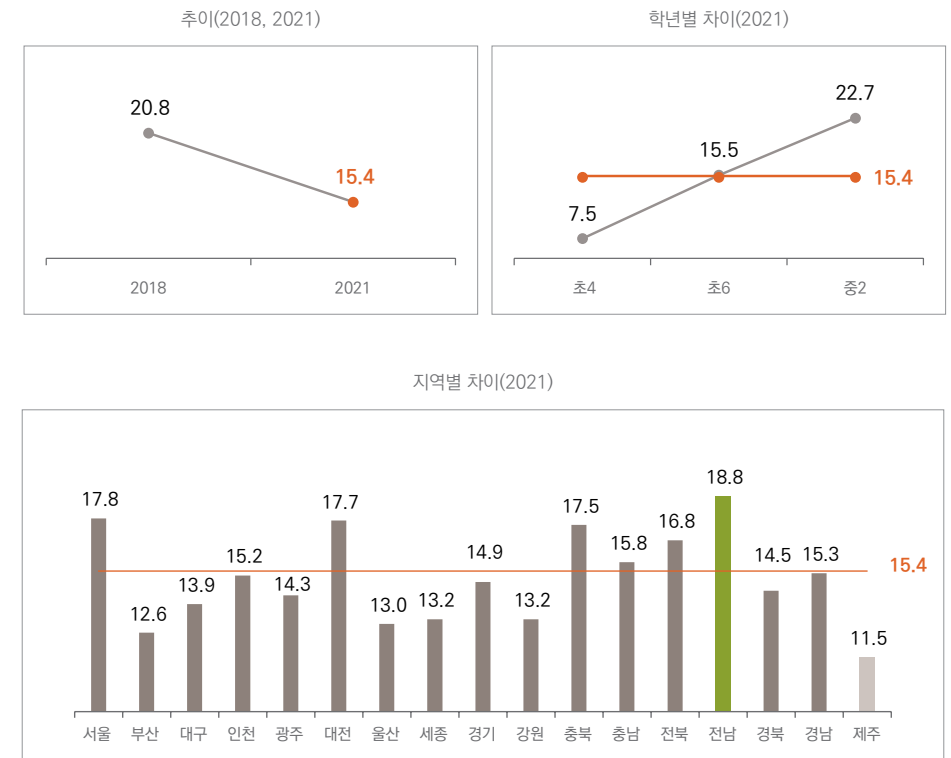


[그림 III-92] 차별을 받은 경험_연령

연령으로 인한 차별 경험 비율은 '18년 21.6%, '21년 22.5%로 소폭 증가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3.4%, 초등 6학년 24.6%, 중등 2학년 28.9%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차별경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6.8%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16.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성별(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성별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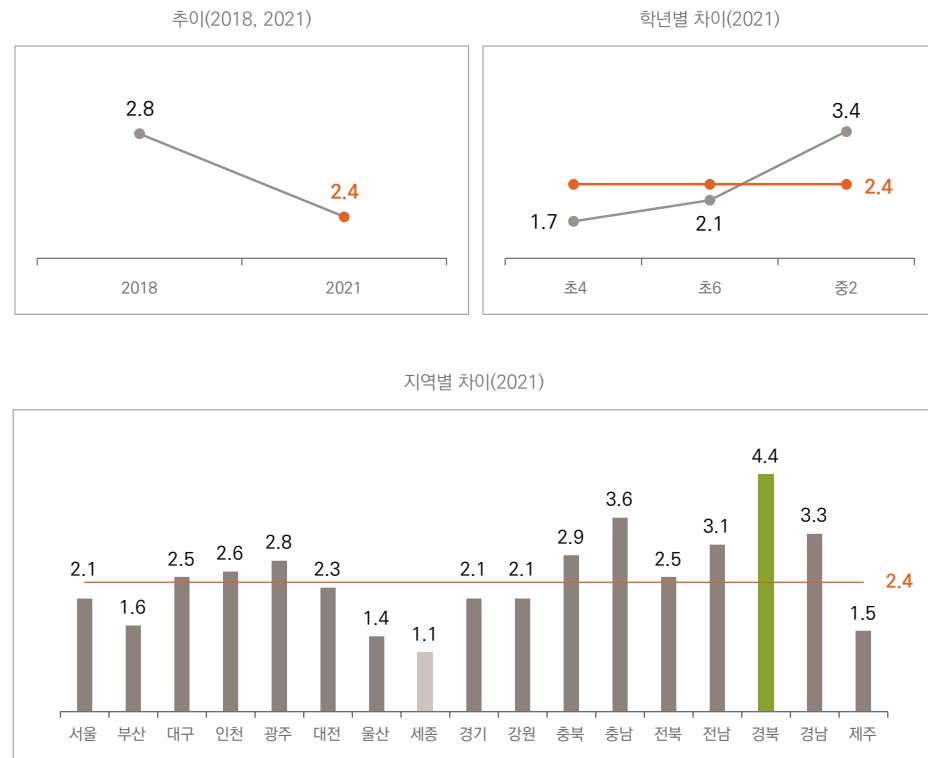


[그림 III-93] 차별을 받은 경험_성별

성별로 인한 차별경험 비율은 '18년 20.8%, '21년 15.4%로 전차 대비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5%, 초등 6학년 15.5%, 중등 2학년 22.7%로 학년 간 차이가 컸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차별 경험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8.8%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11.5%로 가장 낮았다.

☑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사는 동네(지역)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지역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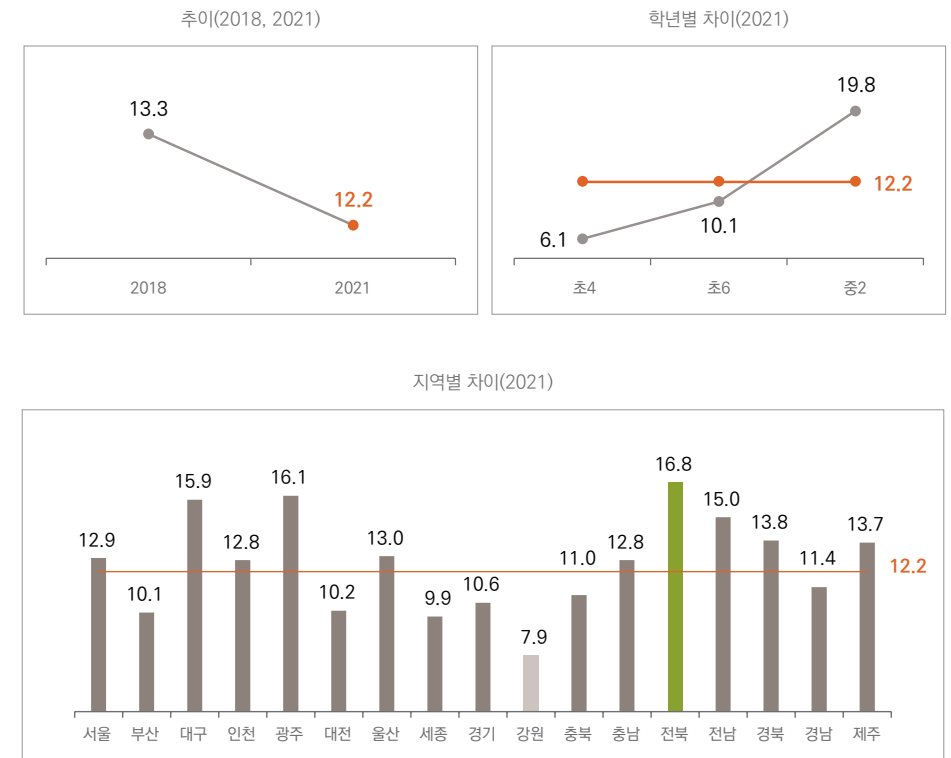


[그림 III-94] 차별을 받은 경험_지역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받아본 경험은 '18년 2.8%, '21년 2.4%로 소폭 감소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7%, 초등 6학년 2.1%, 중등 2학년 3.4%로 학년이 높아 질수록 차별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4.4%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1%로 가장 낮았다.

☑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성적(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못해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성적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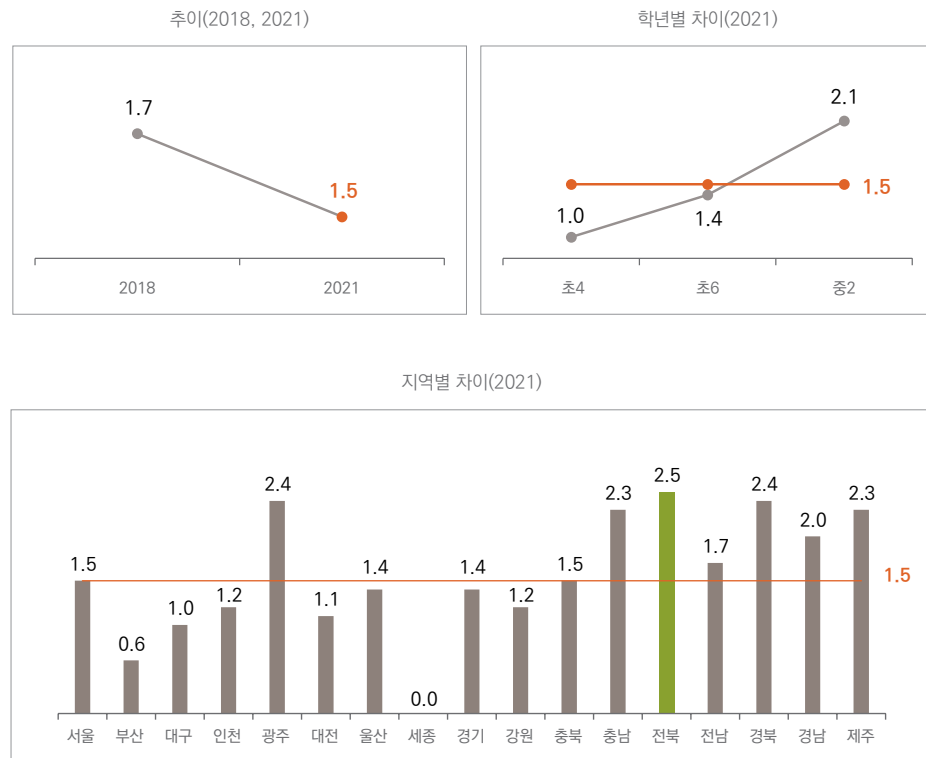


[그림 III-95] 차별을 받은 경험_학업성적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험은 '18년 13.3%, '21년 12.2%로 다소 감소하였다. 학년 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1%, 초등 6학년 10.1%, 중등 2학년 19.8%로 학년이 올라갈 수록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16.8%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7.9%로 가장 낮았다.

☑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정형편(잘 살거나 혹은 못 살아서)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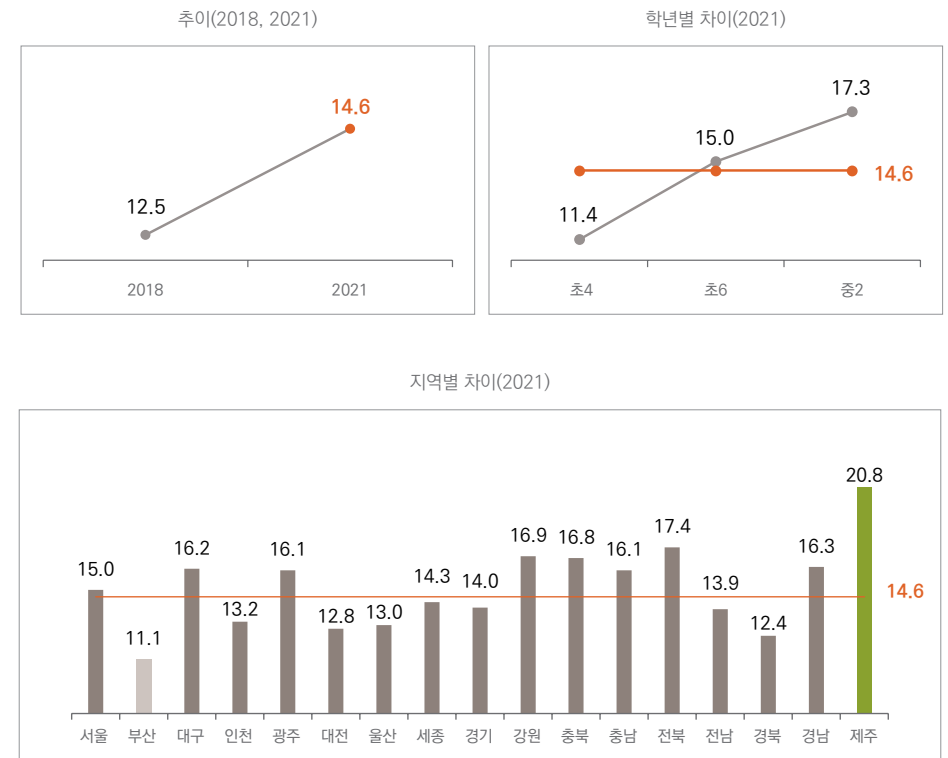


[그림 III-96] 차별을 받은 경험_가정형편

가정형편 때문에 차별 받아본 경험은 '18년 1.7%, '21년 1.5%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0%, 초등 6학년 1.4%, 중등 2학년 2.1%로 학업성적이나 성별, 연령과 같은 이유에 비해 차별 경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2.5%로 가장 높았고, 세종은 0.0%를 나타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외모(얼굴, 키, 몸무게, 피부색, 장애, 다문화 등)때문에 차별을 받아 본 경험 (1문항)
- 척도 : 3점 척도 (① 없음, ② 몇 번 있음, ③ 자주 있음)
- 측정 : 한 번이라도 외모에 의한 차별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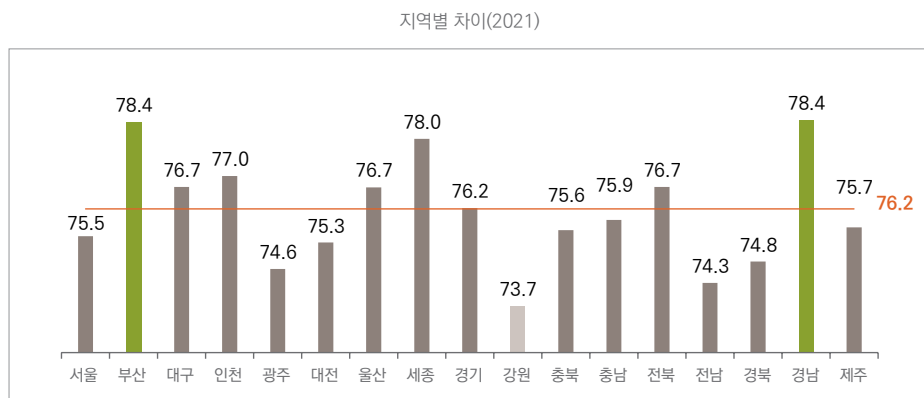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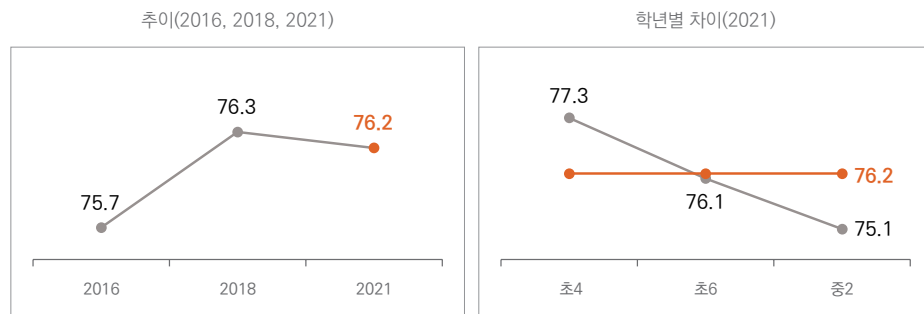
[그림 III-97] 차별을 받은 경험_외모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은 '18년 12.5%, '21년 14.6%로 차별경험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1.4%, 초등 6학년 15.0%, 중등 2학년 17.3%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1.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4) 참여권 경험

⊙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정의 중요한 문제 결정이나 상급학교 진학, 장래희망 등과 관련하여 의견 존중을 받아본 경험 (5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의견존중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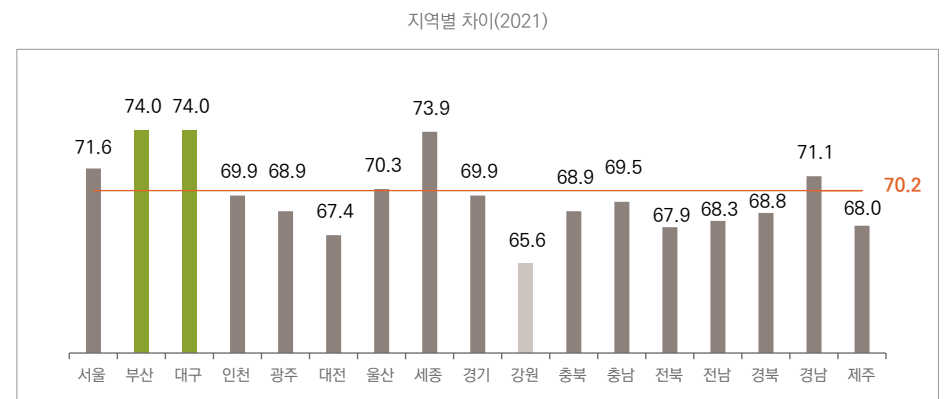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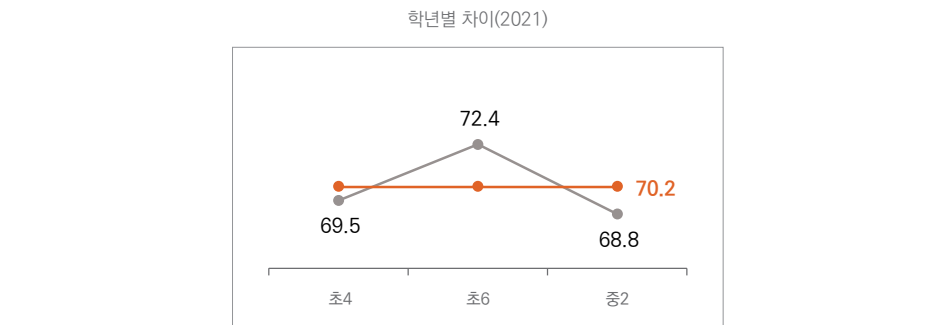


[그림 III-98] 가정에서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가정에서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16년 75.7점, '18년 76.3점, '21년 76.2점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77.3점, 6학년 76.1점, 중등 2학년 75.1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가정 내 의견존중 경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이 78.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73.7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의사결정 민주성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가정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가족회의를 하거나 학교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정도 (4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결정 정도가 높음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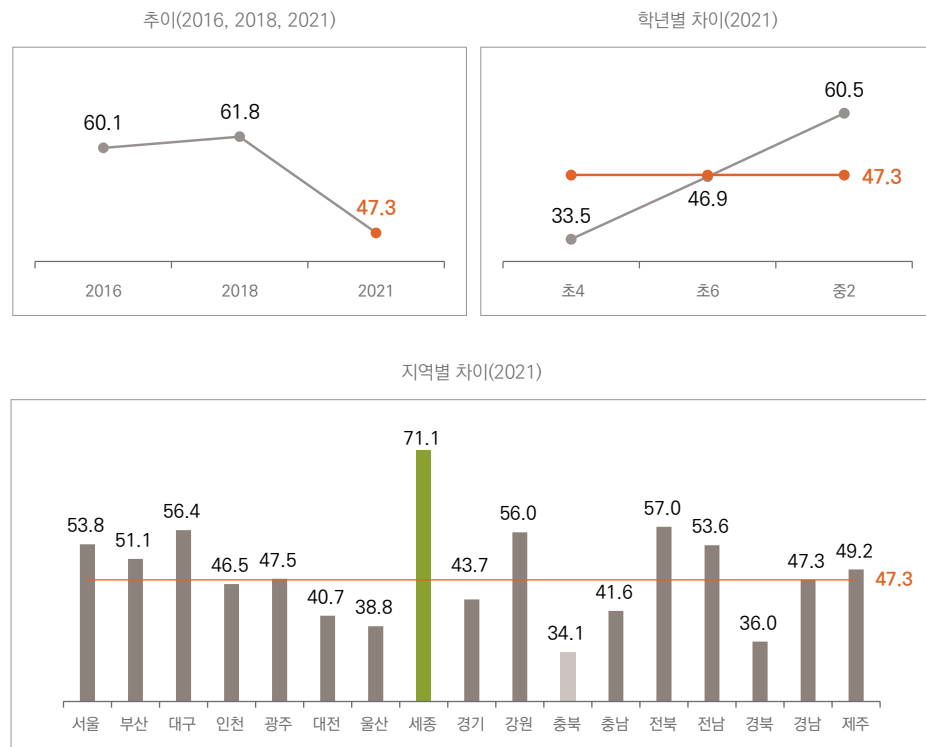


[그림 III-99] 의사결정 민주성

가정이나 학교의 의사결정민주성 정도는 70.2점으로 보고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9.5점, 초등 6학년 72.4점, 중등 2학년 68.8점으로 초등6학년이 의사결정민주성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74.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은 65.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동아리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동아리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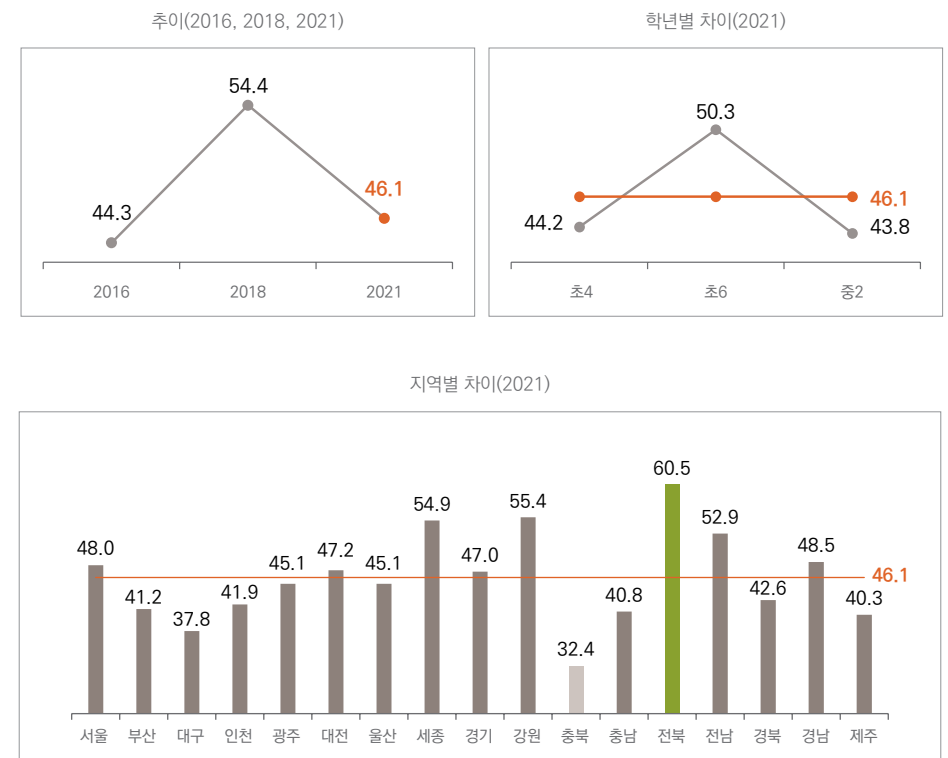


[그림 III-100] 동아리 활동 참여

아동의 동아리 활동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16년 60.1%, '18년 61.8%, '21년 47.3%로 '16년과 '18년도에 비해 '21년도 동아리 참여활동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33.5%, 초등 6학년 46.9%, 중등 2학년 60.5%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동아리 참여활동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71.7%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캠페인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캠페인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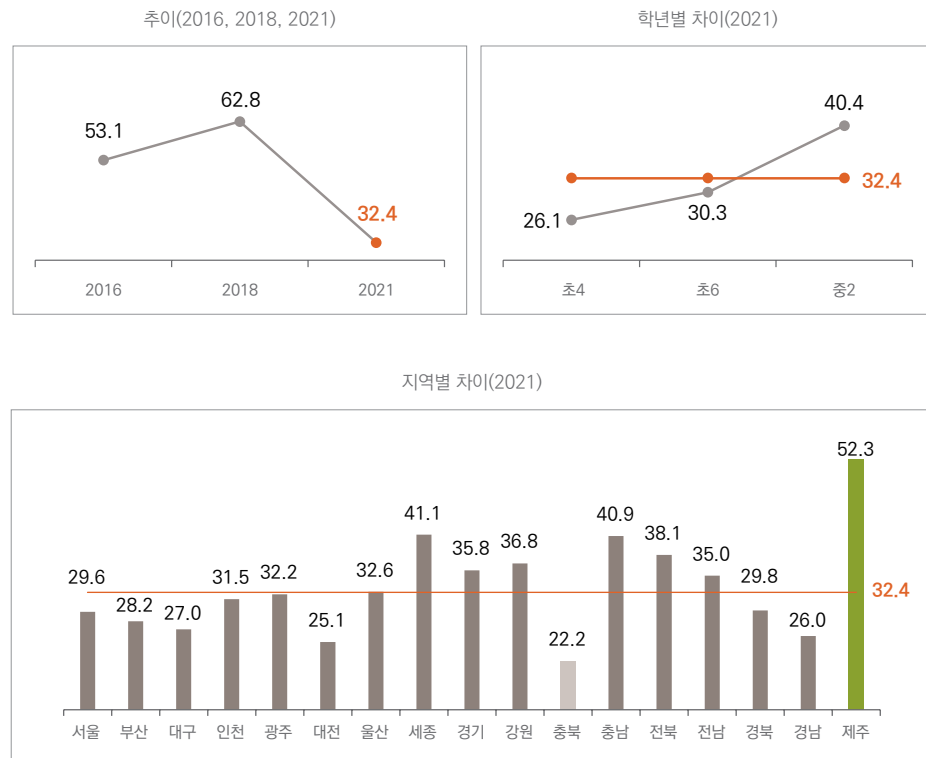


[그림 III-101] 캠페인 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44.3%, '18년 54.4%, '21년 46.1%로 '18년 대비 8.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4.2%, 초등 6학년 50.3%, 중등 2학년 43.8%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60.5%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32.4%로 가장 낮았다.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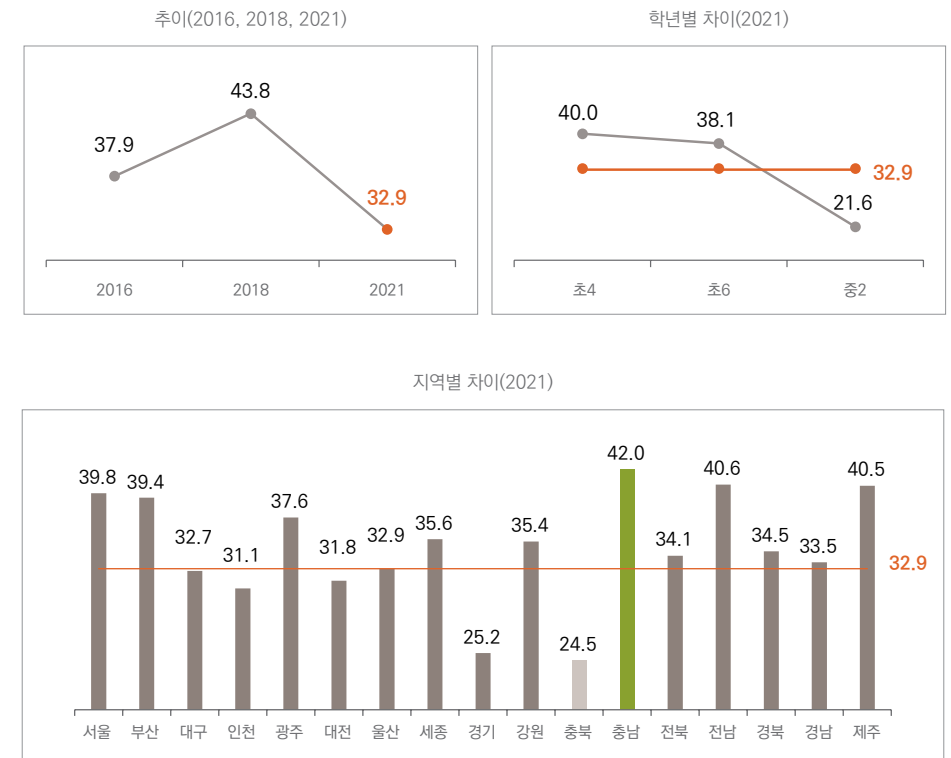


[그림 III-102] 자원봉사 활동 참여

아동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16년 53.1%, '18년 62.8%, '21년 32.4%로 '21년도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이 '18년 대비 30.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 보면, 초등 4학년 26.1%, 초등 6학년 30.1%, 중등 2학년 40.4%인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52.3%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22.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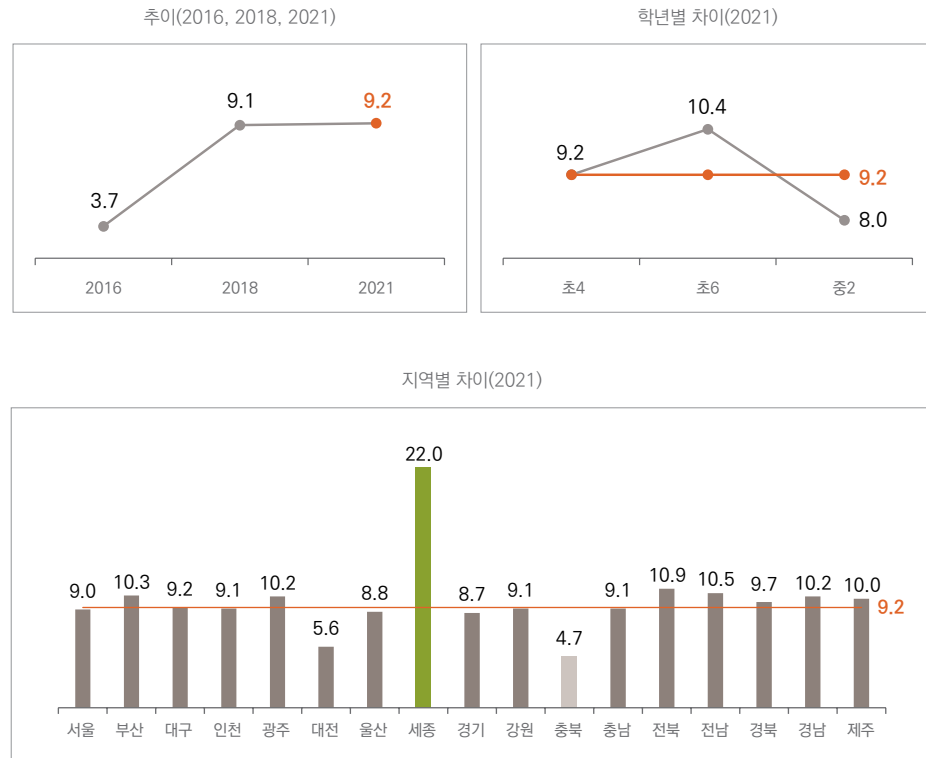


[그림 III-103]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아동의 기부 및 후원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37.9%, '18년 43.8%, '21년 32.9%로 나타났다. 이는 '18년 대비 '21년에 10.9%p 감소한 수치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0.0%, 초등 6학년 38.1%, 중등 2학년 21.6%인 것으로 나타나 초등 4학년의 참여비율이 중등 2학년에 비해 약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42.0%로 가장 높았고, 충북이 2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정책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정책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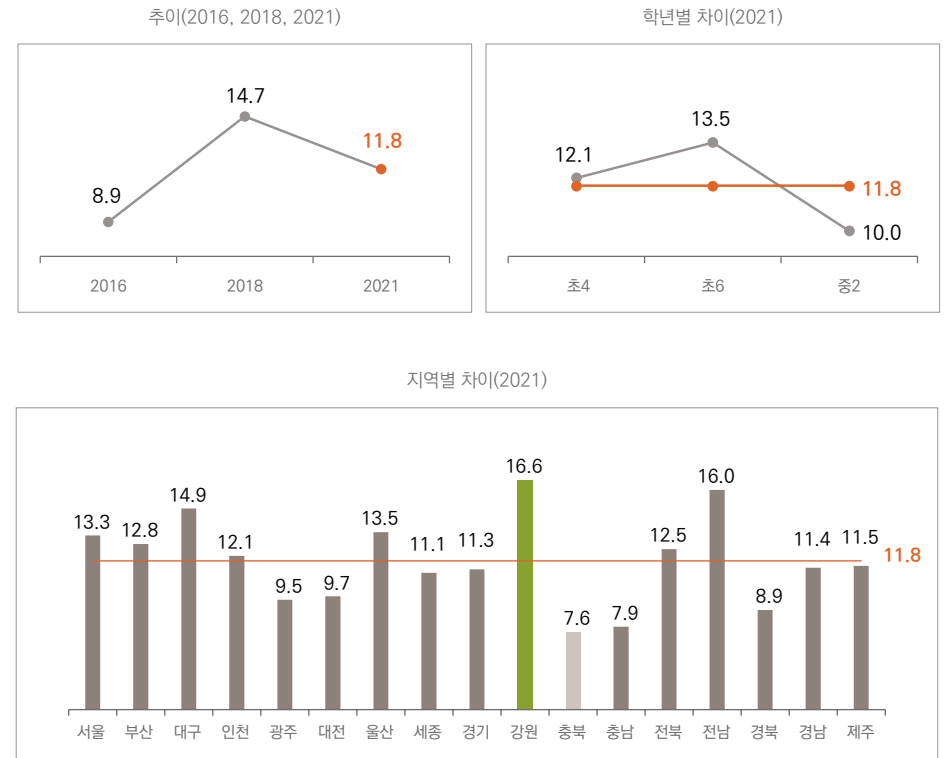


[그림 III-104] 정책 활동 참여

정책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3.7%, '18년 9.1%, '21년 9.2%로 나타났다. 다른 활동들이 '18년 대비 '21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 정책활동 참여 비율은 유일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9.2%, 초등 6학년 10.4%, 중등 2학년 8.0%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세종이 22.0%로 타 지역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북이 4.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 교류 활동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교류 활동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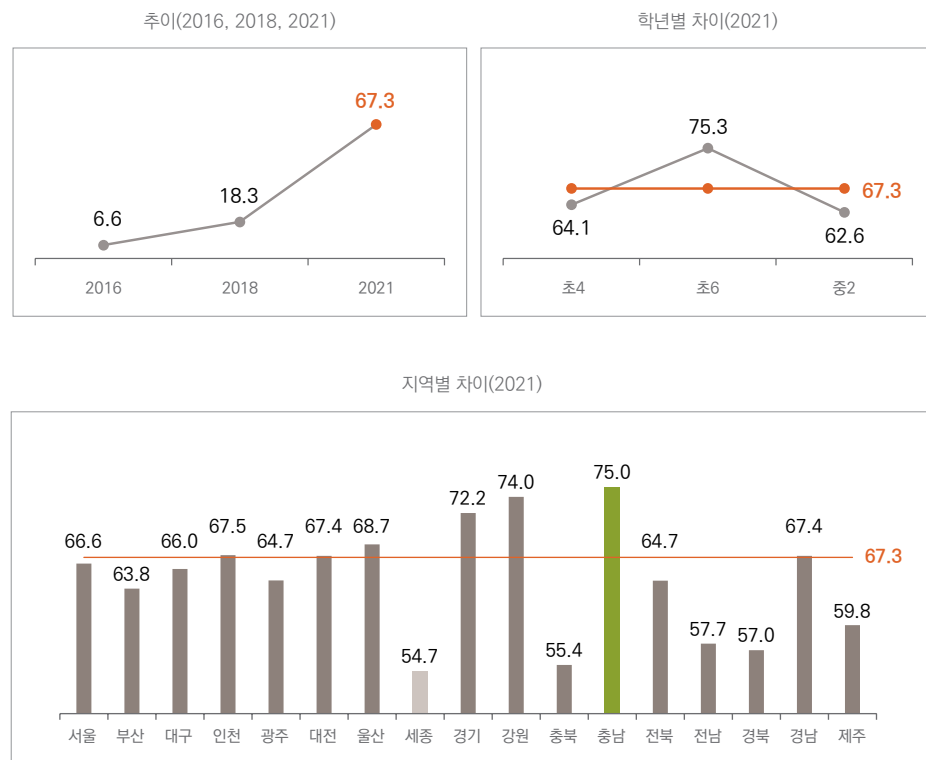


[그림 III-105] 교류 활동 참여

아동의 교류활동 참여 비율은 '16년 8.9%, '18년 14.7%, '21년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2.1%, 초등 6학년 13.5%, 중등 2학년 10.0%의 수준을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대비 6학년 아동의 참여 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중학교 2학년 아동의 참여율은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16.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7.6%로 가장 낮았다.

☑ 아동권리교육 참여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권리교육 참여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 (단위: %)



[그림 III-106] 아동권리교육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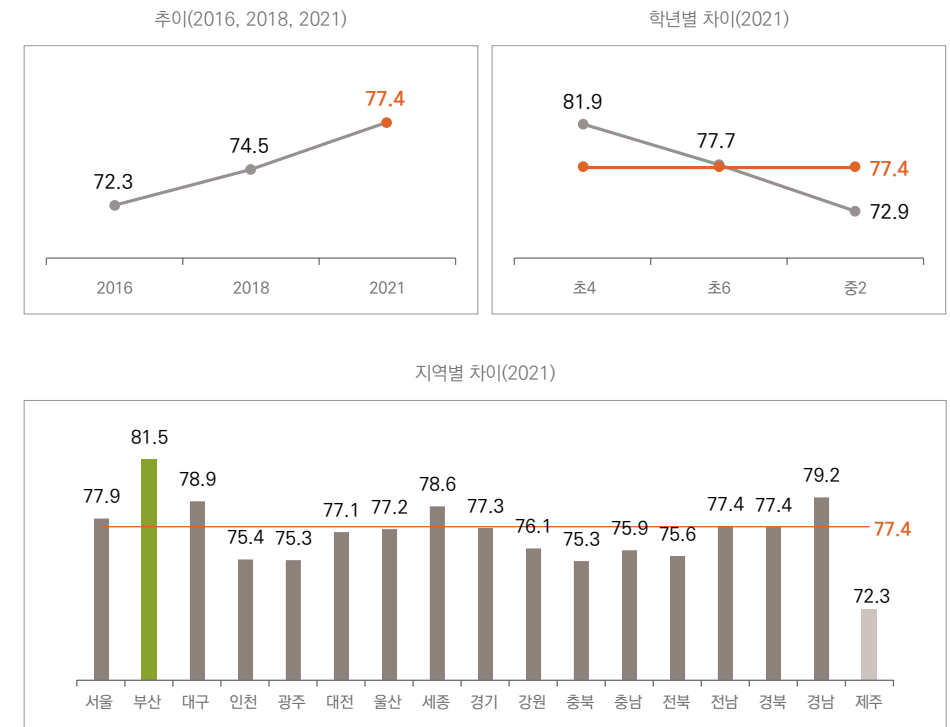
아동권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6년 6.6%, '18년 18.3%, '21년 67.3%로 '16년에 비해 '18년도와 '21년도의 아동권리교육 참여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1년도의 아동권리교육 참여 비율이 이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64.1%, 6학년 75.3%, 중등 2학년 62.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75.0%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세종이 54.7%로 가장 낮았다.

3) 발달 결과

(1)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현재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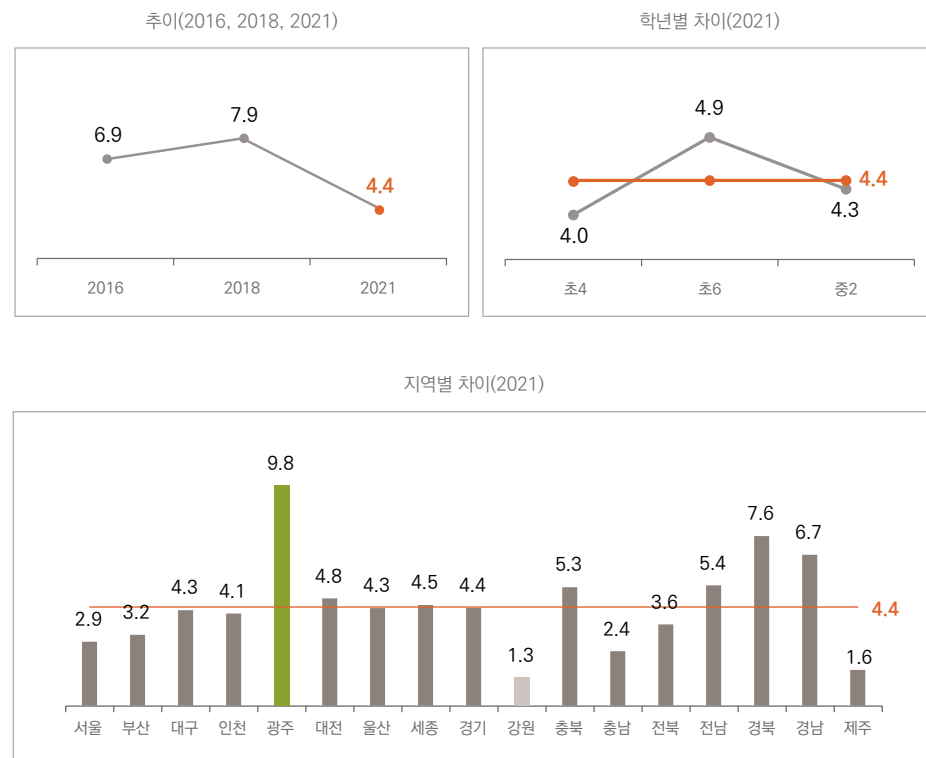


[그림 III-107]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16년 72.3점, '18년 74.5점, '21년 77.4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81.9점, 6학년 77.7점, 중등 2학년 72.9점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1.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가 72.3점으로서의 가장 낮았다.

☑️ **입원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아동이 입원한 경험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경험율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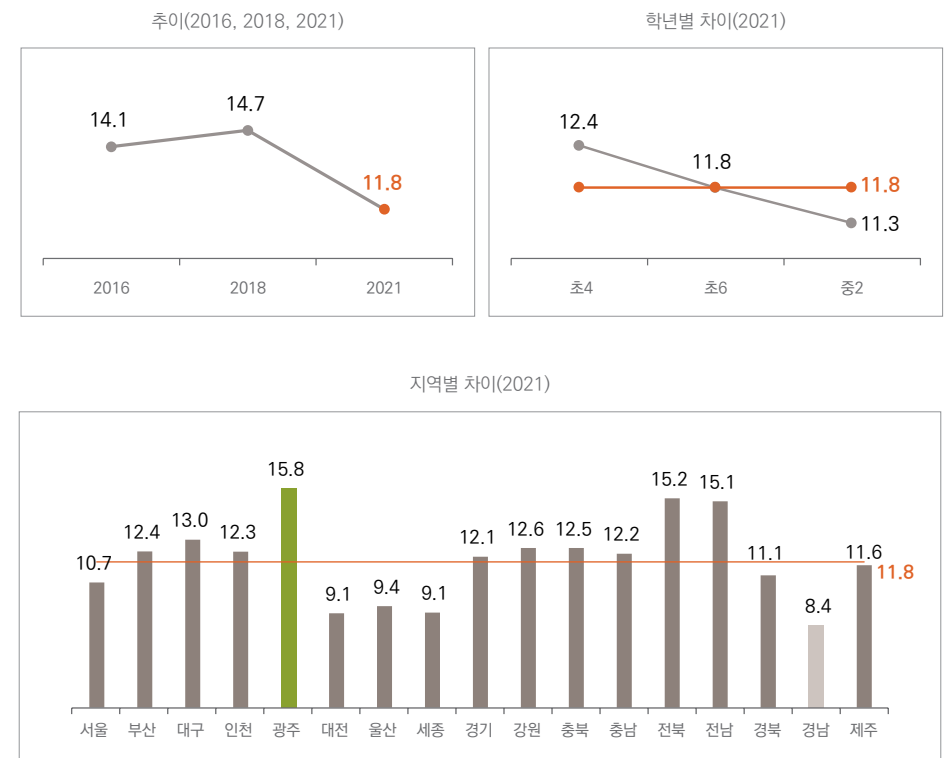


[그림 III-108] 입원 경험

아동의 입원 경험은 '16년 6.9%, '18년 7.9%, '21년 4.4%로 '21년도의 입원경험 비율이 '16년과 '18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4.0%, 초등 6학년 4.9%, 중등 2학년 4.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광주가 9.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강원이 1.3%로 가장 낮았다.

☑️ **만성질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만성질환 유병율 정도가 큼 (단위: %)



[그림 III-109] 만성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4.1%, '18년 14.7%, '21년 11.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 12.4%, 초등 6학년 11.8%, 중등 2학년 11.3%로 학년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 전북, 전남이 약 15.0% 수준을 나타냈으며, 경남이 8.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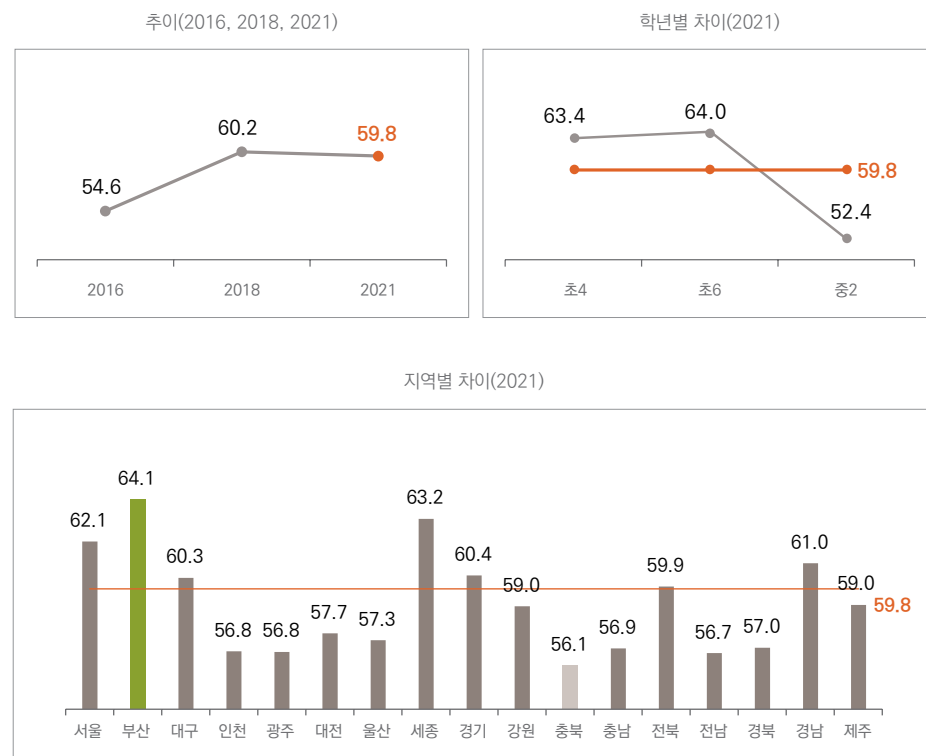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2) 인지

☑ 전반적인 학업성취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1문항)
- 척도 : 5점 척도 (① 매우 못함, ② 못함, ③ 보통, ④ 잘함, ⑤ 매우 잘함)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업성취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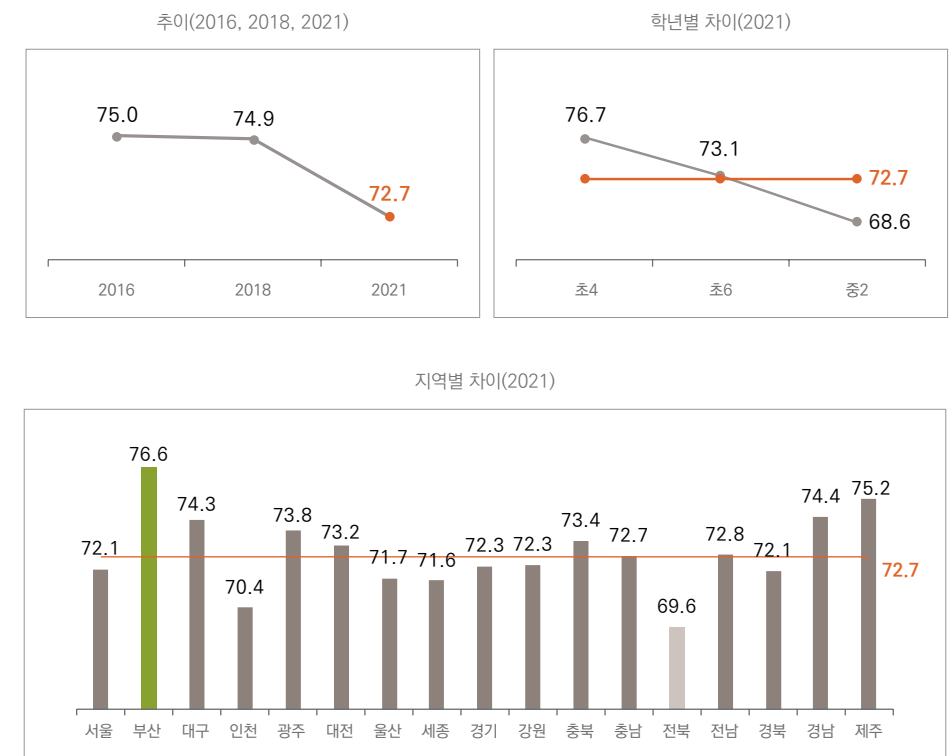
[그림 III-110] 전반적인 학업성취

아동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는 '16년 54.6점, '18년 60.2점, '21년 59.8점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 63.4점, 6학년 64.0점, 중등 2학년 52.4점으로 중학생이 초등 학생에 비해 학업성취 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이 56.1점으로 가장 낮았다.

(3) 사회정서

☑ 자아존중감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지 등 아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정도 (8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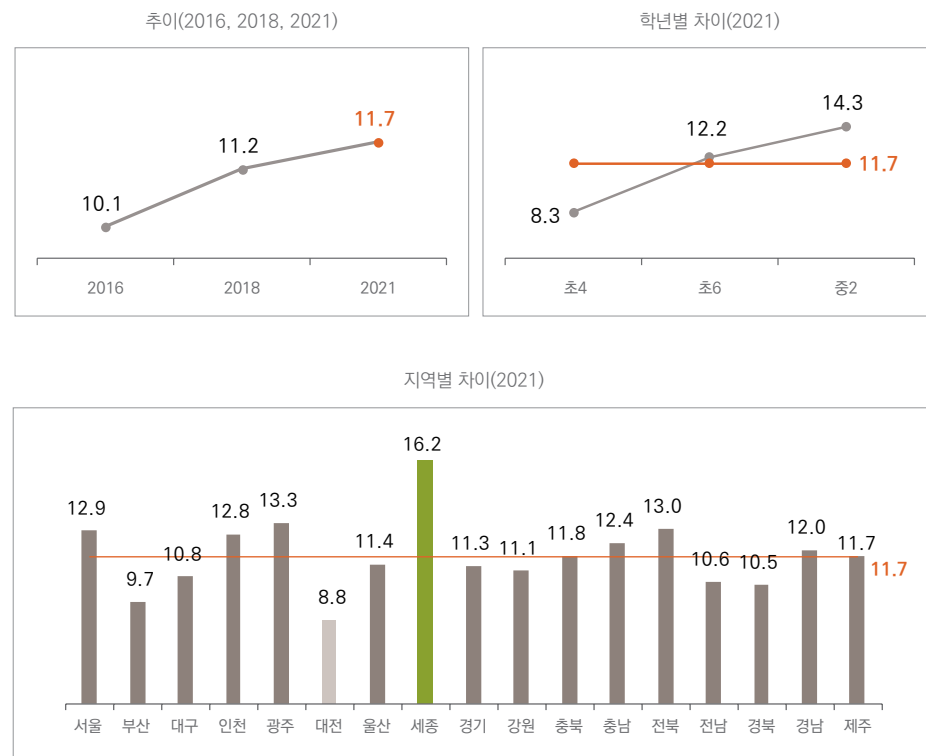


[그림 III-111]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16년 75.0점, '18년 74.9점, '21년 72.7점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6.7점, 6학년은 73.1점, 중등 2학년은 68.6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6.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이 69.6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우울 정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지난 1주일간 두려움, 외로움, 슬픔과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 정도 (7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없다, ② 1주일에 1~2일, ③ 1주일에 3~4일, ③ 거의 매일5~7일)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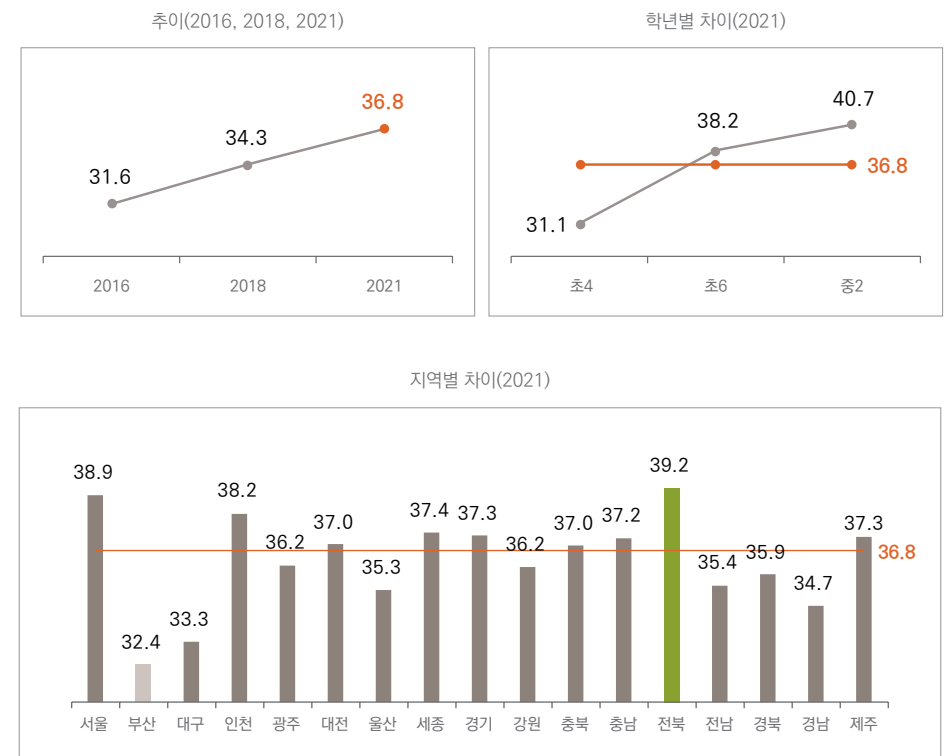


[그림 III-112] 우울 정서

아동의 우울 정도는 '16년 10.1점, '18년 11.2점, '21년 11.7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4학년은 8.3점, 초등 6학년은 12.2점, 중등 2학년은 14.3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우울 점수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8.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불안 정서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여러 가지 걱정이 많거나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정도 (6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113] 불안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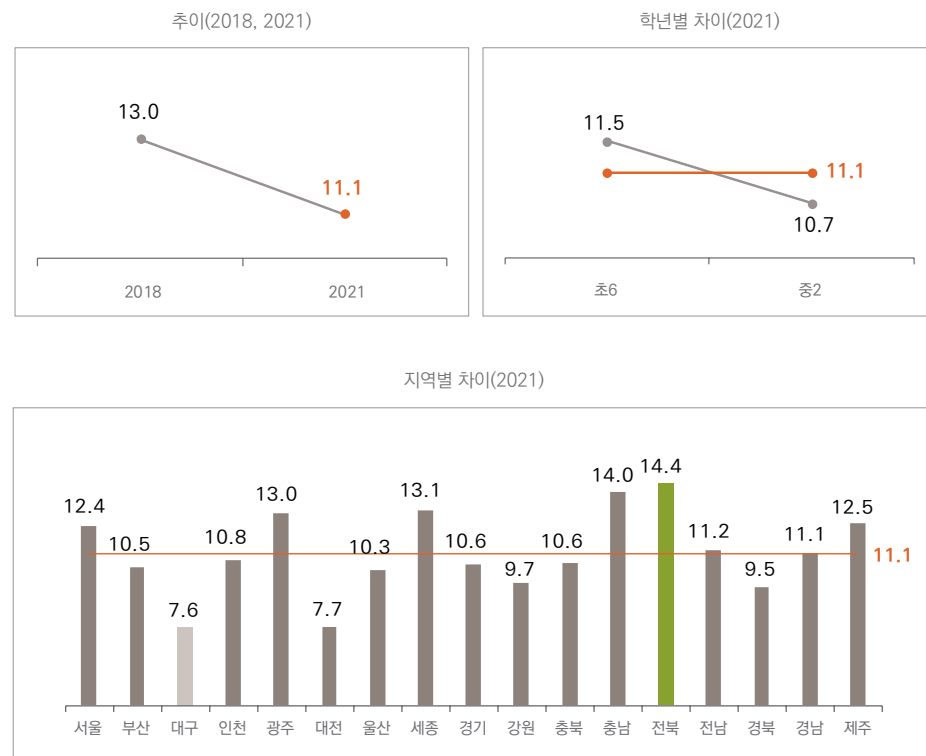
아동의 불안정서 정도는 '16년 31.6점, '18년 34.3점, '21년 36.8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31.1점, 6학년은 38.2점, 중등 2학년은 40.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불안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39.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32.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 슬픔 및 좌절 지속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평소 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2주 이상 지속된 슬픔 및 좌절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슬픔 및 좌절 지속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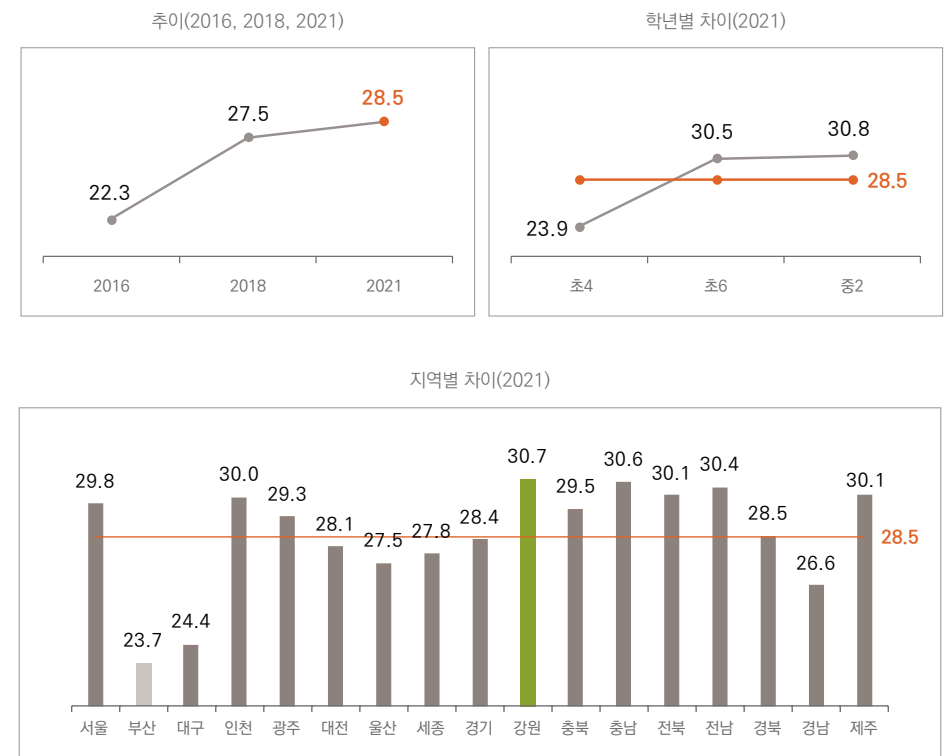


[그림 III-114] 슬픔 및 좌절 지속

슬픔 및 좌절이 지속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8년 13.0%, '21년 11.1%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1.5%, 중등 2학년은 10.7%이었다. 응답한 아동의 11.1%가 지난 1년 동안 슬픔 및 좌절이 2주 이상 지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전북이 14.4%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7.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공격적 행동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작은 일에도 괜히 불평하거나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등의 공격성 정도 (6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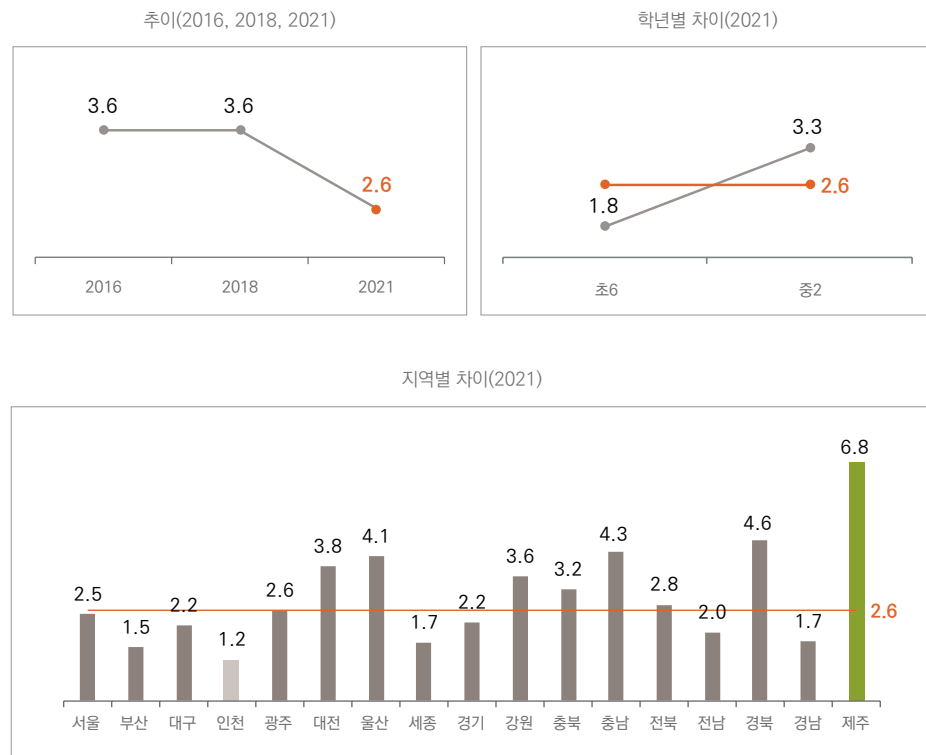
[그림 III-115] 공격적 행동

아동의 공격적 행동 정도는 '16년 22.3점, '18년 27.5점, '21년 28.5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3.9점, 초등 6학년은 30.5점, 중등 2학년은 30.8점으로 초등 4학년보다 초등 6학년과 중등 2학년의 공격성 정도가 더 높았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30.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3.7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 지위비행 경험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경험 여부 (4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1개 항목 이상에 응답한 아동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지위비행 경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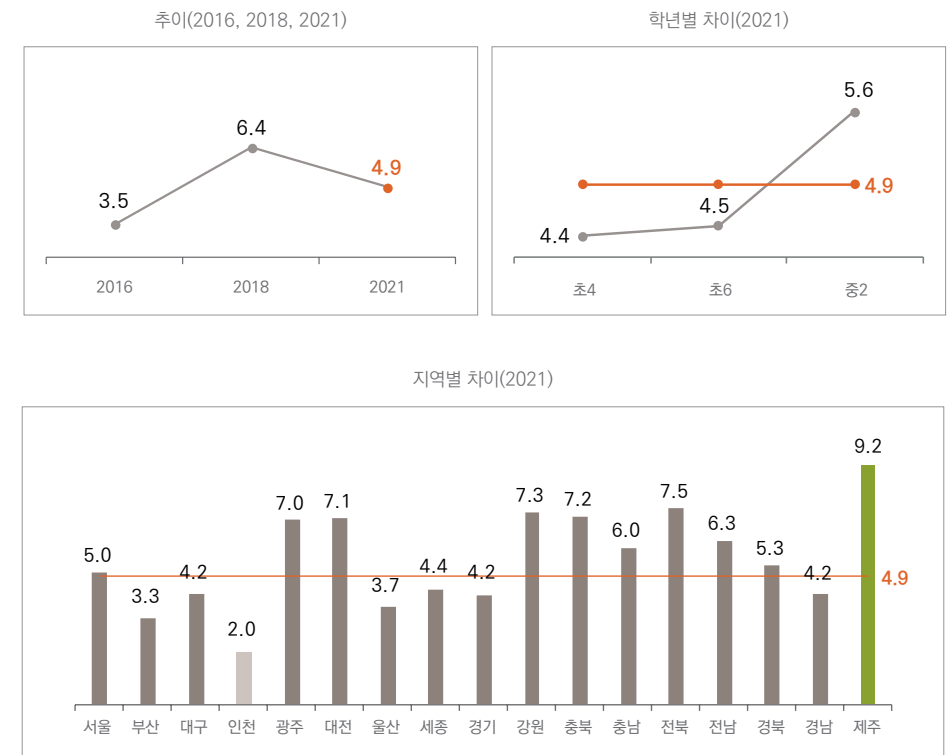


[그림 III-116] 지위비행 경험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 비율은 '16년 3.6%, '18년 3.6%, '21년 2.6%으로 '21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8%, 중등 2학년은 3.3%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 수준도 높아졌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6.8%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이 1.2%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폭력비행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타인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는 등의 경험 여부 (7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1개 항목 이상에 응답한 아동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폭력비행 경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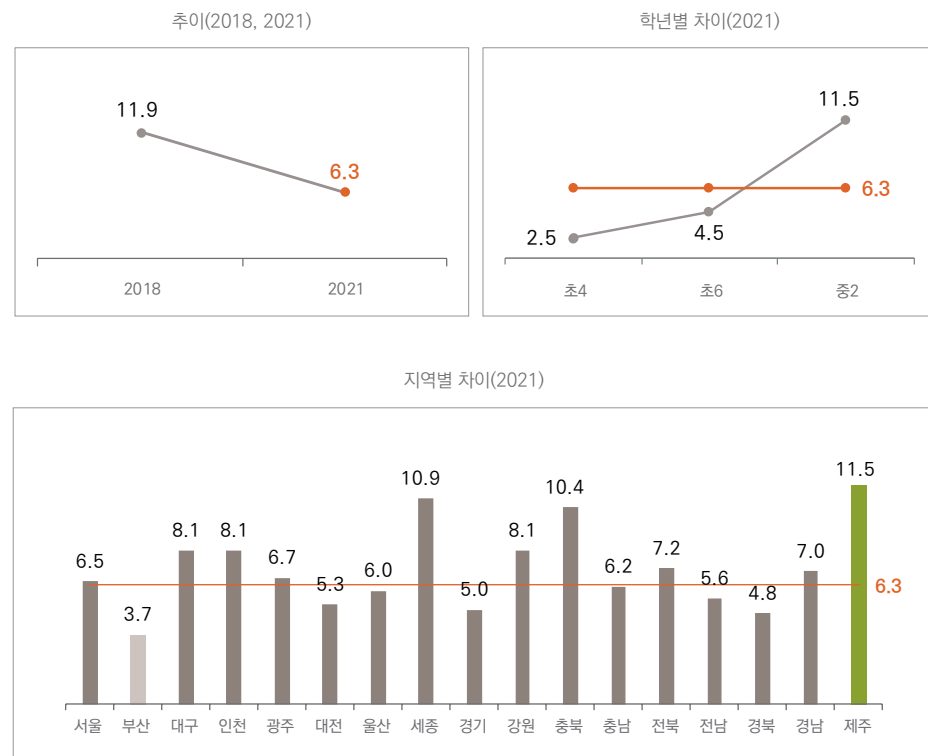


[그림 III-117] 폭력비행 경험

지난 1년 간 폭력비행 경험 비율은 '16년 3.5%, '18년 6.4%, '21년 4.9%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4%, 6학년은 4.5%, 중등 2학년은 5.6%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폭력비행 경험 수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9.2%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이 2.0%로 가장 낮았다.

☑ 사이버비행 경험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 등의 경험 여부 (4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1개 항목 이상에 응답한 아동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사이버비행 경험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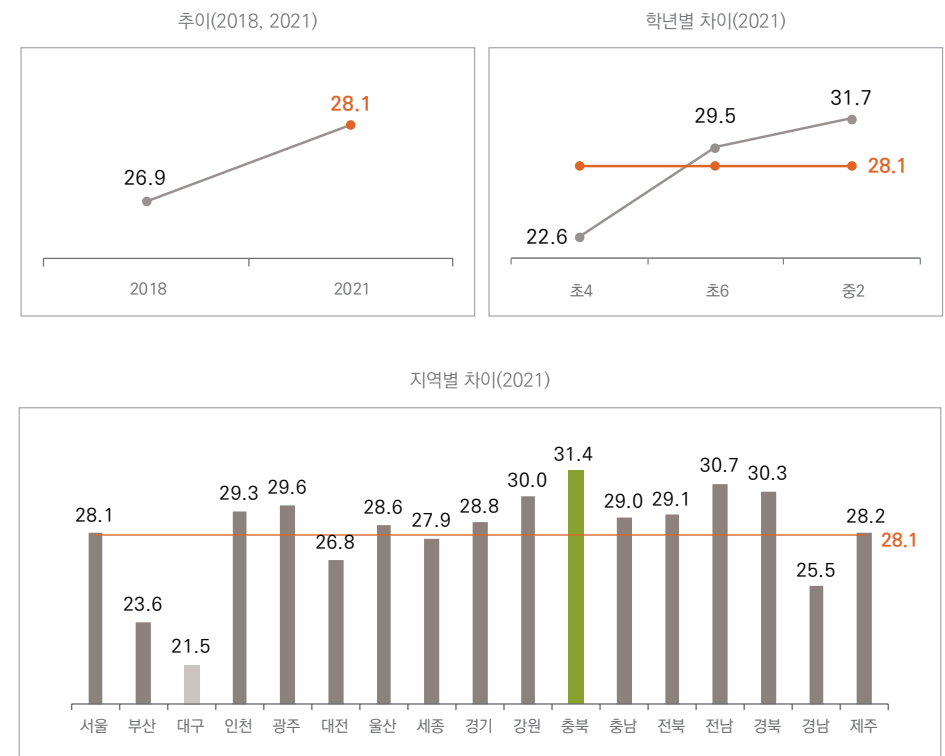


[그림 III-118] 사이버비행 경험

사이버비행 경험 비율은 '18년 11.9%, '21년 6.3%로 사이버비행 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5%, 6학년은 4.5%, 중등 2학년은 11.5%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비행 경험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11.5%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이 3.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스마트폰 과의존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절 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 등 과의존 정도 (10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119] 스마트폰 과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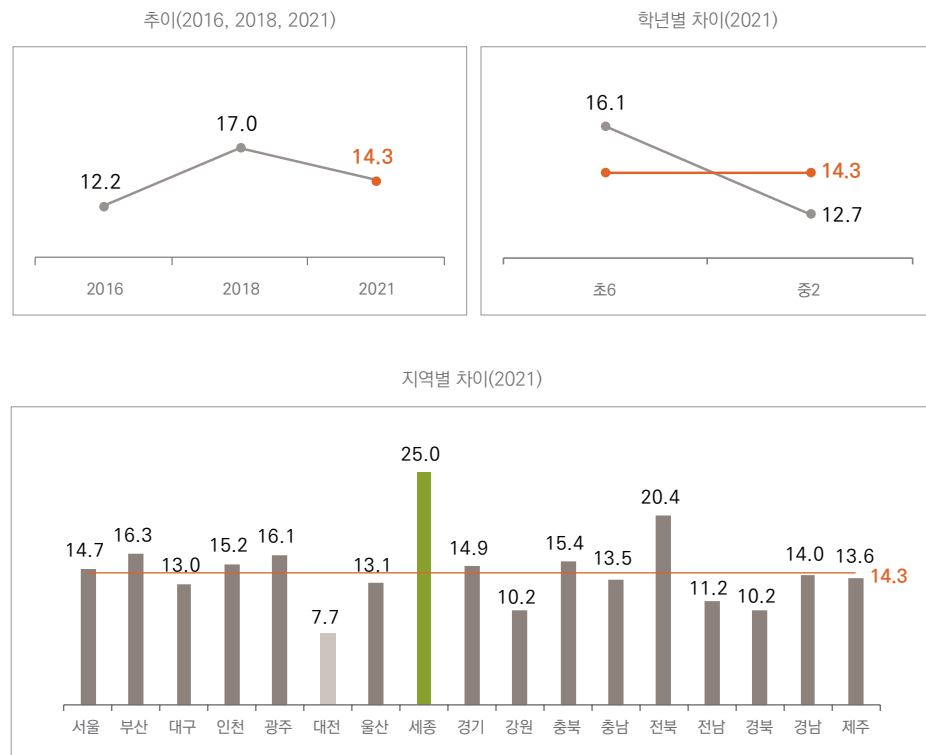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는 '18년 26.9점, '21년 28.1점으로 '21년에 소폭 상승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2.6점, 초등 6학년은 29.5점, 중등 2학년은 31.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가 21.5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 자살 생각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살 생각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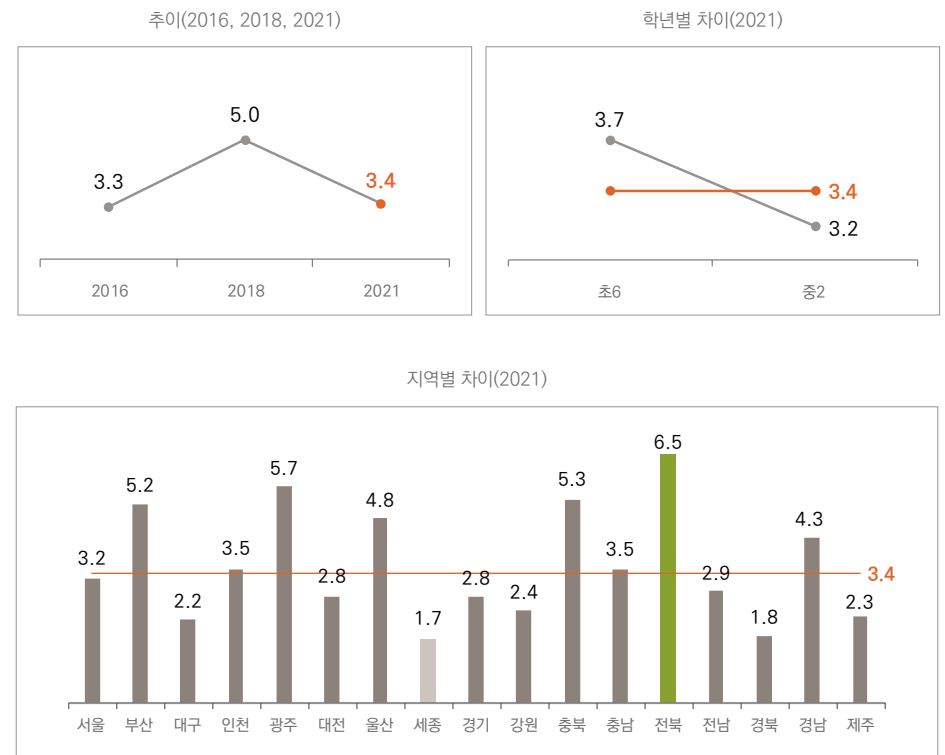


[그림 III-120] 자살 생각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2.2%, '18년 17.0%, '21년 14.3%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16.1%, 중등 2학년은 12.7%로 중등 2학년보다 초등 6학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7.7%로 가장 낮았다.

☑ 자살 시도 계획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본 적이 있는지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자살 시도 계획 정도가 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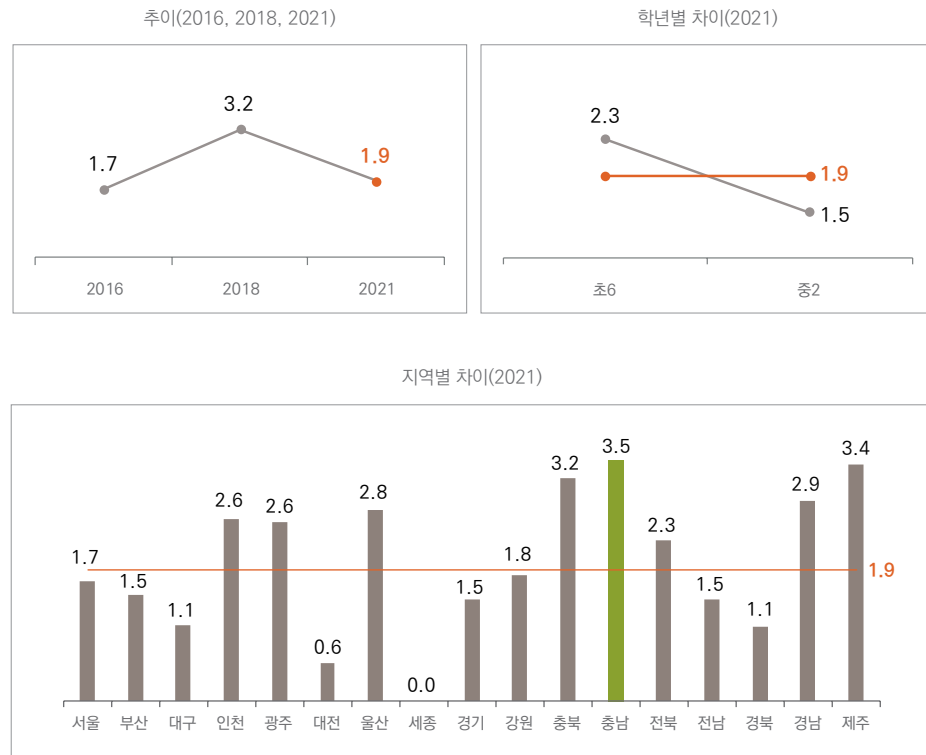


[그림 III-121] 자살 시도 계획

자살 시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 아동 비율은 '16년 3.3%, '18년 5.0%, '21년 3.4%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3.7%, 중등 2학년은 3.2%로 중등 2학년보다 초등 6학년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6.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1.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 시도

- 대상 : ■ 아동(초6, 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지난 1년 동안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1문항)
- 척도 : 이분형 척도 (① 예, ② 아니오)
- 측정 : '예'라고 응답한 비율의 평균값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시도율이 높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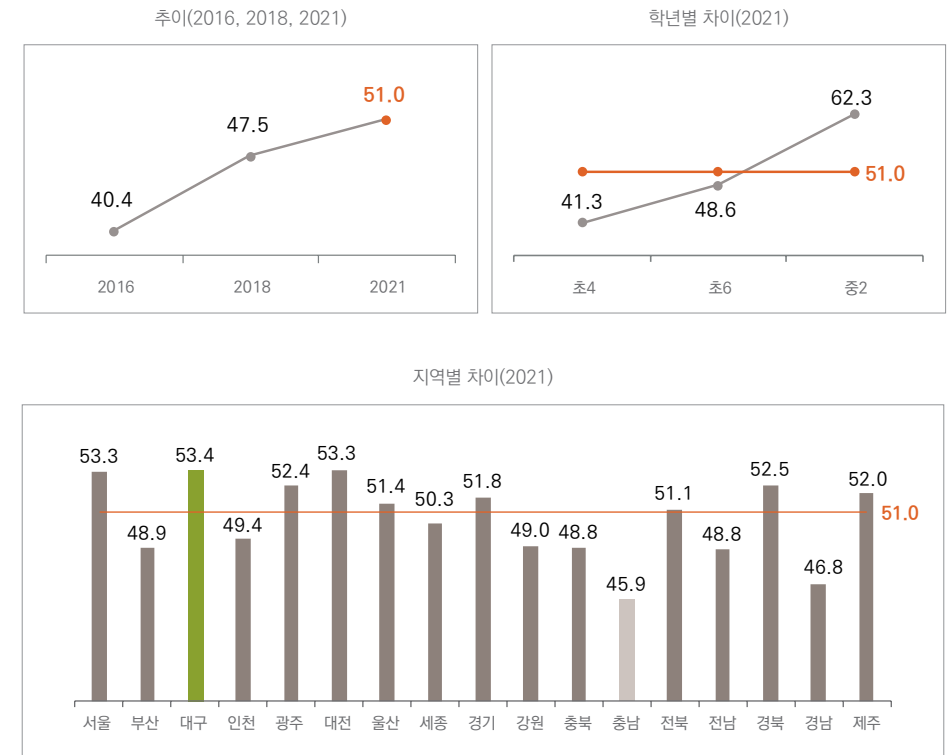


[그림 III-122] 자살 시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동의 비율은 '16년 1.7%, '18년 3.2%, '21년 1.9%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6학년은 2.3%, 중등 2학년은 1.5%로 중등 2학년보다 초등 6학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이 0.0%로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업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공부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 0-10점 (⑩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⑤ 보통, ①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스트레스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123] 학업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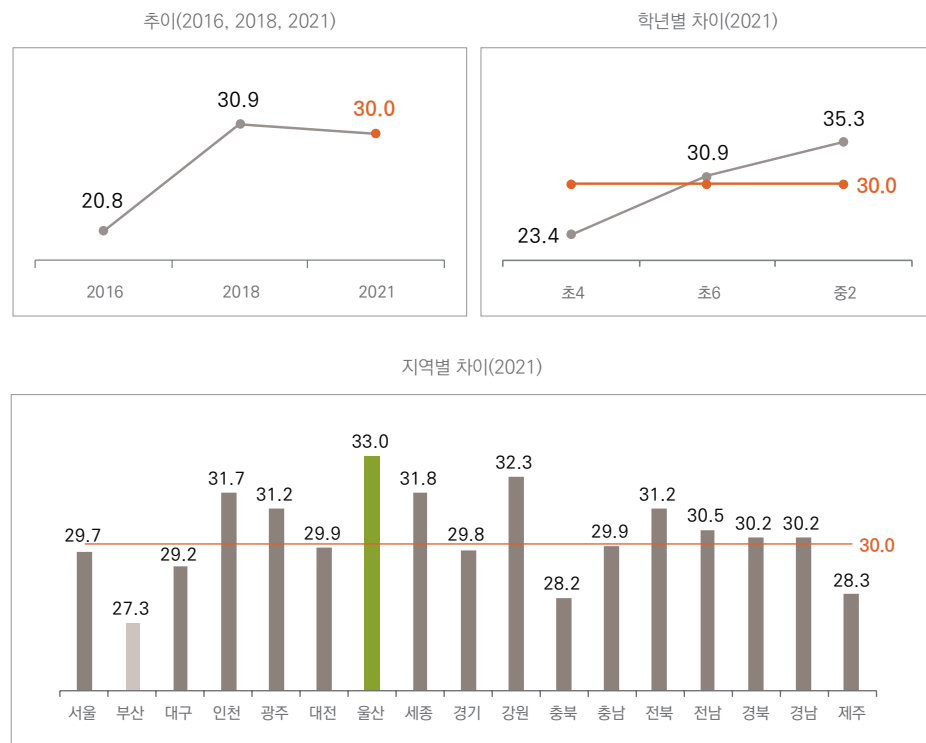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16년 40.4점, '18년 47.5점, '21년 51.0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41.3점, 초등 6학년은 48.6점, 중등 2학년은 62.3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5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충남이 45.9점으로 가장 낮았다.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 친구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친구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 0-10점 (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㉑ 보통, ㉒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스트레스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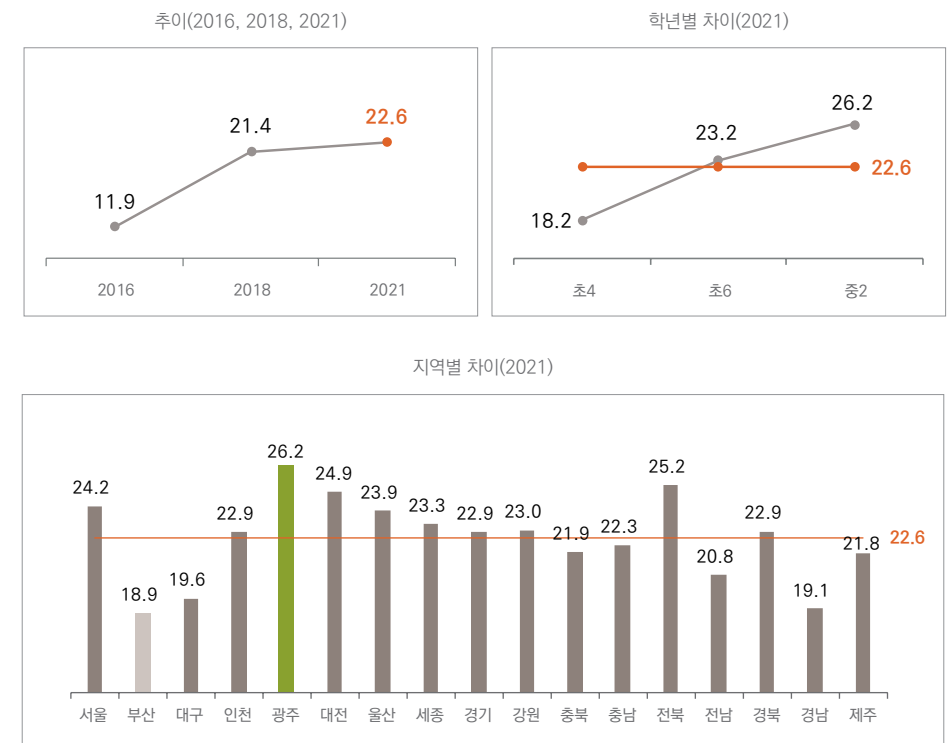


[그림 III-124] 친구 스트레스

친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20.8점, '18년 30.9점, '21년 30.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3.4점, 초등 6학년은 30.9점, 중등 2학년은 35.3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친구 스트레스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27.3점으로 가장 낮았다.

☑ 가족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가족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 0-10점 (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㉑ 보통, ㉒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 스트레스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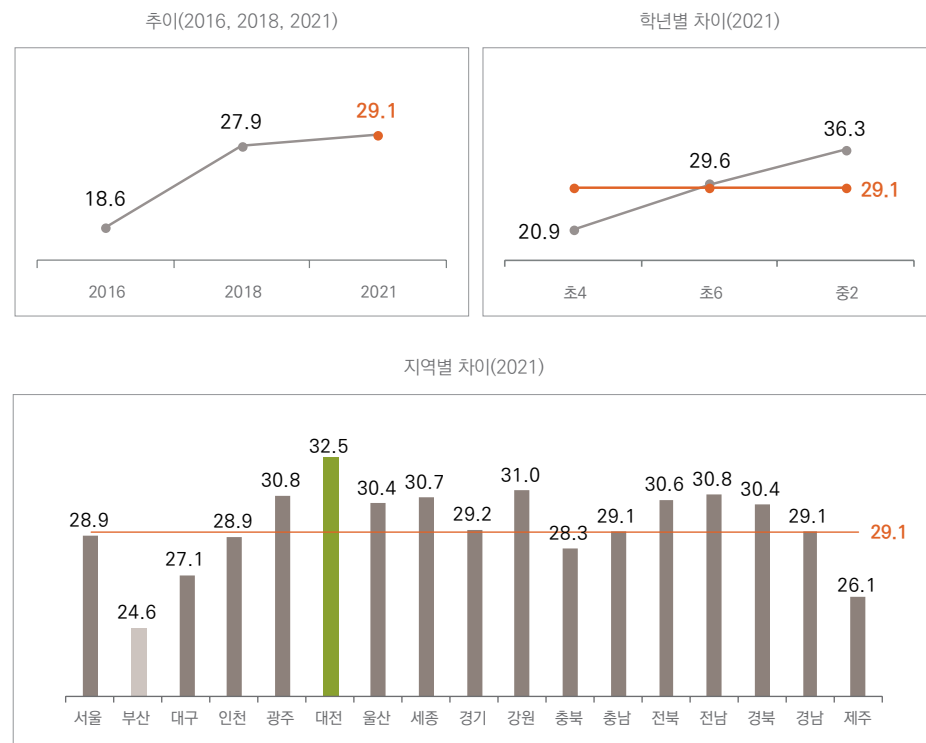


[그림 III-125] 가족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11.9점, '18년 21.4점, '21년 22.6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8.2점, 초등 6학년은 23.2점, 중등 2학년은 26.2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 수준도 조금씩 높아졌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이 18.9점으로 가장 낮았다.

☞ 외모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외모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 0-10점 (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㉑ 보통, ㉒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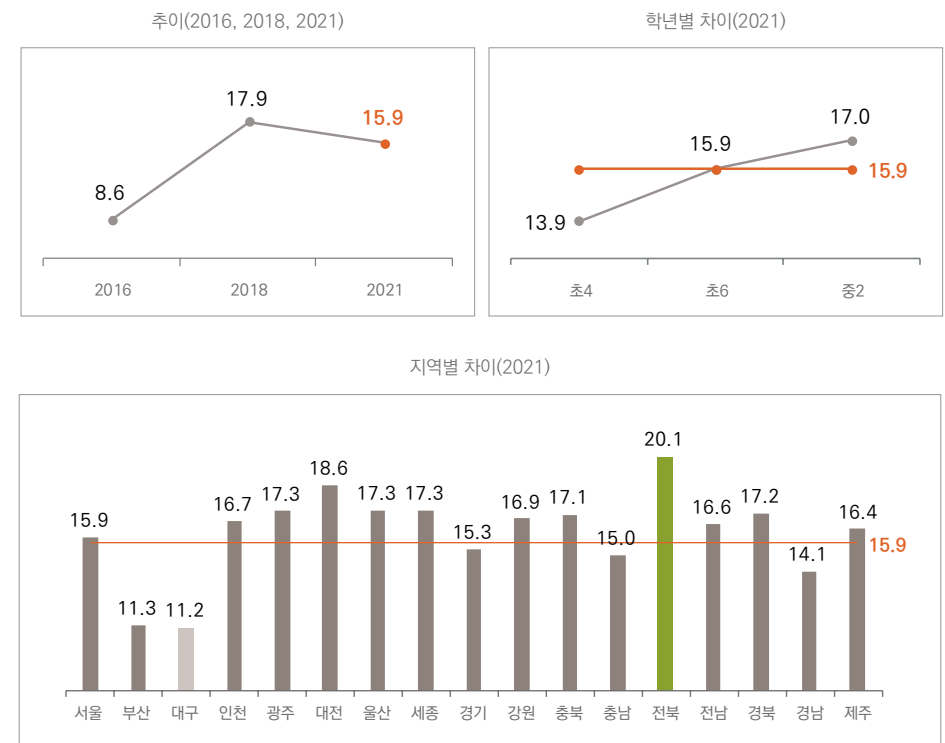


[그림 III-126]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는 '16년 18.6점, '18년 27.9점, '21년 29.1점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아동의 외모 스트레스 수준 또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20.9점, 6학년은 29.6점, 중등 2학년은 36.3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2.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이 24.6점으로 가장 낮았다.

☞ 경제적 스트레스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이 경제적 문제에 대해 받는 스트레스 정도 (1문항)
- 척도 : 0-10점 (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㉑ 보통, ㉒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127]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정도는 '16년 8.6점, '18년 17.9점, '21년 15.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13.9점, 초등 6학년은 15.9점, 중등 2학년은 17.0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가 11.2점으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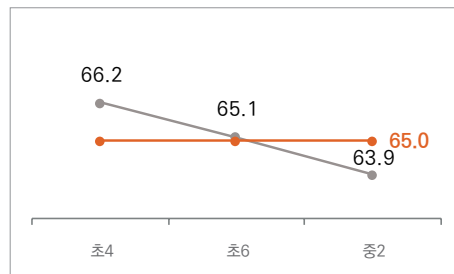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III 2021년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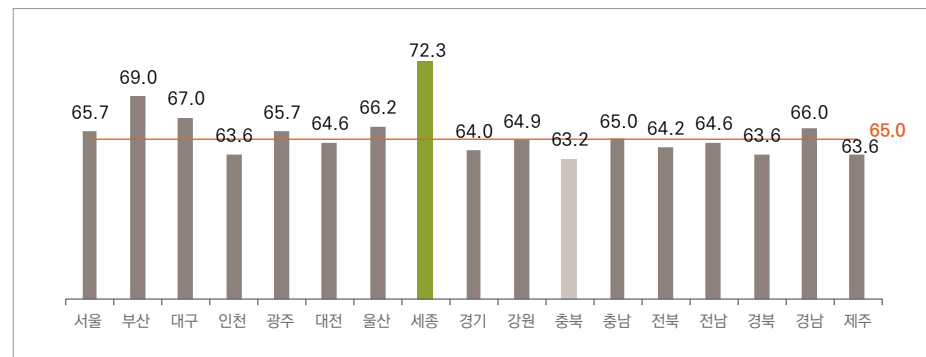
☑ **진로성숙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문항수정)
- 내용 : 미래 계획과 진로에 대한 계획성, 합리성 등에 대한 인식 (10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정도가 큼 (단위: 점)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그림 III-128] 진로성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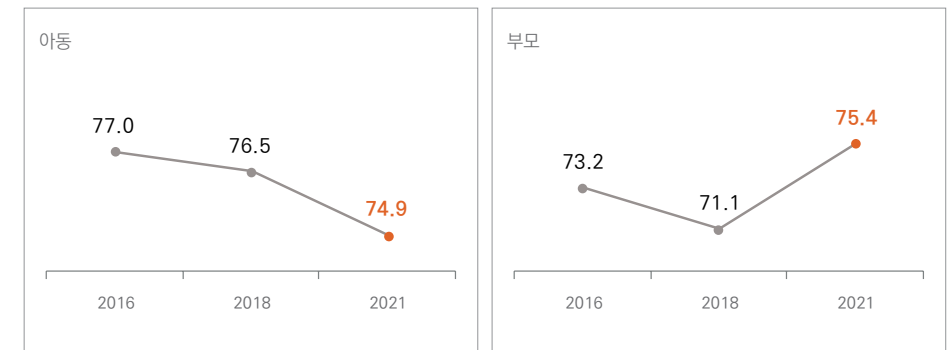
아동의 진로성숙도의 경우 초등 4학년은 66.2점, 초등 6학년은 65.1점, 중등 2학년은 63.9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진로성숙 정도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2.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충북이 63.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4)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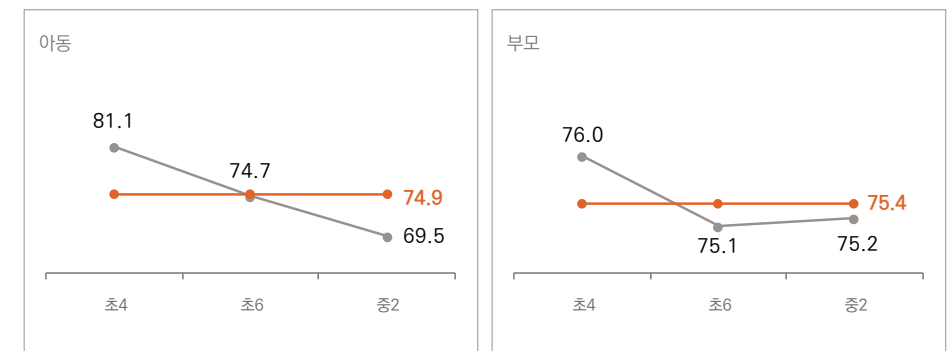
☑ **현재 행복감**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현재 아동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평가
- 척도 : 0-10점 척도 (① 매우 행복하지 않다, ⑤ 보통, ⑩ 매우 행복하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행복감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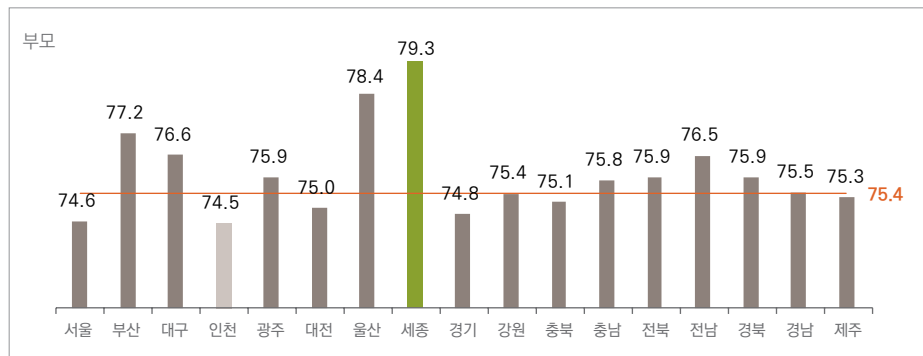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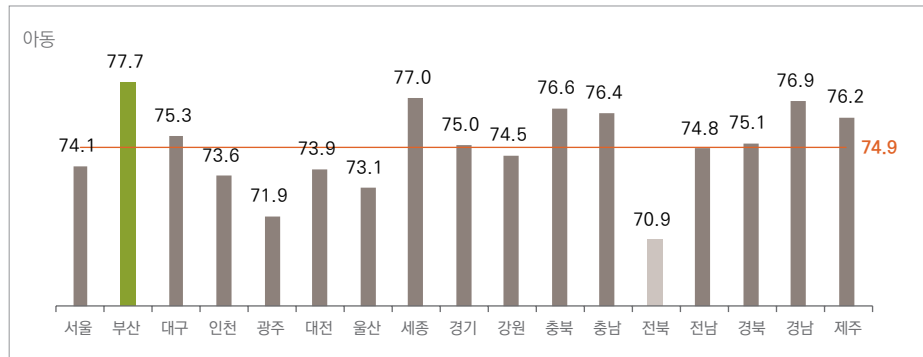
추이(2016, 2018, 2021)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그림 III-129] 현재 행복감 (아동, 부모)

아동의 현재 행복감 정도는 '16년 77.0점, '18년 76.5점, '21년 74.9점으로 아동의 현재 행복감 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은 '16년 73.2점, '18년 71.1점, '21년 75.4점으로 '18년 대비 '21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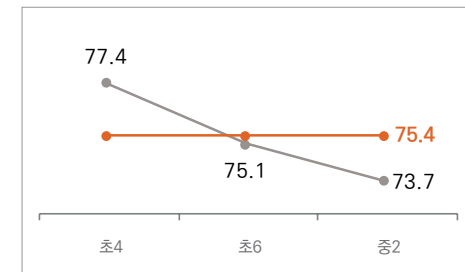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81.1점, 초등 6학년은 74.7점, 중등 2학년은 69.5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현재의 행복감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초등 4학년 76.0점, 초등 6학년은 75.1점, 중등 2학년은 75.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7.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전북이 7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세종이 79.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이 7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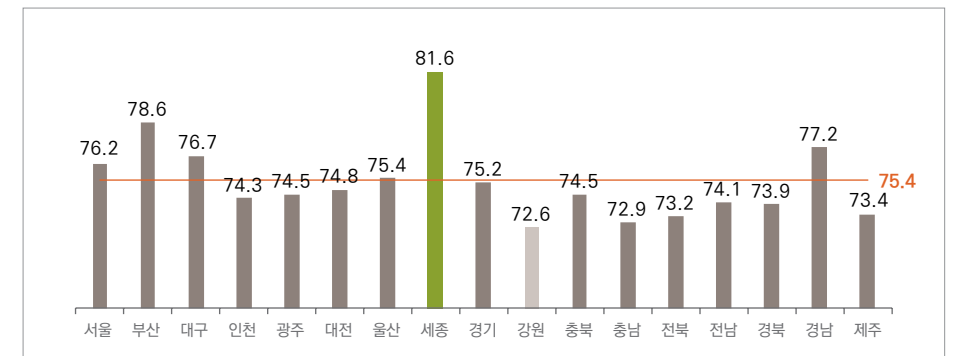
☑ 시민의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 등에 시민의식 정도 (4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의식 정도가 큼 (단위: 점)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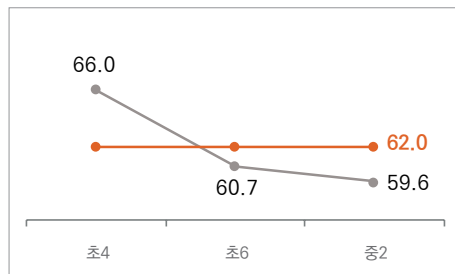
[그림 III-130] 시민의식

시민의식 정도를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7.4점, 초등 6학년은 75.1점, 중등 2학년은 73.7점으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시민의식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81.6점으로 시민의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강원이 72.6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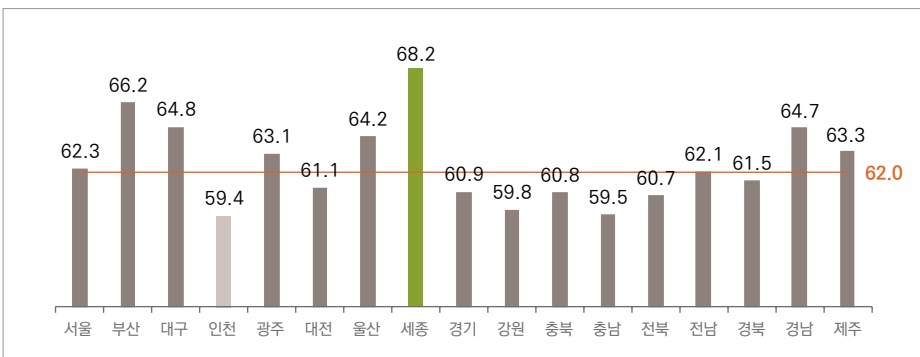
☉ 공동체의식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등 공동체 의식 정도 (4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정도가 큼 (단위: 점)

학년별 차이(2021)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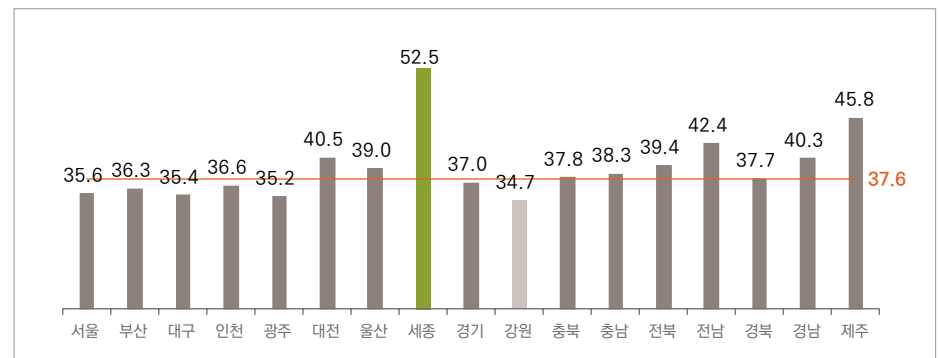
[그림 III-131] 공동체 의식

아동의 공동체의식은 초등 4학년은 66.0점, 초등 6학년은 60.7점, 중등 2학년은 59.6점으로 시민의식과 마찬가지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공동체 의식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68.2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인천이 59.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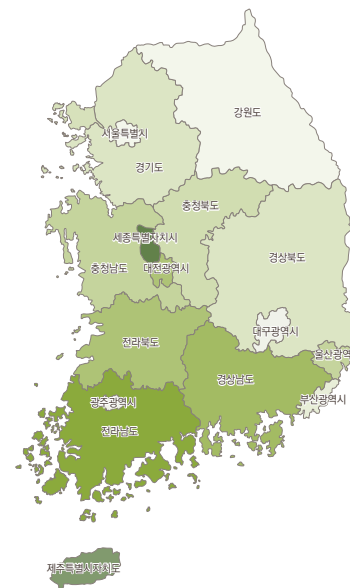
☉ 계층간 불평등

- 대상 :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우리나라의 계층간 불평등에 대한 인식 (1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큼 (단위: 점)

지역별 차이(2021)



[그림 III-132] 계층간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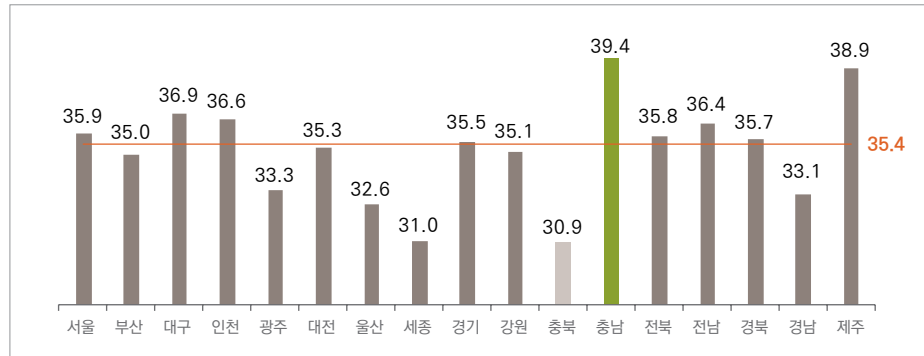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불평등 정도는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52.5점으로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강원은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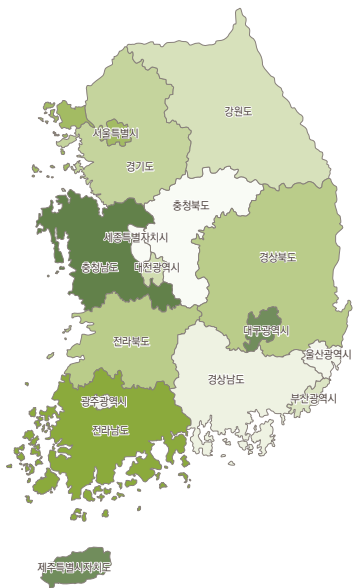
☉ 계층간 이동가능성

- 대상 :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노력하면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2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계층간 이동가능성이 큼 (단위: 점)

지역별 차이(2021)



[그림 III-133] 계층간 이동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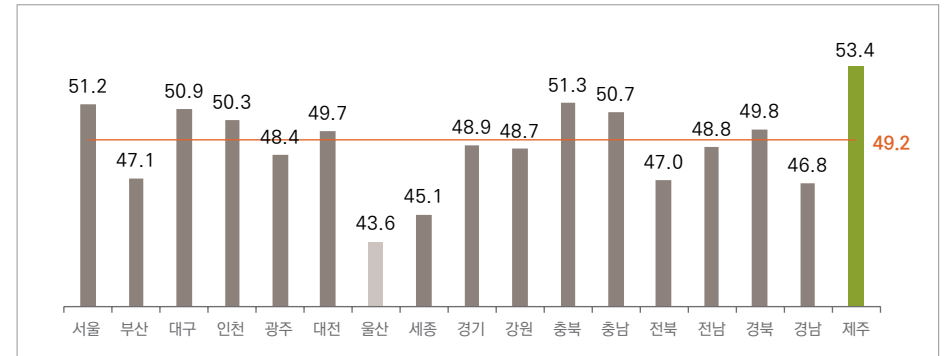


아동이 인식하는 계층간 이동가능성 정도는 평균 35.4점으로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9.4점으로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충북이 30.9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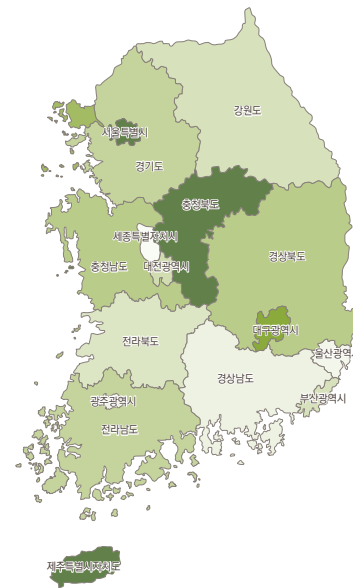
☉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 대상 : ■ 아동(중2만 조사)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있는지에 대한 인식 (2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격차완화제도 갖추어짐 (단위: 점)

지역별 차이(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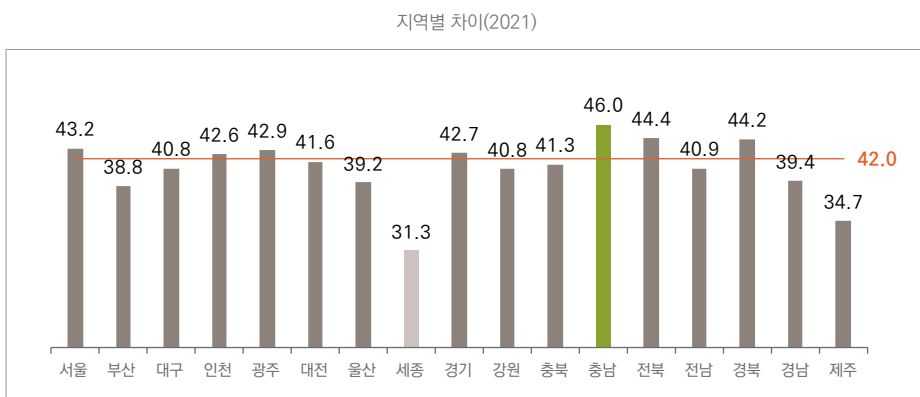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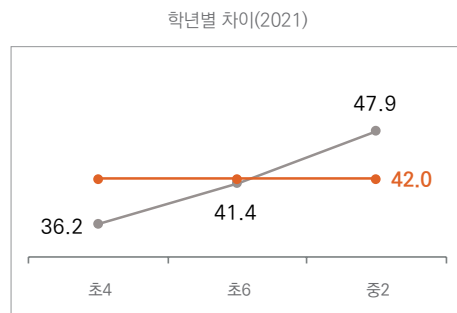
[그림 III-134] 계층간 격차완화제도



계층간 격차완화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 49.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53.4점으로 계층간 격차완화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은 43.6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 여성, 장애인, 인종, 가난한 사람 등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인식 (8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매우 불평등, ② 약간 불평등, ③ 약간 평등, ④ 매우 평등)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정도가 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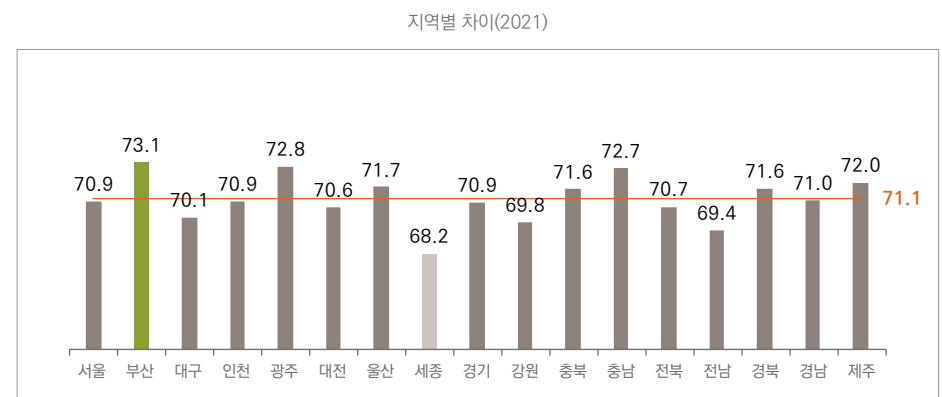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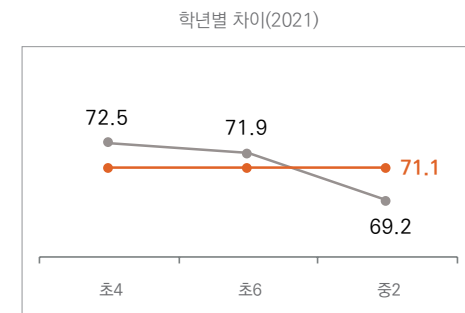


[그림 III-135]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대우 정도

아동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에서의 불평등 대우 정도는 평균 42.0점으로 나타났다. 학년 별로는 초등 4학년이 36.2점, 초등 6학년이 41.4점, 중등 2학년이 47.9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46.0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세종이 31.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대상 : ■ 아동 □ 부모
- 조사차수 : □ 1차 □ 2차 ■ 3차
- 내용 : 아동,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 등이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인식 (8문항)
- 척도 : 4점 척도 (① 매우 불필요 ② 약간 불필요, ③ 약간 필요, ④ 매우 필요)
- 측정 :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큼 (단위: 점)



[그림 III-136] 도움이 필요한 정도

아동, 여성, 장애인, 가난한 사람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동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은 72.5점, 초등 6학년은 71.9점, 중등 2학년은 69.2점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3.1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세종이 68.2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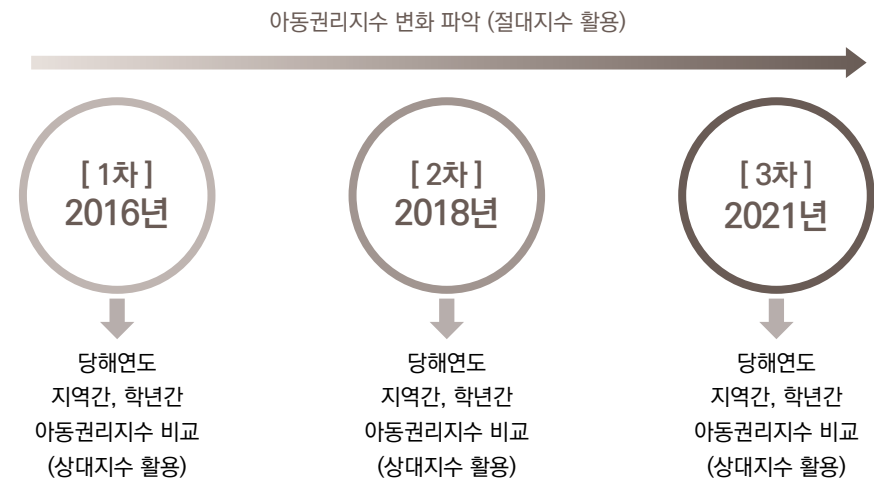
3. 아동권리지수 분석 결과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그리고 발달과 관련된 각각의 아동권리지표들은 아동권리와 관련된 하나하나의 현상과 현황, 변화를 이해하는데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표를 넘어 권리 영역 전반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앞서 개별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아동이 경험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지수화하고, 다시 아동권리지수로 산출하여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가늠하고, 17개 광역시·도별 아동권리지수 실태와 지역간 격차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동권리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는지, 또는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절대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동일 시점에서의 지역별, 학년별 아동권리지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절대지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 개별 지표를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환한 후, 해당 지수에 포함되는 지표들을 모아 지표들의 평균을 구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절대지수는 지역간 또는 학년간의 상대적인 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다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지표의 평균은 23.5점인데 반해, 아동학대 인식 지표의 평균은 90점 이상을 상회하는데, 두 지표의 평균값을 사용할 경우, 평균값이 낮은 아동학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지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지역간 비교시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지표의 점수가 높은 지역보다, 아동학대 인식 지표의 점수가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즉, 평균 점수대가 높은 지표의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절대지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 시점에서 지역간, 또는 학년간 비교를 할 때는 상대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상대지수는 개별 지표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지표 각각을 표준화 계수인 Z-score로 표준화시킨 후, 표준화 값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표준화된 각각의 지표들의 평균은 100점이 되는데, 표준화하기 전 평균이 23.5점인 지표나 90.0점인 지표 모두 평균값 100점을 갖는 표준화 값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지수에 포함되는 개별 지표 가운데 특정 지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

지 않고 영향력이 모두 동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단 비교 시에는 절대지수를 활용하고, 동일 시점, 동일 차수 안에서 지역간, 학년간 비교를 할 때는 상대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III-137] 아동권리지수 변화 흐름

(1) 지역간 비교

17개 시도별 비교를 위해 3차 아동권리지수를 상대지수로 산출하였으며,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상대지수는 표준화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평균값은 100점이며, 대부분의 값은 100점을 기준으로 90점과 110점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하게 된다. 따라서, 100점을 상회하는 경우 평균을 웃돌고, 100점을 하회하는 경우 평균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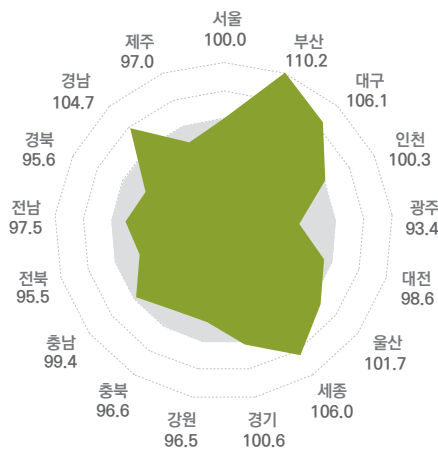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울산, 세종, 경남 지역은 4대 권리영역 모두 10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권리지수 또한 100점을 웃돌아 타 지역에 비해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4대 권리영역 간에도 비교적 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도는 일부 영역에서 평균을 밑돌긴 하였으나, 아동권리지수는 100점 이상으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반면, 광주, 충북, 전남, 경북 지역은 4대 영역과 아동권리지수 모두 100점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해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4]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지역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서울	100.0	99.8	101.6	97.3	101.3
부산	110.2	106.1	112.6	110.6	111.5
대구	106.1	109.0	104.1	102.4	109.0
인천	100.3	95.9	99.2	104.3	101.9
광주	93.4	98.0	94.6	86.7	94.2
대전	98.6	95.7	98.1	106.8	93.8
울산	101.7	100.3	102.0	102.4	102.0
세종	106.0	104.7	108.3	100.2	110.6
경기	100.6	97.4	100.5	105.0	99.6
강원	96.5	92.9	97.9	105.2	89.9
충북	96.6	98.5	94.6	99.2	94.0
충남	99.4	99.6	96.8	100.0	101.0
전북	95.5	97.5	94.7	88.9	100.9
전남	97.5	99.7	97.4	99.0	93.8
경북	95.6	97.8	96.8	96.1	91.9
경남	104.7	105.6	104.4	101.0	107.6
제주	97.0	101.8	95.7	94.0	96.5
지역간 격차	16.8	16.1	18.0	23.9	21.6

□ 평균값 상회

아동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련없이 모든 아동이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간 순위 외에 지역간 격차도 눈여겨 봐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회색 부분은 평균(100점)을 의미하는 영역으로 회색을 덮은 지역은 평균 이상의 아동권리지수를 나타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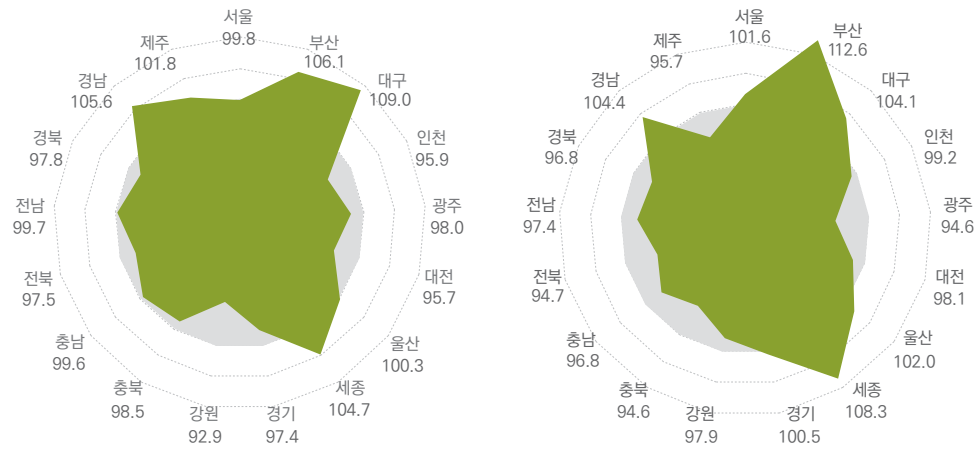


4대 권리영역을 종합한 아동권리지수는 부산, 대구, 세종, 경남, 울산, 경기, 인천,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전북, 경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의 차이는 16.8점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존권 지수는 대구, 부산, 경남, 세종, 제주, 울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의 격차는 16.1점으로 4대 권리 중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다른 권리 영역에 비해 지역간 생존권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균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발달권 지수는 부산, 세종, 경남, 대구, 울산, 서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간 격차는 18.0점으로 생존권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138]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수준



보호권의 경우, 부산, 대전, 강원, 경기, 인천, 대구 순으로 높았으며, 지역간 격차는 23.9점으로 나타나, 4대 권리 영역 중 지역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보호권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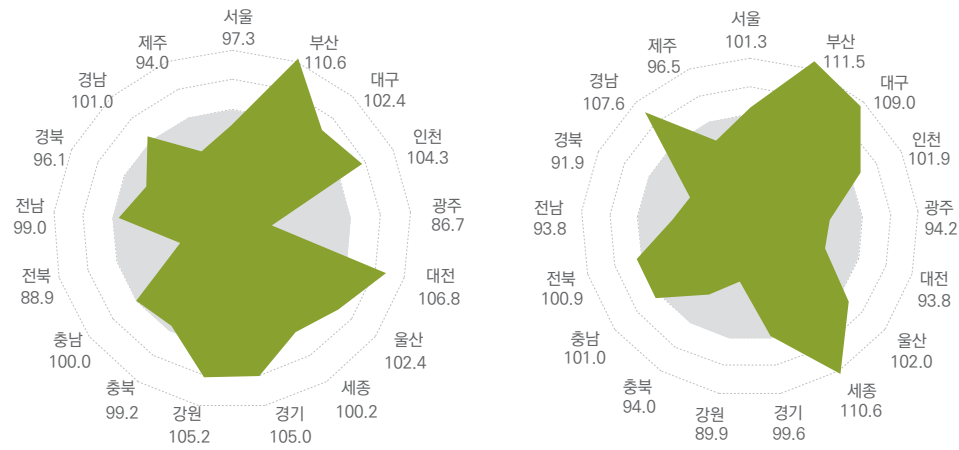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부산, 세종, 대구, 경남, 울산, 인천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간 격차는 21.6점으로 나타나 보호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격차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생존권 보장은 지역간에 상대적으로 균형을 갖추었다면, 보호권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장 수준에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9] 지역별 생존권 지수 수준



[그림 III-140] 지역별 발달권 지수 수준



(2) 학년간 비교

지역별 아동권리지수에 이어 학년별 아동권리지수를 살펴보았는데,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아동권리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의 경우 평균선인 100점을 상회한 반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94.4점으로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간 격차는 10.6점으로 나타났다.

4대 권리 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존권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권리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간 격차는 18.0점으로 4대 권리 영역 가운데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권리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간 격차는 14.8점으로 생존권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권 지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년간 격차는 9.7점으로 4대 영역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참여권은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 순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권의 학년 간 격차는 13.8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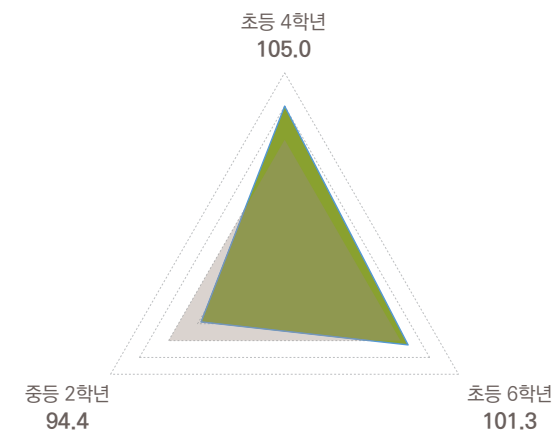
[그림 III-141] 지역별 보호권 지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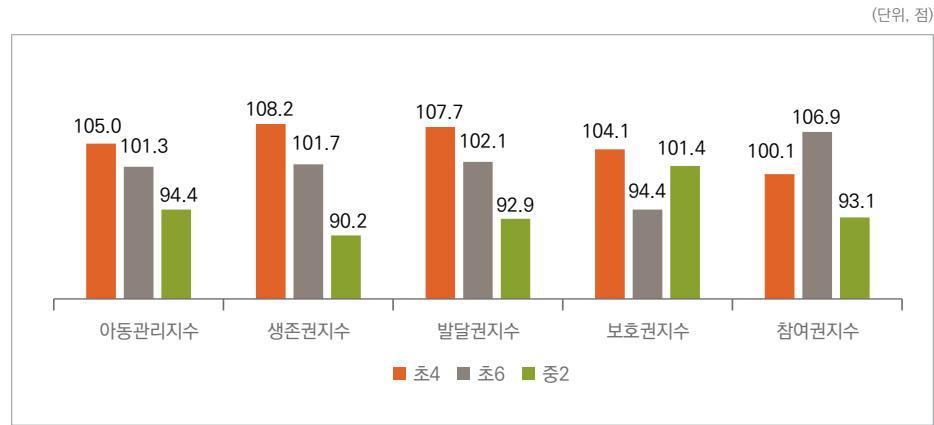
[그림 III-142] 지역별 참여권 지수 수준

[표 III-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상대지수)

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초4	105.0	108.2	107.7	104.1	100.1
초6	101.3	101.7	102.1	94.4	106.9
중2	94.4	90.2	92.9	101.4	93.1
차이	10.6	18.0	14.8	9.7	13.8



[그림 III-143]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현황 (상대지수)



[그림 III-144]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세부 현황

4. 아동권리지수와 관련 요인

1) 아동권리지수와 환경적 요인

지역별 아동권리지수와 지역의 경제적 환경 요인 사이에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동권리지수는 상대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별 산출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지표별 빈도수는 시·도의 개수인 17개이다. 먼저 아동이 거주하는 시도의 재정자립도와 아동권리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r=.48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일수록 아동권리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재정자립도와 시도의 경제활동참가율, 기초생활수급자수, 고용률 지표와 아동권리지수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6]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교육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생활 수급자 수	고용률
상관계수	-.333	.483*	-.466	.17	-.463

* $p<.05$, ** $p<.01$, *** $p<.001$

- 교육재정자립도(지방교육재정알리미, 2020)

- 지자체 재정자립도(재정정책과 통합재정개요, 2020)

-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2020)

- 기초생활수급자수(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0)

- 고용률(통계청, 2020)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간에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지역사회의 위생적 환경 요인이 아동권리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723, p<.01$). 즉,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이 위생적일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시설, 학교시설, 미세먼지나 간접흡연 노출 정도, 교사 1인당 학생수와 같은 지표와 아동권리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7]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주거시설	학교시설	시설/기관 이용 수준	위생적 환경
상관계수	.478	.141	.372	.723**
구분	미세먼지 노출	간접흡연 노출	교사1인당 학생수	인터넷 이용률
상관계수	-.076	-.481	.127	.446

*p<.05, **p<.01, ***p<.001

- 위생적 환경: 깨끗한 물 이용, 깨끗한 화장실 이용 지표의 Z값 평균

이어서, 아동이 인식하는 환경 지표와 아동권리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부모의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동네의 안전감, 이웃과의 교류, 공동체의식, 가족과의 여가활동 지표와 아동권리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이 거주하는 시도의 부모의 심리 및 정서 평균과 아동권리지수 간에 정적 상관관계($r=.55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풍토는 아동이 소속된 학교의 의견존중분위기와 정보공개민주성 정도를 포괄하는 지표인데, 아동이 거주하는 시도의 학교풍토 평균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r=.544, p<.05$). 아동이 인식하는 동네의 안전감 정도 또한 아동권리지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784, p<.01$), 아동이 거주하는 시도의 동네 안전감 평균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웃과의 교류 평균이 높을수록($r=.545, p<.05$), 공동체의식 평균이 높을수록($r=.687, p<.01$), 그리고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가 높을수록($r=.498, p<.05$), 아동권리지수 또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지표간의 상관관계

구분	부모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상관계수	.555*	.544*	.282	.29
구분	동네의 안전감	이웃과의 교류	공동체의식	가족과의 여가활동
상관계수	.784**	.545*	.687**	.498*

*p<.05, **p<.01, ***p<.001

- 부모의 심리 및 정서: 부모의 관계 만족도, 경제적 만족도, 행복감,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지표의 Z값 평균

- 학교풍토: 학생의 의견 존중,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내 비차별 문화 지표의 Z값 평균

2) 아동권리지수와 발달 결과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결과 지표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건강 요인에서 주관적 건강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입원경험과 만성질환 유무와 같은 객관적 건강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관관계 계수가 .796으로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인지발달은 전반적 학업성취로 살펴보았는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 학업성취 평균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r=.721, p<.01$). 사회정서 발달 관련하여서는 불안과 공격성,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진로성숙도 지표와 아동권리지수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불안 평균이 낮을수록($r=-.565, p<.05$), 공격성 평균이 낮을수록($r=-.816, p<.01$), 스마트폰 과의존 평균이 낮을수록($r=-.788, p<.01$), 스트레스 평균이 낮을수록($r=-.626, p<.01$), 그리고 진로성숙도 평균이 높을수록($r=.719, p<.01$)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또한 아동권리지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주 지역 아동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지수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588, p<.05$). 시민의식은 아동권리지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지역 내 아동들의 시민의식 평균이 높을수록($r=.802, p<.01$)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도 높게 나타났다.

[표 III-9] 아동권리지수와 발달결과 간 상관관계

구분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전반적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우울
상관계수	.796**	.446	.721**	.395	-.009
구분	불안	공격성	비행	스마트폰 과의존	자살
상관계수	-.565*	-.816**	-.386	-.788**	-.091
구분	스트레스	진로성숙	행복감	시민의식	
상관계수	-.626**	.719**	.588*	.802**	

*p<.05, **p<.01, ***p<.001

5. 아동권리 Focus Issue 분석

1) 부모(보호자) - 아동 매칭 지표 분석

아동권리 지표 중 일부 지표는 아동 및 부모(보호자)가 함께 동일지표에 응답하는 매칭 문항이다. 매칭 문항은 동일한 상황 또는 경험에 대해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인식 수준을 비교 분석하게 해줌으로써 부모(보호자)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8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부모(보호자)-아동 매칭 문항으로 동네환경에 대한 평가, 아동권리 존중 수준 평가, 여가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동네환경과 우리나라에서의 아동 삶의 평가는 아동권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되는 지표이다. 그리고 가정, 학교, 동네, 우리나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수준에 대한 평가는 아동권리 침해 공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부모(보호자)-아동 매칭 문항은 아동권리 존중의 세부 정보에 관해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평가 수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더욱 시급히 이뤄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생각하는 여가 및 놀이 수준의 격차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1) 동네환경 평가

동네환경에 대한 평가는 물리적 무질서 정도, 사회적 무질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적, 사회적 무질서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를 무질서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보호자)-아동 매칭 지표를 통해 동네환경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아동과 부모(보호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학년에 따라 지역사회의 무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동은 학년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의 무질서(물리적, 사회적)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보호자)는 자녀의 학년이 낮을수록 무질서(사회적)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간 무질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모두 학년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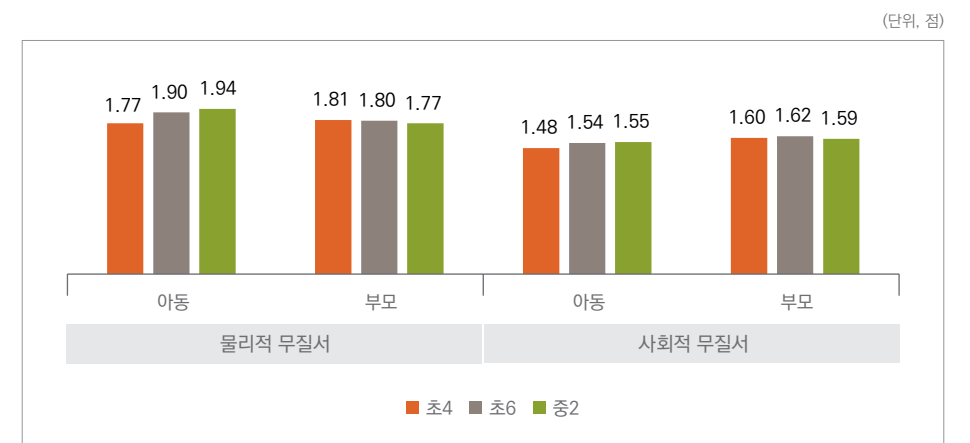
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부모(보호자) 집단 또한 자녀의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학년에 따른 차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무질서의 경우 아동에 비해 부모(보호자)가 더 무질서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여아와 여아를 둔 부모(보호자)가 남아와 남아를 둔 부모(보호자)에 비해 지역사회를 좀 더 무질서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와 여아를 둔 부모(보호자)가 동네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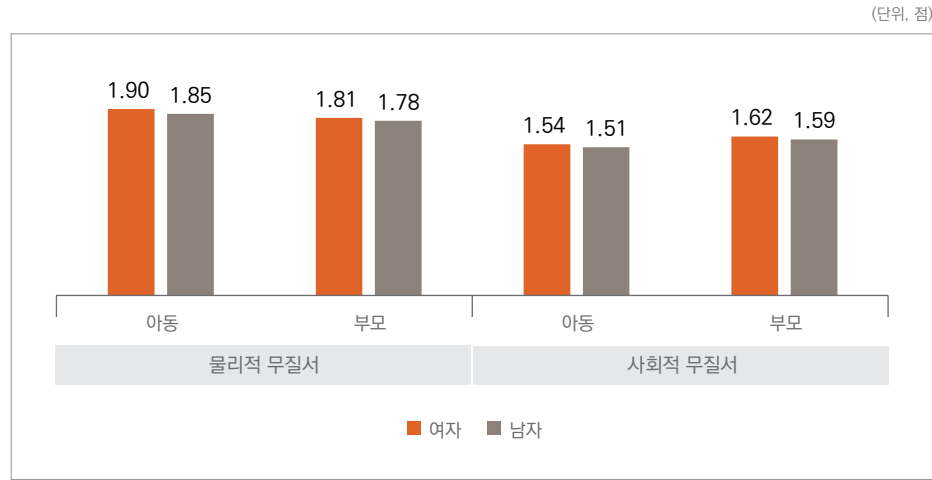
[표 III-10] 학년 및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구분		학년			f(p)	성별		t(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물리적 무질서 (r=.223***)	아동	1.77	1.90	1.94	104.335***	1.90	1.85	4.526***
	부모	1.81	1.80	1.77	5.329**	1.81	1.78	3.077**
사회적 무질서 (r=.294***)	아동	1.48	1.54	1.55	25.687***	1.54	1.51	2.871**
	부모	1.60	1.62	1.59	3.144*	1.62	1.59	4.148***

*p<.05, **p<.01, ***p<.001



[그림 III-145] 학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그림 III-146]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2) 여가활동 평가

여가활동에 대한 평가는 지난 1년간 여가활동을 하지 못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가활동 영역은 관광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영역으로 살펴보았는데, 세 영역 모두에서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 별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보호자) 집단에서도 자녀의 학년에 따른 평균값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보다 중학교 2학년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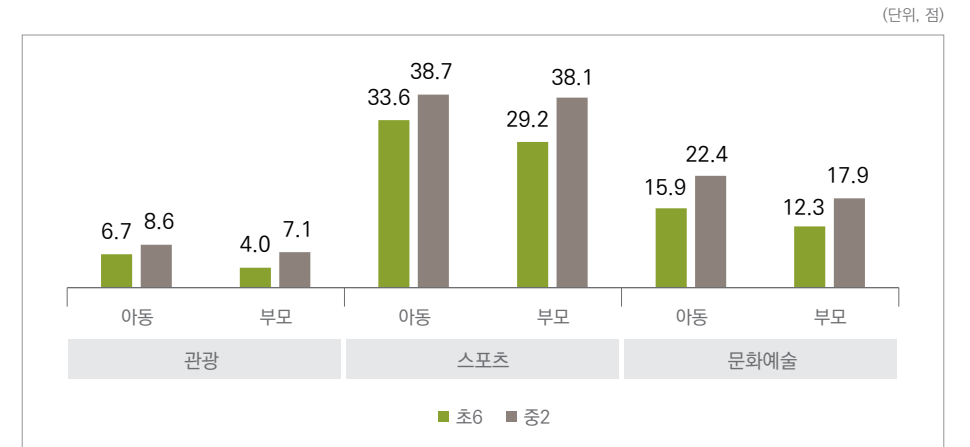
이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관광, 스포츠, 문화예술 영역 모두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부모(보호자) 집단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스포츠활동 영역에서만 존재하였다. 즉, 여아를 둔 부모(보호자)와 남아를 둔 부모(보호자) 간의 스포츠활동 참여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남아를 둔 부모(보호자)의 참여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평가 (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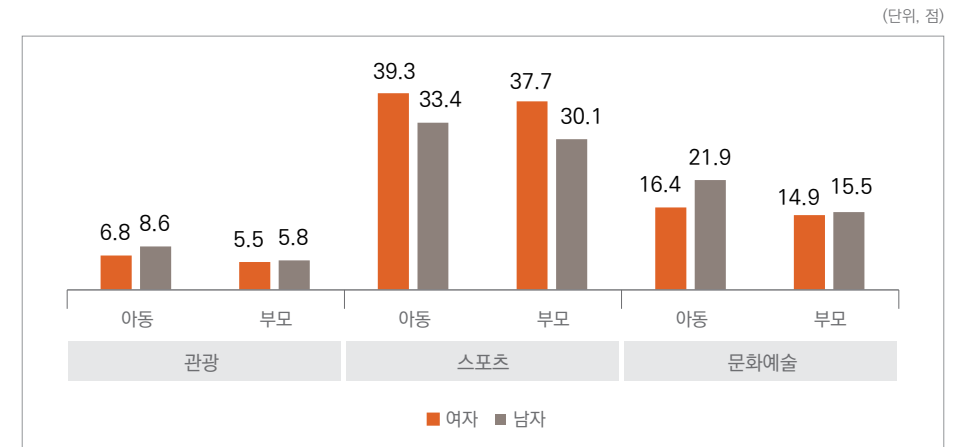
구분		학년		$\chi^2(p)$	성별		$\chi^2(p)$
		초6	중2		여자	남자	
관광 ($r=.350^{***}$)	아동	6.7	8.6	7.303**	6.8	8.6	6.711**
	부모	4.0	7.1	27.238***	5.5	5.8	0.345
스포츠 ($r=.301^{***}$)	아동	33.6	38.7	16.651***	39.3	33.4	22.419***
	부모	29.2	38.1	52.286***	37.7	30.1	37.385***
문화예술 ($r=.261^{***}$)	아동	15.9	22.4	40.432***	16.4	21.9	27.789***
	부모	12.3	17.9	35.546***	14.9	15.5	0.395

* $p<.05$, ** $p<.01$, *** $p<.001$

- 초6, 중2 대상 문항



[그림 III-147] 학년에 따른 여가활동 평가 (아동, 부모)



[그림 III-148] 성별에 따른 동네환경 평가 (아동, 부모)

(3) 우리나라 평가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 지표는 아동과 부모(보호자)가 우리나라의 안전, 교육, 놀이와 여가, 비차별, 아동의견존중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 문항은 총 10개 문항이며, 각 문항별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해당 값이 높을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 부모(보호자)의 응답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0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에 비해 부모(보호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 문항과 ‘아동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 문항이 상대적으로 아동-부모(보호자)간 격차가 적은 반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가정형편, 성별 등에 의한 비차별’, ‘아동의견 존중’, ‘아동 생각·의견 표현 기회 많음’ 문항은 아동과 부모(보호자) 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아동-부모(보호자) 간 인식 차이가 명확한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 세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아동의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 문항은 모든 학년에서 높게 평가되어 문항 가운데 유일하게 학년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년에 따른 평균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가운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문항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는 초등 4학년의 74.3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는 중등 2학년의 48.5점이었는데, 아동(학년)간 점수 차이가 25.8점으로 10개 문항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문항과 ‘가정형편, 성별 등에 의한 비차별’ 문항도 아동(학년)간 점수 차이가 각각 20.8점, 18.8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폭력과 학대·폭력, 차별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해당 이슈에 많이 노출되거나 부정적 경험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문항별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우리나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년에 따른 차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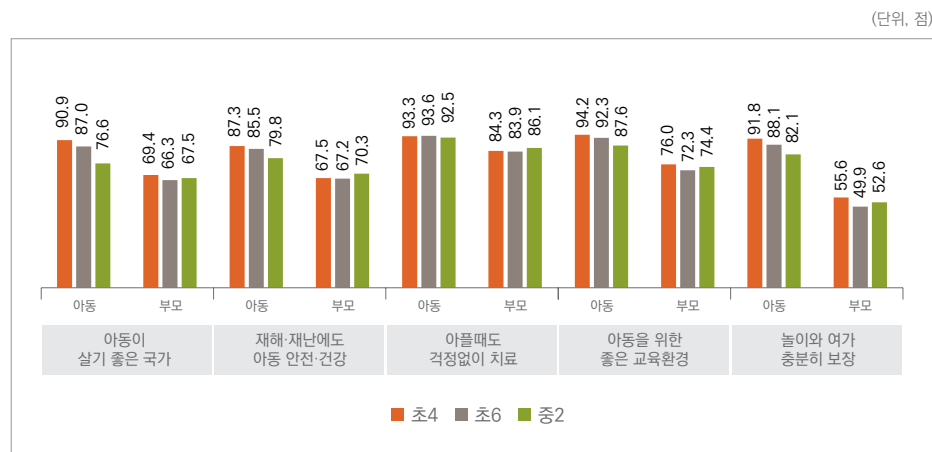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문항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견 존중’ 문항과 ‘아동 생각·의견 표현 기회 많음’ 문항은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문항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문항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가정형편, 성별 등에 의한 비차별’ 문항이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각각 9.2점, 7.6점, 6.1점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학대·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동시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강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성별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인 유의미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부모(보호자)의 인식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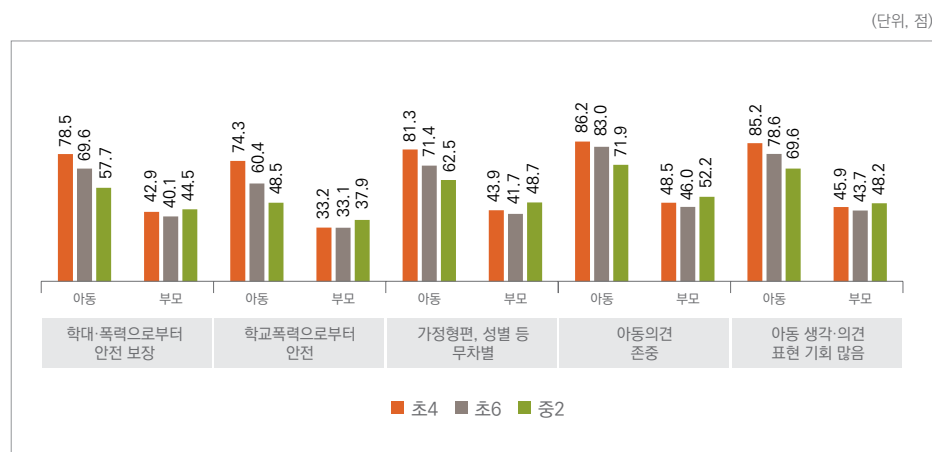
구분		학년			χ ² (p)	성별		χ ² (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 (r=.111***)	아동	90.9	87.0	76.6	246.520 ***	83.0	86.2	17.51 ***
	부모	69.4	66.3	67.5	6.399 *	67.5	68.0	0.252
재해·재난에도 아동 안전·건강 (r=.105***)	아동	87.3	85.5	79.8	67.192 ***	82.4	85.6	17.163 ***
	부모	67.5	67.2	70.3	8.197 *	67.8	68.9	1.158
아플 때 걱정없이 치료 (r=.113***)	아동	93.3	93.6	92.5	3.080	92.5	93.6	4.055 *
	부모	84.3	83.9	86.1	6.142 *	84.6	84.9	0.119
아동을 위한 좋은 교육환경 (r=.115***)	아동	94.2	92.3	87.6	86.134 ***	90.4	92.1	7.892 **
	부모	76.0	72.3	74.4	10.066 **	74.4	74.0	0.188
놀이와 여가 충분히 보장 (r=.099***)	아동	91.8	88.1	82.1	124.114 ***	86.3	88.0	5.434 *
	부모	55.6	49.9	52.6	19.187 ***	53.3	52.1	1.336
학대·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r=.125***)	아동	78.5	69.6	57.7	290.580 ***	63.6	72.8	83.867 ***
	부모	42.9	40.1	44.5	12.188 **	41.6	43.4	2.778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r=.129***)	아동	74.3	60.4	48.5	401.627 ***	56.7	64.6	56.723 ***
	부모	33.2	33.1	37.9	19.233 ***	34.4	35.2	0.582
가정형편, 성별 등에 의한 비차별 (r=.097***)	아동	81.3	71.4	62.5	249.372 ***	68.3	74.4	38.732 ***
	부모	43.9	41.7	48.7	31.270 ***	45.5	44.2	1.42

구분		학년			$\chi^2(p)$	성별		$\chi^2(p)$
		초4	초6	중2		여자	남자	
아동의견 존중 ($r=.095^{***}$)	아동	86.2	83.0	71.9	207.106 ***	79.6	80.8	1.948
	부모	48.5	46.0	52.2		23.022 ***	49.6	
아동 생각-의견 표현 기회 많음 ($r=.086^{***}$)	아동	85.2	78.6	69.6	204.912 ***	77.1	78.0	0.851
	부모	45.9	43.7	48.2		11.724 **	47.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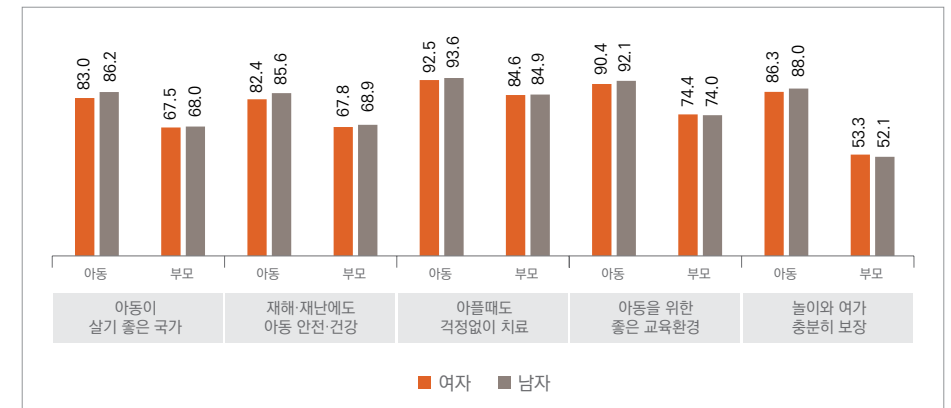


[그림 III-149]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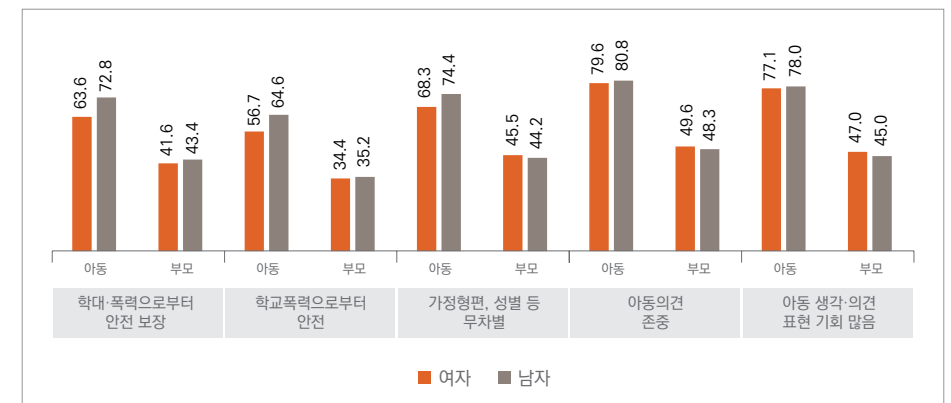
[그림 III-150] 학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단위, 점)



[그림 III-151]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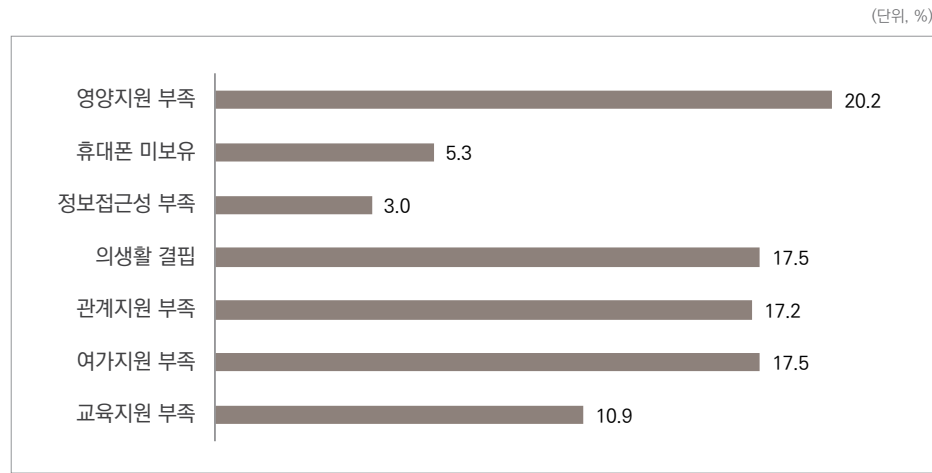


[그림 III-152]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평가 (아동, 부모)_2

2) 신규 문항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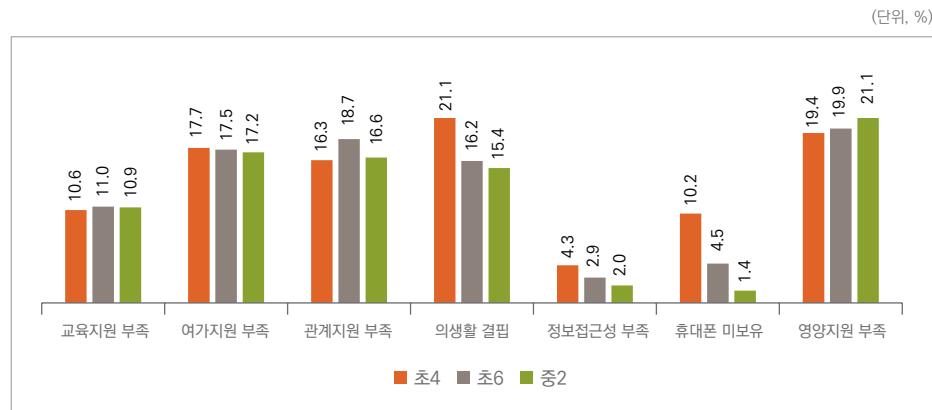
(1) 가정 인프라 실태

3차 아동권리지수에서는 가정 인프라 실태를 EU-MODA 지표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지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영양지원이었으며, 의생활/여가, 사회관계, 교육이 뒤를 이었다. 정보접근성은 인터넷 연결 여부와 컴퓨터 보유 여부로 확인하였는데, 정보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대부분의 아동은 정보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3] 가정 인프라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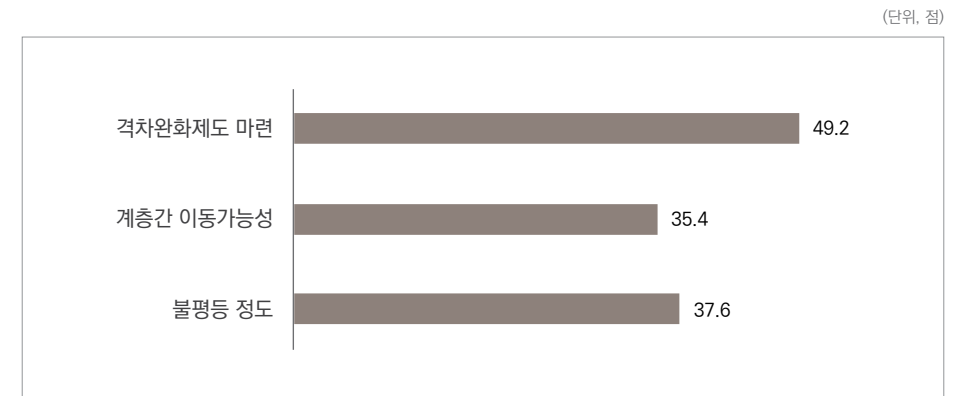
가정 인프라 실태를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년이 낮을수록 여가지원 부족, 의생활 결핍, 정보접근성 부족, 휴대폰 미보유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양 지원은 아동의 학년이 높을수록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4] 학년별 가정 인프라 실태

(2)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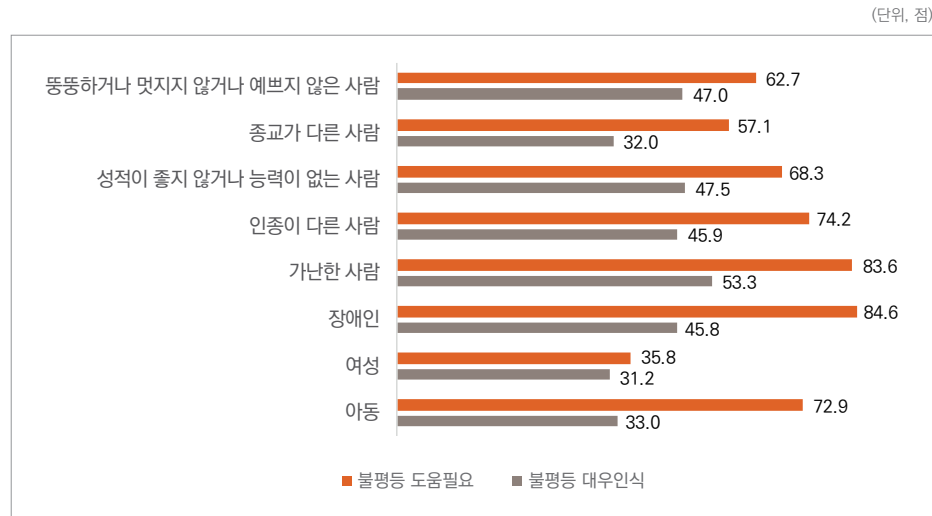
3차 아동권리지수에서는 아동이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를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본 문항은 중학교 2학년만 응답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아동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37.6점으로 나타났으며, 계층간 이동가능성은 35.4점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가 격차 완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의 격차완화제도 마련 정도는 49.2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55] 불평등 인식

대상별로 얼마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가난한 사람은 53.3점, 성적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47.5점, 똥똥하거나 멋지지 않거나 예쁘지 않는 사람이 47.0점, 인종이 다른 사람이 45.9점, 장애인이 45.8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과 종교가 다른 사람, 여성에 대한 불평등 대우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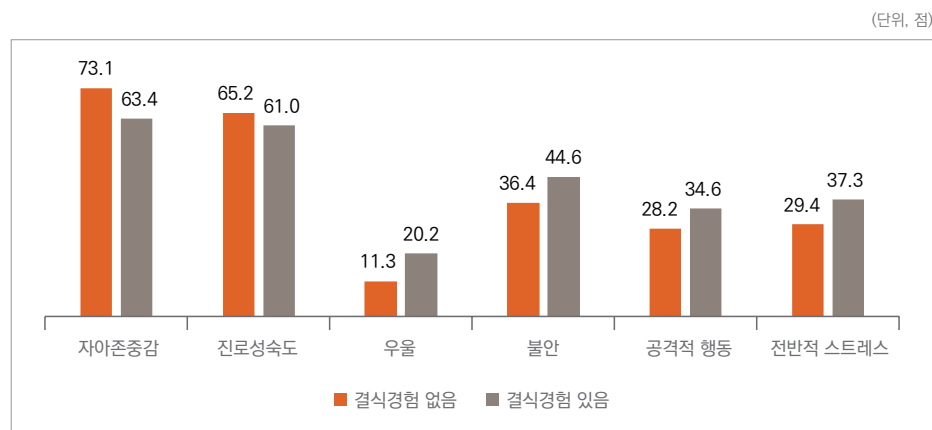
불평등에 대해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84.5점으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난한 사람 83.6점, 인종이 다른 사람 74.2점, 아동이 72.9점, 성적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68.3점으로 뒤를 이었다. 똥똥하거나 멋지지 않거나 예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평등 정도는 상위 3번째였으나, 국가나 사회적 차원의 도움 필요 정도는 상위 7번째로 나타나, 불평등한 대우에 비해 사회적인 도움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III-156] 불평등 대우 인식 및 도움필요 정도

(3) 결식과 발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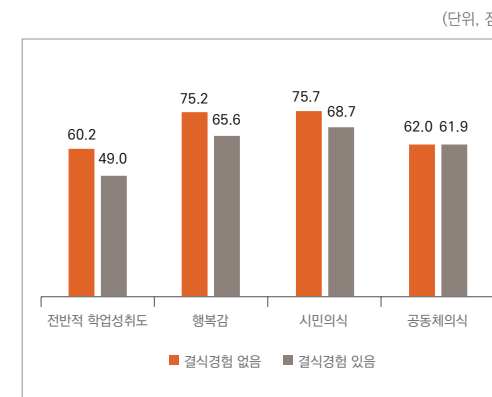
결식경험이 있는 아동은 결식을 경험하지 않는 아동에 비해, 사회정서 영역에서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식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성,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이 결식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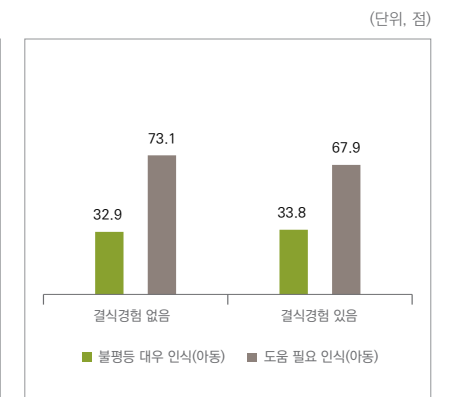
[그림 III-157] 결식경험과 발달결과 (사회정서)

결식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 행복, 가치관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식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반적인 학업성취, 행복감, 시민 의식 지표에서 결식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결식경험이 있는 아동과 결식을 경험하지 않는 아동 간에는 아동에 대한 대우가 불평등하다는 인식과 아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결식 경험이 없는 아동의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식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결식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다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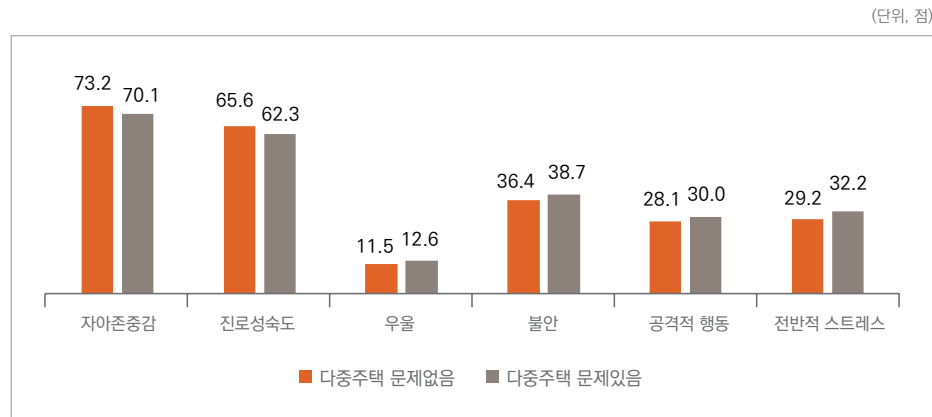
[그림 III-158] 결식경험과 발달결과 (인지, 행복, 가치관)



[그림 III-159] 결식경험과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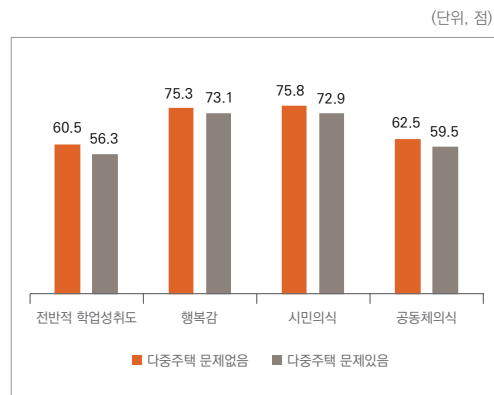
(4) 다중주택문제와 발달결과

다중주택 문제를 경험한 아동은 다중주택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정서 영역에서 부정적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주택 문제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우울, 불안, 공격적 행동, 그리고 전반적 스트레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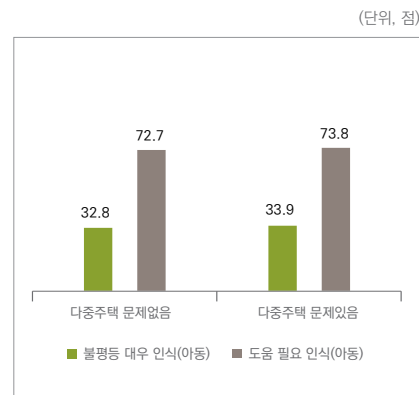


[그림 III-160] 다중주택문제와 발달결과 (사회정서)

다중주택문제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인지, 행복감, 가치관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 전반적 학업성취 정도, 행복감,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모두 다중주택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대우와 도움 필요에 대한 인식은 다중주택문제가 있는 아동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림 III-161] 다중주택문제와 발달결과 (인지, 행복, 가치관)



[그림 III-162] 다중주택문제와 불평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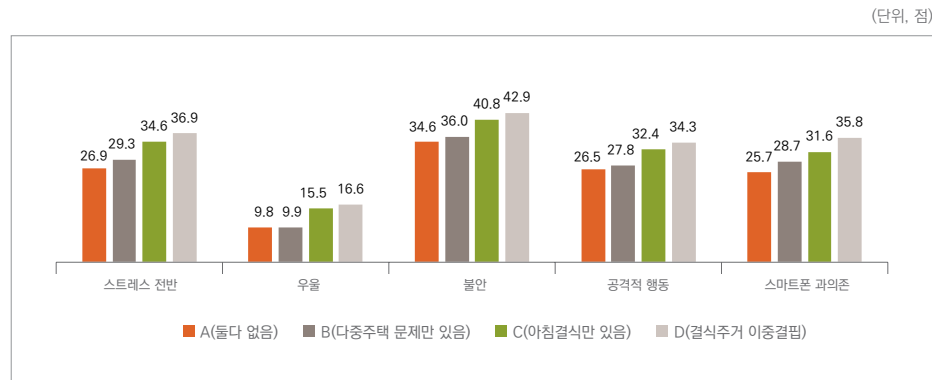
(5) 이중결핍(아침결식, 다중주택문제)과 발달결과

아침결식을 경험하거나 다중주택문제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였는데, 결식과 다중주택문제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의 경우에는 어떠한 발달결과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아침 결식 경험이나 다중주택문제가 없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59.2%였으며, 다중주택 문제만 가지고 있는 아동은 10.8%, 아침 결식을 경험한 아동은 24.4%, 그리고 아침 결식 경험과 다중주택문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아동 즉, 이중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표 III-13] 아동의 결식경험과 다중주택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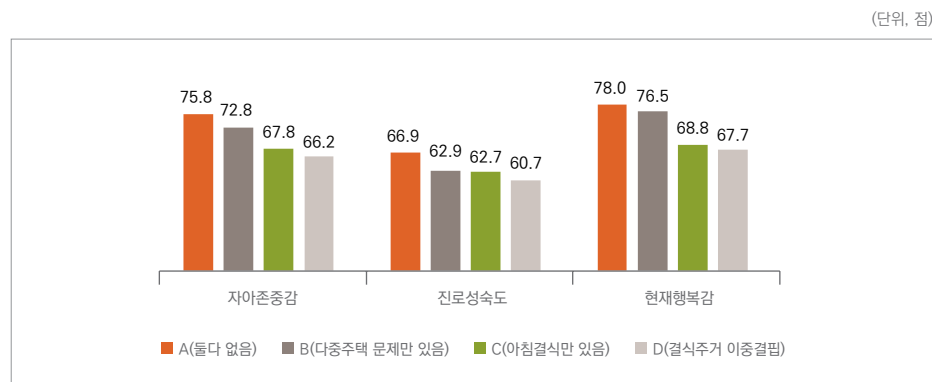
구분	다중주택문제	
	없음	있음
아침결식 경험	없음 A 4,545 (59.2%)	있음 B 833 (10.8%)
	있음 C 1,878 (24.4%)	없음 D 427 (5.6%)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공격적 행동, 스마트폰 과의존 지표 모두 결식과 주거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이중결핍 아동이 가장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결식과 다중주택문제 중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결식 경험이 있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발달 결과를 보였으며, 다중주택문제를 가진 아동은 결식 경험을 가진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림 III-163] 결식과 다중주택문제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그리고 현재의 행복감 지표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중결핍아동, 결식만 경험한 아동, 다중주택문제만 있는 아동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만, 진로성숙도의 경우 아침결식만 경험한 아동이나 다중주택문제만 있는 아동 간에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아존중감과 현재 행복감 지표에서는 두 집단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현재 행복감의 경우 다중주택문제를 가진 아동의 행복감은 어떠한 결핍도 경험하지 않는 집단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반면, 아침 결식만 경험한 아동 집단의 경우 이중결핍을 경험한 아동과 오히려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아동의 경우 물리적인 주거환경보다는 끼니를 거르는 문제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이나 행복감 전반에 더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64] 결식과 다중주택문제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사회정서, 행복)

3) 아동학대 경험과 발달결과 분석

아동의 학대피해 경험 유무에 따라 발달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63.3%에 해당하는 5,552명의 아동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으며, 36.7%에 해당하는 3,213명의 아동은 학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이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1.7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경험을 보고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결과를 살펴보면, 우울 정서, 불안 정서, 공격적 행동 수준 모두 비보고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공격적 행동 수준에 있어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과 비보고한 아동간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학대경험 보고 아동이 비보고 아동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 수준과 가해 수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어서, 아동의 비행경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경험을 보고한 아동과 비보고한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은 각 3.4%와 1.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폭력비행 경험은 각 6.6%와 1.9%, 사이버비행 경험도 각 8.0%와 3.3%로 차이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살생각 경험, 자살계획 유무, 자살시도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이 비보고한 아동에 비해 자살 관련 지표 또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살생각을 해본 아동 가운데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은 18.5%로 비보고 아동(7.3%)에 비해 약 2.5배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실제 자살을 계획했는지 또한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이 4.6%, 비보고 아동이 1.5%로 3배 이상 많았으며, 자살시도 경험도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이 2.5%로 비보고 아동(0.8%)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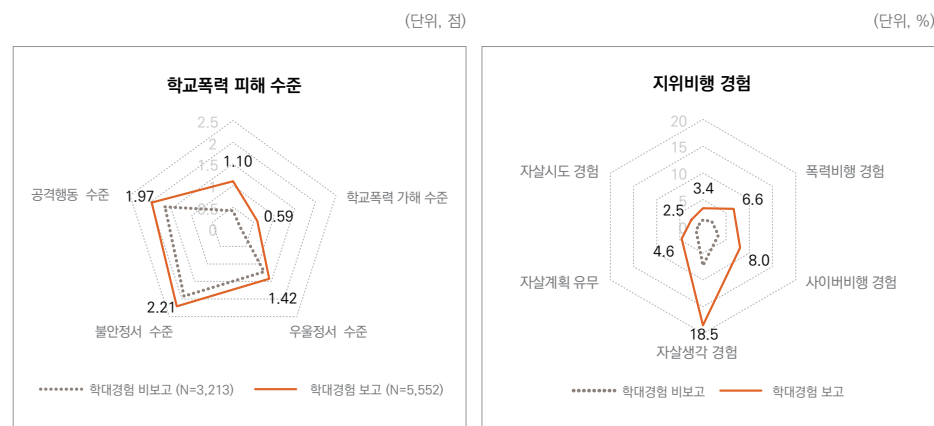
이와 같이 아동의 학대피해 경험은 단순히 학대피해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각종 비행, 그리고 자살생각 및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표 III-14]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구분	학대경험 보고 (N=5,552)	학대경험 비보고 (N=3,213)	t(p)
우울정서 수준	1.42	1.22	18.161***
불안정서 수준	2.21	1.92	16.944***
공격적 행동 수준	1.97	1.65	24.878***
학교폭력 피해 수준	1.10	0.42	25.260***
학교폭력 가해 수준	0.59	0.17	23.679***
구분	학대경험 보고	학대경험 비보고	$\chi^2(p)$
지위비행 경험	128 (3.4%)	25 (1.2%)	28.010***
폭력비행 경험	365 (6.6%)	60 (1.9%)	98.498***
사이버비행 경험	441 (8.0%)	105 (3.3%)	77.014***
자살생각 경험	686 (18.5%)	157 (7.3%)	137.915***
자살계획 유무	170 (4.6%)	33 (1.5%)	37.620***
자살시도 경험	92 (2.5%)	18 (0.8%)	19.838***

*p<.05, **p<.01, ***p<.001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를 아래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보고한 아동과 비보고한 아동 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실선은 학대경험을 보고한 아동이며, 점선은 비보고한 아동인데, 두 그래프 모두 실선으로 된 도형이 점선으로 된 도형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 형태로 아동학대 경험 유무에 따른 부정적 발달 격차가 모든 지표상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165] 아동학대 경험 보고 유무에 따른 발달결과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IV.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의 변화 추이

1. 조사대상자 특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권리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시점별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역별 응답자 비율은 2018년 대비 서울과 경기 지역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그 차이가 1%p 이내의 변화폭을 보였다. 응답자 대부분은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역에 따라 84.1%부터 96.3%(2021년 기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가구 비율은 59.7%에서 92.6%(2021년 기준)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와 주양육자 학력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조사 연도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표 IV-1] 조사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응답자 비율			가족형태 (양부모가구 기준)			주양육자(어머니)학력 (전문대졸이상 기준)		
	2016	2018	2021	2016	2018	2021	2016	2018	2021
서울	15.9	16.3	15.5	92.3	91.0	93.0	73.2	72.8	81.3
부산	5.6	5.8	5.6	89.4	89.0	90.8	59.1	71.8	75.8
대구	4.9	4.9	4.6	93.6	91.4	96.3	70.0	72.4	90.3
인천	5.8	5.7	5.8	91.6	89.2	87.6	51.7	67.3	62.4
광주	3.9	3.4	3.3	90.7	93.6	89.3	73.8	74.0	79.7
대전	3.5	3.2	3.0	90.7	94.4	92.3	69.8	77.1	69.6
울산	2.4	2.4	2.4	90.8	93.3	95.7	49.2	68.5	79.5
세종	-	0.7	1.0	-	96.0	92.4	-	84.1	92.6
경기	25.5	27.1	28.0	90.9	92.2	91.7	55.4	66.0	65.8
강원	3.3	2.7	2.8	91.3	88.4	86.9	64.2	70.6	64.9
충북	3.4	3.1	3.2	86.9	93.3	86.5	53.6	67.8	59.7
충남	4.6	4.3	4.4	91.0	89.3	94.4	52.5	54.8	63.7
전북	4.0	3.8	3.6	87.4	92.4	89.0	57.7	61.3	74.5
전남	3.6	3.4	3.5	91.9	92.3	90.9	51.7	57.9	73.6
경북	4.7	4.8	4.7	87.8	90.3	88.2	56.5	69.7	68.9
경남	6.9	6.9	7.0	87.9	90.0	90.5	58.9	63.6	75.5
제주	2.0	1.5	1.5	93.6	83.5	84.1	60.0	70.2	77.5

2. 아동권리지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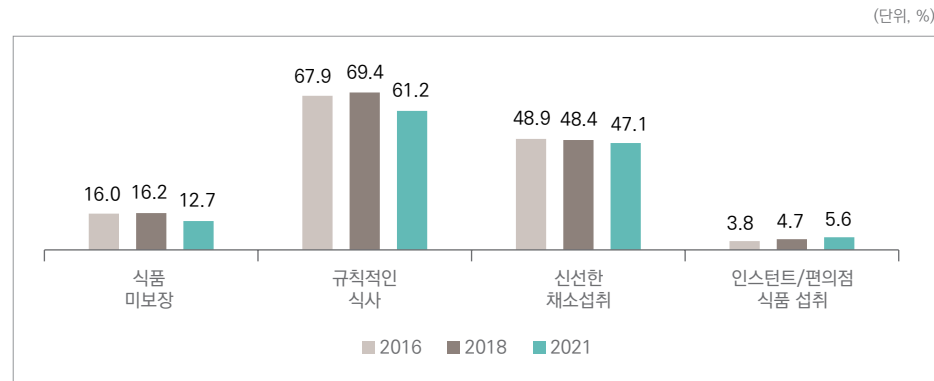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이 경험하는 4대 권리영역을 종합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아동권리지수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4대 권리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4대 권리영역 각각은 아동의 권리경험에 기반하고 있는데, 아동의 권리경험과 관련된 지표 가운데 4대 권리영역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선정한 후 해당 지표를 종합하여 4대 권리영역 각각의 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후 다시 이를 종합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아동권리지수에 앞서 먼저 핵심 지표들 각각의 변화 추이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생존권

(1) 영양

생존권 지수를 구성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는 아동의 영양으로,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식품 미보장’과 ‘규칙적인 식사’ 지표는 2018년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채소섭취’는 적은 폭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지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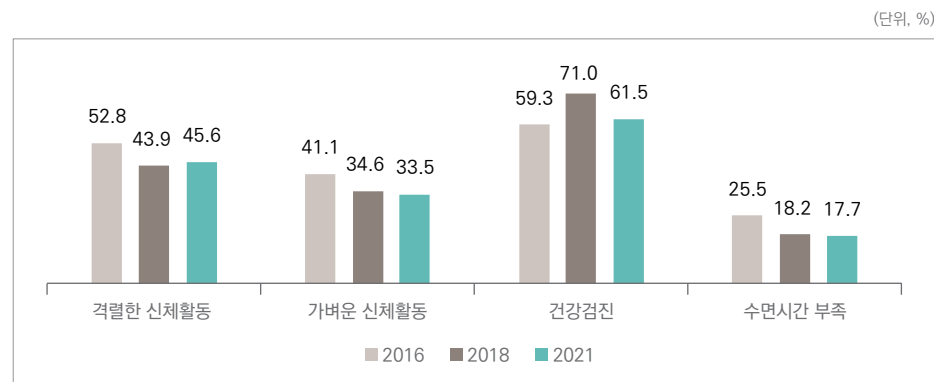
‘식품 미보장’ 지표는 2018년 16.2점에서 2021년 12.7점으로 약 21.6%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 섭취’가 2016년 3.8%, 2018년 4.7%, 2021년 5.6%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2016년 대비 47.4%, 그리고 2018년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규칙적인 식사’는 2016년 67.9%에서 2018년 69.4%로 1.5%p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61.2%로 2018년 대비 8.2%p(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생존권_영양 부문 지표

(2) 건강활동

생존권 지수를 구성하는 건강활동 영역의 하위 지표를 살펴보면, '격렬한 신체활동' 지표는 2018년에 감소하다가 2021년에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벼운 신체활동' 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강검진' 지표는 2016년 59.3%에서 2018년 71.0%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61.5%로 2008년 대비 1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부족' 지표는 2018년 18.2%에서 2021년 17.7%로 0.5%p 감소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2016년 대비해서는 7.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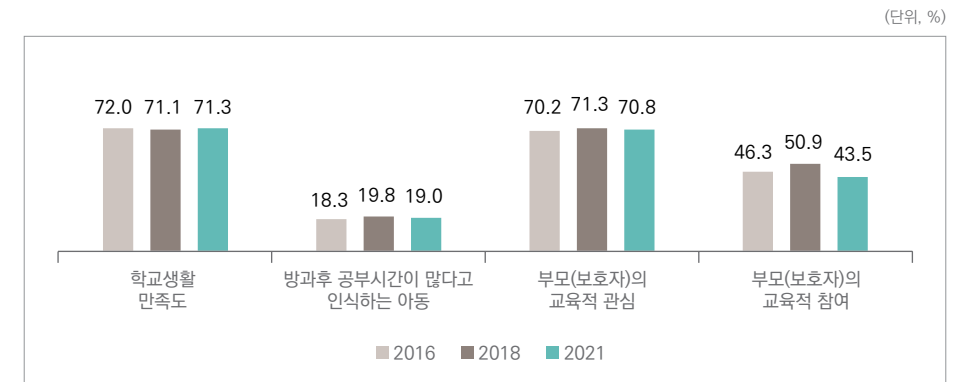


[그림 IV-2] 생존권_건강활동 부문 지표

2) 발달권

(1) 교육

발달권 지수는 교육, 놀이 및 여가, 관계 영역을 포함한다. 먼저, 교육 관련 하위 지표를 살펴보면, '학교생활만족도',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지표는 연도에 따른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지표는 2018년 대비 7.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 지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그림 IV-3] 발달권_교육 부문 지표

(2) 놀이 및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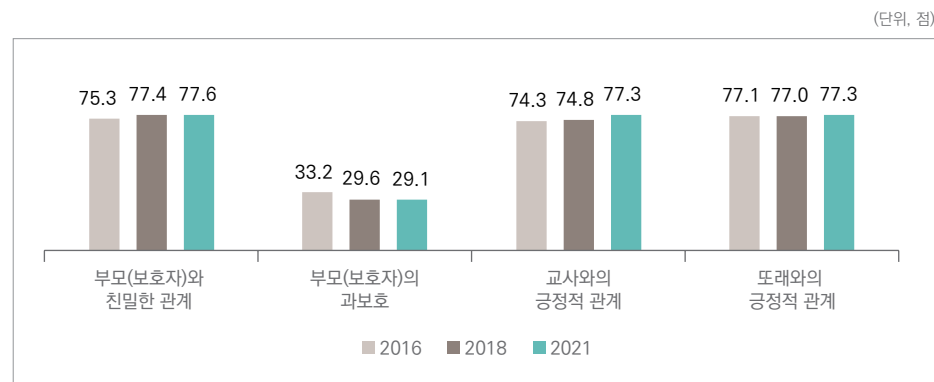
발달권 지수의 놀이 및 여가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놀이 및 휴식시간 부족' 지표는 2016년 19.0%, 2018년 11.2%, 2021년 7.8%로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1년을 기준으로 감소폭을 살펴보면, 2016년 대비 58.9%, 2018년 대비 3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가족 간의 여가활동 영위정도' 지표는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2018년 53.4%에서 2021년 47.1%로 6.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발달권_여가 부문 지표

(3) 관계

발달권 지수의 관계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그 변화의 폭은 매우 미미하였다. '부모(보호자)와 친밀한 관계' 지표는 2016년 75.3점, 2018년 77.4점, 2021년 77.6점으로 적은 폭이지만 증가 추세였고, 2021년 기준 '교사,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와 비교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지표는 2016년 33.2점, 2018년 29.6점, 2021년 29.1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2016년 74.3점, 2018년 74.8점, 2021년 77.3점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는 2016년 77.1점, 2018년 77.0점, 2021년 77.3점으로 연도별 차이가 가장 미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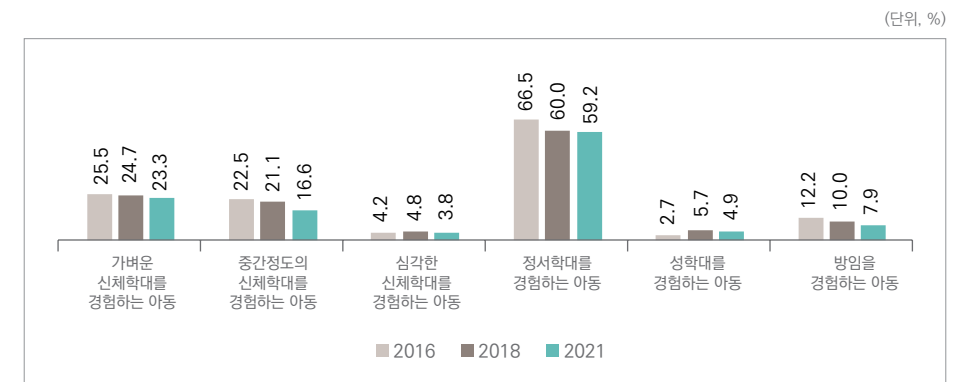


[그림 IV-5] 발달권_관계 부문 지표

3) 보호권

(1) 학대 및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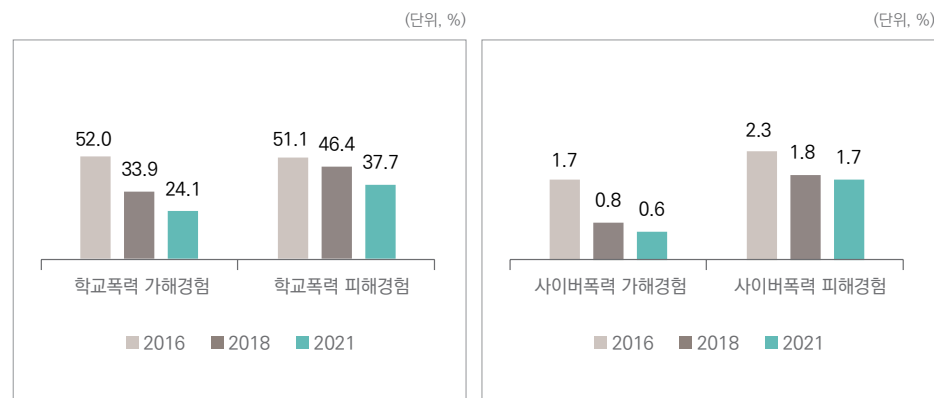
보호권 지수의 학대 및 체벌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방임을 2016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의 학대 경험율이 가장 높은 지표는 정서학대였는데, 2016년 66.5%, 2018년 60.0%, 2021년 59.2%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나, 2018년 대비 2021년에 0.8%p 감소하는데 그쳐 감소폭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2016년 25.5%, 2018년 24.7%, 2021년 23.3%로 감소하였는데, 2016년 대비 8.63%, 2018년 대비 5.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2016년 22.5%, 2018년 21.1%, 2021년 16.6%로 2016년 대비 26.2%, 2018년 대비 2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2016년 4.2%, 2018년 4.8%, 2021년 3.8%로 방향성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2018년 대비 2021년 20.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간정도의 신체학대와 심각한 신체학대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감소폭을 보였다.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2016년 12.2%, 2018년 10.0%, 2021년 7.9%로 감소 추세이며, 2018년 대비 2021년에 21.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표는 2018년 대비 14.0% (5.7%→4.9%) 감소하였고, 2016년 대비해서는 81.5% (2.7% → 4.9%) 증가한 수준으로 지표 가운데, 2016년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보호권_학대 부문 지표

(2) 폭력

보호권 지수의 폭력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2016년: 51.1% → 2018년: 46.4% → 2021년: 37.7%) 및 '학교폭력 가해 경험'(2016년: 52.1% → 2018년: 33.9% → 2021년: 24.1%)을 보고한 아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였다. '사이버폭력 경험' 정도에서도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2016년: 2.3% → 2018년: 1.8% → 2021년: 1.7%) 및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2016년: 1.7% → 2018년: 0.8% → 2021년: 0.6%)을 보고한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감소폭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비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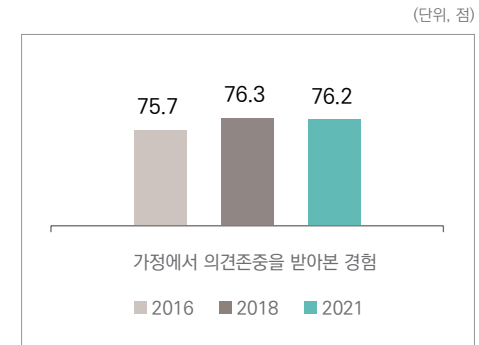
[그림 IV-7] 보호권_학교폭력 부문 지표

[그림 IV-8] 보호권_사이버폭력 부문 지표

4) 참여권

(1) 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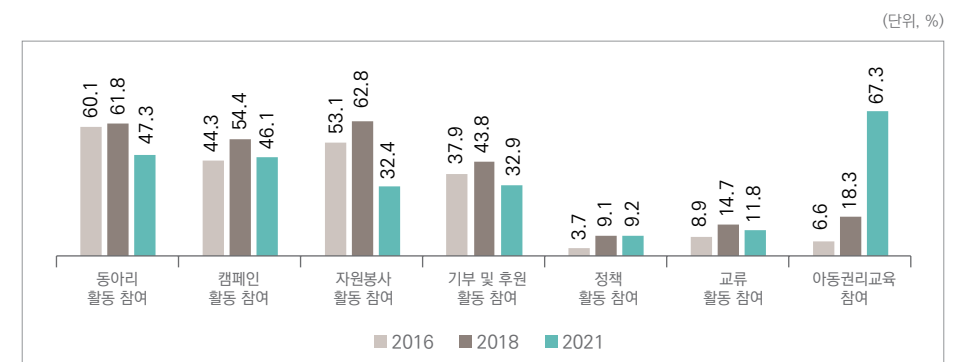
참여권 지수의 존중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가정에서 의견 존중을 받아본 경험' 지표는 2016년 75.7점, 2018년 76.3점으로 약 0.6점 상승하였으나, 2021년 76.2점으로 0.1점 하락하였다.



[그림 IV-9] 참여권_존중 부문 지표

(2) 참여활동

참여권 지수의 참여활동 부문 지표를 살펴보면, 크게 활동참여와 교육참여로 구분된다. 먼저 활동참여 부문에서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모든 활동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정책 활동 참여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팬데믹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018년 대비 2021년 활동참여율이 가장 크게 변화한 지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표로 나타났는데, 2018년 62.8%에서 2021년 32.4%로 48.4%의 감소폭을 보였다. '정책 활동 참여' 지표는 활동 참여 지표 가운데 2018년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3.7%, 2018년 9.1%, 2021년 9.2%로 나타났다. 이외에 '아동권리교육 참여' 지표는 가장 극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6.6%였던 참여율이 2018년 18.3%로 3배 정도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67.3%로 2016년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참여권_참여활동 부문 지표

3.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1)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아동권리실태조사는 2016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그리고 2021년까지 총 3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아동권리지수의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다. 4대 권리영역에 해당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영역별 지수와 4대 권리영역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아동권리지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는 절대지수가 적합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절대지수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지수는 여러 지표를 모아 하나의 지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척도의 수준이나 범위가 상이한 지표들을 하나의 동일한 척도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지표의 특성에 따라 이분형 척도부터, 4점이나 5점 수준의 리커트 척도, 그리고 10점 척도까지 다양한 범위의 척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지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지표를 모두 100점 또는 100%를 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그래프를 통해 아동권리지수 전체를 살펴보면 1차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차와 3차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일정 부분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차에 비해 2차 아동권리지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차 대비 3차 아동권리지수는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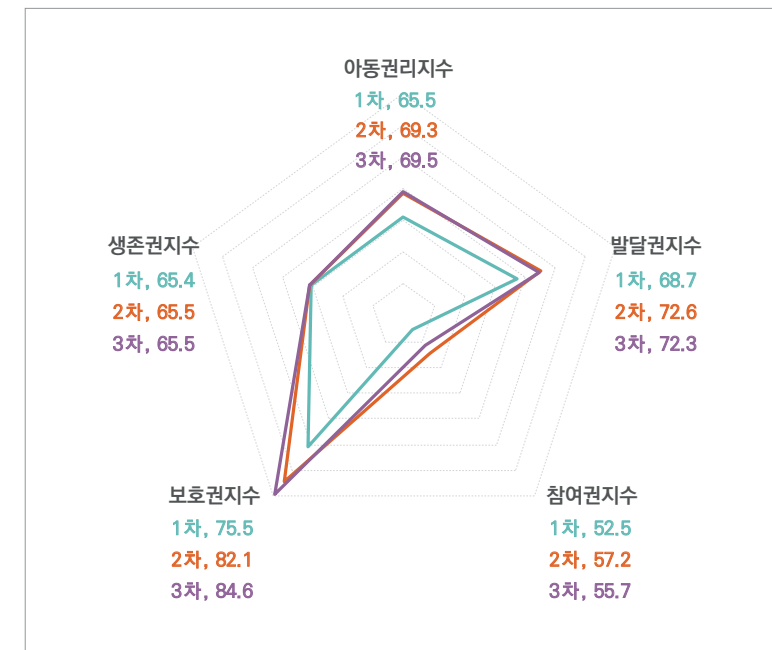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는 1차 65.5점, 2차 69.3점, 3차 69.5점으로 1차 대비 2차 시점에는 3.8점 증가하였으나, 2차 대비 3차 시점에는 0.2점 증가하는데 그쳤다. 2차와 3차 시기 사이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아동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제약이 따랐으며, 이로 인해 아동권리지수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2차와 같이 큰 폭의 증가는 아니지만 아동권리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2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권리영역 가운데 보호권의 꼭지점은 그래프의 가장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수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보호권은 1차 시점에는 75.5점, 2차 시점에는 82.1점, 3차 시점에는 84.6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대비 3차 지수는 2.5점 증가하여 4대 권리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발달권 또한 다른 영역에 비해 꼭지점이 높이 솟아 있으며,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1차 시점에 68.7점, 2차 시점에 72.6점으로 증가하다가 3차 시점에는 72.3점으로 전차 대비 0.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은 1차, 2차, 3차 시점의 꼭지점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점별 지수가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권의 경우 4대 권리 영역 가운데 도형의 중심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지수가 가장 낮음을 의미한다. 1차 시점에 52.5점, 2차 시점에 57.2점으로 상승하였으나, 3차 시점에는 55.7점으로 1.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지수명	1차(2016)	2차(2018)	3차(2021)	1차 대비증감	2차 대비증감
아동권리지수	65.5	69.3	69.5	3.8	0.2
생존권지수	65.4	65.5	65.5	0.1	0.0
발달권지수	68.7	72.6	72.3	3.9	-0.3
보호권지수	75.5	82.1	84.6	6.6	2.5
참여권지수	52.5	57.2	55.7	4.7	-1.5



[그림 IV-11] 아동권리지수(절대지수) 변화

2)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2018년 대비 2021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를 17개 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에 제시된 지수는 절대지수이며, 절대지수는 중단 비교에 적합한 지수로서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지수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지수의 두 시점간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보장 수준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아동권리지수와 4대 권리지수를 동시에 그리고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그래프를 제시하였는데 실선은 2021년, 점선은 2018년의 아동권리지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각 권리영역에서 짙은 실선이 점선보다 외부로 크게 그려진다면, 2018년에 비해 2021년의 권리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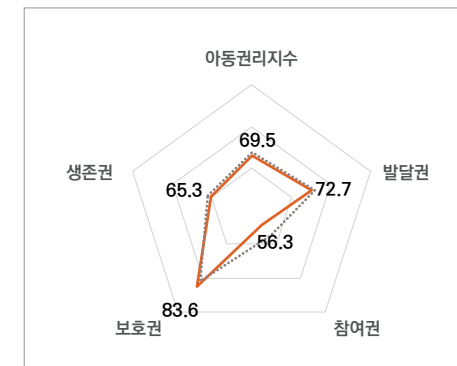
[표 IV-3] 17개 시·도별 아동권리지수 (2018, 2021)

지역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	2021	증감	2018	2021	증감	2018	2021	증감	2018	2021	증감	2018	2021	증감
서울	70.7	69.5	-1.2	66.5	65.3	-1.2	73.8	72.7	-1.1	81.2	83.6	2.4	61.3	56.3	-5.0
부산	70.6	71.4	0.8	66.6	67.4	0.8	74.8	74.7	-0.1	82.2	86.6	4.4	58.7	56.8	-1.9
대구	70.7	70.5	-0.2	66.2	68.1	1.9	73.8	73.1	-0.7	85.1	84.9	-0.2	57.9	55.8	-2.1
인천	69.5	69.4	-0.1	64.7	64.2	-0.5	73.6	72.0	-1.6	83.4	85.6	2.2	56.4	55.6	-0.8
광주	69.3	68.0	-1.3	65.9	65.1	-0.8	72.6	71.3	-1.3	80.5	80.7	0.2	58.3	55.0	-3.3
대전	71.5	69.0	-2.5	66.6	64.4	-2.2	75.0	71.6	-3.4	82.6	86.3	3.7	61.7	53.9	-7.8
울산	71.0	69.7	-1.3	66.6	65.8	-0.8	75.1	72.8	-2.3	83.3	84.7	1.4	58.8	55.5	-3.3
세종	67.8	71.3	3.5	65.0	66.9	1.9	71.8	74.2	2.4	81.2	84.3	3.1	53.3	59.8	6.5
경기	68.8	69.4	0.6	64.9	64.7	-0.2	72.0	72.1	0.1	81.8	85.3	3.5	56.3	55.5	-0.8
강원	68.8	69.5	0.7	65.4	63.8	-1.6	72.2	71.6	-0.6	83.2	85.3	2.1	54.3	57.1	2.8
충북	69.2	67.7	-1.5	67.1	65.1	-2.0	71.9	70.6	-1.3	83.7	84.3	0.6	54.0	50.7	-3.3
충남	68.6	69.5	0.9	64.1	65.7	1.6	72.5	71.3	-1.2	81.5	84.8	3.3	56.4	56.3	-0.1
전북	67.5	68.9	1.4	62.6	64.7	2.1	70.1	71.3	1.2	81.5	81.3	-0.2	55.8	58.2	2.4
전남	66.3	69.6	3.3	61.4	65.8	4.4	67.9	71.8	3.9	83.1	84.6	1.5	53.0	56.2	3.2
경북	67.6	68.5	0.9	66.2	65.5	-0.7	70.7	71.5	0.8	82.7	83.9	1.2	51.1	53.0	1.9
경남	68.8	70.5	1.7	66.4	67.5	1.1	71.9	73.1	1.2	80.3	84.6	4.3	56.7	56.7	0.0
제주	71.7	69.3	-2.4	69.3	66.5	-2.8	76.1	71.0	-5.1	83.7	82.8	-0.9	57.6	56.7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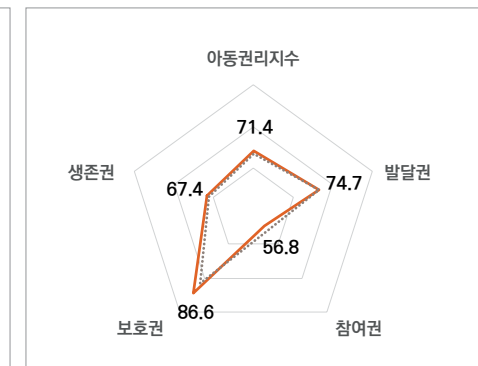
- 일부 지수 산출 기준을 변경(아동학대 기준을 포괄적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등의 사유로 2018년 수치 중 일부가 수정된 값으로 제시됨.

서울시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70.7점) 대비 2021년(69.5점)에 1.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권 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선이 점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유일하게 보호권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참여권의 경우 실선과 점선 간의 차이가 유난히 큰 것도 확인 가능하다. 보호권 지수의 경우 2018년에 비해 2.4점 상승하였지만, 참여권 지수는 2018년에 비해 5.0점 하락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생존권 지수와 발달권 지수는 2018년 대비 각각 1.2점, 1.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70.6점) 대비 2021년(71.4점)에 소폭 상승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권의 경우 실선이 점선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권이 2018년 대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보호권 지수의 경우 2018년 대비 4.4점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은 2018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0.8점), 보호권과 생존권 지수를 제외한 지수는 모두 하락하였다. 참여권 지수는 1.9점, 생존권 지수는 0.8점, 발달권 지수는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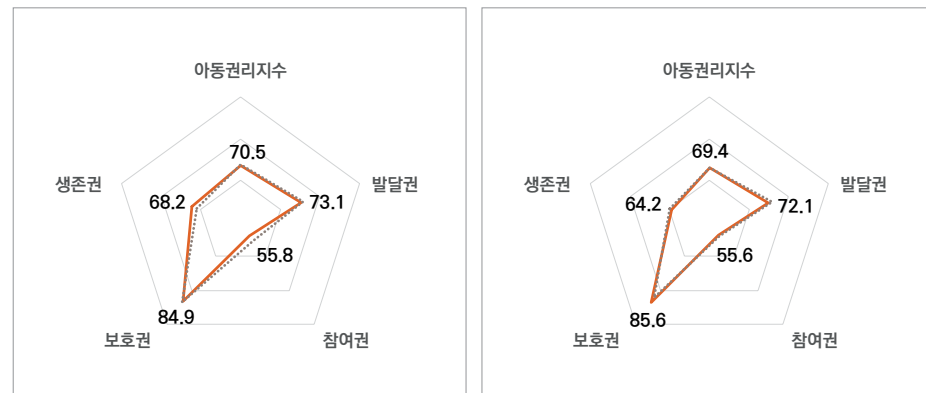
[그림 IV-12] 서울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그림 IV-13] 부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대구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70.7점) 대비 2021년(70.5점)에 소폭 하락하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생존권의 경우 실선이 점선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 2018년 대비 점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생존권은 2018년 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지수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참여권 지수는 2.1점, 발달권 지수는 0.7점, 보호권 지수는 0.2점 하락하였다.

인천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69.5)에 비해 2021년(69.4점)에 0.1점 하락하여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4대 권리영역 가운데 보호권이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이 2018년 대비 2.2점 상승한 반면, 발달권 지수는 1.6점, 참여권 지수는 0.8점, 생존권 지수는 0.5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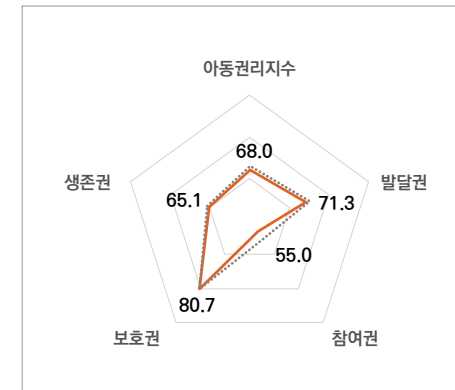


[그림 IV-14] 대구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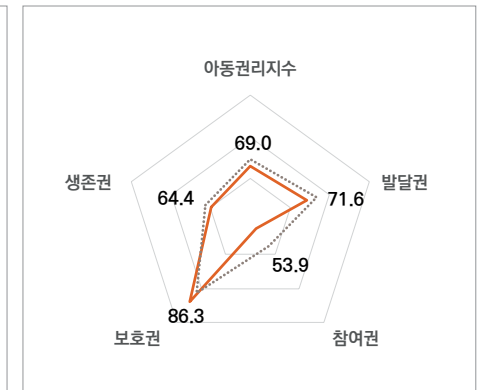
[그림 IV-15] 인천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광주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69.3점) 대비 2021년(68.0점)에 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권을 제외하고는 실선이 점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권은 실선과 점선 간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호권 지수는 2018년 대비 0.2점 상승하였으며, 참여권은 3.3점, 발달권은 1.3점, 생존권은 0.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71.5점) 대비 2021년(69.0점)에 2.5점 하락하여,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수가 실선이 점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권은 실선과 점선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참여권 지수의 경우 2018년에 비해 7.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하락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 지수와 생존권 지수도 각각 3.4점 2.2점 하락하였다. 반면, 보호권 지수는 2018년에 비해 3.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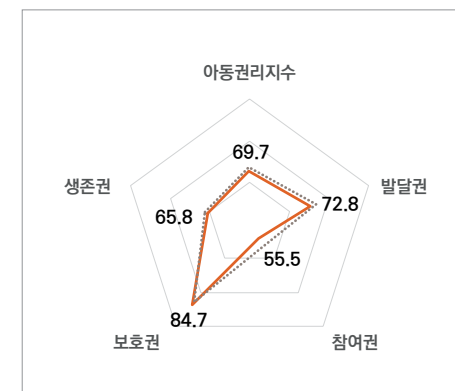
[그림 IV-16] 광주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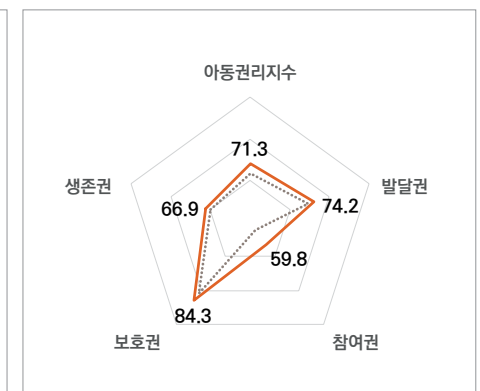
[그림 IV-17] 대전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울산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71.0점) 대비 2021년(69.7점)에 1.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 지수가 유일하게 1.4점 상승한 반면, 참여권 지수는 3.3점, 발달권 지수는 2.3점, 그리고 생존권 지수는 0.8점 하락하였다.

세종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67.8점)에 비해 2021년(71.3점)에 3.5점 상승하여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동권리지수를 포함하여 4대 권리영역 모두 실선이 점선 바깥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아동권리지수를 포함하여 4대 권리영역 모두 2018년 대비 상승하였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참여권으로 2018년 대비 6.5점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보호권은 3.1점, 발달권은 2.4점, 생존권은 1.9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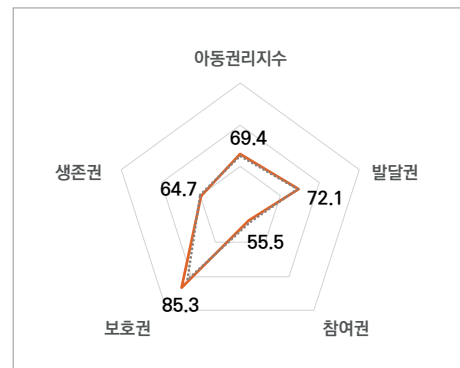
[그림 IV-18] 울산광역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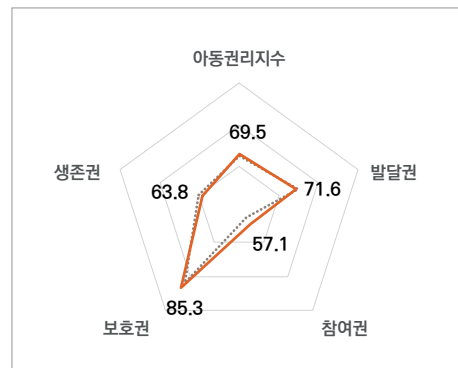
[그림 IV-19] 세종시 아동권리지수 변화

경기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68.8점)에 비해 2021년(69.4점)에 0.6점 상승하였다. 보호권 지수의 경우 2018년에 비해 3.5점 상승하였고, 발달권 지수는 0.1점 상승하였다. 반면 참여권 지수는 0.8점, 생존권 지수는 0.2점 하락하였다.

강원 지역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소폭 상승하였다(68.8점→69.5점). 참여권 지수는 2.8점, 보호권 지수는 2.1점 상승한 반면, 생존권 지수는 1.6점, 발달권 지수는 0.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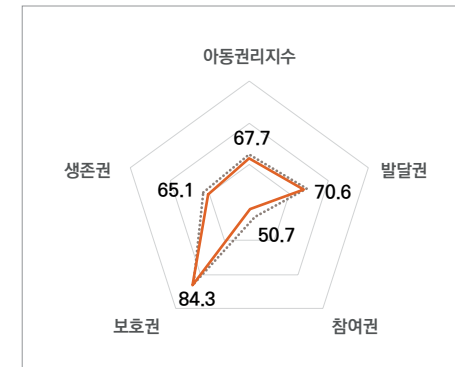
[그림 IV-20] 경기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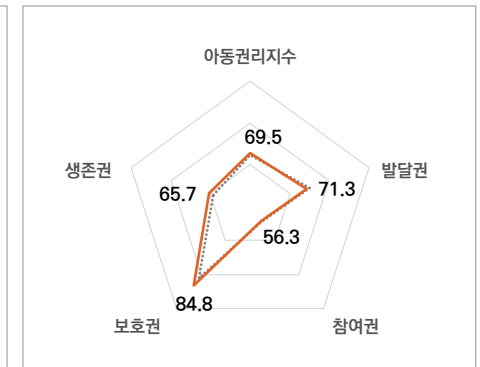
[그림 IV-21] 강원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충청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 대비 1.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69.2점→67.7점). 보호권이 0.6점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참여권 지수는 3.3점, 생존권 지수는 2.0점, 발달권 지수는 1.3점 하락하였다.

충청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는데(68.6점→69.5점), 보호권이 2018년 대비 3.3점 상승하였고, 생존권은 1.6점 상승하였다. 반면, 발달권 지수는 1.2점, 참여권 지수는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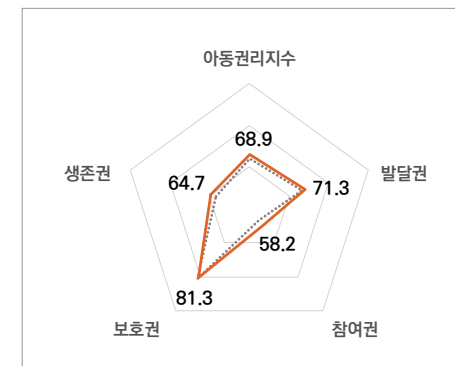
[그림 IV-22] 충청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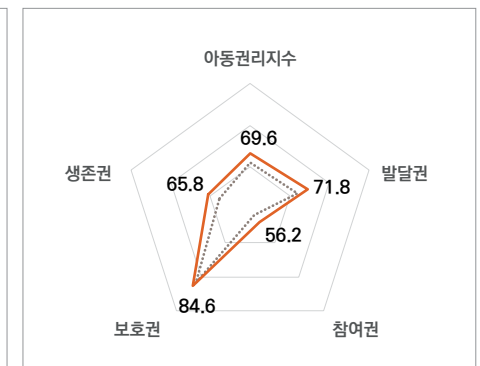
[그림 IV-23] 충청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 대비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7.5점→68.9점). 그래프를 살펴보면, 보호권을 제외한 다른 지수들은 모두 점선이 실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2018년 대비 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권은 2018년 대비 2.4점, 생존권 지수는 2.1점, 발달권 지수는 1.2점 상승하였다. 특히 생존권 지수의 경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상승폭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권 지수는 유일하게 0.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3.3점 상승하였으며(66.3점→69.6점), 이는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상승폭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선 도형이 점선 도형을 감싸고 있어, 모든 지수가 2018년 대비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존권 지수는 4.4점, 발달권 지수는 3.9점 상승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참여권 지수는 3.2점, 보호권 지수도 1.5점 상승하였다.



[그림 IV-24] 전라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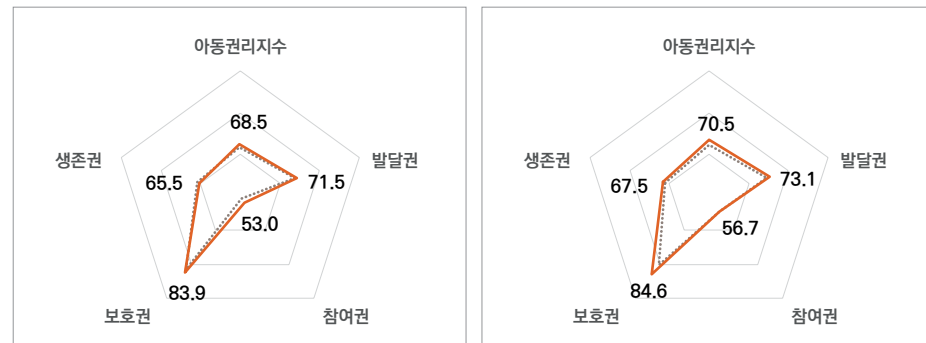


[그림 IV-25] 전라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경상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소폭 상승하였다(67.6점→68.5점). 참여권 지수는 2018년에 비해 1.9점, 보호권 지수는 1.2점, 발달권 지수는 0.8점 상승한 반면, 생존권 지수는 0.7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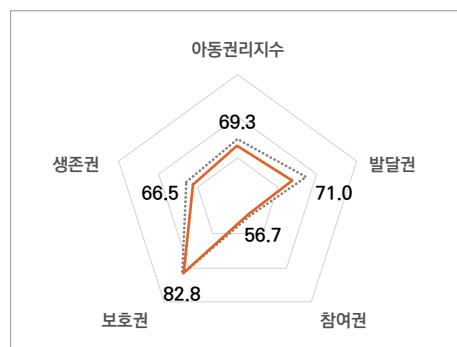
경상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1.7점 상승하였다(68.8점→70.5점). 참여권이 유일하게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은 모두 2018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권은 2018년 대비 4.3점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상승폭은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이었다. 이 외에 발달권 지수는 1.2점, 생존권 지수는 1.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에 2.4점 하락하였다(71.7점→69.3점). 제주 지역의 경우 4대 권리영역 모두 2018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발달권과 생존권, 보호권의 하락폭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발달권은 5.1점, 생존권은 2.8점, 보호권 0.9점, 참여권 0.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경상북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그림 IV-27] 경상남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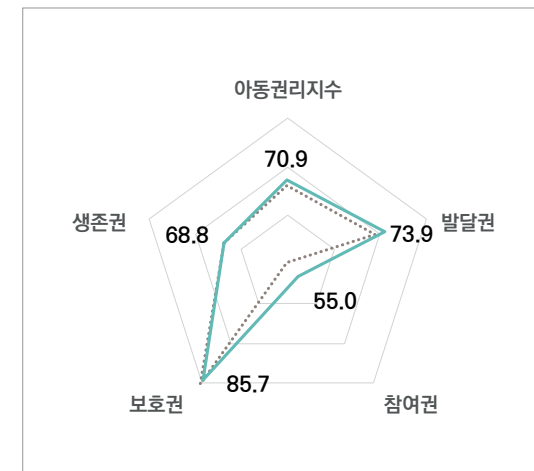


[그림 IV-28] 제주도 아동권리지수 변화

3)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에 이어 학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학년별 변화 추이는 동일한 학년에 대해 2018년과 2021년, 두 시점의 지수를 비교하였다. 그래프 상에 짙은 실선은 2021년의 절대지수를 의미하며, 점선은 2018년의 절대지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권리영역에서 짙은 실선이 점선보다 외부로 그려진다면 2018년에 비해 2021년의 권리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 대비 2021년의 아동권리지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2.0점→70.9점). 보호권이 유일하게 1.1점 증가하였으며, 생존권은 차이가 없었다. 참여권과 발달권은 2018년 대비 각각 3.5점, 2.2점 하락하였다. 즉, 2018년에 초등 4학년이었던 아동에 비해 2021년에 초등 4학년인 아동의 보호권은 다소 상승하고, 참여권과 발달권 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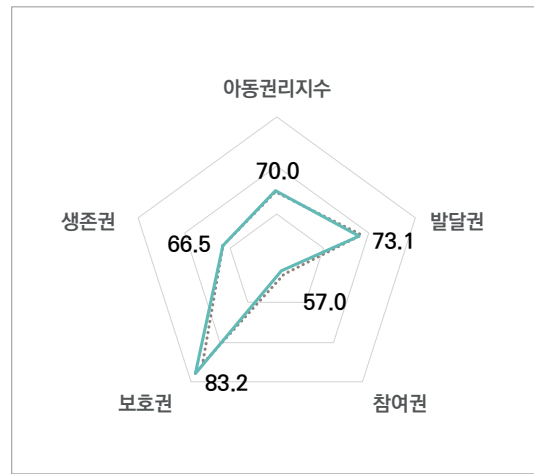


[그림 IV-29]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표 IV-4] 초등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	72.0	68.8	76.1	84.6	58.5
2021	70.9	68.8	73.9	85.7	55.0
증감	-1.1	0.0	-2.2	1.1	-3.5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69.7점 →70.0점). 2018년에 초등 6학년이었던 아동에 비해 2021년에 초등 6학년인 아동의 보호권은 2.4점 상승하여,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참여권과 발달권, 생존권은 모두 감소하였는데, 각각 0.9점, 0.3점, 0.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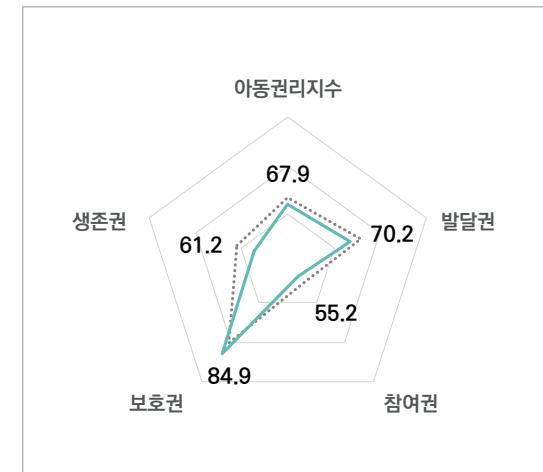
[그림 IV-30]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표 IV-5]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	69.7	66.6	73.4	80.8	57.9
2021	70.0	66.5	73.1	83.2	57.0
증감	0.3	-0.1	-0.3	2.4	-0.9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에 비해 1.6점 상승하였다(66.3점→67.9점). 아동권리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동일 학년에 대해 두 시점을 비교한 결과는, 2018년에 중등 2학년이었던 아동에 비해 2021년에 중등 2학년인 아동의 권리수준은 4대 권리영역 모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전반이 가장 낮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 4학

년의 경우 2021년의 초등 4학년생이 2018년의 초등 4학년에 비해 권리 수준이 낮아진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4대 권리영역 가운데 보호권이 4.1점 증가하였으며, 발달권 1.9점, 생존권 0.2점, 참여권이 0.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표 IV-6]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	66.3	61.0	68.3	80.8	55.1
2021	67.9	61.2	70.2	84.9	55.2
증감	1.6	0.2	1.9	4.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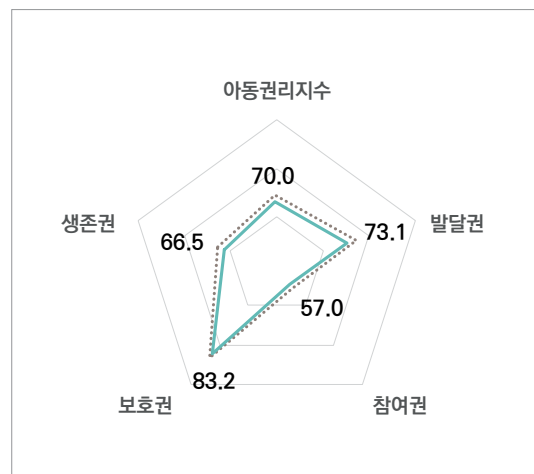
4) 시계열적 대상에 따른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1) 초등 4학년(2018년) → 초등 6학년(2021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동일한 학년에 대해 두 시점을 비교한데 이어, 시계열적 대상을 비교하였다. 당초 아동권리실태조사는 2년을 주기로 설계되었고, 2년 차이가 나는 3개 학년(초4-초6-중2)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팬데믹 상

황에서 등교가 중지되고 원격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초 2020년에 예정되었던 3차 설문 조사는 1년 뒤인 2021년에 조사 완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 시계열적 대상 비교는 학년은 2개 학년 차이지만 시간적 간격은 3년인 두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2021년 현재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2018년 당시 초등 4학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72.0점→70.0점). 아동권리지수뿐만 아니라, 4대 권리영역 모두 감소하였는데, 아동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 권리 수준 전반이 낮아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한 영역은 발달권이었으며 3.0점 감소하였다. 이어서 생존권이 2.3점, 참여권 1.5점, 보호권 1.4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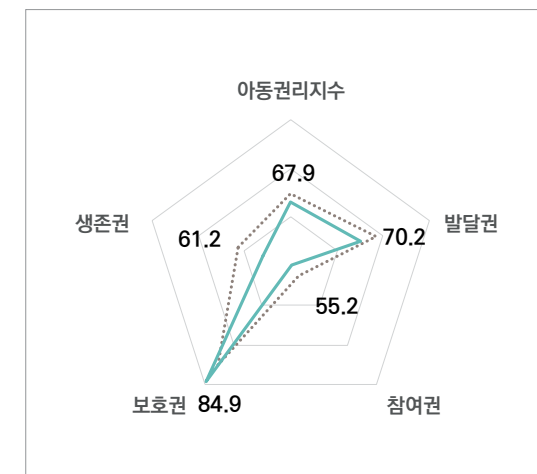
[그림 IV-32]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표 IV-7]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초6 기준)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초4)	72.0	68.8	76.1	84.6	58.5
2021(초6)	70.0	66.5	73.1	83.2	57.0
증감	-2.0	-2.3	-3.0	-1.4	-1.5

(2) 초등 6학년(2018년) → 중등 2학년(2021년) 아동권리지수 변화 추이

이어서, 현재 중등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를 살펴보면 2018년 초등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에 비해 2021년에 중학교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1.8점 하락하였다(69.7점→67.9점). 생존권이 5.4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발달권은 3.2점, 참여권은 2.7점 하락하였다. 반면, 보호권은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하였는데 4.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체벌 경험과 같은 지표들과 관련된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아동학대나 폭력, 체벌 경험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4대 권리영역 가운데 보호권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33]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표 IV-8] 시계열적 대상의 아동권리지수 변화 (중2 기준)

연도(학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지수	발달권지수	보호권지수	참여권지수
2018(초6)	69.7	66.6	73.4	80.8	57.9
2021(중2)	67.9	61.2	70.2	84.9	55.2
증감	-1.8	-5.4	-3.2	4.1	-2.7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V. 결론 및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아동권리 실태조사로 파악된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과 권리경험, 그리고 발달결과 지표를 통해 대한민국 아동권리 실태와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3차에 걸친 조사 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과거 대비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간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권리지수의 종단적인 변화를 절대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4대 아동 권리 영역을 종합하여 산출한 아동권리지수는 전차 대비 미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차) 69.3점에서 2021년(3차)에는 69.5점으로 0.2점 증가하였다. 2016년(1차) 대비 2018년(2차)에 3.8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고, 각종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였던 팬데믹의 시기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동권리지수가 감소하지 않고 적은 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4대 권리영역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호권은 2018년 대비 2.5점 증가하였고, 생존권은 증감없이 2018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반면, 참여권은 1.5점 감소하였고, 발달권은 0.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의 경우, 2018년 대비 2021년에는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호권 지수가 상승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가벼운 신체학대,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2018년 대비 4.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학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은 2018년 60.0%에서 2021년 59.2%로 0.8%p 감소하였으며,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비율 또한 2018년 5.7%에서 2021년 4.9%로 0.8%p 감소하였다. 방임을 경험한 아동 비율은 2018년 10.0%에서 2021년 7.9%로 약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 또한 감소하였는데,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33.9%(2018년)에서 24.1%(2021년)

로 감소하였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46.4%(2018년)에서 37.7%(2021년)로 감소하였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험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은 2018년 0.8%에서 2021년 0.6%로 감소하였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2018년 1.8%에서 2021년 1.7%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지수는 2018년 대비 증감없이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으나, 세부 지표들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영양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식품미보장 정도는 2016년 16.0%, 2018년 16.2%, 2021년 12.7%로 2018년 대비 3.5%p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규칙적인 식사, 신선한 채소 섭취, 인스턴트/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은 2018년 대비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먼저 규칙적인 식사 비율은 2016년 67.9%에서 2018년 69.4%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 61.2%로 8.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에는 학교 급식을 통해 어느 정도 규칙적인 식사가 제공되었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한 채소 섭취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참여권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는데,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동 참여권 지수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활동 참여 두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먼저,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이 존중된 경험은 2016년 75.7점, 2018년 76.3점, 2021년 76.2점으로 나타나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 반면, 활동 참여 부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각종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4대 권리영역 가운데 참여권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세부 지표 분석 결과, 정책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 동아리, 캠페인, 기부 및 후원활동, 교류활동 참여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자원봉사 활동 참여 비율은 2016년 53.1%, 2018년 62.8%, 2021년 32.4%로 나타나, 2018년 대비 30.4%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교육 영역에서는 자녀의 학교활동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참여 정도가 가장 큰 변화를 보였는데 2016년 46.3점, 2018년 50.9점, 2021년 43.5점으로 나타나, 2018년 대비 7.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및 여가 관련하여,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016년 19.0%, 2018년 11.2%, 2021년 7.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8년 대비 3.4%p 감소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가족과의 여가활동 영위 정도는 2018년 53.4점에서 2021년 47.1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 지표 가운데 관계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부모와 친밀한 관계, 과보호 정도, 교사/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 모두 2차 대비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특히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가 2018년 74.8점에서 2021년 77.3점으로 변화하여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중단적 변화에 이어 지역별, 학년별 아동권리 수준을 횡단적으로 살펴보았다. 상대지수를 활용하여 17개 광역시도의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수는 93.4점부터 110.2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지수는 100점을 평균으로 하는데, 17개 시도 가운데 평균점수인 100점을 상회하는 지역은 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 간 격차는 16.8점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의 최고-최저 지역간 격차인 15.9점과 비교하면 다소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지수를 통해 지역간 아동권리 보장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역간 격차는 생존권(16.1점), 발달권(18.0점) 지수에 비해 보호권(23.9점)과 참여권(21.6점) 지수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8년과 2021년의 지역별 격차 추이를 살펴보면,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은 2018년 대비 최고-최저 지역간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보호권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지수의 격차는 19.5점(2018년)에서 16.1점(2021년)으로 3.4점 감소하였으며, 발달권 지수는 25.4점(2018년)에서 18.0점(2021년)으로 7.4점 감소하였다. 참여권 지수는 26.3점(2018년)에서 21.6점(2021년)으로 4.7점 감소한 반면, 보호권 지수의 격차는 16.1점(2018년)에서 23.9점(2021년)으로 7.8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권의 절대지수가 4대 권리 영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

게 나타났다가 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간 보호권 수준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4대 권리 영역 모두 권리수준 상승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학년간 격차의 경우, 2018년 13.1점에서 2021년 10.6점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간 격차는 보호권(9.7점), 참여권(13.8), 발달권(14.8점)에 비해 생존권(18.0점)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동이 인식하는 권리보장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동권리지수에 이어 개별 지표들을 통해 아동권리 실태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권리보장 환경 영역에서는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와 정보공개 민주성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이 인식하는 안전 정도는 가정, 학교, 동네, 우리나라 순으로 안전하다고 응답하여, 가정이나 학교에 비해 지역사회나 국가가 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권리 존중 정도를 살펴보면, 가정, 학교, 동네,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모두 전차 대비 증가한 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권리 존중 정도는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 환경 뿐만 아니라, 온라인 비대면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체벌 경험은 전차 대비 감소하여 일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아동들은 아동권리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두드러져 학대나 폭력 이슈가 여전히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 내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16.6%로 나타나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 학대, 체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견표현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모든 권리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마땅히 고려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들은 다른 권리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의견존중 및 표현의 자유 또한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의 권리경험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도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적 행동은 전차 대비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업/가족/외모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 현재 행복감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수준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지역사회 환경이 위생적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지역사회 내 학교들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보를 민주적으로 공개할수록 지역사회의 아동권리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를 안전하게 인식하고, 이웃과의 교류가 원활하며,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동권리지수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역 내 아동권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 제언

1)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인 아동권리 보장 방안 마련

학대와 폭력, 차별, 결식,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의 부족, 팬데믹부터 기후위기까지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요소들은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이나 차별 경험, 또는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풍토나 분위기, 살고 있는 동네의 위생이나 안전 등은 아동 개인의 영역에 존재하지만, 해당 요소들을 개선하고 아동의 권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노력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실제, 정부나 지자체는 아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 제도, 정책 등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 수준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해나갈 것인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서는 아동권리를 실현하는데 있어 법적 기반이 미흡함을 인식하고 아동기본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관계부처 합동, 2020), 현재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기본법이 아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아동의 기본 권리를 한층 구체화하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동기본법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조항과 아동 이익 최우선, 비차별, 의견존중원칙 등을 포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며, 아동 정책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권리와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더불어, 아동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 또한 중요한데, 아동권리 보장과 존중의 가치가 투영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아동정책과 제도를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지원도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다시 아동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정책 수립 및 이행, 평가의 과정 전반이 실제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GDP 대비 아동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OECD 평균인 2.0%의 60% 수준인 1.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여(관계부처 합동, 2020) 정부 차원에서는 아동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지자체 단위에서는 아동의 이익과 권리 보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아동이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의 아동권리 보장

아동 권리수준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수준이 다르다면, 아동은 또 다른 차원에서 권리 침해와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아동 권리 실태조사 결과,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권리보장 환경부터 아동의 권리경험까지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지표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도서관이나 공원 등 지역사회 내 시설 및 인프라의 경우 지역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개선이 쉽지 않으며, 지자체의 노력 외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시설 및 인프라 영역을 포함하여 지역간 격차가 큰 지표들을 중심으로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과 격차 완화/해소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 권리 보장은 성인들의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아동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아동권리를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균형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정 내 체벌과 학대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

그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과 징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사로 치부되어 어느 정도 당연시되어 왔다. 일부 부모(보호자)는 이를 정당화하였으며, 아동에 대한 체벌

과 징계가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친권자가 아동에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던 민법 제915조는 2021년 1월 마침내 폐지되었다. 하지만,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아동의 가정 내 체벌 경험은 2018년 대비 약간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에 대한 부모(보호자)의 체벌 경험 또한 2018년 51.8%, 2021년 40.3%로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후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는 징계권 폐지와 체벌 금지에 대해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한겨레(2022.6.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징계권이 폐지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성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체벌 외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신체학대나 방임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나 정서학대와 가벼운 신체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가운데 아동의 경험율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유형의 학대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비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민법상 부모의 징계권은 삭제되었으나 이것이 곧 아동에 대한 체벌, 폭력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법령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여전히 정서적 고통,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 따라서, 아동에 대한 체벌, 징계,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징계권 조항 삭제를 넘어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체벌, 폭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이중/다중 위험에 놓인 아동 발견 및 아동별 세밀한 개입 필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얼마나 복합적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한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보다, 이중 또는 다중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여있을 경우 아동의 성

장과 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결식 경험과 다중주택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즉 이중결핍/위험에 놓인 아동의 경우 발달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는 하나하나의 개별 지표를 넘어 이중/다중 위험에 놓인 아동에 대한 파악 및 개입이 중요하다면, 실천 현장에서는 이중/다중 위험이나 결핍에 놓여있는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이 놓여있는 상황별로 세밀하게 개입하는 것, 즉 아동대상 사례관리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중 위험이나 결핍을 경험하는 아동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는데, 취약한 대상인 아동, 그 안에서도 더욱 취약한 소수의 아동들 또한 배제되지 않고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아동의 참여기회 확대 필요

아동의 4대 권리영역 가운데 가장 크게 감소한 권리영역은 참여권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아동의 참여활동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자원봉사 활동이 전차 대비 30.4%p, 동아리 활동은 14.5%p, 기부 및 후원활동은 10.9%p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활동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 외에도 중학생의 경우 자원봉사나 동아리와 같이 제도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통상적 참여를 제외하면 캠페인 활동, 정책/정치 참여활동과 같은 비통상적인 참여활동의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봉사활동이나 학교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패턴이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참여권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바람과 감정,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해당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해당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비통상적인 활동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활동 마련 및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정부기구나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총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참여에

산위원회, 정책참여단과 같이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화된 체계 마련 및 제공을 통해 아동 정책 수립에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아동 참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가 성인주도의 형식적인 참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의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구현되어야 하며, 해당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보건이나 교육, 안전과 보호, 놀이와 여가에 비해 참여 분야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참여 기회 마련과 함께 참여 관련 예산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중심의 아동 참여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시켜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온라인은 물리적인 제약없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 비해 더 많은 아동들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 경로를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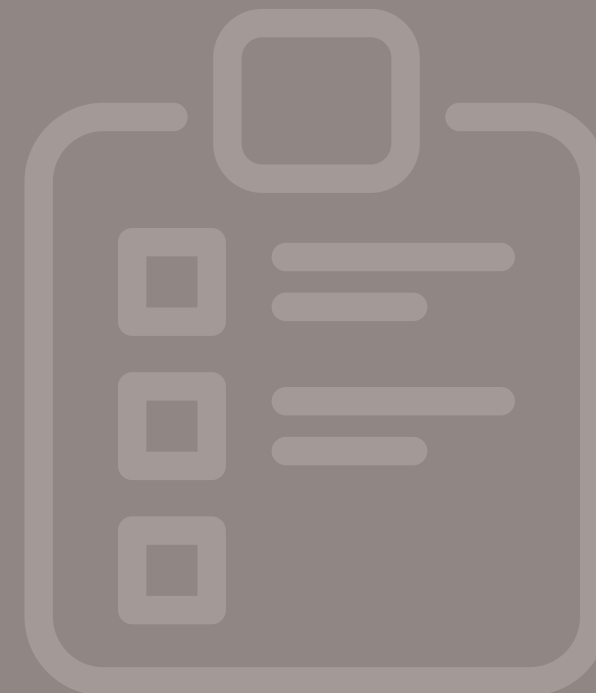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 ~’24)

교육부·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2014). 한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구정화. (2011).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 해냄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기량·김미경(2009). 식품 보장 측정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2(4), 374-385.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혜(2019).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 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미정(2019). 진로심리검사도구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윤희·김명찬·강은비·금창민·남지은(2011). 인터넷중독 진단 척도 고도화(3차)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엄나래·김형석(2018). 2017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이봉주·김기현·안재진(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봉주·김진석·이상균·우석진(2018). 대한민국 아동보호 기준선 수립연구. 굿네이버스·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봉주·신원영(2017). 2016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이봉주·장희선·신원영(2018). 2018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이재연·홍승애(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18(2), 303-330.

전경규·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최형성·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10차 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1년 한국복지패널 16차 가구용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7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9). 진로심리검사도구 개발 최종보고서.

홍관표(2021).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인권법평론, 27, 239-309.

홍순옥·이옥경(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75-90.

홍승애·이재연(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과 권리, 18(2), 303-330.

Chzhen, Yekaterina; De Neubourg, Chris (2014). Multiple Overlapping Deprivation Analysis for the European Union (EU-MODA): Technical Note, Innocenti Working Papers, no. 2014-01,

Core-Expanded Questions(2013). Global School-Based Student Health Survey (GSH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AEG-SDGs (2019). Guidelines on Data Flow and Global Data Repor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6), 555-560.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s, C. E., &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4(3), 412-32.

Straus, M. A., & Mouradian, V. E. (1998). Impulsive corporal punishment by mothers and antisocial behavior and impulsiveness of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6(3), 353-374.

OECD <https://stats.oecd.org>

교육부 <http://www.moe.go.kr>

국제아동인권센터 <http://incrc.org/>

방정환재단 <https://children365.or.kr/>

한겨레신문 (2022.6.27.). 『민법 ‘자녀 징계권’ 폐지 1년 반…10명 중 8명 “알지 못한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ID (기입하지 마세요)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td> <td style="width: 20px;"></td> </tr> </table>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권리는 어느 정도 존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여러분의 평소 생활이나 생각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변해주면 됩니다.

이 조사는 참여에 동의한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에 동의한 학생 여러분과 부모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동과 부모님으로서 본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은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법(「통계법」 제33조)에 의해서 비밀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게 됩니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연락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Tel. 02-3484-3087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문항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예1) 성별

- 여자 ② 남자

예2)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느낌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편이다.	①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PART A. 현재 상태

문 1 여러분의 성별과 태어난 연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 1-1 성별

- ① 여자 ② 남자

문 1-2 태어난 연도

- ① 2005년 ② 2006년 ③ 2007년 ④ 기타(년)

PART B. 학교, 지역사회 환경 및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인식

문 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학교가 가까이 있어 등·하교하기가 편하다.	①	②
2. 학교 시설은 깨끗하다.	①	②
3. 학교 운동장은 활동하기에 좋다.	①	②

문 3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3.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4. 학급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만약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에선 성적 때문에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문 4 다음은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로,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①	②	③	④
2.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①	②	③	④
4. 버려진 건물이나 공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집 근처에 있는 거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다.	①	②	③	④
8. 범죄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웃들과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사람들끼리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문 5 여러분은 다음의 장소에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학교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동네(지역)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 6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평소에 마시는 물은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화장실은 깨끗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평소에 담배 연기를 간접적으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미세먼지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공원 및 문화시설(영화관,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기가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나 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동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나 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7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 8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은 1) 가정이나 학교, 그 외의 장소에서 다음의 내용을 다룬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2) 각 교육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 주세요.

문항	1) 각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2) 각 교육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오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 아동권리	①	②	①	②	③	④
2. 아동학대	①	②	①	②	③	④
3. 세계시민/공동체	①	②	①	②	③	④
4. 양성(남녀)평등	①	②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①	②	①	②	③	④
6. 성추행 및 성폭력	①	②	①	②	③	④

문 9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이 존중받는 정도는 10점 만점에 각각 몇 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여성: 10점 만점 중 ()점
- ② 남성: 10점 만점 중 ()점

문 10 다음은 아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11 다음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의 권리는 가정 안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동의 권리는 학교 안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권리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아동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5. 아동의 권리는 우리나라에서 존중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PART C. 식습관 및 건강행동

문 12 다음은 여러분의 식습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먹지않음	주에 1~2일	주에 3~4일	주에 5일이상
1. 규칙적인 식사	①	②	③	④
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	①	②	③	④
3. 인스턴트 및 편의점 음식 (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	①	②	③	④
4. 고기반찬	①	②	③	④
5. 우유	①	②	③	④
6. 배달음식 (치킨, 피자, 분식, 한식, 중식 등)	①	②	③	④

문 13 식사를 편의점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① 먹은 적 없음
- ② 맛이 있거나 좋아해서
- ③ 시간이 없거나 빠르게 한 끼 해결하려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 ④ 성인 보호자 또는 가족이 먹자고 해서
- ⑤ 친구가 먹자고 해서
- ⑥ 밥을 사 먹을 만큼 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서
- ⑦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집에 어른이 안계셨거나 아파서 챙겨주지 못한 경험도 포함)
- ⑧ 기타()

문 14 지난 1달 동안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를 먹었나요?

① 항상 먹지 못했음	② 거의 대부분 먹지 못했음	③ 못 먹을 때가 종종 있었음	④ 거의 대부분 먹었음	⑤ 매일 먹었음
-------------------	-----------------------	------------------------	--------------------	----------------

문 14-1 지난 1달 동안 얼마나 자주 아침 식사를 먹었나요?

- ① 아침 식사 굶은 적 없음
- ② 시간이 없거나 늦게 일어나서
- ③ 귀찮거나 먹기 싫어서, 입맛이 없어서
- ④ 아침을 챙겨주지 않아서(부모님이 아프셨거나 집에 안 계셨었던 경우 포함)
- ⑤ 집에 음식이 충분치 않아서
- ⑥ 살 빼려고
- ⑦ 기타()

문 15 지난 1달 동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끼니를 거른 경험이 있었나요?

- ① 전혀 없었음
- ② 1~2번 정도 있었음
- ③ 3번 이상 있었음

문 16 다음은 최근 1주일 동안 '학교 밖'에서 여러분이 한 신체활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하지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이상
1.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달리기, 등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①	②	③	④
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지난 1년 동안 신체검사 이외에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①	②
2. 지난 1년 동안 치과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①	②
3. 지난 1년 동안 독감 등의 예방 접종을 1회 이상 하였나요?	①	②

문 18 여러분은 몸이 아플 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나요?

- ① 몸이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이나 약국을 가지 못하는 일이 가끔 있었다.
- ③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이나 약국을 가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 ④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이나 약국에 전혀 갈 수가 없었다.

문 19 여러분은 하루 평균 밤에 몇 시간 정도 자나요(수면시간)?

구분	평일 예) (7)시간 (00)분	주말 또는 공휴일 예) (7)시간 (30)분
1. "학기" 중에는?	1) ()시간 ()분	2) ()시간 ()분
2. "방학" 중에는?	3) ()시간 ()분	4) ()시간 ()분

문 20 평소 밤에 잠자는 시간(수면시간)은 충분한가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PART D. 학교 생활 및 방과후 생활

문 21 여러분의 학교성적은 어떠한 편인 것 같나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과목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전과목	①	②	③	④	⑤
국어	①	②	③	④	⑤
수학	①	②	③	④	⑤
영어	①	②	③	④	⑤

문 2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수업은 나에게 유익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3 학교 수업 외의 공부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 24 학교 수업 외의 공부시간은 어떤 편인가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문 25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개인)수업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 문25-1, 문25-2, 문25-3 ② 아니오 ☞ 문26

문 25-1 다니는 학원 또는 과외(개인)수업은 몇 가지입니까? ()가지

문 25-2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 주세요.

(※ 한 개 이상 표시 가능)

- ① 선행학습 ② 학교수업 보충 ③ 재능개발 ④ 취미
- ⑤ 부모님이 시켜서 ⑥ 꿈을 위해서 ⑦ 기타()

문 25-3 학원이나 과외(개인)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여러분의 놀이 및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6 하루 평균 놀이 및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구분	평일	주말 또는 공휴일
1. "학기" 중	()시간 ()분	()시간 ()분
2. "방학" 중	()시간 ()분	()시간 ()분

문 26-1 놀이 및 휴식시간은 충분한가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 26-2 놀이 및 휴식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 보기 〉	
* 오른쪽 〈보기〉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순으로 선택 (※오른쪽 〈보기〉의 숫자로 적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친구와 함께 놀기(컴퓨터/스마트폰 통한 게임 및 활동 제외) ②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하기(친구랑 또는 홀로) ③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활동(카톡이나 페이스북 등) ④ TV 시청 ⑤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이나 운동 등 ⑥ 취미 및 문화생활 (독서/악기연주/영화·음악감상/바둑/조립이나 만들기 등) ⑦ 그냥 쉬거나 잠자기 ⑧ 기타()

부모님(성인 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 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9.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말로 위협 하셨다.	①	②	③	④	⑤
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①	②	③	④	⑤
13.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5.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⑤
16. 심하게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⑤

문 33 여러분은 평일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5~7일 정도)

문 34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당한 경험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다른 아이가 →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 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를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사이버)에서 괴롭힘을 받거나 왕따를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또래친구나 선후배에게 했던 경험들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체크해 주세요.

내가 → 다른 아이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 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1.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의 신체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렸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럿이 놀 때 고의로 한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사이버)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켰다.	①	②	③	④	⑤

문 36 다음은 집과 학교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 선택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은 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6. 학교에서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생각과 의견을 말했다 때 선생님들께서는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37 다음은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회의 진행 여부를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여러분 학교 또는 학급(반)에서는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묻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나요?	①	②	③	④
3. 여러분 가정에서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편인가요?	①	②	③	④
4. 여러분 학교 또는 학급(반)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 편인가요?	①	②	③	④

문 38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관심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참고서, 학습지, 학원 선택에 대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공부를 할 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①	②	③	④
4.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5. 학급 어머니회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한다.	①	②	③	④
6. 봉사활동(교통지도, 배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7. 나의 문제나 생활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전화한다.	①	②	③	④
8.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PART F. 참여 활동

문 39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활동에 참여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예	아니오
1. 동아리 활동(연극, 댄싱 동아리 등)	①	②
2. 캠페인 활동(학교폭력 예방, 친구사랑 캠페인 등)	①	②
3. 자원봉사 활동	①	②

활동내용	참여 여부	
	예	아니오
4. 기부, 후원활동	①	②
5. 정책참여 활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자치위원회 등 자신의 의견을 국가 기관에 전달해본 경험)	①	②
6. 교류활동(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한 여러 활동들)	①	②
7. 정치 관련 집회(모임) 참여	①	②
8. 서명 및 청원(특정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원하는) 활동	①	②

PART G. 건강상태

문 40 여러분의 평소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 ① 매우 건강하지 않다 ② 건강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PART H. 정서 및 스트레스

문 41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 가장 낮은 행복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행복도 점수는 10입니다.

← 매우 행복하지 않다		보통				매우 행복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문 42 다음은 여러분 자신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5.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7.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8.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48 지난 1달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 본 문항의 답변은 학교 내 벌점과 관련이 없으며, 선생님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문항	경험 여부	
	예	아니오
1. 담배 피우기	①	②
2. 술 마시기 (제사나 종교 행사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 제외)	①	②
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	①	②
5.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비웃기	①	②
6. 다른 사람을 따돌림 시키기	①	②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②
8. 다른 사람을 헐박하기	①	②
9. 패싸움	①	②
10.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11.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12. 성폭행이나 성희롱(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 또는 성관계	①	②
13. 돈을 걸고 도박게임	①	②
14.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번호 무단 사용	①	②
15.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악플	①	②
16. 채팅/게시판 등에 고의로 허위(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경험	①	②
17. 컴퓨터/스마트폰, 잡지 등을 통해 아동이나 음란물 보기	①	②

문 49 다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내용	← 매우 행복하지 않다 보통 매우 행복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5.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10

문 50 다음은 평소 여러분의 1) 차별 받아 본 경험과 2) 차별 해 본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차별 이유	1) 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다른 사람 → 나에게)			2) 차별을 “해 본” 경험이 있나요? (내가 → 다른 사람)		
	없음	몇번 있음	자주 있음	없음	몇번 있음	자주 있음
1. 나이(어려서 혹은 많아서)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2. 성별(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3. 사는 동네(지역)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4. 성적(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못해서)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5. 가정형편(잘 살거나 혹은 못 살아서)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6. 외모(얼굴, 키, 몸무게, 장애, 피부색 등) 때문에	①	②	③	①	②	③

문 51 다음은 평소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1) 각 대상은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며, 2) 각 대상을 좀 더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차별 이유	1) 우리나라와 사회에서 각 대상은 얼마나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을까요?				2) 각 대상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할까요?			
	매우 불평등	약간 불평등	약간 평등	매우 평등	매우 불필요	약간 불필요	약간 필요	매우 필요
1. 아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여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장애인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가난한 사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인종이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성적이 좋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종교가 다른 사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뚱뚱하거나 멋지지 않거나 예쁘지 않은 사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PART I. 생활환경

문 52 다음은 여러분의 생활환경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예	아니오
1. 형제/자매나 타인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2. 4계절 모두 신는 신발을 포함해서 2켤레 이상의 신발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3. 집에 노트북 또는 컴퓨터 혹은 태블릿 PC가 있나요?	①	②
4. 집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나요?	①	②
5. 본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①	②

PART J. 생각과 가치

문 53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계획과 진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미래를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해야 할 일들을 계획 세워서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여러 직업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 본 후에 내 진로를 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나의 능력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진로를 선택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한 후에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문 54 다음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우리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55 다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간 정도인 중산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 계층: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집단	①	②	③	④
2. 우리사회는 잘 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15년 후에 나는 현재 속한 [계층]에 비해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나라가 '노력하면 더 좋은 [계층]으로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나라' 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우리나라가 [계층] 간 차이를 좁혀주기 위한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PART K. 우리나라

문 53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는 아동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는 아동의 충분한 놀이와 여가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는 어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나라는 아동을 집안환경, 성별, 종교, 연령, 인종, 지역, 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우리나라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10.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기입하지 마세요)

--	--	--	--	--	--	--	--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부모용]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로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과 생각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며, 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아동복지를 위한 전문 서비스 개발과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참여에 동의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참여를 원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서는 설문지를 다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하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사 수행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Tel. 02-3484-3087

[설문지 작성 방법]

- 본 설문지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에서 자녀 관련 응답은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설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1) 현재 설문지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예2) 다음의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느낌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4. 주관식 문항은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PART A. 동네 환경 및 주거안전

문 1 다음은 귀하의 동네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도로, 벽, 공중시설 등에 낙서가 많다.	①	②	③	④
2.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물이 자주 파손된다.	①	②	③	④
4. 버려진 건물이나 공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집 근처에 있는 거리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린다.	①	②	③	④
8. 범죄가 많다.	①	②	③	④
9. 술 취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이웃들과 문제가 있다.	①	②	③	④
11.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2. 사람들끼리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13.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기꺼이 돕는다.	①	②	③	④
14. 이웃들 간에 유대감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15.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6.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17. 사람들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문 2 다음은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의 생활시설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오
1.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 받는 것이 편하다.	①	②
2. 동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①	②
3. 동네 놀이터는 깨끗하고 자녀들이 놀기에 좋다.	①	②
4. 동네에는 공원이 가까이에 있다.	①	②
5. 동네에서 문화공간(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등)까지의 이동이 편리한 편이다.	①	②

문 3 다음은 귀하의 동네사람(이웃주민)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동네사람들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동네 사람들과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간단한 도구나 재료(예: 육아용품, 공구 등)를 빌리거나 빌려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는다. (예: 택배 송·수신, 아이 돌봄 등)	①	②	③	④
4.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저녁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에 대해 상의한다. (예: 교육 문제, 부부관계 문제 등)	①	②	③	④
6. 나는 종종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네를 벗어난 사회적 모임을 갖는다. (예: 식사, 영화감상, 스포츠관람, 나들이, 여행 등)	①	②	③	④

문 4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주택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1. 우리 집은 방습이 잘 되어 있어 곰팡이 균의 문제가 없다.	①	②
2. 우리 집은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된다.	①	②
3. 우리 집은 환기와 채광이 잘 된다.	①	②
4. 지붕이 새는 곳이 있다.	①	②
5. 천장이나 바닥, 벽 등이 축축하거나 습한 곳이 있다.	①	②
6. 창틀이나 바닥 등이 부식된 곳이 있다.	①	②
7.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실내에 갖춰져 있다.	①	②
8. 변기시설이 실내에 갖춰져 있다.	①	②
9.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문 10 다음은 체벌에 관한 귀하의 생각과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여기서 체벌이란 손, 도구 등을 이용해서 자녀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한다.

문 10-1 체벌의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적이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효과적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문 10-2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꼭 필요하다.

문 10-3 지난 1년 동안 자녀에게 체벌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② 일주일에 1~2번 ③ 한 달에 1~2번
④ 2~3개월에 1~2번 ⑤ 일 년에 1~2번

문 11 귀하께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 12 다음은 아동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PART C. 자녀양육

문 13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식생활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들은 값싼 음식을 주로 먹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문 14 지난 1년간 **비용이 부담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다음의 경험이 있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오
1. 하루에 한 번씩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2. 하루에 한 번씩 고기/닭고기(채식주의자는 단백질 음식) 또는 생선을 제공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3. 수학여행이나 학교행사에 참여시키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4. 공부 및 숙제를 위한 적절한 공간을 집 안에 마련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5. 자녀 연령에 적합한 도서를 제공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6. 야외레저장비(예,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 또는 실내게임장비(예, 교구, 블록, 보드 게임, 컴퓨터게임 등)를 제공해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7. 정기적인 여가활동(예, 수영, 악기연주, 청소년활동 등)을 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8. 특별한 날(예, 생일, 기념일, 종교행사 등)을 축하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9. 놀이나 식사에 자녀의 친구들을 초대해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문 15 다음은 귀하께서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시는 부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4. 자녀를 위한 나의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5.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부터 좋은 부모 역할을 배울 수 있는 관찰은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아이가 나를 좋은 부모라고 보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론 것이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6 다음은 귀하의 부모교육 경험과 생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참여 경험여부, 참여시간, 자녀 양육의 도움 정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참여 여부		참여 시간 (‘있다’라고 응답하신분 만 응답)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있다’라고 응답하신분만 응답)			
	없다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인터넷, TV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부모교육 강의를 들어본 경험	①	②	약()시간	①	②	③	④
2. 직장, 학교, 지역사회 기관 등에서 강의, 워크숍, 세미나 형식의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	①	②	약()시간	①	②	③	④

문 17 다음은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도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께서는 양육스트레스 또는 양육의 어려움이 있을 때 1)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2) 도움의 종류는 무엇이며, 3)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1) 도움 경험 여부		2) 도움 종류 (‘있다(○)’라고 응답하신분만 응답)				3) 도움 정도 (‘있다(○)’라고 응답하신분만 응답)			
	없다	있다	아이	정보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1. 가족(조부모, 친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이웃, 친구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종교단체 구성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사회복지기관(단체) 직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사회복지 공무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 18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입니까? ()시간 ()분

문 19 자녀와의 주된 대화주제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가지까지 선택 가능)

* 오른쪽 <보기> 중, 가장 많이 대화하는 주제 순으로 선택 (※오른쪽 <보기>의 숫자로 적어주세요)	〈 보기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학업·공부 ③ 취미생활 ⑤ 외모 ⑦ TV 프로그램/연예인 ⑨ 인터넷 사용 및 컴퓨터 게임

문 20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는 평균 몇 번 정도입니까?
(※ 하루 3끼를 기준으로 할 때, 일주일동안 총 21회의 식사가 가능합니다.)
()번

PART D. 자녀의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문 21 자녀가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1-1 ② 아니오 ☞ 문22

문 21-1 입원한 적이 있다면,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질병 ② 사고 ③ 기타 ()

문 22 자녀가 만성질환(예: 천식, 아토피 등)을 앓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3 귀하께서는 자녀와 함께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문 항	전혀 안함	1년 1~2회	1년 5~6회	한 달 1~2회
1. 관광활동 (캠핑, 여행, 소풍, 놀이공원/식물원 가기 등)	①	②	③	④
2. 스포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배드민턴/탁구/수영/요가, 경기장 가기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예술 참여 또는 관람 활동 (미술활동, 악기연주, 영화/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①	②	③	④

문 24 다음은 ‘우리나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함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아동이 살기 좋은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2. 우리나라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는 아동이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는 아동을 위한 교육환경이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는 아동의 충분한 놀이와 여가가 보장되어 있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6. 우리나라는 어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8. 우리나라는 아동을 집안환경, 성별, 종교, 연령, 인종, 지역, 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9. 우리나라는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10. 우리나라는 아동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는 국가이다.	①	②	③	④

PART E. 생활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문 25 귀하께서는 현재 **부부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별거, 사별, 이혼 등으로 부부가 함께 살고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체크해 주십시오.

← 전혀 만족하지 않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비해당
0	1	2	3	4	5	6	7	8	9	10	20

문 26 귀하께서는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전혀 만족하지 않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문 27 귀하께서는 현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 전혀 만족하지 않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	
0	1	2	3	4	5	6	7	8	9	10

문 28 귀하께서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점수를 0~10점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 가장 낮은 행복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행복도 점수는 10입니다.

← 전혀 행복하지 않다			보통						매우 행복하다 →	
0	1	2	3	4	5	6	7	8	9	10

PART F. 가구의 일반 사항

문 28 다음은 귀하 가구의 일반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하시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 국내에 살고있는 국제결혼/외국인근로자/새터민가정 등을 의미함

성 별 (본인)	연령대 (본인)	아동과의 관계 (본인)	아동의 주 양육자
① 남자 ② 여자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다문화 가정	가족형태	최종학력 (본인)	최종학력 (배우자)
① 예 ② 아니오	① 양부모 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조손가정 ④ 기타()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업 ③ 중학교졸업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대학졸업 ⑥ 대학교졸업 ⑦ 대학원 이상	① 무학 ② 초등학교졸업 ③ 중학교졸업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대학졸업 ⑥ 대학교졸업 ⑦ 대학원 이상

2021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발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인	김웅철
편집인	한유정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화	02-6424-1696
이메일	crr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발행번호	22-사07-072
I S S N	2982-5520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_Q 굿네이버스

